

THE MISSILE

1962년 10월 25일 안  
1962년 11월 1일 발

月刊

# 미사일

# 1962



特輯

## 軍人の生活 자세

스포츠·精神·健康

Y 上兵 外出 스포츠

空用 途單座 戰鬥機의 運用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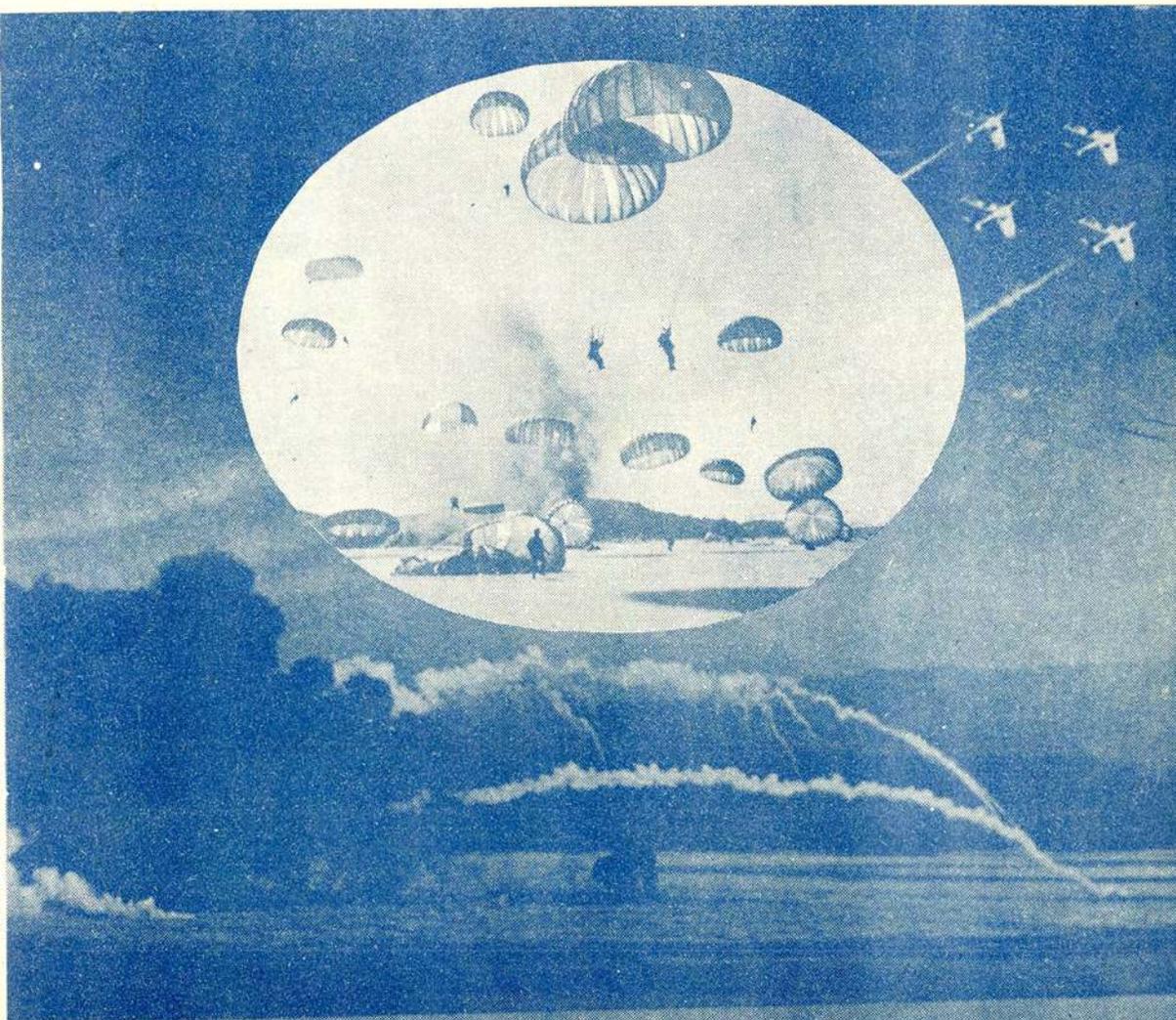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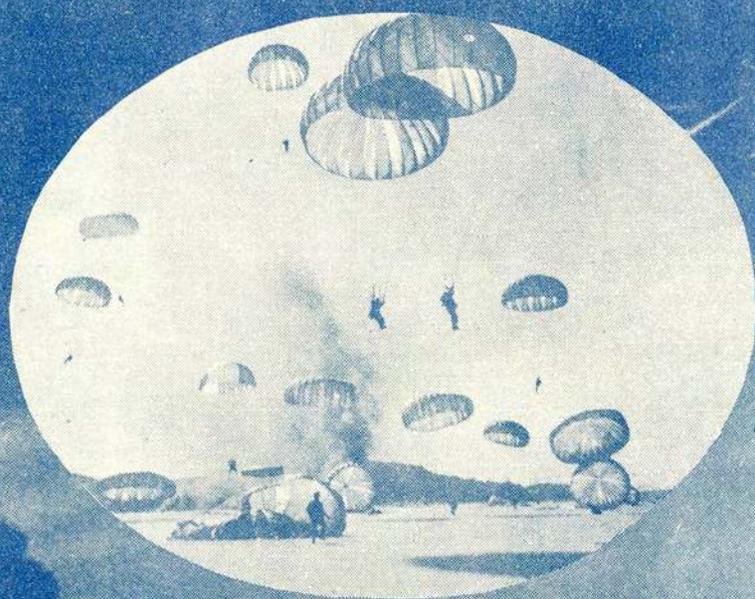
제 19 호

# 空軍戰力을 誇示

朴議長參席裡「에어·쇼」盛況

建軍 14주년 국군의 날을 기념하는 우리 공군의 「공중전시」가 지난 10월 2일 하오 2시 대통령 권한대행 국가재건최고회의 朴正熙의장 내외분을 비롯한 정부 요인파 군수뇌 그리고 「멜로이」유엔 군사령관, 참전 16개국 대표등 내외 귀빈 및 수십만 시민이 참관하는 가운데 한강 상공에서 성대히 거행되었다.

사진 下는 F-86 제트 전투기의 對地 「베이팜」탄 공격 광경 中은 낙하산장하시범.



# 有功將兵을 褒賞



국군의 날을 계기로 206명의 유공 공군장  
병에게 근무공로훈장 및 각종 표창장이 수여  
되었다.

근무공로훈장 167명

大統領表彰 8명

國防長官表彰 14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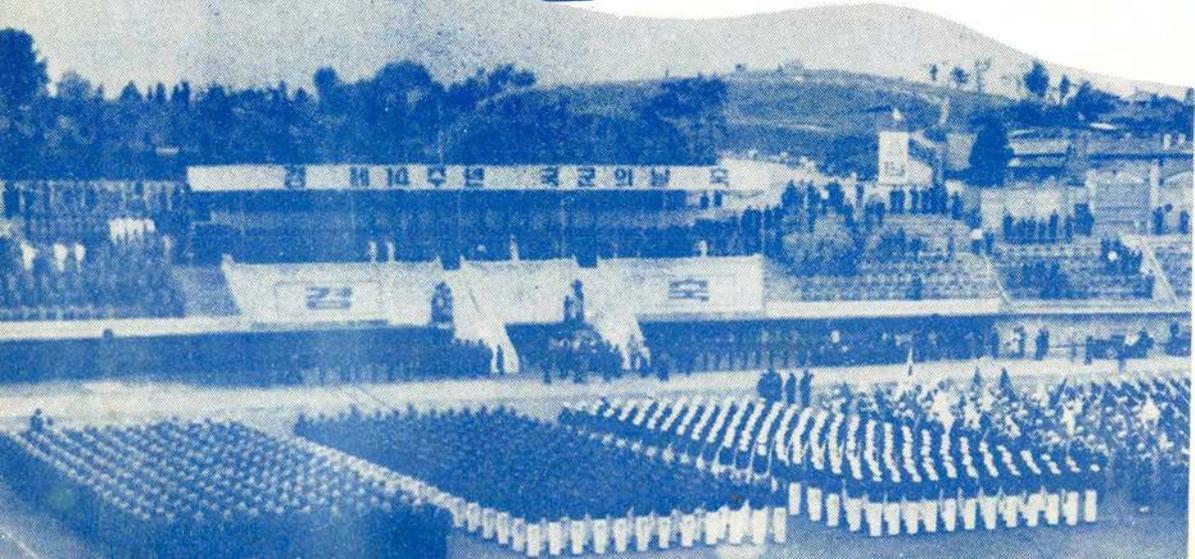
參謀總長表彰 17명

## 사진 설명

(上) 「국군의 날」 기념식장에서 최의장으로부터 훈장을 수여받는 박삼모차장

(中) 張삼모총장으로부터 훈장을 수여 받는 張작전참모부장 (左) 및 吳행정참모부장 (右)

(下) 지난 10월 1일 효창 경기장에서 거행된 건국 제 14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광경



# 박의장 모범용사를 치하



「국군의 날」기념 3군모범  
용사 환영대회가 제전국민운  
동본부 주관으로 개최되어 정  
성어린 환대를 받았다.

## 사진 설명

(上) 박의장과 악수를 교환하  
는 공군 모범용사들

(下) 박원석 참모차장과 기념  
촬영한 공군 모범용사들

## 새로운 공군기지 기공



공군력 증강에 또 하나의 거대한 초석을 놓을 光州공군기지 기공식이 지난 10월 30일 현지에서 성대히 거행되었다.

### 사진 설명

- (上)朴의장의 추력타 시동으로 최초의 정지작업이 시작되는 순간
- (中)장삼도총장의 武辭광경
- (下)기공식전



# 建軍記念 綜合體育大會盛況

공군장설 제 13주년 기념 종합체육대회가 지난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 동안에 걸쳐 본부 연병장에서 전 예하부대 선수단이 참가한 가운데 성대히 거행되었다.

## 사진 설명

- (右) 불을 끄는 배구경기
- (左) 시상식 광경



# 空軍팀 또優勝

제 1회 대통령권한대행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배 갱탄야구대회가 지난 10월 4일과 5일 이틀간에 걸쳐 서울운동장 야구장에서 개최되었는데 우리 공군팀이 또 다시 우승의 영예를 차지하였다.

## 사진 설명

- (右) 선전한 공군「팀」선수들
- (左) 막상막하의 분전중 공군선수가 흡인하는 순간





< 畫 報 >

- ◇ 空軍戰力を誇示(에어·쇼)
- ◇ 有功將兵을褒賞
- ◇ 朴議長, 모범용사를 치하
- ◇ 建軍記念 綜合體育大會盛況
- ◇ 새로운 空軍基地 起工
- ◇ 申尙澈少將 轉役式
- ◇ 柳達永先生 강연회 성황
- ◇ 空軍軍樂隊 巡回公演

이달의 말

義에의길

金八峰 (二)

특집 軍人の生活자세

새世代가 要求하는 民主軍隊

軍階級論

軍人과 紳士道

軍人과 私生活

이런 軍人을 願한다

思想的 信念이 강한 軍人을  
意志와 決斷性 있는 軍人을  
餘暇를 선용하는 軍人을  
바듯한 人間性을 가진 軍人을

文重燮 (一〇)  
李燭錫 (一〇)  
柳光烈 (一四)  
韓鶴洙 (一七)  
吳允根 (二〇)  
鄭然喜 (二一)  
金得順 (二三)  
韓貞蘭 (二四)

리 部隊의 導 部落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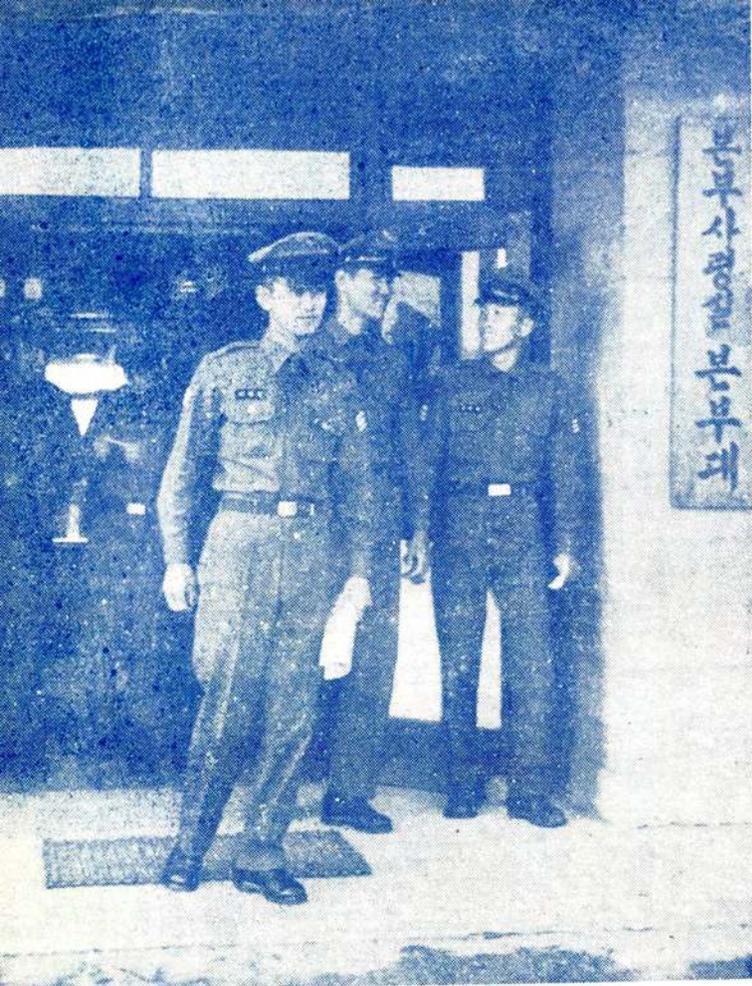
飢餓의 歷史를 清算

교재 창篇 (二五)

表紙·文 學 普  
目次·誌·編 慶 熙

## 군진수칙

- 一. 나는 대한민국 군인이다.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신명을 바치겠다.
- 一. 나는 항복하지 않겠다. 나는 전력을 다하여 끝까지 싸우겠다.
- 一. 나는 만약에 포로가 되더라도 계속 항거하고 전력을 다하여 탈출하며 전우의 탈출을 돕겠다.
- 一. 나는 만약에 포로가 되더라도 아국이나 우방에 불리한 여하한 적의 권고나 우대도 거절하여 추호도 적을 도움지 않겠다.
- 一. 나는 만약에 포로가 되더라도 기밀을 엄수하고 전우를 보호하고 선임자면 후임자를 통솔하고 후임자면 선임자의 명령에 복종하겠다.
- 一. 나는 만약에 포로가 되어 심문을 받더라도 계급, 성명, 군번, 연령을 제외하고는 진술을 회피하며 아국과 우방에 불리한 성명 기타 여하한 요구에도 응하지 않겠다.
- 一. 나는 조국에 신명을 바친 대한민국 군인임을 명심하고 나의 행동에 책임을 지겠다.
- 一. 나는 조국을 사랑하며 조국은 나를 보호하고 있음을 확신한다.



카메라·루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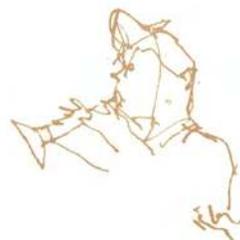
# Y上兵의 외출스냅

사진.....下士 한 상 철

지난 9월 어느 일요일, Y상병은 외출 하였다. 이날 그는 9시부터 21시까지 외출허가를 받아 영문을 나셨다.

즐거운 외출—얼굴에 미소가 넘치고…… 그는 오늘, 과연 무엇을 하고 돌아다닐까?

어디, 여기서 그의 뒤를 따라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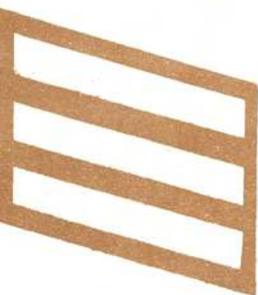


영문을 나선 Y상병은 발걸음도 가볍게 버스 정류소로 나갔다. 시내 버스는 언제나 만원이다. 마침 자리가 하나 비어 그 곳에 앉았다.

다음 정류소에서 노인이 한분 올라와서 자리가 없어 허둥지둥하자 우리 Y상병은 얼른 일어나서 노인을 부축했다.

Y 상 병 「할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할아버지 「고맙소, 혁명후 우리 국군은 참 친절해 졌단 말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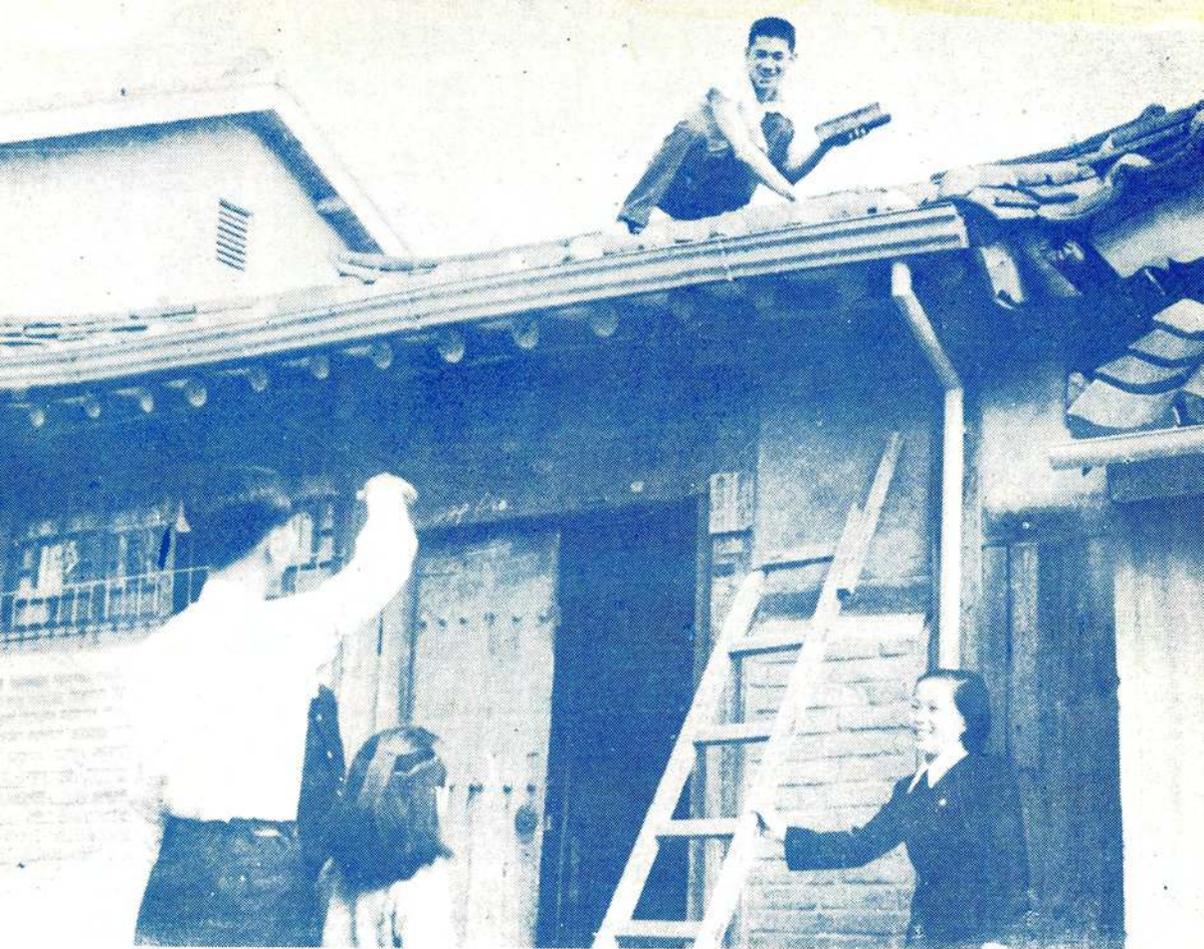
집에 간 Y상병은 아버지, 어머니에게 그 동안의 안부를 여쭙고 동생들과 따뜻한 인사를 나누었다.

부모님과 동생들은 Y상병이 이번에 상병으로 진급한 계급장을 만져보며 함께 즐거워 했다.

그리고 어머니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다.



Y상병 「저이들 내무반에서는 누구나 옳고 바른 일을 출신해서 하고 있어요. 옳고 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사회는 옳고 바른 사회가 될거구요, 옳고 바른 사회가 되면 국민이 모두 잘 살수 있는 나라가 되겠어요.」  
 아버지 「암, 그렇지 그렇지말구. 군인 뿐만이 아니라 국민은 모두가 그래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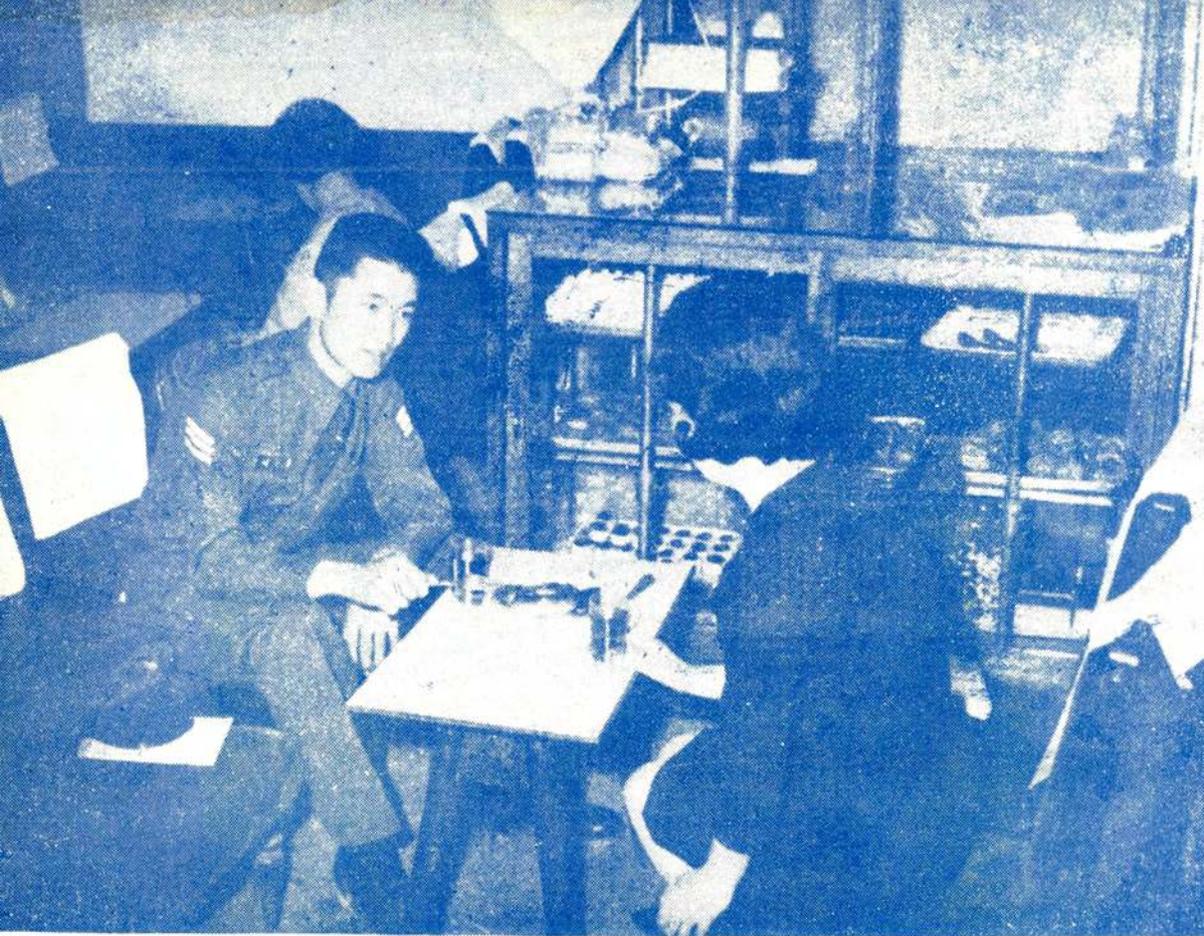
Y상병은 어머니로부터 지난 비바람에 기왓장이 깨뜨러졌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러자 Y상병은 즉시 작업복으로 갈아 입고 지붕에 올라가서 수리를 했다.

아버지 「애, 내려와. 모처럼 집에 와서 그러면 이웃 사람이  
흥브겠다.」

Y상병 「아버지, 모르는 말씀예요. 일을 하는데 왜 흥을 볼  
니까. 저이들 군인은 그러한 생각에서도 이미 혁명  
을 했읍니다.」

아버지 「음, 네가 군에 가더니 아주 훌륭해 됐구나.」





점심을 먹자 Y상병은 집에서 시내로 나갔다. 그가 좋아하는 걸·후렌드 미스 K는 미리 알려진 다과점에 어김없이 나와 있었다.

미스K 「어마나, 또 진급하셨네요. 축하합니다.」

Y상병 「고맙습니다. 그런데 미스K의 그 간소한 차림이 맘에 드는군요.」

미스K 「사치는 재건의 적이니깐요.」

Y상병 「미스K는 정말 훌륭해. 어디 오랫동안 만에 극장이나 안내할까요.」

미스K 「아이 좋아. 전, Y상병님과 함께 갈려구 그동안 한번두 안갔어요.」





극장에서 나온 Y상병은 K양과 헤어져야만 했다. 그에게는 보다 중요한 일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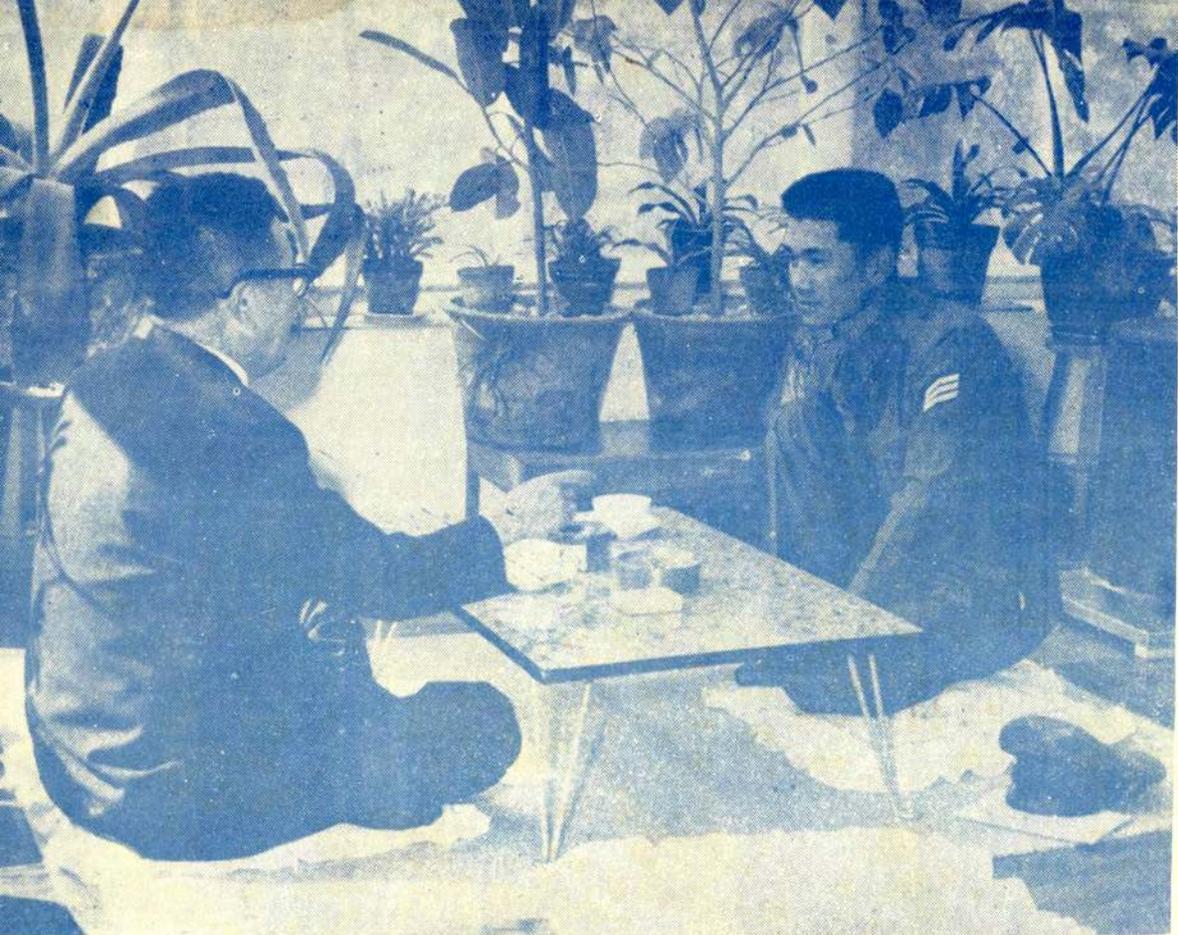
Y상병 「미스K, 미안하지만 여기서 헤어져야 겠군요. 미스K와 하루종일 놀  
구싶지만 꼭 해야할 일이 남아있어서……」

미스K 「알겠어요. 은사 선생님을 만나뵈러 가시죠? 정말 Y상병님은 훌륭  
하셔.」

Y상병 「미안해, 그럼 다음 외출시까지 안녕-」

미스K 「안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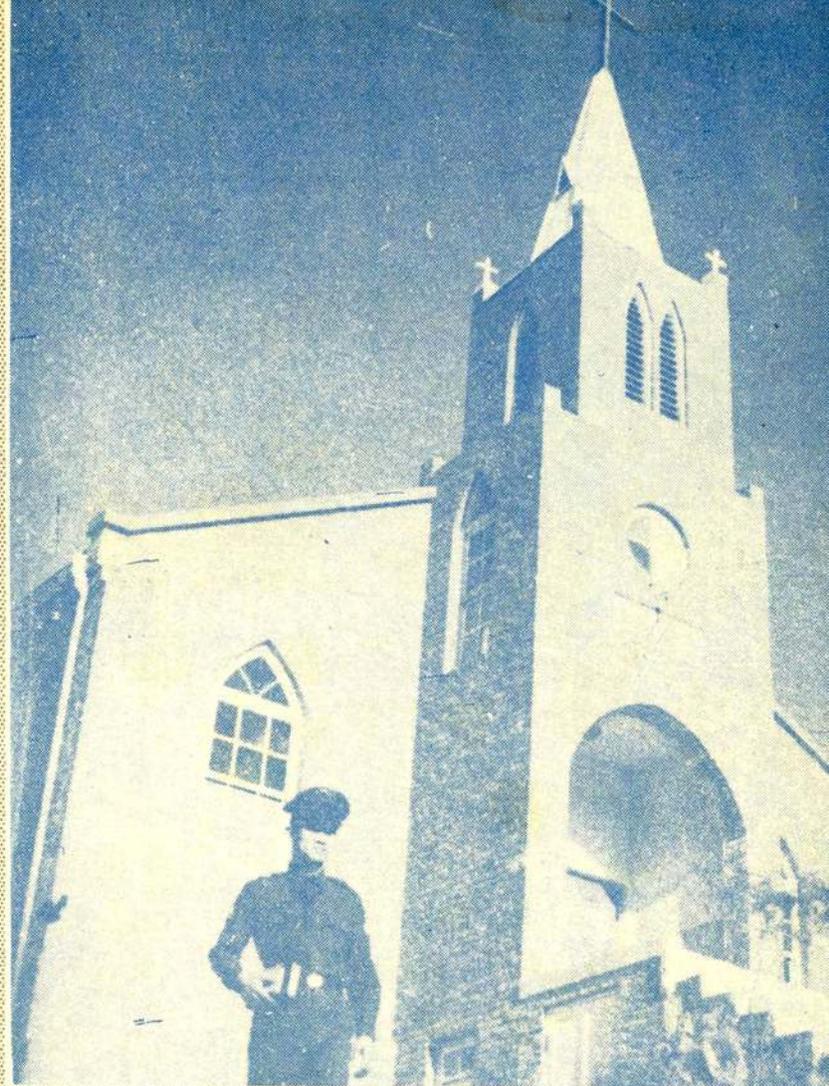
미스K와 헤어진 Y상병은 그가 가장 존경하고, 또 그를 가장 아껴주며 사랑해 주는 중학교 은사를 방문했다.

은 사 「지난 여름의 가뭄을 극복하는 데는 군인들의 힘이 컸어. 그땐 비가와서 풍년이 됐지, 하늘이 무심치 않아서…….」

Y상병 「선생님, 전 국민이 서로 돕자는 것이 혁명정신이 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고 했으니까요.」

은 사 「올은 말! 자네한테서 그러한 말을 들으니 먹지 않아도 배가 불러지는 것 같네. 허 허 허…….」





Y상병은 은사로부터 기념으로 두 권의 교양서적을 선사받았다. 그리고 은사대를 하직한 그는 언덕 위에 있는 교회에 들려 경건한 기도를 올렸다.

“하나님, 오늘 제가 이렇게 유쾌하고 즐겁게 하루를 즐길 수 있게된 것을 마음으로 감사히 생각합니다. 전 국민의 건강과 우리의 혁명사업이 보다 훌륭하게 성취되겠음, 그리고 우리에게 보다 더한 용기와 희망과 성실함을 내려 주시옵기를……”

서울 시가가 시야에 들어 왔다. 자꾸 세워져가는 고층 건물들, 마치 서울시 전체가 하나의 공사장과 같이 일 하기에 바쁜 시민들의 모습이 그지없이 마음 든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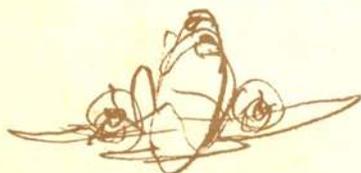


교회에서 발을 옮긴 Y상병은 뒷 철로 내려갔다. 그는 아직 시간이 있었기에 농촌풍경을 보고 싶었던 것이다.

그 곳에는 누렇게 무르익은 논이 시야에 펼쳐졌다.

그의 머리 속에는 지난 여름에 가뭄으로 애타우던 농민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지금 이 들판에 가득찬 알진 벼 이삭은 피 땀 어린 농민들의 노고의 상징이 아니냐.

Y상병은 들판을 바라보며 벅찬 감격을 느꼈다.





그 길로 다시 집에 돌아온 Y 상병은 부모님께 오늘의 소감을 말씀드렸다.  
그리고 저녁을 먹고 귀영하였다.

외출허가시간 30분전, 20시 30분에 여유있게 귀영하여 보고하였다.

주변사관 「잘 다녀왔나?」

Y 상병 「많이 느끼고 많이 배웠습니다. 모두가 마음 든든한 모습이 었  
읍니다.」



미 사 일

제 19 호



1962

發行處·空軍本部 政訓監室  
發行兼編輯人·空軍大領 朱貞鎬  
印刷處·空軍教材廠  
印刷人·空軍大領 金石桓

세상에는 깨끗한 것이 있고, 그 반대인 더러운 것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옳은 일이 있는 반면, 옳지 못한 일도 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깨끗하고 옳은 일이고, 어떻게 하는 것은 구지 폐하고 나쁜 일이라는 것을 아는 일은 어느 것이 회고 어느 것이 집다는 것을 아는 일과 마찬가지로 알기 쉬운 일이다. 그런데도 옛적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알기 쉬운 도리와 사실을 곧잘 뒤집어 버리기 때문에 일생을 망치거나 혹은 얼굴에 똥칠을 하는 예가 적지 않으니, 회고 검은 것을 알고, 옳고 나쁜 것을 안다는 일이 쉬운 일이면서도 아마 어려운 일인가 보다.

자기 자신의 마음 가짐과 행동함을 항상 깨끗하고 옳게 갖는 사람은 의(義)로운 사람이요, 깨끗하고 옳은 일을 발전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구지 폐하고 나쁜 온갖 해로운 것들을 물리치는데 용감한 사람은 의(義)에 사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가난한 사람의 동무입네 하고, 우리나라 북쪽에 나타나서 남강도 같이 백성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자유롭게 이야기도 못하도록 백성을 억압하는 김일성 도당을 피해서 자유대화로 넘어 온 수백만의 이복동포들은 의(義)를 사모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六·二五 일요일날 새벽을 기해서 남강도 같이 폐지여三八선을 넘어 우리나라를 덮친 김일성 도당과 마주 싸워왔고, 지금도 저 남강도가 넘어오기만 하면 쳐부시려고 밤과 낮, 하늘과 땅과 바다 위에서 조국을 지키고 있는 군인들은 모두가의 의(義)를 위해 싸우고 의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자오를 가진 사람이다.

의(義)는 정의(正義)를 이른다. 옛날 성인은 말하기를, 무엇이 없으면 어가질 때에는 그것을 갖는 것이 의로운 일에서 벗어남이 없다가 생각하라—고, 말씀 하였다. 단돈 천원을 얻었을 때에도 그 돈이 자기 손에 들어오게 됨에 있어서 경우에 어긋남이 없는가, 당연한 이유가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고 나서 그 돈을 얻어 가져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경우에 옳고 구지 폐한 조건이 붙어 있지 않은 돈인 것을 안 이후엔 그 돈을 받아서 주머니에 넣어도 괜찮다. 지나간 돈은 그만두고 「四·一九」와 「五·一六」 이후만

하더라도 과거에 정쟁하던 사람들이 불의(不義)의 돈을 주고 받은 까닭에 신세를 망치는 꼴을 우리는 보았다.

이와 같이 돈이나 기타 재물로 말미암아서 의(義)를 지키지 못하는 일이 있을 뿐 아니라 지위와 노력과 명예와 여성(女色)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종종 불의(不義)를 저지른다. 친형제간에 재산 때문에 소송하는 일은 너무도 흔하게 보아온 일이거니와, 옛날에는 친형제 또는 숙질 사이에 임금님의 지위를 빼앗아 제가 임금되려고 상대를 죽이기까지 한 일이 동·서양에 수무록하다. 어린 조카를 뒷방으로 치우고, 자기가 임금된 후 사육신(死六臣), 생육신(生六臣)의 이름을 남기게 한 세조대왕(世祖大王)이라든가, 아버지 저에게 임금자리를 물려 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앓고 누워 있는 아버지에게 독약을 뿌린 약발을 올려서 목숨을 끊어 버린 후 임금자리에 올라가기는 했으나, 불과 一四년밖에 인조반정(仁祖反正)으로 쫓겨난 광해군(光海君) 같은 이는, 부귀를 탐했기 때문에 불의(不義)를 저지른 대표적 인물이었다. 그러기에 친구를 사귄데 있어 우리네들 대중사회에서는, 그 친구와 술집에 가서 취도록 술도 마셔보고, 돈내기도 노름도 해보고, 기생집 오입도 같이 다녀보고서라야 진짜 그 사람의 인간됨을 알 수 있다고 말한다. 사실 말이 지술 취한 사람은 저의 본색을 감추지 못하고 들이내 놓으며 노름에 잃지 않고 따기 위해서는 교활한 재주와 중간을 쏘아 놓으면서도 지치지 않을 것이고, 제집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친구의 체면도 돌보지 않는 것이 보통인 까닭이다. 주색장기(酒色雜技)를 같이 해도 싸움판에서 목경을 같이 치러도 평상시와 변함이 없는 그런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는 영원히 사귀어도 배반 당하지 않을 좋은 친구라는 말이다.

그러니까 의(義)는 부모, 처자, 형제간에 의와 친구간에 있는 의와, 군신(君臣)——즉 국가에 대한 의——쉽게 나누어서 이렇게 세가지도 나눌 수 있다. 부모와 자식사이, 또 남편과 아내사이, 형과 아우사이의 군은 의리에 관해서는 고구려 평강왕(高句麗 平岡王)의 공주와 바보 온달(溫達)의 이야기를 위시해서 우리나라 역

사에도 많고, 또 우리가 신문같은 데서 자주 보는 이야기이니 그만 두고, 친구 동지 친구(戰友)간에 빛을 빛낸 공은 의리에 관해서도 국군 용사들 사이에 눈물겨운 사실이 많으니 그것도 그만 두고, 군인 사이에 피어났던 눈물겨운 불행한 의리를 하나 들어보면 중국 고대 역사에 있는 진문공(晉文公)과 개자추(介子推)의 이야기다.

기원전 六七五년경, 중국 땅 서북쪽 한 구석에 쫓나라가 있었고, 그 임금 진현공(晉獻公)은 아들이 五형제였으나 후궁 소생의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함으로, 둘째 아들 중이(重耳)는 무신(武臣)으로 있는 개자추(介子推) 외에 임금 사랑과 함께 신변의 위험을 느끼고 자기나라에서 빠져 나와 三十九년 동안을 다른나라로 망명하여 다니다가 본국으로 돌아와서 임금이 되었었다. 중이가 망명하여 다니는 동안 어느 때 일행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었다. 여러끼니를 굶어 중이가 콧피 시장했을 때 개자추는 자기의 넓적다리살을 베어 그 고기를 중이에게 먹인 일까지 있었다. 신하로서 자기가 장차 임금으로 추대하려는 공자에 대한 의(義)였다. 그랬는데 망명 三十九년 만에 고국에 돌아가는 때 중이를 모시고 같이 다니던 동지들에게서 개자추는 인적적 불만을 느꼈다. 이런 친구들과 더불어 공을 다룰 필요가 없다고 그는 결심했다. 그리고 중이는 본국에 돌아와 임금이 되었으니, 그가 곧 진문공(晉文公)이다.

진문공은 나라를 중흥시키에 당하여 논공행상을 하는데, 개자추가 진앞에 안보임으로써 그를 압박 있어 버리고 다른 공신들만 일등, 이등, 삼등 세계급으로 나누어 명단을 발표시켰다. 이때 본국에 돌아온 길로 집에 들어앉아 팔십노모만 모시고 두 분을 불러서 개자추는 이 사실을 친구로부터 전해 듣고서, 공을 서로 섬기는 친구들과는 섞이고 싶지 않다 생각하고 즉시 팔십노모를 모시고 진나라 서울 장주(絳州)에서 가까운 면산(綿山)이라는 산속으로 들어가, 풀뿌리 나무 껍질을 먹어가며 깨끗하게 여생을 보내려 하였다.

그런데 진문공은 며칠 지나서야 논공행상에서 개자추가 빠진 것을 깨닫고 힘이 센 위공량(魏公諒)으로 하여금 개자추를 찾아오라고 편상으로 보냈다. 임금으로서 신하에 대한—살을 베어서 먹

여 주기까지 한 신하에 대한 의(義)를 지키고자 함이었다.

위공량은 면산 밑에서 주막집을 찾아 물어 보았더니, 과연 며칠 전에 五十여세 된 사람이 八十노모를 업고 산으로 올라가더라 함으로, 그는 메리고 온 군사들과 더불어 이를 동안이나 이 골짜기 저 골짜기 살살이 산속을 뒤져 보았다. 그러나 개자추는 보이지 아니 함으로 그 넓은 산을 매주 밟듯 찾아 다니기 보다, 산에 불을 질러 놓으면 개자추가 제 스스로 나올거 아닌가—위공량은 이렇게 생각하고 산에다 불을 질렀다.

산을 에워싸고 불길이 타올라 올때 개자추는 암굴(岩窟) 앞에 있는 바드나무 밑에서 자기 어머니를 보고, 『어머니! 아마 조정에서 저를 찾는 모양입니다. 절머리 제발로 나오라고 불을 질른 모양인데, 저는 안가겠어요! 나가기만 하면 벼슬을 지킬테니,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 하구 같이 국록을 먹느니 차라리 이 산속에서 죽어 버리겠어요!』

이같이 말했다. 어머니도 아들의 심정에 동감했다. 『네가 몸을 깨끗하게 갖기 위해서 안나간다면, 나도……』 이어서 결국 개자추와 그 어머니는 기어이 불속에서 안나오고 타 죽었던 것이다. 이때가 주양왕(周襄王) 一六년—기원전 六三六년이었다. 위공량이 면산에다 불을 지르던 날이 三월五日이었던 까닭으로 그 후부터 진나라 백성들은 해마다 三월五日 청명(淸明)절 후가 되면, 최후까지 옳고 깨끗하게 불을 피우지 않고 밥을 짓지 아니했다. 그리하여 이 풍속이 중국 전토에 전파되고, 우리나라에까지 전파되어 지금도 해마다 동지(冬至)날부터 이산해서 一百五일되는 청명절(淸明節)의 다음날을 한식일(寒食日)이라고 정하여 이를 지키는 것이다. —개자추한 사람의 의(義)를 지킨 행적이 이렇게 많은 사람의 가슴을 울리면서 내려 왔으니, 인류사회에서 가장 귀한 것은 의(義)가 아니겠는가.

四·一九는 한 사람의 독재 十여년을 참고 견디어 온 전 민중적 의(義)의 봉기였었다.

五·一六은 김일성도당의 간첩침략을 무전에 당하면서 무능과 부패에 빠져있는 구정치인으로 부터 조국의 위급한 운명을 바로 잡기 위한 군사적 의(義)의 켈기였다.

우리는 의(義)에 살고, 의(義)에 죽기를 맹서한 사람들이다.



# 軍人의 生活 자세

새 시대는 새로운 人間을 要求한다. 그리고 새 時代의 展開는 우리 軍人 個 人에게 새로운 倫理觀 價値觀의 確立을 要求한다. 오늘날 우리 國家社會가 要求하는 참된 軍人의 生活姿勢는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 새 時代가 要求하는 民主軍隊

文 重 燮

☆ 陸軍政訓學校長

### 一、花郎道 精神과 國軍 의 位置

一、新羅의 花郎道 精神  
人類社會는 文明이라는 利器를 가지고 날

로 發展하여 왔다. 國家社會의 發展盛衰가 거듭됨에 따라 軍隊社會도 그 社會에 適應할 수 있도록 發展하여 왔음은 歷史가 이를 實證해 주고 있다. 原始社會를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軍은 國家의 國防로서 주어진 任務에 忠實하

여 왔음은 再言할 必要조차 없다. 옛날부터 軍隊社會는 그 國家의 젊은 靑年들이 모여 強力한 集團을 組織하고 이들에게 國家가 必要로 하는 教育과 軍事訓練을 實施하여 武士道의 精神을 涵養시켜 왔다. 「武士道」란 御暴保民의 武士道精神을 말

御暴保民을 爲한 教育의 理念은 그 民族의 性과 國家觀에 依하여 決定된다. 換言하면 人類社會가 發展함에 따라 國家間的 「倫理問題」와 「國防問題」는 一定할 수가 없다.

그 例로서 過去 日本은 軍國主義를 維持發展시키기 爲하여 學生들에게는 義務的으로 「修身」이라는 道德教育을 強化하였다. 그들은 人生을 銃과 칼로서 修練하여 正義의 道로 살자는 그들의 思想이 바로 「武士의 道」인 동시에 日本民族의 「大和魂」이 되어 있었다.

또한 共產主義國家에서는 共產主義思想教育을 道德과 結付시켜 熱誠黨員을 養成하고 있다는 事實을 確實히 우리는 알고 있다. 오늘날 民主國家에서의 道德教育은 帝國主義國家나 共產主義國家와 같이 어떤 強壓의 「힘」으로써 一元的인 教育을 實施하기가 大端히 困難하다.

왜냐하면 各家庭에서부터 받은 宗教的인 道德 地域的인 風俗 또한 習慣 등은 어떠한 「힘」에 依하여 妨害할 수도 없고 또한 妨害해서도 안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人間이 社會生活를 營爲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高貴하게 생각하는 것은 倫理問題이기 때문이다.

孔子는 「人之相知」면 「貴相之心」이라고 말하였다.

即서로가 理解하고 서로 도와 아끼는 高貴한 마음은 人知의 源泉이 된다고 하였다. 바꾸어 말하면 人間의 和睦은 秩序維持의 基礎가 되는 동시에 한 걸음 더 나아가 人類平和의 基礎가 된다는 말이기도 하다. 옛부터 우리나라의 花郎道精神은 東方文化의 礎石이 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花郎道の 魂은 「不滅의 正氣」로서 永遠히 살아 있다.

花郎道精神(花郎魂)을 創導한 圓光法師는 姓이 朴氏로서 佛敎를 道學한 道學者인 卍만 아니라 新羅의 聖人으로서 西紀五百三拾一年에 誕生하여 九十九歲를 一期로 別世하신 분이시다.

圓光法師는 「忠·孝·仁·勇·信」의 五德을 理念으로 하여 新羅의 젊은 花郎들을 指導하였다. 花郎의 「五德」를 말하면 「忠」으로서 임금을 섬기고, 「孝」로서 父母를 섬기고, 「信」으로서 벗과 사귀고, 戰爭에 臨하여 물러나지 아니하고 殺生을 慎重하게 하자는 말이다. 그러므로 新羅의 花郎들은 英姿奮發하는 愛國建兒들의 集團體로서 文武兼備케 하기 爲하여 「五德」로서 心身을 鍊磨케 하였다.

二、國軍의 當面課業

- 3、軍紀確立
  - 2、戰團態勢의 完備
  - 3、國家의 安全과 軍의 使命
- 三、民主軍隊의 組織과 理念

一、花郎道 精神과 國軍의 位置

- 1、新羅의 花郎道精神
- 2、國軍의 位置

었다. 當時 新羅의 花郎들은 國家의 防牌가 되고 國民들에게는 率先垂範하여 國民의 儀表가 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當時 新羅의 百姓들은 젊은 花郎들에게 對하여 崇尚의 對象이 되어 있었다. 뿐만 아니라 當時 花郎들의 氣風은 國內外的으로 그 威勢를 자랑하였다.

二、國軍의 位置

이와같은 傳統을 이어받은 大韓의 國軍勇士들은 共產帝國主義者들에 依하여 操縱된 「濟州暴動事件」을 비롯하여 「麗順叛亂事件」에서 大韓의 花郎들은 이들을 鎮壓하는데 勇敢하였다.

特히 六·二五戰亂當時 重武裝으로 裝備된 北韓傀儡軍에게 大韓의 花郎들은 맨주먹과 알몸뚱이로 敵軍의 重武裝戰車에 뛰어올라 勇敢하게 敵의 戰車를 破壞하였다.

優勢한 兵力과 裝備를 가지고 破竹之勢로 南侵하는 敵軍에 對하여 우리 國軍은 劣勢한 兵力과 裝備로서 共產帝國主義者들의 侵略을 洛東江戰團에서 여지없이 沮止粉碎하였다.

이렇게 劣勢한 裝備와 兵力을 가지고 共產軍의 侵略을 沮止하였다는 嚴然한 이 事實은 우리나라에만 局限되는 問題가 아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亞細亞 및 自由世界를 救하는 길이 되었던 것이다.

戰亂中 大韓의 젊은이들은 中共의 人海戰術로 因하여 慘憺한 殺肉戰爭을 하여야 했다. 그러나 大韓의 花郎들은 하나밖에 없는 自己生命마저 달갑게 바쳐가며 싸운 젊은 花郎들의 崇高한 精神은 기울어져가는 國運을

바로 잡아 놓았다.

이와같은 新羅時代부터 이어받은 花郎道精神은 오늘날 우리 國軍에게 確固不動한 精神의 基盤이 되었다.

그러므로 大韓의 花郎들은 不義 不正 腐敗와는 妥協할 줄 모르고 오직 正義를 爲하여 싸우고 있는 加담에 救國을 爲하는 五·一六 軍事革命은 全國民의 絶對的인 支持를 받아 國民革命으로 展開되어 民族的인 革命課業을 完遂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보다 잘 살 수 있는 國家萬年大計의 기틀을 닦고 있는 同時에 頹廢한 民族正氣와 國民道義를 바로잡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課業을 完遂하기 爲하여서는 무엇보다 먼저 全國民은 革命隊列에 參加하여 指導者들의 指導를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大韓의 花郎들은 國民들에게 眞實한 守護者가 되어야 하고 親切한 協助者가로서 그의 役割을 擔當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軍隊는 社會에 놓여 있는 特權社會가 아니기 때문이다. 오직 國家와 民族을 爲하여 國民들이 本陣子弟들이기 때문에 磐石같은 國民의 守護者로서 國家에는 防牌가 되고 國民들에게는 親切한 協助者로서의 役割을 다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軍事的으로는 百戰百勝할 수 있다는 入戰技를 鍊磨시키고 倫理的으로는 人格陶冶에 全力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軍隊의 道義教育은 義俠心을 鍊磨하는 同時에 正義와 責任感의 透徹하도록 心身을 鍊磨하는 入修鍊場이 되어야 한다.

이와같은 教育은 戰時와 平時로 區分하여 教育되어야 한다.

即 戰時에 軍人は 戰鬪集團의 一員으로서 敵과 싸워 勝利할 수 있는 軍人을 育成하여야 하고 平時의 軍人は 國家産業振興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教育되고 訓練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敵과 싸울 때에는 勇敢無雙하여야 하고 國民들을 對할 때는 知慧있는 協助者로서 國民들에게 模範이 되도록 教育하고 訓練되어 眞正한 國民의 指導者를 養成하여야만 民族的인 우리의 課業은 完遂될 수 있기 때문이다.

### 二、國軍의 當面課題

#### 一、軍紀確立

軍隊社會는 軍紀로서 維持되는 것이다. 軍隊가 軍紀確立이 이루어지지 못하고는 國防을 擔當할 수 없으므로 「軍紀는 軍의 命脈이다」라고 兵學家들은 말하였다.

그러므로 嚴正한 軍紀는 軍의 士氣를 測定하는 基本要素가 되는 것이다. 軍隊만의 特徵인 統帥系統은 縱的인 嚴格한 軍紀로서 制約된다.

休戰以後 軍의 軍紀가 弛緩되었다는 것은 直接的인 戰鬪行爲가 停止된데서 基因되는 心理的인 變化에도 있겠으나 休戰을 機會로 一部 知覺없는 軍人들의 所行에 依하여 잠지나마 腐敗했던 때도 있었다.

救國革命의 主體勢力인 우리 國軍이 萬一 理性을 떠나 個人의 感情이나 利己主義的인 心思에서 上級者와 同僚를 中傷謀陷하고 統帥系統을 紊亂시키는 輕舉妄動한 行動이 있다면 軍紀를 有害롭게 할 뿐만 아니라

아가서는 國家存立을 危殆롭게까지 하게 되는 것이므로 自己 스스로가 저지른 過誤를 合理化하려는데 腐心하지 말아야 하고 또한 해서도 안된다.

그러므로 各自은 冷徹한 反省과 良心으로 말은 바 責任完遂에 全力하여야 한다.

#### 二、戰鬪態勢의 完備

戰鬪態勢의 完備를 爲하여서는 先軍은 軍本然의 任務에 忠實하여야 하는 同時에 現代戰略에 適應하는 人員 裝備와 編制 그리고 現實的인 衣·食·住·行의 問題가 解決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軍은 本然의 使命만을 任務로 成立人員裝備는 敵國에 比하여 質的 量的으로 優勢한 位置에 놓이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같은 問題는 大戰略的인 見地에서 國家의 資源이 問題되는 것이다.

現下 우리나라는 美國을 爲始한 自由友邦 國家로부터 援助를 받는 受惠國인 立場에 놓여 있으므로 우리가 要望하는 대로는 이루어질 수는 없다.

그러므로 于先 지난날 獨裁政權下에 權力 擴大를 爲하여 이루어졌던 不合理한 制度나 非民主的인 機構와 編制는 早速히 檢討되어 現代 戰略思想에 適應토록 是正되어야 한다.

換言하면 急激히 變遷해가는 時代的인 條件下에 그 機能이 効率的으로 發揮되도록 繼續研究되어야 한다.

以上에서 論한바와 같이 諸般問題의 解決은 한 사람의 方針이나 몇 사람의 努力만으로 絶對不可能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正義와 愛國心에 불타오르는

은 干城들의 誠實한 努力과 徹頭徹尾한 實踐으로만이 그 成果를 期待할 수 있다.

그러므로 軍의 干城들은 上信下愛의 崇高한 精神으로서 和陸團結을 圖謀하여야 하는 同時에 上部에 命令이나 指示가 없어도 自發的인 意思에 依하여 各自는 教育과 訓練에 邁進하도록 努力한다면 戰鬪態勢는 스스스로 完壁을 期하게 될 것이다.

### 三、國家의 安全과 戰鬪의 目的

國家安全保障政策에 있어서 軍事力이 차지하는 位置가 Abelford의 말과 같이 國家의 完全保障은 國家의 經濟的 向上 他國과의 關係에 있어서의 國力保全 및 增強과 國際威信의 維持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戰爭의 目的」은 戰爭自體를 爲한 것이 아니라 國家의 安全을 維持하고 보다 높은 政策의 追究을 爲한 것이므로 政治와는 別個의 概念이라기 보다 政治의 延長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잘 알고 있는 Clausewitz 教授는 戰爭이란 他手段을 混用한 「政治」의 繼續이다」라고 말하였다.

한 國家가 國家의 安全을 維持하기 위한 實質的이며 直接的인 手段으로서 軍事力을 維持하는 것이다.

孔子는 말하기를 한 國家가 繁榮하고 發展하기 爲하여서는 「文」과 「武」는 共存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여기서 말한 共存이란 貴賤과 劣等を 말한 것이 아니다.

「文」과 「武」는 마치 車의 車輪과 같이 鳥類의 兩翼과 같고 人間의 兩脚과 같은 것이므로 相互間의 理解와 協調로서 國家安全保障 政策을 樹立하고 實踐에 옮기지 않는 한 그

의 成果는 期待할 수 없기 때문이다.

五、一六軍事革命以後 自立經濟를 目標로 하여 國民의 生活改善을 圖謀하고 國民의 道義를 再建하기 爲하여 諸般 政策을 果敢하게 遂行하고 있다.

그러므로 國家의 目標은 戰平時를 莫論하고 最少限의 必要한 防衛能力(軍事力)을 保有하고 維持發展시켜야 한다. 換言하면 戰爭이 勃發한 境遇에 敵을 擊退하고 國家의 安全을 圖謀할 만한 防衛能力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前記한 바와 같이 「國家의 防衛能力」이란 決코 軍事力만을 意味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關하여 「Hans Morgenthau」教授는 國力を 評價는 基本要素로서 여덟가지들을 들고 있다.

即 地理·天然資源·產業能力·軍事의 態勢·人口·國民의 性格·國民의 士氣·外交의 能力等 八個의 要素가 統合되어 國家의 힘이라고 國家의 防衛能力이 된다고 말하였다.

이렇게 본다면 政治란 前記한 諸要素를 如何히 均衡있게 調節하는가가 問題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戰爭이란 政治的 目的과 符合되지 않는 限 成立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六·二五戰亂을 通하여 充分히 體得하였다.

그 예로서 우리는 敵軍의 行動에 對하여 軍事的으로는 滿州의 兵站基地와 生産施設에 戰略爆擊이 必要하였음에도 不拘하고 斷行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鴨綠江까지 進擊할 수 있는 機會가 있었으나 우리는 三八線附近에서 陣地戰을 하여야 했으며, 同時에 休戰이라는 形式에 依하여 戰鬪을 擴大시키지

않으려는 國際的인 要請과 美國의 政治的인 目標앞에 우리 民族이 願치 않는 休戰은 成立되어야 말았다.

이와같이 軍事的인 行動은 決코 國家의 다 른 政策과 遊離된 것이 아니라 國家의 安全을 圖謀하기 爲한 政治的 延長임을 찾아 볼 수 있다.

國家의 目的이란 國家의 安全과 國民福祉의 增進에 있다. 故로 國家의 安全이 破壞되고 國民의 福祉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 國家의 安全과 發展은 期待할 수 없다.

그러므로 國家의 政策이 安全保障에만 치우치면 國民生活의 福祉는 犧牲을 가져오고 國民의 文化 및 經濟的生活에 置重하면 國家安全保障에 重大한 結果를 招來하는 二律背反的인 關係로 놓이게 되는 것이다.

國家政策을 決定하고 政策을 執行함에 있어서 恒常密接한 相互關係를 가지고 있으므로 國家가 兩個의 目的을 達成하기 爲하여서는 相互間의 均衡과 調和에 留意하여야 한다. 故로 政治的 目的達成의 一部分을 擔當한 國防政策問題와 軍事的 行動을 計畫하고 遂行함에 있어서는 國家의 모든 政策과 合致되도록 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國家는 大局의 인 見地에서 國防政策을 樹立함에 있어서나 國防態勢를 強化함에 있어서는 全國民의 絶對的인 協助와 支援이 없이는 國家의 目的은 達成할 수 없다는 것이다.

### 三、民主軍隊의

#### 組織과 理念

軍人は 國家의 干城으로서 나라를 지키고

國民의 生命과 財産을 保護하는 것이 軍人의 任務이다.

우리 國軍은 建軍以來 各地區의 戰鬪에서 많은 戰友를 잃었으며, 六·二五戰亂을 通하여 祖國과 自由民을 爲하여 生命을 바쳐 勇敢히 싸워 友邦諸國의

期待와 信賴를 두텁게 하였던 것이다.

이 중 四·一九義學當時 全世界의 耳目이 集中되는 가운데 軍이 取한 行動은 民主 軍隊로서 賢明한 役軍이 되었다.

또한 腐敗한 政治人들의 黨派政爭으로 百尺竿頭에서 祖國의 運命을 救出함으로써 國民의 期待와 自由友邦諸國에게 信賴의 度を 더욱 確固히 하였다.

이와는 反對로 共產陣營과 傀儡徒黨들에게는 肝膽을 서늘케 하였던 것이다.

萬一 軍이 옳고 그릇된 것을 判斷 못하고 正義와 不義를 混同하여 한갓 政治의 道具로서 不義에 同調하였다면 오늘날의 民主軍隊는 될 수 없었을 것이며 나아가서는 國內外的으로 重大한 問題가 惹起되었을지 모를 일이다. 그 當時 軍에서는 國民이 願하는 바가 무엇인가? 를 알았으므로 民主軍隊로서의 役割을 餘地없이 發揮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國民의 子弟들이 모인 軍隊社會에 있어서 政派에 이끌리거나 地方的인 人物을 中心으로 軍隊行政이 이루어 진다면 軍의 團結은 維持될 수 없고 軍紀도 確立될 수 없다는 것이다.

過去 우리의 花郎道精神은 武術뿐만 아니라 高尚한 人格을 修練하여 正義와 義理에 살 수 있는 教育에 注力하였던 까닭에 찬란한 新羅의 文化를 形成하게 되었다.

軍人은 國民들에게 親切한 補助者가 되어야 하고 어린이들에게는 참다운 親舊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軍隊는 單 世界에 놓여 있는 特權社會가 아니고 오직 國民을 守護하기 爲하여 國民들이 보낸 國民의 子弟들이기 때문에 盤石같은 國民守護者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軍隊는 젊은 사람들에게 國防을 爲하는 戰技를 體得시키고 正義와 責任感이 透徹하도록 心身을 鍛鍊하는 修練場이 되어야 한다.

換言하면 戰時의 軍人은 戰鬪集團의 一員이 되어 말은 바 責任을 完遂하도록 하여야 하고 平時에 軍人은 心身을 鍛鍊하는 教育集團의 一員으로서 戰線뿐만 아니라 都市와 農村 그리고 各種軍內에서도 國民을 돕는다는 마음씨를 지닌 軍人이 되어야 한다.

即 敵과 싸울 때는 勇敢無双하여야 하고 國民을 對할 때는 知慧있는 指導者로서 國民들의 模範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軍의 指揮官은 共通된 目的을 爲하여 部下將兵의 意志를 引려주어야 한다.

우리 民族에 不足한 것은 奉仕精神이다. 滅私奉公의 精神을 培養함으로써 우리 民族의 힘을 키울 수 있다.

남을 爲하는 그 自體가 自身을 爲하는 일 이 되는 것이므로 奉仕하는 崇高한 精神은 나를 살리고 國家를 살리는 길이 된다.

이와는 反對로 나만을 爲하는 일은 結局 나도 亡하고 國家도 亡한다는 原理의 正當性을 證明해 주어야 한다.

國家와 民族을 爲하여 하나밖에 없는 生命을 바친다는 일이란 決코 「젊은 血氣와 指

揮官의 命令」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各自에게 뚜렷한 國家觀 높은 倫理 그리고 確固不動한 信念과 勇氣에 基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람의 勇氣를 말한다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以上の 勇氣는 없다. 그러나 「죽음」을 두려워 하지 않는 境遇도 여러 가지가 있다.

物慾 때문에 自身の 高貴한 生命을 잃는 境遇도 있다. 이런 境遇는 勇氣라고 하지 않고 未練者의 蠻勇이라고 한다.

眞正한 勇氣는 「善을 爲하여」 또 「남을 爲하여」 自身の 죽음을 돌보지 않고 「人情과 義理」 그리고 正義感에 불타 마음속에서 솟아오르는 境遇를 말한다.

우리의 歷史에도 슬기로운 史實이 많이 있다. 「正義와 義理」만 저버리면 얼마든지 「權勢나 榮華」를 누릴 수 있었던 「死六臣」같은 忠臣들은 끝내 「正義와 義理」를 지키다가 處刑 당하고야 말았다. 또한 民族의 太陽으로 우리러 보는 忠武公 李舜臣將軍은 奸臣輩들의 謀陷에도 志操를 굽히지 않고 祖國과 民族에 對한 義理를 죽음으로써 지명했다.

이처럼 「正義와 義理」는 죽음보다도 強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例證하여 주었다. 이에 反하여 萬古의 賣國奴 李完用은 一身의 安逸과 榮達을 爲해서 民族에 對한 義理를 背反하였다.

日帝 三十六年間 民族의 屈辱과 桎梏은 한 賣國奴의 義理背反으로 이루어 졌던 것이다.

前記한 바와 같이 「正義와 義理」를 爲하여 志操를 굽히지 않고 祖國과 民族에 對한 義理를 죽음으로써 지명하였으므로 그 몸은 죽었으나 그 精神은 살아있는 것이다.

萬一「正義와 義理」그리고「確固한 信念」이 없는 사람이 銃과 칼을 잡는 境遇가 있다면 國民들은 마치 火藥庫內에서 일하는 것과 다름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破壞力이 강한 原子武器도 사람의 손에 依하여 造作되고, 또 投下될 수도 있으나 그 손은 人間의 頭腦에 依하여 調整된다.

人間의 頭腦는 理念에 依하여 動하게 되

고 理念은 國家와 民族을 爲하는 뚜렷한 國家觀과 높은 倫理道德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過去の 軍隊는 組織에 依한 軍隊였지만 오늘날의 軍隊는 理念에 依한 軍隊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美國이나 蘇聯에서는 宇宙人이 있지만 一六軍事革命以後 우리나라에는 宇宙人을 代身하여 義務人이 나타났다. 美蘇의 宇宙人은 다투어 宇宙征服을 노리

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國民들은 滅共統一을 이룩하기 爲하여 國家再建에 義務人으로 獻身하고 있는 此際에 軍의 指揮官은 民主軍人의 精神을 其盤으로 하여 部下將兵을 教育시켜 精銳部隊을 育成하여야 하며 우리軍에 樹立한 傳統을 우리가 維持한다기 보다는 自身各자가 維持發展시키므로서 崇高한 傳統과 理念은 繼續되는 것이다.

## 憲法改正案提案에 즈음하여

五·一六革命의 理念은 腐敗와 不正과 貧困에서 우리 겨레와 나라를 救濟하고 새로운 民主靑社國家를 再建하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民政移讓에 앞서 이와 같은 崇高한 理念이 앞으로 誕生될 第三共和國에 繼承되어야 다시는 過去와 같은 쓰라린 前轍을 밟지 않도록 새로운 國家의 튼튼한 基盤을 다짐하는 것은 革命政府의 神聖한 義務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있어서 革命政府는 이러한 義務를 다하기 爲하여 널리 國民의 輿論을 綜合하고 眞摯한 研究와 檢討를 거친 끝에 憲法改正案을 作成하고 主權을 가진 國民의 決定으로써 第三共和國의 基盤을 마련코자 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마련한 憲法改正案의 主要한 特徵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一、自由權, 生存權, 參政權等的 國民의 基本權을 最大限으로 保障하였으며
- 二、健全하고 民主的인 現代의 政黨制度를 樹立하여 眞正한 代議民主政治의 基盤을 確立하였고
- 三、참다운 國民意思를 代辯하고 깨끗하고 能率的인 議會政治를 期約할 수 있는 合理的인 國會의 組織과 運營을 規定하였으며
- 四、安定되고 일할 수 있는 民主的인 政府形態를 擇하였고
- 五、國民의 權利保障의 最後保壘인 司法權의 獨立과 民主化에 萬全을 期하였으며
- 六、時急한 民生苦를 解決하고 國民經濟의 早速한 發展을 期할 수 있는 經濟體制와 機構을 마련하였고
- 七、共産勢力의 侵略을 粉碎하고 굳건한 國家安全을 保障할 수 있는 機構을 設置하였으며
- 八、國家의 最高法規인 憲法의 改正은 主權者인 國民이 直接 決定하도록 하였습니다.

以上 말씀 드린바와 같은 主要한 特徵을 가지는 이 憲法改正案은 要컨대 우리들과 우리들의 子孫이 永遠한 榮光을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至誠에서 마련된 것입니다. 國民 여러분은 이 趣旨를 充分히 理解하시고 萬幅의 協力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一九六二年十一月五日

## 國家再建最高會議

最高委員

- 朴正熙 李周一 姜尙郁 吉在號 金東河 金容珣 金潤根 金斗燦
- 金在春 金振暉 金炯旭 朴圓彬 朴泰俊 吳致成 玉昌鎬 柳陽洙
- 柳炳賢 李錫濟 李孟基 張盛煥 鄭世雄 趙始衡 洪鍾哲

# 軍階級論

李炯錫

☆ 前國防部政調局長



家庭에서 兄弟들 間에 싸움이 벌어지는 수가 흔히 있을 터인데 이때마다 父母된 사람 들은 二重人格者 비슷한 노릇을 하게 마련 인가 보다.

동생을 보고는 「兄한테 그러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나무라고 兄을 보고는 「동생을 왜 사랑하지 않고 때리느냐」야 단인 것이 일수 이기 때문이다. 五倫의 하나인 「長幼有序」 가 잘되지 못하는 故로 간혹 論爭도 벌어져 고 주먹질도 나오게 되는 것이니 相互敬愛 로 兄을 兄으로써 尊敬하지 않으며, 同生을 同生으로써 親愛하지 않을 瞬間의 對決이 때 로는 西部活劇이 되는 것이다.

軍隊의 階級도 이러한 長幼有序를 確立하 기 爲하여 마련된 것이라 하겠다. 홍부와 늘 부는 兄弟友愛를 表現하는 우리나라 民俗小

說이나 아무리 兄이 兄노릇을 못하여도 同生은 항상 참다운 同生노릇을 하는데서 모든 사람들의 好感과 同調를 갖게 되고 거기에 좋은 社會敎訓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닐까. 兄노릇 잘못하는 놀부들 洪부가 도끼로 때렸 다면 이것은 小說이 될 수 없고, 입맛도 쓸 수 밖에 없을 것이요 人情의 微妙한 心琴을 感動시킬 수도 없을 것이다.

兄弟의 倫理는 그 不變性에 있다. 아무리 同生이 富貴榮華를 누리고 人格과 識見이 높 다한들 同生이 兄이 되고, 兄이 同生으로 미 끌어질 수는 없는 것이다. 世宗大王의 偉大 한 것은 그의 兄인 讓寧大君에 對한 至極한 友愛之情에서도 엿볼 수 있다. 나는 光海 君은 元來 天性的인 暴君은 아니라고 主張하 는 사람의 하나로써 그가 그의 本意 아닌 暴 君이 된 當時의 奸臣輩들의 黨派外음을 더 욱 憎惡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그가 親兄인 臨海君을 죽이고 비록 異母弟라 할지라도 同 氣의 永昌大君을 죽이는데 이르러서는 全然 同情이 가질 아니한다. 兄을 尊敬하지 못하 는 同生이 어찌 自己同生의 尊敬을 받을 수 있으며, 同生을 사랑하지 못하는 兄이 어찌 自己兄의 사랑을 期待할 수 있겠는가.

이와 마찬가지로 軍隊內에서의 階級の 高 下에 따르는 相互敬愛가 階級倫理의 根基가 되는 것이요, 軍內秩序維持의 關鍵이 되는 것이요, 國民의 이름으로 賦與된 名譽를 永 遠하게 象徴하는 所致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軍隊階級은 不定性이 特色이라 하 겠다. 上級者가 下級者되는 수도 있고, 下 級者가 昇進하여 上級者 노릇도 하게 되는 것 이다. 兄弟間은 出生의 先後를 따지는 것이 고 軍階級은 任命의 先後를 따지는 것이다. 或者는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니, 먼저 낳은 것이 무엇이 그리 대단한 것이냐, 實이 좋 아야 하지 않겠느냐, 개도 먼저 낳은 놈은 弱小하고 뒤에 낳은 놈이 強大한데…… 그 러나 개의 社會에서는 몰라도 적어도 人間 社會에서 더욱 家庭生活에 있어서 秩序確立 을 爲하여 長幼有序를 바로 세웠던 것이니 軍隊內에서 大軍을 維持經營하기 위하여 階 級の 先後高下를 作定한 것은 極히 當然한 것이다.

「軍人의 心에서든」敬愛를 提高한 것은 이 階級觀의 根本倫理를 더욱 強調하려는 趣 旨라고 알고 있다. 一切의 階級意識을 否認 한다고 自稱하는 共產社會에서도 軍隊內의

階級은 더욱 複雜하고 더욱 強烈하게 表示되어있다. (蘇軍에서는 大將에도 上級이니 一級이니의 區別을 따지고 있고, 階級章도 손바닥같이 큼직하나 最初 無階級 絕對平等으로 出發한 그네들이니, 만큼 더욱 이것이 느껴지는 것이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軍의 階級賦與는 委任行爲에 屬하는 것이니 必要한 適材를 擇하여 國防의 重責中の 某 部面을 擔當시키는 것이지 決코 權勢를 부리는 特權을 賦與한 것은 아니다. 兄弟의 區分은 天命이요, 軍隊의 階級은 民命이라고도 하겠으니 不適任일 때에는 그의 身分은 民意를 代表한 統帥者에 依하여 制裁되는 것은 當然한 일인 것이다. 따라서 階級章은 賦與된 사람의 責任과 矜持를 그대로 表示한 保證의 手票와도 같은 것이니 그 窮極의 責任은 國防을爲하여 生命을 내걸어 놓는 데 있는 것이고 그 普遍的 矜持는 모든 軍隊構成員의 高貴한 名譽를 五尺單身이 질머지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우리나라 軍人들은 俸祿을 받기 위하여 志願한 兵士들이 아니고 一切의 個人事情을 超越하고 오직 나라와 君臣을 위하여 義務兵役을 몸소 實踐하는 徵兵들이니 만치 그 名譽를 어찌 職業의 傭兵과 比較할 수 있겠는가.

軍의 階級意識은 權勢掌握의 強弱을 表示하기 위하여 아니라 責任領域의 限界線을 劃定하기 위하여 特別 強調되어야 하며 따라서 先天的이 아니고 後天的이면서도 水火라도 不辭하는 軍令을 行使할 수 있도록 泰山보다도 더욱 무겁게 取扱되어야 하는 所以인 것이다.

見敵必滅의 至上使命을 말아 가지고 死境

에 勇躍 뛰어들게 命令하는 사람이 上級者요, 그 命令을 곧 民族의 至上命令으로 認개 믿고 絕對로 服從하는 사람이 下級者요, 이 命令을 嚴肅히 實踐하는 陣頭에 몸소 서는 責任者가 指揮官이요, 이 命令대로 두말없이 뛰어드는 勇士가 部下將兵인 것이다.

이러한 階級意識의 卓越성이야말로 子弟에 對한 父母의 命令과도 比較할 수 없는 神聖性과 絕對不可侵性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다. 같은 階級이라도 發令日時에 따라서 同一日時라도 先後序列順位에 따라서 반드시 一한 사람만이 保有하는 姿勢를 規定하고 있는 것이 軍의 階級인 것이다. 雖有百萬이라도 自己의 姿勢를 自他가 共同認定하는 것은 國家非常時의 自己責任과 榮光을 미리 公布하는 것이니 誰某가 戰死傷하면 誰某가 代行한다는 民族의 命令이 內包되어 있는 것이다. 어찌 漠然한 表現으로 權力의 象徵이요, 勢道의 誇示라고 看做할 수 있겠는가.

階級이 갖고 있는 活用的 妙味를 더욱 發揮하기爲하여 必要에 따라서는 그 職責에 相應하는 臨時階級制度를 設定하는 수도 있으니 이 모두가 軍의 階級이 갖고 있는 深奧한 理論에 立脚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위에서 筆者는 軍의 階級이라는 것은 軍人의 名譽의 象徵이며 軍內秩序確立의 根基이며 上下間 敬愛心誘發의 母胎이며 國家가 委任하는 바 義務와 權利를 規制하는 方便이라는 趣旨을 말하였다.

軍의 階級은 上下라기 보다는 先後라는 것이 그 本質上으로 보아 더욱 適切하다는 것은 兄弟의 先後에 對照하여 首肯할 수 있는 同時에 父子라는 上下間의 關係와 對照하여

야 하는 가담으로 上下級 先後任 등의 用語가 있을 것이다.

이것을 慣例的으로 階級上의 差異는 上下로써 同級上의 差異는 先後로써 各各 表現하는 듯하나 좀더 깊이 생각하여 본다면 平時에는 先後任으로 戰時에는 上下級으로 따지는 것이 그 本質에 알맞는 表現이라고도 할 것이다. 왜냐하면 軍政의 特質로 볼 때에는 平時에는 上級者라 하여서 無條件下級者에 指揮命令權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甲이라는 집 家長이 乙이라는 집 青年에 對하는 것과는 絕對로 同一하지 아니하니 軍이라는 巨大한 大家族制度야말로 榮辱과 盛衰의 運命을 같이하는 人間家族의 가장 精粹面을 構成하는 것이다.

祖國이 이 五尺單軀를 부르시고 저에게 그들의 誠金을 모아 衣食住와 銃刀弓馬를 주시고 階級으로서 이 몸의 榮譽을 表示하여 주셨나니 이 至上使命앞에 서게된 우리에게 는 오직 前進과 躍進, 敬愛와 團合이 있을 따름이라는 것이 모든 軍人들의 共通되는 道義心이 되는 것도 極히 自然스러운 現象이라 하겠다.

軍의 한 家族이 되며 한 술의 밥을 먹는 瞬間부터는 그 前의 모든 教養과 社會地位와 金力權力等等이 깨끗이 抹消되고 無條件 先任階級者앞에 舉手禮禮를 하게 마련이니 軍이 가진 階級이란 宗教以上の 津津한 妙味를 풍기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나 先任者여, 그러나 上級者여 그대 眞實로 先任者되고 上級者될 資格이 있는가 그대참으로 階級章 없어도 尊敬을 받고, 服從을 強要할 資質이 있는가, 잊사라던들 모름지기 日夜反省하여야 할 것이다. 聖賢도

를 지니

「吾日三省吾身」이라 하여 하루 세 번씩 自己反省을 하였으니 下級者 後任者로부터 敬禮를 받을 때마다 이러한 反省을 하고 「고맙다」는 생각을 가진다면 軍의 躍進을 可期한 것 아닌가 한다. 「윗사람 속이기는 쉬우나 아랫사람 속이기는 힘이 든다」는 말이 참말이라는 것을 斷定하는 바이다.

그 집 子弟를 보면 그 집 父兄을 짐작할 수 있고, 그 집 父兄을 보면, 그 집 家風如何를 判斷할 수 있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上級者, 先任者는 恒常 戒를 앞에서 있는 것을 銘心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말은 下級者와 後任者에 對하여서도 適應할 수 있으니, 「윗사람 허물은 잘 보이나, 自己 마음의 허물은 잘 모르기 쉽다」는 것도 眞理인 同時에 階級章 보고 敬禮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人格과 德性 그리고 그의 經驗과 先達에 對하여 「고맙소이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 아닌가, 同生이나 子息은 제 아무리 偉大하여도 兄이 되고 애비가 되지는 못하나 軍隊階級은 嚴하면서도 이러한 수 있는 融通性이 있는 것이니 구태여 進級運動을 하고 좋은 補職자리를 渴求할 庸劣性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다.

軍階級은 不渡手票가 아니고 一定한 階級에 依하여 規定되어 있으니 내가 어떤 階級과 어떤 職位를 貪한다면 被害를 받는 우리의 先輩가 있고 우리의 戰友가 있는 것은 數學上의 公式가 아니겠는가 말이다. 盜賊이라는 것은 財物의 盜賊만이 아니라 階級을 濫用하고 職責을 竊取하는 것은 더욱 醜惡한 盜賊이라고도 하겠다. 이렇게 또한 남의 階級을 盜用하는 것도 나쁘거니와

級者로서 그의 職權을 濫用하여 남의 階級을 無辜하게 强奪하는 것은 다시 없는 罪惡이요, 그 한 사람을 高麗葬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家族과 그의 모든 家名을 永遠히 恥辱의 도가니 속으로 몰아 넣는 것이니 指揮權行使는 操心하고도 慎重하여야 할 것이다.

軍의 階級은 獨裁와 專斷 罪惡과 犯則의 媒介가 될 수는 없지 않겠는가, 이 점은 人之上長이 된 者에게 特別히 勸하고 싶은 말이다. 그러나 下級者여, 그러나 後任者여, 그때 眞正으로 上官의 信愛를 받을 資格이 있고, 眞心으로 服從의 至誠을 다하고 있는가 또한 反省이 必要한 것이다.

여기 기회에 軍의 階級을 逆用하는 作弊가 없기를 願하는 마음으로 附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所謂「同期生會」와 같은 모임에 對한 것이다. 이러한 類似的의 모임은 勿論 同期生 相互間의 親睦과 切磋琢磨를 위하여 必要에 따라서만 들 수 있는 것이니 이는 어떠한 까지도 公이 아니고 私에 屬하는 것인데, 이것을 誤用하여 公務에까지 反映케 한다면 軍을 爲하여 遺憾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것 程度라면 또 모르되 中少尉會, 士兵會, 下士官會等 階級을 내세우는 會同은 極히 조심하여야 할 일이고, 法規上으로까지라도 禁止되어야 할 問題라고 본다. 왜냐하면 軍의 階級은 決코 橫的團合을 目的으로 한 것이 아니고, 縱的秩序確立에 그 大本이 있는 까닭이다. 經의 아니고 緯라 하겠다. 昨年에 우리 國軍이 決斷한 바 五·一六軍事革命은 이러한 뜻에 있어서도 聖業의 하나라고 判定할 수 있으니 이 革命의 中樞勢力은 어떠한 階級的團合

이 아니고, 위로는 將官으로부터 아래로는 二等兵에 이르기까지 한 마음 한 뜻으로 조직한 가지 目標 아래 여섯가지 公約을 내세우고 驅起하였던 까닭이다. 뿐만 아니라 陸海, 空, 海兵隊가 四位一體가 되어 總進軍하였으니 말이다. 이것이 마지막 革命이라는 安堵感도 여기에서 더욱 느껴지는 것이 아닌가 한다.

第一次世界大戰末期에 獨軍이 最後까지 占領地에 布陣하면서 內部에서 일어서는 士兵會의 壓力으로 內亂이 誘發되고 暴動으로 爆發되었다는事實에 비춰 볼 때 將校會, 士兵會 등의 名稱을 우리 軍內에서는 未然에 없게 하도록 防止하여야 할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以上에서 筆者는 軍階級制度의 見地에서 上下先後間의 留念할 事項과 指揮權의 惡用 階級的의 逆用, 그리고 進級運動等 몇 가지 弊習에 對하여 말하였다. 筆者는 여기에 數年前 陸軍內에서 생긴 師團長 銃殺事件을 想起하여 본다. (이와 類似的한 下士級間의 殺害事件이 數件 있었음은 참으로 遺憾이었다). 우리가 白紙로 還元하여 볼 때 「師團長이 너무나 殘酷하기 때문이 아닐까……」 「大隊長으로서 自己 上官을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하는 錯雜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더구나 徐准將은 筆者가 步兵學校時代에 戰車教育隊長으로 같이 勤務한 바 있으며, 그의 人品이 高潔하고 實踐力이 強하며 民族精神이 透徹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容易하게 納得이 가지 아니 하였다. 同時에 大隊長도 有能한 將校로서 師團長이 平素寵愛하는 바 信任이 두터운 部下였다고 하니 더욱 推測하기 困難한 點이 많다. 그

# 특집 · <軍人の 생활자세>

그러나 軍의 秩序要請은 그의 動機如何를 莫論하고 大隊長에게 必要한 刑罰을 加하였으니 이것이 軍의 階級을 論하지 않을 境遇라던 正當防衛說 等으로 判決內容도 많이 달랐을 것이 있으리라.

참으로 軍의 階級은 이와같이 偉大한 作用을 하는 것이여서 軍紀가 軍의 命脈이라던 이 命脈의 根源인 心臟部가 階級制度로 組織되고 構成되어 있다 할 것이다.

다음에 筆者는 舊日本軍隊內에서 생긴 所謂「相澤事件」(아이자와)에 對하여 말하려 하는데 이 말은 過般日本을 訪問하였을 때 同期生某로부터 直接 들은 實話인 것이다.

이 事件은 一九三五年八月十二日 日本陸軍省 軍務局長室서 局長 永田鐵山少將을 相澤三郎中佐가 軍刀로 一擊刺殺한 事件이다. 말하자면 現役中領인 現職將官의 公務執行中에 白晝堂堂히 訪問하고 奸漢의 이름으로 斬殺한 것인 바 永田少將은 所謂統制派의 中心人物이었고 相澤中佐는 所謂皇道派의 團士였었다 한다. 이 事件을 契機로 하여 統制派는 一時 沒落하게 되고 皇道派가 더욱 跳梁하다가 翌年인 一九三六年二月二十六日의 所謂二·二六事件으로 皇道派青年들 十九名이 刑死된 後 全面的으로 後退하게 되고 그 後 統制派의 走狗들이 이른바 大東亞戰爭을 일으켜 自滅의 길을 催促하게 되었다고 한다.

筆者의 同期生 某는 相澤中佐와는 偶然하게도 同聯隊에서 約一年 동안 勤務한 바 있어서 그의 人品을 잘 아는 사람의 한사람이었다고 한다. 그는 八月異動으로 臺灣守備隊에 가게 되어 赴任途中에 事件을 일으킨 것이 었고 某는 當時 少尉로 亦是 같은 異動

發令으로 滿洲獨立守備隊로 가게 되었던 것이라 한다. 그는 只今 말하면 副聯隊長格인 地位에 있었는데 徹頭徹尾한 精神思想의 所有者로서 劍刀의 名手요, 信念이 불길같은 人物이 었으니 當時의 青年將校들의 尊敬을 한몸에 받고 있었으며, 旅行中の 一般將校들이 일부러 그를 찾아오는 자가 많았으며 그때마다 그는 薄酒素餐으로 談論風發이라 將來를 근심하면서 徹夜도 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한다. 그의 劍術은 戶山學校劍術教育으로 지낸 達劍이 었는 바 恒常 一劍一殺을 強調하여 大上段으로 敎習하는 達風이 었었다고 한다. 그의 私生活은 「粗朴二字로 全部表現될 수 있었으니 그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짐작할 수 있었으리라」.

또 그는 天皇病狂者라고도 하리만치 모든 것을 天皇이 주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自己의 술을 내놓고서도 「이것은 天皇이 주시는 것이니 함께 드십시오」하고 人事하는 것이었고 안주로 무조각을 내놓고서도 主人自身이 「참 맛있게 먹었습니다」하고 되려 謝禮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그는 皇道派의 首領眞崎甚三郎大將의 直系部屬이 었으니 同年七月十六日에 統制派가 教育總監인 同大將을 特別한 理由없이 強制로 罷免시키게 되자 그의 激憤을 참지 못하고 直屬上官에 폐가 되지 않도록 赴任途中을 利用하여 斷行한 것이라 한다. 同大將은 後日에 自進하여 法廷에 證人으로서 나와서 同中佐를 擁護한 것을 보면 그間的 皇道派들의 橫的團結如何를 알 수 있는 것이고 그후된 團合이 빛이 내 惡劇을 回想케 하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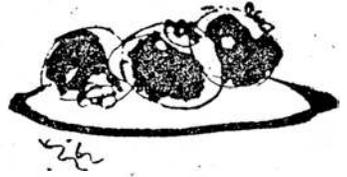
被殺된 永田少將은 陸士十六期の 逸材로서 當時 日本陸軍의 文字 그대로의 中堅人

物이고 그의 識見 力量은 當代一流의 評이었다고 한다.

이와같은 事實들은 이 以上 말할바 되지 못하는 바 筆者는 여기에서 下級者가 上級者를 그릇된 團合에서 오는 個人的 公憤에서 殺害한 事實만을 傳하고 軍階級の 亂脈相의 一例로서만 提示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問題에 對한 或者의 見解를 말하여 보려고 한다. 作戰行動間的 어떤 指揮官 한사람은 部下將兵들에게 「너의 先任者라 할지라도 軍令을 어기고 退却을 하거나 軍法을 無視하고 財物을 掠奪하거나 良家の 婦女를 姦淫하는 者 있다면 即時 統殺하라」 하였다. 그 理由로서는 「그것은 先任者를 統殺하는 것이 아니고 犯罪人을 統殺하는 것이다. 無斷退却하고 不法으로 掠奪하고 姦淫하는 者는 그 瞬間에 이미 그는 階級章을 붙인 犯罪人이 된 것이지 先任者가 아니기 때문이라」 하였다.

勿論 이것은 軍紀確立을 爲한 強力措置이지 決코 合法化될 수는 없는 것이요 비록 戰時라 하여도 階級을 姿意로 無視할 權利는 아무에게도 없을 것이다. 더구나 軍法으로 能히 處理할 수 있는 環境인데도 不拘하고 軍階級을 抹殺하고 姿意로 即決處分하는 것은 常識上으로도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問題는 下級者에 對하여서도 이렇게 容納되지 못하거나 하면 上級者에 對하여서라.

戰時에 獨斷이 許容되는 境遇의 第一條件은 「時間要素」이다. 敵을 向하여 不法逃走하는 上級者를 逮捕할 時間的 餘裕가 없으면 마땅히 射殺하여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軍  
人  
과  
紳  
士  
道

柳 光 烈  
☆ 言 論 人

신사(紳士)라는 말에 대하여 세상 사람은 흔히 영어의 「젠틀맨」을 연상하게 된다. 어떠한 집회에서나 누구가 식사(式辭)를 할 때에는 「래디스·앤드·젠틀맨」이라고 하면 그것을 번역하는 이는 의례 「신사, 숙녀(紳士, 淑女) 여러분」이라고 번역하는 것이다.

다만 서양사람의 습관으로 여자를 존경하여 먼저 말하는 것을 동양 습관으로 남자를 먼저 말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서양에서 신사와 비슷한 말을 우리말이나 동양에서 오래된 문화국이던 중국에서 똑같은 말을 찾기는 어렵다. 그러나 구태어 비슷한 것을 찾으면 「선비」라는 말과 같다.

그러면 중국에서 「선비」는 「사(士)」(자를 쓴다. 二千년전에 맹자(孟子)라는 성인(聖人)이 한 마음을 보편어떤 사람이나 일정한 직업이 없으면 일정한 말을 닦지 못하여 여

러가지로 잘못하는 일을 많이 하게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無恒産而 有恒心者 惟士爲能」

일정한 직업이 없으면서도 마음의 방종(縱)을 잘 제어하여 올바른 길로 가게 되는 것은 오직 선비라야 될 수 있다고 하여 선비를 높이 평가(評價)한 것을 볼 수 있다. 그와 똑같이 우리나라에서도 선비는 일반 사람보다 뛰어난 행세를 단정히 하여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게 하는 것으로 알아온 것이다.

서구(西歐), 특히 영국에서의 신사도의 발달은 오랜 역사와 많은 변천을 하여 온 것이다. 처음에는 특수한 문벌이나 혈통을 가진 기사도(騎士道)에서 발달한 것이니 그들은 보통 사람보다 일층 높다는 자랑을 가지고 나라를 위하여 몸을 바치는 것을 한개의 계율로 삼아 왔던 것이다. 이에 따라 다른 사람보다는 우월하다는 긍지(矜持)를 가졌던 것이다.

그러나 모든 것이 역사의 흐름에서 변화듯이 신사라는 생각도 시대를 따라서 변천하여 그 가문(家門)이나 문벌에는 상관없이 누구나 높은 문화와 고상한 인격을 가진이

를 신사로 알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는 그때 귀족이던 양반(兩班) 계급에서 선비가 많이 나오고 또 양반이라야 선비가 될 수 있는 줄로 알았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러한 계급을 생각하는 이는 없어지고 누구나 높은 문화와 고상한 인격을 가지면 선비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두말할 여지도 없는 것이다.

다시 영국의 신사도의 특색은 어떠한 것인가? 이것도 일정하게 정의(定義)를 내릴 수는 없다. 그러나 여러가지로 문헌(文獻)을 참고하면, 첫째 그들은 자주성(自主性)이 강한 것이다. 무슨 일이든지 자기의 일은 자기가 한다는 것이다. 부모가 자녀를 기르는 데도 일정한 나이가 되면 자기 일은 꼭 자기가 하게 하는 것이다. 비록 몇살 안 되는 어린아이라도 웃는 것, 기다 행동하는 것을 자기 손으로 하도록 한다.

불란서의 문사 「앙드레·모로아」의 쓴 글에 같이 배를 타고 가는 영국인의 가족을 보

니 나 어린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손으로 자기의 옷을 입고 기다 몸단속을 전부 자기 손으로 하는 것을 보고 감탄하면서

「無恒産而 有恒心者 惟士爲能」

특집 · <軍人の 생활자세>

영국인의 습관을 타복한 말이 있다. 서구 사람들이 흔히 인용(引用)하는 화본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은 이 영국인의 자조(自助)하는 성격, 즉 자기 일은 자기가 한다는 성격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은 신사도에서 강조되는 것은 의무감(義務感)이요 책임감(責任感)이다.

영국의 유명한 해군제독 '넬슨'이 적군의 함대를 쳐부수어서 크게 승리하고서 죽을 때에 '나는 나의 의무를 다하였다'는 말은 유명한 이야기이다.

의무나 책임이 있는 곳에는 머리끝부터 발뒤꿈치까지 잘(磨)아도 사양하지 않고 혼연히 자기 희생을 자오하는 대장부(大丈夫)다운 기개가 있는 것이요 이것이 그들 신사도의 일면인 것이다.

우리 삼국시대(三國時代)에 명장(名將)인 유신(金庾信)은 『자기 아들이 당나라(唐) 군사와 싸울 때에 대장(大將)은 전사하였는 데 비장(裨將)으로서 전사하지 못하였다』고 임금에게 목을 베어 주어기를 주장하였으므로 임금은 용서하였으나, 부친으로서 김유신은 자기까지 그 아들을 대면하지 아니하였으며 김유신이 죽은 후에 그 아들이 부친의 발상(發喪)을 위하여 오니까 김유신의 미망인(未亡人)인 그 어머니는 『부친에게 자식답지 못하였던 아들을 내가 어떻게 만나 보겠느냐』고 하여 맛나지 않고 발상하여와서 우는 것을 거절하였다는 것은 그때의 화랑도(花郎道)의 「입진부퇴(臨陣無退)의 극단(極端)인 예(例)인들지 모르나 이것은 영국의 신사도와 일맥이 서로 통하는 것이다. 다음은 책임감이다. 영국은 배만든 기교

(造船)로 세계에 이름난 나라인데, 그에 관련하여 유명한 이야기가 있다. 배를 만드는 직공 두 사람의 대화(對話)로 『한 사람이 한 인치(附)쯤 벌레먹은 나무 조각을 넣어서 배를 만들겠다』 하니까, 옆의 직공이 『그것을 넣어 만들었다가 후일에 그 때문에 이 배에 고장이 나면 어찌하냐』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 직공은 안듣고 그 벌레먹은 나무 조각을 넣어서 배를 만들었다.

그 후로 그 배는 여러 十년 동안 바다를 항해하여 많은 사람과 물건을 실어 날랐다. 그러나 몇 十년 전에 그 벌레먹은 나무 조각을 대인 것이 화근이 되어 그 배의 밑바닥에 구멍이 뚫어져서 많은 피해를 입었다. 이것은 그 나무 조각을 넣은 직공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한 개의 우화(寓話)이지만 『자기의 책임은 끝까지 저야 한다』는 것을 경계한 말이다. 이렇게 책임을 느끼는 때문에 그들은 길에 다니어도 길에 침(睡)을 뱉어서 불결한 물건을 내버리거나 하는 일을 하지 아니하니 이것은 자기 때문에 남이 불쾌하여서는 안된다는 책임관념이 강한 때문이다.

그들이 동양에 온 후 중국상해에서 공원(公園)에 문화정도가 낮은 중국인들이 들어와서 침을 뱉고 불결한 물건을 함부로 버린다 하여 공원문에 「개(犬)와 중국인은 들어오지 말라」고 문에 패를 부쳤으므로 중국민중의 격노를 사면 시대도 있었고 또 그의 조차지(租借地)인 「홍콩(香港)」에서는 지금까지도 길에 침을 뱉으면 벌금을 물리는 법규를 마련한 것은 중국인을 위시한 동양 사람들을 경멸하는 행동으로 우리 동양사람은 다

팝티같이 분개하는 바이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들의 이러한 행동은 신사도의 발달로 능히 자율적(自律的)으로 하여 나가서 그들이 로서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하여 우월감과 긍지를 가진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들은 어떠한 위대한 경우에 남이 모르는 경우에도 질서를 자율적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一九二五年 영국에 총파업이 있을 때에도 기차나 전차나 기타 교통도구를 냉정하고 침착하게 차고(車庫)에 갖다두고 조합(組合)에서 지명된 시차에 한실마리도 어지럽지(一糸不亂) 않게 총 파업을 단행한 것이다.

또 세이차 대전중에도 독일의 폭격기가 오고 공습경보가 나면 남녀노소의 시민들이 방공호에 들어갈 때에도 어린 아이, 노인, 부녀자의 순서로 또는 달려온 순서대로 요히 피난을 하고 혼잡을 이루지 않았다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세제는 그들의 권리감(權利感)이다. 자기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불의한 일에 대하여는 감연히 항쟁하는 것이다. 가령 자기에게 불합리하게 오는 부담에 대하여는 전을 안물겠다는 권리를 주장하기 위하여 원이나 十원을 써도 다한다는 태도이다. 이렇게 불의에 항쟁하는 관념이 강하므로 어떤 사람이나 자기집에 함부로 들어서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영국민의 집은 성곽(城郭)이라는 말은 이것을 가르친 말이다. 이것을 꺼꾸로 이용하여 세계의 망명객(亡命客)들이 영국 서울 「런던」으로 모여드는 것이다. 독일의 철혈재상(鐵血宰相) 「베스탐」을 피하여 망명하였던 공산주의자 「칼」 「팍스」도 일

생활「런던」에서 보냈으며, 쏘련의 공산당 「레닌」도 그 생애의 대부분을 「런던」에 망명하였던 것이다. 하여간 영국의 발달된 신사도의 값은 영국인으로 하여금 많은 자유를 누리게 한 것이다.

네째는 그들의 정의감(正義感)이다. 그들은 길을 가다가도 「약한 사람을 강한 사람이 돕지 못하게 두른다던지 괴롭힐 때에는 분명히 「커질」(손에 가졌던 몽둥)을 들먹 거린다」는 것이 그들의 기질이라고 미국문학 「어빙」은 그의 「스캐쉴·북」에서 칭찬하였다.

이것은 개인으로서만 그러할 뿐 아니라 국민으로서도 그렇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제 一차 세계대전에 영국이 참전한 것도 독일의 군국주의(軍國主義)가 백이의(白耳義)의 충절을 짓밟은 때문이라고 제 二차 세계대전에서 영국이 싸운 것도 독일의 「나치스」군이 「체코」나 「폴란드」에 침입한 때문이라고 하였다.

제 一차대전이 나기를 앞두고 영국의 수상 「첼벨레인」은 「전쟁을 피하고 평화를 위하여는 어떠한 것도 희생하여야 할 것이나 인류가 몇세기(世紀) 동안 싸워서 누리게 된 자유를 희생할 수는 없다」고 전세계를 향하여 선언하였던 것이다.

이상으로써 신사도에 포함되는 의무감 책임감등의 감정을 영국의 발달된 신사도에서 그 전례로 들어본 것이다.

국민이 나라를 위하여 국민을 위하여 국가의 안전(干城)의 임무를 다하는 것도 이 신사도의 의무감, 책임감, 정의감에 그 근원을 둔 것인 동시에 이 기풍은 또한 명사에 한국민으로써도 당연히 지켜야 할 신사도이

다. 필자는 군인과 시민을 분간하여 보려하지 않는다. 군문에서 좋은 군인은 또한 시민으로서도 좋은 시민이 될 것이다. 군인으로서 정의와 규율과 책임을 배운 군인들은 그 기사도(騎士道), 신사도를 널리 그렇지 못한

(P 13에서)

만일逮捕하였다면軍法으로서만取扱되는 것이原則이 아니겠는가. 或時 그가精神分裂症으로瞬間的發作을 일으켰을런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筆者는軍階級の尊嚴性を蹂躪한例를 많이 듣고 보고 또 알고 있다. 또한階級章만부치면無不能通으로알고橫暴無道한것을한例도 많이알고 있다.

이것을 九牛一毛로가버려 여기지 말고 十牛一毛, 百牛一毛로 한다면 얼마나多幸하겠는가 말이다. 우리는自己의力量을過大評價하고 財物을貪내듯이階級을貪내지말아야겠다. 階級에는그에相當하는責任과資格이달아야「참」이될 것이다.

여기에 優秀한 上士가 있다고 하자. 그는 上士로서 가는 곳마다 光彩가 나 보이고 그 석직한容貌과態度가全隊의「호」루가 되어 있지만 비판찬 그가 少尉階級章을부친다면어떠할까 반드시 그는平凡한一個少尉에不過하게 보일 것이다. 왜 그럴까 將校로서의品位領域이 따로 있기에 때문이다. 無資格者가 上級階級章을 달았기 때문에 도리어 庸劣하게 보인다던 그는 階級에對한胃瀆일뿐만 아니라 盜用行爲者요, 結局本人自身의 커다란 不幸이라는 例를 우리는 알 수 있으리라.

우리 大韓民國이 眞正한獨立國家로서 世界列強에 겨누어 조금도 損色이 없고, 우리

시민에게 모범을 보이고 확대하여 우리국민의 수준을 올리어야 할 것이다. 좋은 국민이라야 좋은 군인이 되고 좋은 군인은 좋은 국민일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과 군인은 하나이요 둘이 아니다.

구석 구석

살펴 보자

불은 마수

노리는 곳

國軍의 威容이 또한世界 몇째 아니가는 強軍이란 것이 事實이라면 가령 여기에 서 있는 一 大尉의 階級章은 世界 어느나라 大尉의 階級章에 比하여도 조금도 損色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만일에 損色이 있어 보인다면 그는 國民의 負荷를 敢當할 資格이 없는 사람이 分明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軍人은 그 어개의 階級章에 千斤의 무게를 느낄 것이요, 스스로 自肅과 反省 그리고 躡進과 向上의 熱意를 가지게 될 것이니 여기에 「참」다운 國民의 軍人, 國民을爲한 軍人, 國民에 依한 軍人의 偉容을 나타낼 수 있으리라.

어 표 침 방



軍  
人  
과  
私  
生  
活

韓 鶴 洙

☆ 軍牧 · 空本軍宗監室勤務

一、軍인에게도 私生活은 있다.

軍隊가 國土防衛를 目的으로 하여 組織된 武裝團體인 만큼 軍人生活이 團體生活임에 틀림없다. 그러면 軍人生活에는 團體生活뿐이고 全然 私生活이 있을 수 없겠는가? 그렇지 않다. 團體라는 것도 個人의 集合體이므로 그 構成要素가 되는 個人을 無視할 수 없는 것이다. 軍人이라 하여 어떤 틀에 부어 만든 鑄物처럼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軍人도 사람이다. 사람인 이상 個性을 無視할 수 없다. 따라서 그 個性에 따르는 感情이라든지 思想이라든지 思考方式이라든지 行動原理나 性格과 習性を 度外視할 수 없는 것이다. 勿論 軍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한 手段으로 統帥系統이 있고 團體를 統制하는 軍律이 있다. 그러나 團體를 統制하는 軍律도 軍隊라는 團體를 構成하고 있는 그 個人의 心的 態度 如何에 따라 左右되는 것이다. 아무리 嚴格한 軍律이 있고 軍法이 있고 制度가 있고 運營方針이 서 있어 날마다 強調된다 할지라도 軍人 個人 그 것들을 받아

드리지 않거나 服從하겠다는 意志의 決斷이 없다면 그 軍律이나 軍法은 効力없는 것이 되고 말 것이다. 그 軍隊는 사고 투성이 되고 말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團體生活에 있어서도 그 團體가 要求하는 것 이외의 모든 生活은 全的 個人生活에 지나지 않는다. 軍人生活에 있어서도 軍이 要求하는 時間과 努力 이외의 生活은 全然 私生活이다. 사람에게서는 여러 生活의 局面이 있다. 生物의 生活의 局面이 있고 思索의 生活의 局面이 있고, 價値追求의 局面이 있고, 情緒生活이 있고, 社會的 生活의 局面이 있다. 團體生活이라는 것은 人間性 속에 具有되어 있는 社會性的 發現으로 되어진 社會的 生活의 一面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 團體生活이라는 것도 人間性 自體와 生活自體를 생각할 때는 私生活의 一局面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軍人은 生物的 生活에 있어서는 어느 程度 統制된다. 營內者들은 食糧과 質이 統制되고 均一化된다. 그러나 그 個人의 食성에 따라서 더 먹고 싶어하는 者도 있고 남기는 者도 있고,

體質에 따라 먹고 배탈나는 자도 있다. 그리고 愛情生活은 全的으로 私的 生活이기 때문에 남이 그 生活에 뛰어들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崔一兵의 事件을 잘 안다. 이것은 團體生活과 私生活과의 摩擦의 結果로 일어난 慘事이다. 思索的 生活이나 情緒生活이나 價値追求의 生活 곧 倫理, 道德, 宗教等的 生活은 全的 私生活이다. 이러한 生活은 團體生活 속에서 私的 生活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人格을 涵養하는 일은 個性의 問題이다. 趣味에 있어서도 個性에 따라 어떤 자는 體育를 힘쓰고 어떤 자는 讀書, 장기, 바둑을 즐긴다. 이러한 것은 私生活에 屬한 것이다. 軍人 各者는 個人이다. 그러므로 個人만이 즐길 수 있는 私生活이 있다. 그리고 軍에 있어서 여러 부분과 特技가 있는 것은 個性과 素質과 敎養을 考慮한 것이다. 個人相談 혹은 面談은 團體生活과 私生活과의 不調和에서 일어나는 모든 問題를 取扱하기 爲해서 마련된 制度이다. 軍人의 生活이란 一面은 團體生活이고 一面은 私生

活이다. 이것은 그 軍人된 各者의 態度와 觀點問題이다.

團體生活에 익숙해지고 完全히 마음에 받아들인 者에게는 벌써 그 團體生活은 私生活의 一局面으로 變化되어 個人속에 吸收되어 버리는 것이다. 이 말은 결코 團體生活을 私生活의 利用物처럼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軍人各者가 團體生活을 人間性中에 있는 社會性의 表現으로 알고 適應하고 處身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團體生活도 個人生活처럼 自由스럽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目的面으로 觀察할 때 軍人生活은 團體生活이다. 그러나 個的 生活面에서 볼 때 軍人生活도 私生活의 一局面에 지나지 않는다.

### 三、軍人生活에 나의 生涯의 一部이다

일부 韓國靑年들은 생각하기를 軍隊生活은 空白期間이라고 한다. 특히 大學生들 중에 그러한 생각을 가진자들이 많다. 그래서 될 수만 있으면 軍隊生活을 기피해 보려고 잔피를 부린다.

大學生들의 그러한 생각을 가지는 것도無理는 아닌 것 같다. 모처럼의 學究生活을 中斷하고 입대하여 엄한 軍율을 지켜 나가는 동안 自然 머릿속에 잔지되었던 知識은 송두리채 있어 버리지 않을까 하는 허탈감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기도 할 것이다. 급변해서 개정된 兵役法을 보면 그런 점이 시정된 것이 역력하다.

大學生은 卒業後에 入隊키로 된 것이다. 空軍에 志願한 자는 自願해서 들어오는 것이니 兵役을 기피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자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空軍에 들어 온 자들 중에도 잔혹

그런 그릇된 생각의 흐름에 젖어서 軍人生活에 忠實치 못한 자들을 볼 수 있다.

그러면 과연 軍人生活은 個人에게 空白期間인가? 그렇지 않다. 國民皆兵制度가 採擇되어 있고 共産陣營과 맞서고 있는 우리나라에 사는 젊은 이들에게는 軍人生活 自體가 그 個人 生涯의 一部로 반드시 엮여져야 할 立場에 있는 것이다.

軍人生活은 나의 生涯의 一部로 確定되어 있는 까닭에 모면할 수 없는 路程이다. 이 路程을 通過하지 않고서는 正當한 國民의 한 사람으로써 行使를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軍人生活은 젊은 이들이 거쳐야 할 路程이다. 이 路程은 우리가 社會生活을 始作하려는 길목에 놓여 있다. 그러나 軍人生活은 젊은 世代에게 社會로 進出하려는 關門인 것이다. 이 關門을 通過하지 않으면 落伍者가 될 수 밖에 없다. 그러면 軍門에 들어와서 軍人生活을 하는 것만 社會生活을 始作하려는 데 關門인가? 그렇지 않다. 여러 關門과 路程이 있다. 學窓生活도 한 路程이요 通過해야 할 關門이었다. 學窓生活도 團體生活에 하나이다. 그런데 어쩌하여 學窓生活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보낸 자들이 그平生에 한번 반드시 거쳐야 할 關門인 軍人生活은 그렇게도 싫어하고 기피하려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이다. 勿論 軍人生活은 學窓生活보다 苦되고 自由스럽지 못한 것 만은事實이다. 그래도 기피할 수 없이 通過해야 할 路程인 것이다.

軍人生活은 나의 準備 時期中에 가장 貴重한 時期이다. 學窓生活은 搖籃期라면 軍人生活은 試驗期요, 다지는 時期이다. 이 가장 貴重한 生涯의 一部를 無意味하게 보낸

다는 것은 自己의 生 自體를 줄먹는 어리석은 行爲이다. 사람은 過去를 지나서 將來의 華麗한 꿈과 소망을 안고 現在 이 순간에 살고 있는 것이다. 이 순간 순간이 나의 삶의 現在인 것이다. 순간 순간의 값있는 生은 나의 全生을 값있게 하는 것이다.

過去에 平安하던 學窓生活에 對한 回顧나 하며 現在의 주어진 生을 허무하게 보내거나 將來의 華麗한 꿈만 꾸고 現在의 生을 無視한다면 그는 벌써 무지개 잡으려는 아이처럼 한발앞에 있는 雲霓이에 빠지고 말 것이다. 現在의 三年間 혹은 四年間, 十年間은 사람의 全生에 比하면 결코 짧은 期間은 아니다. 우리 韓國人의 平均年齡이 四八歲 이라면 三年間은 1/18의 期間이며, 四年間은 1/12이요, 十年은 約 1/5이나 되는 期間이다. 現在의 軍人生活을 忠實히 하여 나의 生에 무라스로 만들지 않는다면 그만한 期間이 無로 돌아가고 마는 셈이다. 그 기간의 長短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時期가 人格의 基礎를 닦는 時期이다. 그러므로 이때에 받은 印象이나 經驗한 經驗은 社會生活을 할 때 重大한 影響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軍人生活을 하는 時期는 人生觀 確立을 하는 時期이며, 個性形成期인 것이다. 이때에 團體生活속에서 個性을 練磨하며 發揮하는 것은 意義있는 일이다. 그러므로 軍人生活의 成敗는 곧 앞으로 할 社會生活의 成敗의 尺度가 되는 것이다.

大概 社會에 나가서 成功한 사람들을 보면 軍에 있을 동안에 自身의 素質에 따라서 能力을 最大限으로 發展시키고 活用하여 軍人生活에 模範이 된 사람들이다. 二十世紀의 偉大한 政治家인 처칠卿은 일찍이 젊었

# 특집 · <軍人の 생활자세>

을 적에 軍人으로서 從軍記者로 軍人生活을 充實한 사람이었다는 事實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아이젠하워 같은 사람도 그가 軍人生活을 充實한 사람으로 가장 成功한 사람중에 하나이다. 우리는 후라이보이를 잘 알고 있다. 그는 空軍下官生活을 하는 중에 오늘날의 人氣코메디안으로서의 素養을 기른 것이다. 어떤 基地에 있는 어떤 士兵은 將來生活을 準備하면서 日課를 忠實히 하는 것을 보았다. 그는 高等學校를 卒業한 者인데 一等兵때에 남들이 즐기는 外出을 나가지 않고 얼마 안되는 一等兵俸給을 모아서 英語讀本을 모조리 사서 매일 밤 열심히 工夫하여 지금의 Newsweek, Time 등을 自由스럽게 읽고 解得하게 되었다. 그 뿐만 아니라 自己의 特技를 忠實히 練磨한 자가 社會에 나가서 成功치 않는 자 별로 없다.

空軍의 모든 特技를 忠實히 練磨한다면 社會에 나가서 쓰지 못할 特技는 하나도 없다. 成功의 열쇠는 軍人生活을 自己生涯의 가장 重要한 定礎作業임을 認識하는 如否에 달려 있는 것이다. 軍人生活은 精神的으로 肉體的으로 苦되고 힘든 生活이지만 自覺하여 올바른 生活態度만 지니고 산다면 軍隊生活은 ① 좋은 친구를 많이 얻게 되고, ② 技術을 練磨하게 되며, ③ 規則的 生活이 習慣化되며, ④ 活動力 있는 사람이 되게 하며, ⑤ 忍耐, 克己, 勇氣, 剛直, 素朴, 單純, 率直 등 좋은 德들을 얻게 된다. 이것들은 人格에 貴한 基礎가 되는 것이다.

### 三、軍人生活에 나의 삶 自體이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格言中에 가장 頹廢的

인 格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軍士 날 보 내기』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李朝時代 軍人들의 無責任한 軍人生活을 證據하는 말이다. 이 말은 이력저력 服務期限만 채우면 된다는 말이다. 오늘날도 우리 軍人중에 이력저력 軍士 날 보 내기를 일삼는 자들이 간혹 있다.

제대날만 기다리는 士兵들이 있는가 하면 自己職務에는 忠實치 못한 자가 俸給받는 일에는 가장 模範的으로 忠實한 자들도 있다. 그들은 俸給날만 기다린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더 편한 特技, 더 편한 勤務處, 더 편한 職責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생각으로 가득차 있다. 그리고 남에게 苦된 軍隊生活을 強要하는 者가 자기는 가장 편하게 軍隊生活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態度는 버려야 한다. 어떤 士兵의 경우를 보면 軍隊生活을 이력저력 服務期間만 채우면 된다는 생각 못한 생각을 가지고 바로처럼 軍隊生活을 하고 있었다. 그는 一流大學校 大學院 入隊한 者인데 新兵隊에서부터 罪명을 부리기 시작하여 特技를 通信特技로 받았는데 通信學校에서 六個月間 病室出入으로 날을 보내고 이력저력 修了하고 實務部隊에 配屬되었다. 그러나 實務通信에 관한 知識이나 技術에는 0(零)이었다.

그러므로 또 폐가 아프다고 염살을 부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들의 上司는 그가 염살을 부리는 줄 알고 있었다. 그러니 더욱 氣合을 받을 수밖에 다른 도리는 없었던 것이다. 그는 바로처럼 되었다. 만약 그가 熱과 誠意만 가졌다면 實務部隊에서 근무하는 三個月間에 벌써 通信에 關한 理論이라도習

得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는 業務에 對한 興味를 잃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特技轉換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가득차 있었다.

그後에 그가 軍牧과 相談한 後에 많은 敎訓과 實望을 받고 覺醒하여 지금은 大學院 生으로서 가졌던 實力을 發揮하여 充實히 奉仕하고 있다. 軍에 있어서의 生活은 態度如何에 따라 그의 모든 生活이 左右되는 것이다. 軍隊生活을 하면 바보가 된다는 말은 團體生活과 私生活의 調和를 찾지 못한 자들에게만 適用되는 말이다. 처음부터 軍隊生活은 空白期間이다. 軍隊生活을 하면 바보가 된다는 先入觀을 가지고 服務에 臨하는 態度는 그릇된 態度이다.

이력저력 날이나 보내고 要領만 피우면서 남에게 피로움만 끼치는 生活態度는 自己의 앞길을 망치는 態度이다. 軍隊生活도 個人의 삶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軍人生活은 남이 해줄 性質의 것이 아니다. 부모나 형제나 親舊가 내대신 치를 것이 아니고 내가 치루워야 하는 나의 삶의 한 토막이다. 남의 生活이 아니고 나의 生活이다. 사람은 來日을 알지 못한다. 한 날에 어떤 運命에 處할런지 모른다. 過去는 이미 지나 버린 것이고 將來는 期約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한 날 한 날 순간 순간의 生活을 忠實하게 엮어 나가야 하는 것이다. 現在 軍服을 입고 軍隊生活을 하고 있는 우리들은 이 軍隊生活속에서 生의 價値를 發見하고 보람 있는 하루 하루를 보내어야 할 것이며 모든 일에 眞實한 態度로 臨해야 할 것이다. 軍隊生活을 잘치른 자 중에 成功한 者가 많다. 그러나 軍隊生活에 있어서 落伍者는 人生의 落伍者 候補生이다.

# 이런 軍人을 願한다

## 思想的 信念이

## 強한 軍人을.....

早熟的 反共 정신을 가진 軍인, 그리고 理解와 調和, 坦白과 誠實의 美德을 가진 軍인을 나는 願한다.



淑明女大 教授

吳允根

國家의 職分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外國의 侵略을 防禦하는 것은 國家의 存立上 基本的인 것이며 또한 一國의 獨立을 維持하기 爲한 最低限의 要件이 되는 것이다.

軍人은 이러한 重要한 國家의 職務를 擔當하고 있으며 또한 그 職務는 國民의 委任에 淵流하고 있는 것이다.

即 國民은 生命과 財產에 對한 外部 侵犯을 防禦할 것을 特히 軍人에게 委囑하고 있는 것이다.

勿論 國防은 舉族의 共同問題이지만 一段은 軍人의 職責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이 軍人은 國家防衛—國民의 生命이나 財產을 保護하는 重要한 擔當하고 있는 만큼 國民으로부터 絕對的인 期待와 尊敬을 받고 있

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本稿에서 는 請托된 題目의 性質上 要望되는 點에 對해서만 몇 가지 말하고자 한다.

軍人은 戰爭이라는 特殊職責을 擔當하는 것이므로 心身이 鍛鍊되어 야 하고 紀律을 嚴守하는 同時에 責任感과 奉仕의 精神이 누구 보다도 旺盛해야 할 것은 勿論이지만 本人은 이러한 一般의 點을 떠나 좀 다른 면에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

過去의 戰爭은 民族과 民族사이 即 民族의 利害關係에서 일어나는 것이 一般의 現象이었으나 今日에 와서는 民族의 對立도 있지 마는 他面에는 民族을 떠난 思想的인 對立이 있는 것이 特徵이다.

今日의 國際情勢는 民族과 思想의 二元의 關係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各國은 自己 防衛를 하는 同時에 聯合戰線의 一員으로서 共產主義와 對峙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國際情勢나 近代戰爭의 特

殊性은 傳統的인 民族自覺만으로서 는 解決될 수 없는 일이며 強力한 思想的 信念이 兼備되어야 할 問題다.

우리는 民族이나 國家를 떠나서 生存할 수 없고 또한 自由友邦과의 結束없이도 生存할 수 없기 때문에 民族의 自覺과 思想的 信念, 自主와 協調의 二元關係即 高次의 國家意識과 精神의 訓練을 要求하게 되는 것이다.

더우기 國土와 民族의 一部가 共產政權에 強占되고 있고 六·二五와 같은 同族相爭의 慘景을 겪은 우리로서는 反共의 信念없는 近視的인 民族意識만으로는 到底히 納得될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近代의 戰爭은 科學과 頭腦의 戰爭이다. 非單 國防은 單은 아니지만 今日의 世界는 確實히 科學의 競爭과 熟練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恒常히 面에 精力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量보다 質, 힘보다 頭腦가 問題가 되며 勇敢한 軍人이 되어야 하는 同時에 知慧있는 熟練된 軍人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關係있는 問題로서 今日의 國防은 一人의 英雄을 要求하는 것이 아니다. 政治에 있어서 偉人政治가 容納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國防에 있어서도 一人의 武勇에만 期待될 수 없고 또 事實上 不可能할 것이다.

勿論 各自가 偉大한 軍人이 되어야 할 것이지만 組織의 힘과 科學的 準備, 그리고 技術의 訓練없이 는 獨



女流作家

鄭 然 喜

표인인지 일반인지 구별이 없다면 그러한 군인들은 정말 싫어한다.

## 意志와 決斷性 있는 軍人을.....

難한 것이며 獨裁的英雄 「잇틀러」나 日本의 「大和魂」도 組織과 科學에 滅亡하고 말았기 때문이다. 이런意味에서 知慧와 協同, 그리고 責任性은 또한 重要的 일이다. 끝으로 말하고 싶은 점은 軍人은 國土防衛란 特殊한 任務을 擔當하고 있는 反面에 一面에는 國民의 一員이며 家庭의 一員이란 點이다. 軍隊와 社會, 部隊와 家庭의 서로 다른 兩面을 어떻게 調節할 것인가는 重要的 問題이며 紀律이나 命令體系가 嚴한 軍隊生活를 社會에나 家庭에 그대로 適用시킬 수 없는 同時에 世俗과 市井에 빠지는 것은 더욱 困難한 일이기 때문이다. 軍隊生活이 그대로 社會에 延長

되며는 善良한 市民生活이나 溫和한 家庭을 이루기가 어려우며 反對로 社會나 家庭生活이 그대로 軍隊生活에 延長되면 柔弱에 빠지고 腐敗의 可能性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兩面生活은 二十四時間을 通해서 節制이제 按配되어야 하고 自己의 生活觀에 綜合되어야 하며, 그리함으로서 忠實한 軍人과 善良한 市民의 德이 兼備되는 것이다. 奉仕와 主張, 剛直과 柔和, 淡泊와 慎重, 命令과 理解가 잘 融和가 되고 適切히 調節함으로써 훌륭한 軍인이 되는 同時에 誠實한 家族多情한 洞民이 될 것이다.

플빛 땀방한 작업복 앞가슴에 눈부시게 흰 티·셋스가 삼각형으로 단정하게 들어나 보인다. 그의 걸

음질이는 규속적이면 서도 활발하고 당당하다. 어느營內에서 본 군인의 모습이 었다. 한 눈에 好感이 가는 모습이 가을의 휴일, 덕수궁 국화 전시

회장에서 서다. 한구석도 홀로 서서 보이는 듯이, 딱 제인 카키색 正服으로 전시장을 천천히 돌아보는 장교 한사람을 본 일이 있다. 옆에는 부인인 듯한 젊은 여성과 두세 살쯤 뒤떨어진 아기가 따르고 있었다. 위풍 당당한 군부인이 어찌면 그렇게도 멋지게 반 보일까? 그 장교의 얼굴은 저극히 평화스럽고 너그러운 보였다. 저런 사람이라면 幅과 깊이를 함께 한 훌륭한 지휘관일 수 있다고 혼자 생각했다. 돈은 없고 믿음직스러운 데에 마음이 놓이는 듯 싶었다. 이따금 거리에서 보는 일이다. 추위에 가득 가득 채워진 군인들 이 어디로인가 실려가고 있는..... 저러한 모퉁이에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감정이 착잡해져 마련이다. 무엇이냐고 설명할 수 없는 여러갈래의 마음이 일키고 설친다. 믿어줌으로 가슴이 부듯하기도 하다. 그러나 그중에 가장 강하게 남겨지는 것은 悲壯感이다. 人類의 宿命에 어쩔 수 없이 매어져 있는 운명이며 서도 탐구 기운 차게 생기는 듯한 生命을 그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비장한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이다. 「내가 바라는 軍人」。 한마디로 하자면 쉽고도 간단한 말이 있을 수는 있다. 그것은, 「軍人은 오로지 軍인이어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잠깐 물어켜 생각할 때, 軍人이란 무엇이냐 하면 저극히 단순한 대답부터 풀길 없이 복잡한 대답까지를 일으키는 것이 군인의

# 이런 軍人을 願한다

문제일 것 같다.

軍人이란 特定된 人物이긴 하지만 별다른 要素를 지닌 인간은 아니다. 그런데 그들은 제한된 범위와 엄격한 규율과, 一般의 社會와는 전혀 다른 질서속에 살게 마련인 것이다. 때문에 人間性的인 것은 문제에서 인제나 이 군인 문제가 심각하게 다루어지게 마련인 것이다.

어원·소의 作品 「젊은 獅子들」이라는 小說속에 나타난 各種各색의 軍人像은, 그것이 人間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인간의 성격을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한 가지의 유니폼속에 쌓여 있으면서도 그렇게 다른 類型의 군인을 그럴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된다. 映畫 「地上에서 永遠으로」도 그랬고, 에리히·마리아·레마르크의 小說 「西部戰線 異狀없다」나 「사랑 할때와 죽을때」等 전쟁 소설속에서 보여 주는 軍人이란 어느 누구보다도 더「결실한 人間」인 것이다.

人類的 歷史에서 戰爭이라는 것이 없었지 않는한 軍人이라는 人物도 그냥 결실한 人物로 이어져 나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가장 人間的인 人間에게 유니폼을 입게하고 우리가 거기에서 무엇을 要求하고 바랄 수가 있는 것인지, 깊이 생각하면 마음이 편편치가 않아진다.

그러나 어찌 되었던 간에 軍人은 軍人이어야겠지. 責任感이 강해야하고 용감해야할 것으로 믿는다. 군인이 게으르다는 것은 상상도

안되고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다.

이제는 저나가 버린 話題지만, 모한 고급 장성들이 畜財로서 사건을 일으킨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어이가 없었을 뿐이다.

軍人과 物慾이란 참으로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일까? 군인의 어느 野性的의 일부는 지극한 매력일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거칠고 지나치게 단순하고, 暴言이나 거침은 行動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버린다는 것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조금이라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이 솔직한 고백이 되겠다. 틀만 있으면 유니폼이 아닌 이른바 私服을 하려고 애태우는 어느 장

교를 한 사람 알고 있다. 그런데 어떤에서 보기에 그는 그가 군복이 아닌 양복을 입었을 때처럼 어색하고 딱딱하지 않으며, 모자라 보일 때가 없는 것이다.

一般人인지 軍人인지 구별이 안되는 그런 軍人이란 정말 싫다. 군복의 특징과 매력을 잘 살려, 단정한 모습을 우선 갖추어야 하는 군인에게서 好感이 간다.

깊은 意志에 의한 결단력을 가진 군인은 믿어워서 좋다. 외모에나 마음속에나 人間味를 토대로한 悲壯美가 있는 軍人이면 틀림없는 軍人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 여가를 선용하는 軍人을……

자기 자신의 완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군인——그런 군인을 나는 좋아한다.



姜 得 順

☆ 保健社會部 婦女局長

軍人 生活를 經驗한 일도 없고 또 軍人들의 生活조차 理解하지 못하는 門外漢이 軍人들에게 그 무엇을 바란다는 것이 猥濫된 일임에 틀림없다. 다만 軍人이라고 하면 흔히들 秋霜 같은 軍舍下에서 機械와도 같이

規律적이고 單調로운 生活를 營爲하는 特殊組織의 構成要素라고 생각하기 쉬운 까닭에, 그들을 우리 社會 우리 家庭 卽 우리들 生活周邊가가 이끌어내어 그들이 經驗하는 軍과 社會와 家庭等의 多樣的인 生活樣態를 調和시킨 줄 아는 軍人이 되어 달라는 衷情에서 敢히 붓을 드는 것이다. 모름지기 軍人은 國土防衛의 神聖



한 業務를 그 基本任務로 하고 있으며, 一旦 臨戰時에는 勝利를 그 本領으로 삼고 있음은 再言을 要치 않을 것이다. 戰時나 平時나를 莫論하고 國民의 生命과 財産을 保護하고 國土와 國權을 守護하는 重任을 맡고 있는 것이 軍人인 까닭에 무엇보다도 平常時에 끊임없이 精神과 戰技를 鍊磨하여 즐거움과 勇敢한 軍인이 되어야 할 것은 勿論이라 하겠다. 우리 國軍이 創軍十餘年이라 하는 짧은 時日에 飛躍의 飛躍을 거듭하여 世界第四位라는 強軍으로 發展하였거니와 나는 이것을 決코 偶然한 事實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勿論 美國을 爲始한 友邦諸國의 技術과 裝備等의 援助에 힘입은 바도 크다고 하겠으나 우리 國民들의 의수에 호르는 不退轉의 民族魂이 오늘날의 우리 國軍을 만들었다고 본다.

멀리 高句麗의 우리 祖上들의 儉朴하고 強直한 氣概가 우리 國軍의 毅然한 氣象을 만들었고 新羅의 花郎道精神은 우리 軍人들에게 知·勇·仁의 敎訓을 주어 오늘날의 우리 軍人精神의 根幹으로 삼게 하였으니 지난날 六·二五戰亂을 通해 그 勇敢함을 우리에게 보여 주었다. 五·一六軍事革命의 奮勇을 들어 그 슬기로운과 忠誠됨을 內外에 誇示하였다.

現在 世界는 兩大陣營이 生産増強에 全力을 集中하고 武力을 培養하기에 餘念이 없는가 하면 戰鬪아닌 思想戰을 猛烈히 繼續하고 있음은 볼때 目前에 敵과 對峙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武力 못지 않게 精神

武裝의 緊要를 痛切히 느끼게 하며 더우기 軍人에게는 強靱한 滅共思想이 要求될 것이다. 이를 爲하여는 一當百騎의 戰技와 아울러 精神의 糧食이 必要하다고 할진만 時空적으로 制約을 받고 있는 軍人들에게는 積極의 自己 啓發이 必要하다고 본다. 前方軍人의 境遇 陣中勤務나 戰鬪訓練의 餘暇에 또는 後方軍人의 境遇는 日課後의 時間을 善用하여 良書를 많이 읽으므로서 情緒를 淳化하고 思想을 가다듬는다는 일은 自身을 爲해서나 國家를 爲해 일마나 有益한 일이겠는가. 前方에는 가본 일이 없어 알길이 없으나 一部 後方 軍人들 중에 勤務로 인한 피로와 時間的인 制約을 克服하고 四年間을 한걸 같이 夜間大學에 나가 學業에 精勵하고 있음을 볼때 限없는 기쁨을 느끼게 한다. 그들이라서 終日로 辱勤務에 시달린 疲勞한 몸을 安逸한 茶房椅子에 누워서 每日을 消日하는 無爲從食群과는 너무나도 好對照거리라고 여겨진다.

우리에게는 只今 너무나 큰 課題가 많이 가동되고 있으니 類撥하였던 社會風潮를 물리치고 清新한 氣風을 다시 바로 잡으며, 萎縮되었던 國力を 最高度로 增強하므로써 子孫萬代에 幸福을 누릴 수 있는 福祉國家의 굳건한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그것이다. 耐乏生活를 營爲하고 社會秩序를 바로잡아 國家發展에 寄與할 것을 어찌 軍人들에게만 期待

할 것이랴마는 情怠와 安逸의 惡夢속에 깊이 잠들었던 이 國民이 社會를 바로잡기 爲하여는 軍人들의 一舉一動이 미치는 影響이 너무나도 莫重한 現實인 까닭에 큰 期待를 걸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日課後 家庭에 돌아와 家事와 子女教育에 充實하고 餘暇를 善用하는 後方 軍人의 모습이나 모처럼의 休暇로 歸省한 軍人이 休息이란 생가지도 알코 家事를 整理하며, 農事를 힘껏 거두고 돌아가는 一線 軍人들의 가독한 모습은 修身齊家의 倫理를 넘어서 鄉土開發과 直結되는 것이라고 본다.

休戰以來 前後方 軍人들이 駐屯地域의 文化發展과 產業開發事業에 힘을 기울이고 災害地區의 再建事業에 動員되고 있으며, 農繁期에 各部隊將兵이 一致團結하여 對民奉仕를 하므로써 後方을 支援하고 있음을 보는 데 이는 實로 國民의 軍인이요 國民을 爲한 軍人임을 象徴하는 美譽라 본다.

또한 陸·海·空軍과 海兵隊를 莫論하고 軍人 한 사람 한 사람이 自己 軍本然의 任務를 完遂하는 한 便自己 身身의 完成을 爲해 끊임없이 努力하고, 人生觀과 家庭을 보살피며, 社會에 奉仕하고 전하는 生活態度를 가질 때 이는 直接的으로 強軍에의 捷徑이 되는 것이요 國民과 國家를 爲한 奉仕에 直結되는 것이 되고 생각된다.

- ×
- ×
- ×
- ×
- ×

# 따뜻한 人間性을 가진 軍人을.....

## 가진 軍人을.....

재미를 갖춘 선비를 좋아 한다. 그러나 나는 그 보다 호방한 용기와 인간미를 가진 武士를 호모한다.



梨大 國文科生

### 한 정 정 란

언젠가 下學 때 스산에서의 일이었다. 별로 사람이 많지 않은 때 스산에서 나는 버란잔 때 밀리며, 발을 밟혀 부지중 <아야!> 소리를 지르고 말았다. 의외로 내 소리가 커서 먼지 몰려서 있던 친구들이 한 바탕 웃어 준다. 나는 하얀 양말이 형편없이 밟힌 것은 둘째치고라도 어찌나 발등이 아픈지 잠깐동안 아무 소리도 못하고 엉겨주춤 서 있었다. 그러자 옆에서 담뱃새를 확확 풍기던 軍服의 아저씨가 머리를 숙이고 대단히 죄송스럽노라고 하면서 진정 어린 사과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일은 사람 많은 때 스산에서 흔히 있는 일이라 특별히 화를 낸다거나 하는 것은 도리어 어리석은 노릇이지만 별질 별질한 紳士처럼이 女子들의 발을 밟고도 상대방

은 보지도 않고 입으로만 그치미 안한다고 할 때에는 없던 화도 나는 수가 있다. 그러나 그런 정도도 자신은 인자성이 있는 편으로 보아 주고 있는 바 아닌 것만.....

그랬는지 나는 밟힌 발등의 불이 나는 듯 아픈데도 일결에 <괜찮아요> 해 버린 것이다. 검붉게 탄 얼굴을 담으로 번들거리며 배낭을 거울째 지고, 역시 땀 배인 軍服으로 배스에 오르면 車掌들은 으헤히 표독스럽도록 불친절히 대접하는 것을 시내 때 스산에서 가끔 보아 오는 일이다. 그래서 좀전에 배스 車掌과 우산과 신인성을 노여워 심정을 하는 軍人을 우리는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었다. 그런데 갑자기 배스가 흔들릴 정도로 <나는 일선에서 유가장병이 되고> 하고 제 소리를 질러 때 스산의 시선을 끌었던 그 軍인이 유종한 軍靴로 나의 발을 밟았던 것이다. 차장은 유가장병의 호통에 절금

해서 입속으로 뭐라 할 것 같지만 시는 아무 말도 못했고, 우리 승객들은 눈을 커다랗게 뜨고 의미있게 서로를 쳐다 보는 일이 不當한 것에 대해서 용감히 호명할 수 있는 의욕함에 감탄한 눈치였었다. 安易한生活態度를 전치하러는 극도의 利己的인 生理에서 자기 자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에는 거의 관심을 표하지 않으려는 습관을 가진 都市人들은 어리둥절해 있는 유가장병에게 생트집을 차다시피 하는 車掌의 행동을 옆에서 말리는 일이 거의 없었다. 軍人들은 대개는 몇 마디 말을 하다가 냉정히 구경하고 있는 주위 사람들에겐 경외한 듯이 보통은 호저부저한 결론을 맺고 만다.

그런 것을 보고나면 어쩐지 상쾌한 기분은 아니다. 아니 우울한 정도다. 작은 일이지만 끝까지 자기의 의사를 관철시킬 수 있는 몇몇한 용기가 그 軍人한테서는 아쉬운 것이고, 불처럼 사늘한 두뇌의 打算의 都市人의 잃어가는 人間愛가 그리운 까닭에서이다. 무지스럼도 목아포게 발등을 밟은 軍人의 뜻뜻함에도 모르게 믿음직스런 기대를 갖게 되었던 것도 아마 그때서인 모양이다.

왜냐하면 그 정도로 실패하는 사람에겐 화를 좀 내도 되는 것인데 아픔을 무릎쓰고 <괜찮아요> 해 버렸으니 말이다. 허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의 무조건의 용서를 베풀수 있는 좋은 감정이 軍인의 용감성에만 있었던 것이 아닐 수 없다. 발을 밟아 놓고 커다란 소리로 <미안

합니다> 하고 의척다면 나는 아마 그 용감한 軍人이라기 보다는 車掌과의 예로 보아서도 큰 소리지르는 習性이 있는 사람쯤으로 알아 두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軍인은 진정으로 미안한 듯이 얼굴을 붉혀가며 사과한 것이 아닌가.

이것은 극히 사소한 일에 부딪친 한 작은 예이지만 우리의 大韓民國 國軍들은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모를 자기 용감하고 반면에 진실된 인간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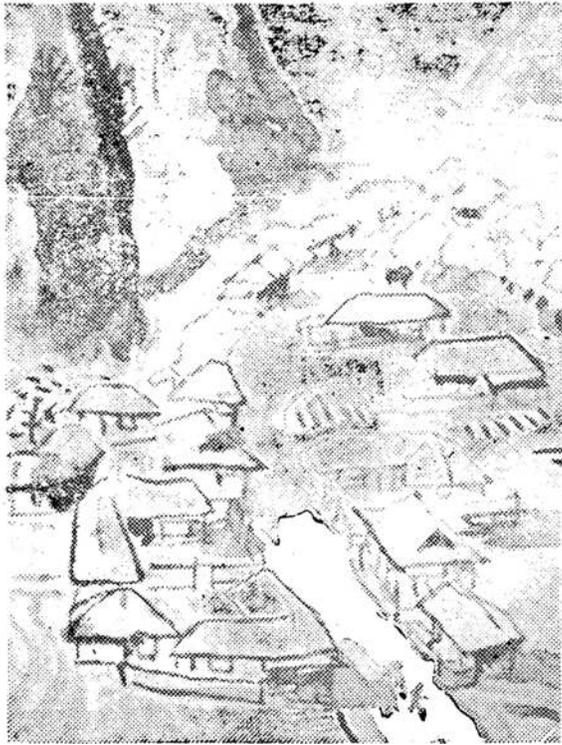
軍隊라는 特殊社會에서 영웅적 공훈을 세울 수 있는 용맹성과 부단한 무저의 남성적인 힘을 발휘하기엔 그리 힘든 일은 아니다. 그것은 男性이라면 별 노력 없이 체계 어느 구석에서나 옛부터 있어온 쉬운 사실이다. 그러나 용감하고 섹제함속에 진정으로 사물에 임할 때는 따뜻한 인간성을 갖기엔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재주 있는 사람이 德을 접미치 못하고 자기의 재해에 빠져 버리듯이, 완강한 힘속에 어짐을 함께 하려면 그 보다도 더 어려운 일일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才德을 갖춘 선비를 존경하고, 그 보다도 호방한 용기에 따뜻한 인간미 있는 武士를 호모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우리는 이러한 軍人을 원하는 것이다. 용감성 못지 않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따뜻한 인간성을 발휘할 수 있는 軍人을!

X X X X X

# 飢饉의 歷史 算

우리 部隊의 指導部落을 말한 다

空軍教材廠



옛이야할

지난 날의 傷處

永登浦 大方洞에서 며칠이나 「冠岳山」을  
東쪽으로 쳐다 보며 狹少한 溪谷을 따  
라 들어가서 계곡이면, 물과 개울을 여러  
번 넘어질 듯 건넌다는 山峽의 오솔길  
이 눈앞에 나타난다.

명색이 대 서울의 近郊로서 불과 十  
里도 못되는 都心の 距離, 길종은 아  
스팔트의 空軍本部 청사 앞을 지나 울  
릉불뚝한 적은 언덕을 넘고 空土 뒷  
문을 주욱 지나서 다가서면, 險惡한 地  
質의 德分인 저 사투 까부라진 외길을  
약 삼십분쯤 걷고 나면 文明의 惠澤을  
니루도 받지 못하고 있는 寒村이 눈앞  
에 들어선다. 여기가 우리 教材廠과  
姉妹結緣을 맺은 『京畿道 始興郡 東面  
봉천리』 마을. — 都市에서는 그렇게

도 혼란 「빠스」나 「합순」한 때 지나지  
않는 벼촌, 병풍처럼 둘러싸인 山과  
찌를듯 솟은 저 멀리의 民族의 永遠한 氣  
象처럼 雄壯스럽게 굳어 있는 冠岳의  
기슭이래 다만, 祖上들이 물려준 호미  
와 鋤이만으로 代를 이어온 이 적은  
마을 밑동엔 『은천 국민학교』와의  
結緣을 하게 된 저 3년 살림 이십삼  
일 — 生動하는 季節속에서 이루어  
졌던 것이다.

原來 天職이 農事요, 남을 속일 줄  
모르는 — 오직 어질기만 한 이 部落  
민들에게도 여러 農民들과 같이 淳朴  
만으로 살 수 없었던 어제의 苦悶은  
정말 어찌구비 없는 몸부림의 지난날  
이었던 것이다.

해마다 계속되는 가을에다 몸이 으  
스러져 도록 파헤친 매마른 땅은 기  
껏 가을이 되어 추수를 해도 그 다음해  
봄이 되면 춘궁기를 면하지 못하게끔  
되고 그나마 봄동 안 영하라도 고 밭  
려 쓴 빛을 치루고 나면 해마다 生活

은 점점말이 아니게 되는 것이다.  
百餘戶 남짓한 이들 보금자리 화다  
리部落民들, 飢餓와 絕望속에서 헤  
메던 지난 數年은 정말 惡夢속의 나날  
이었던 것이다.  
그러기에 이들은 革命의 眞意를 더  
한층 느꼈는지도 모른다.

### 來日을 凝視하는

### 화다리部落民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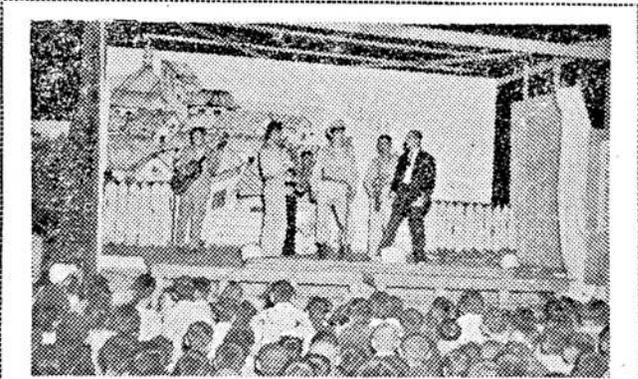
이제 주린 허리를 한껏 퍼면서 來  
日을 凝視하는 이部落民들의 비참 意  
態에 무심도록 번져가는 再建相, 호  
미와 쓰스라기를 氣運차게 내리 찍는  
모습은 정말 미더운 表情들인 것이  
다.

가난한 이 마을을 中心으로 하여 자  
리장은 은진국민학교의 어린이들, 革  
命一週年 記念式날 教材廠 上士團主  
催의 慰問公演의 宣傳포스터가 나붙고  
GMC위의 산더미 처럼 싹터져 들어  
오는 이들 公演團軍人 아저씨들을 맞  
는 天真爛漫스런 눈발을 속엔 그저 고  
마음의 愛嬌가 한결 넘쳐흘렀다.  
이들 教材廠空軍 아저씨들의 다사  
로운 姊妹結緣以後 어린이들에게 적  
은 기쁨이지만 가져다 준게 한 두가  
지가 아니다.

都會地 어린이들처럼 갖고 놀 수 없  
었던 그네랑 運動具 一切 또는 놀이터  
를 만들어 준고마움 보답도 비가 오  
나 눈 내리나 危險한 部落入口에서  
始作해서 등고하는 道路, 恒時 安全  
하게 다닐 수 있게 만든 이 道路擴張  
工事야 말로 마을 사람들에게 큰 반가  
움이었던 것이다.

### 結緣으로 닦은 道路 軍民紐帶의 象徴

그 무미한 여름동안 매일 먼길  
을 수십여명의 다니며 명멸 아래서



지도 부락을 위문하는 俳優상 상사단

두마리와 토끼 열마리를 선물받은 이  
들은 벌써 이部落民들의 만만치 않는  
큰財產이 되었다. 마침 처녀들락이며  
사료를 주는 이들 表情엔 호못한 재나  
우 그리는 웃음, 처음 農夫들에게 나  
누어 준 農器具는 벌써 收穫을 다짐하  
는 금년 農事에 빛보답도 반가운 贈  
物이었던 것이다.  
歷史의인 結緣式날.  
화다리部落와 教材廠은 큰 잔  
짓날이었던다.

記念式에 이어 벌어지는 空軍  
아저씨들의 軍樂演奏엔 저마다  
男女老少없이 踴躍한 악절리에  
얼굴을 붉히면서 흥을 들추었고,  
名節패만 인턴 나드리 웃음으로 보  
여든 원 마을엔 가을 運動會 못  
지않는 大運動會가 벌어졌으며  
계수하여 저녁엔 마을 사람들을  
慰安키爲하여 映畫가 上映되어  
고된 하루가 밤새는 줄 몰랐던  
것이다.

### 가난 追放에

### 部落民들 總 蹶起!

가장 尊敬과 信愛로써 革命主  
體가 된 軍人들의 믿음직스런 모  
습은—원가 도음이爲해서 指  
導部落을 찾은 걸음은 마을 사람  
들로 하여금 새로운 覺悟를 갖게끔 했  
었다.

飢餓.  
이전 너무도 뼈저리게 느껴온 우리  
들이게의 歷史. 絶望과 飢餓는 몸서

리쳤던 過去の 傳說이다.  
俗談에「가난은 나라도 救濟못한다」  
라는 말이 있다.  
또한「가난은 原來부터 우리 祖上  
들에게서 물려받은 遺物이 絶對아니  
다」

李朝중엽부터 始作한 四色黨爭은 가  
난을 가져 오게한 主要原因이 되었다는  
지난날의 얘기 보답도, 民族性이 가진  
獨裁政權의 부패정치로 因한 農民을  
등한사한 것은 政治배운에, 우린 緊  
迫性을 깨닫지 못한 것이다, 打開  
한 原因이 우리들 國民各人에게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은 革命以後切實  
히 要求되는 問題라고 이젠 누구나 疑  
心치 않는 것이다.

허기 때문에 이 마을 사람들은 先祖  
가 물려준「가난을 自欺치 않는 것이  
머 어떤 方法을 써서라도 내손으로 한  
결같이 마을을 모아  
『산에 나무를 심어 洪水를 막고』  
『뚝을 쌓아 貯水池를 만들어 관개를  
하고』  
『改良된 農事로서 발달되는 農村을  
建設하고』  
『副業을 장려하여 生活 水準을 높  
이려』

『골들은 生活改善으로 나온 고장을  
建設하자』는  
意慾의인 慾望은 이들의 가슴속에  
큰 환희를 가져다 주며 希望的인 思  
想을 싹트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政府는 農民들을 爲해 強力한  
營農政策을 講求했고, 비록 軍隊에 머  
문 그들의 아들과 孫子들이지만 굶은  
배마디의 팔뚝을 건어 붙이고 再建의  
안장을 썼다. 이에 보답키爲하여 部落



# 中共의 三歩後退

産兒制限 政策을

中心으로

毛澤東



一九五五年, 周恩來는 전세계의 公産국가는 절대로 産兒制限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었다. 그의 말에 의하면 胎斯주의적 입장에서 본다면 산아제한은 異端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면 그 후의 中共은 어떻게 되 있는가? 그리고 최근의 中共은 그들의 골치꺼리인 人口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결과부터 먼저 밝혀보면 中共은 지금 본격적으로 산아제한을 실시하고 있다.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나라의 모든 지역은 적당한 산아조절을 추진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은 우리가 胎斯주의에 보다 충실하는 길이기 때문이다』라고. 놀라움에도 이 문구는 中共이 一九五七年 三月에 산아제한을 法律化하는 포고문의 한 구절이었다.

이 포고에 의해서 中共全土에는 산아제한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그러면서도 周恩來는 一九五五年의 자기 선언한 산아제한의 異端說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설명도 해명이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또한

어떻게 된 영문인지 산아제한 공포 八개월 후인 一九五七年 十二月에는 한마디의 설명도 없이 그저 미친듯이 전개되면 산아제한 운동이 전국적으로 갑자기 자취를 감추어 버리고 말았다. 그러자 이에 대한 해명은 이렇다. 一九五八年 五月, 黨대회에서 행한 毛澤東의 말에서 간신히 나타났다. 그는 이렇게 말했던 것이다. 『급속히 팽창해가는 우리나라의 人口는 經濟적인 사실로서 우리나라가 세계에 자랑하는 資産인 것이다.』라고. 『君子一言은 不變』이라는 文字는 中國사람들의 말이다. 그러나 周恩來와 劉少奇는 毛澤東의 말에 따라서 그 『君子一言』을 표현했다. 놀라움에도 그들은 이렇게 말했던 것이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방대한 人口는, 그리고 그 人口가 가진 피와 살은 中共의 위대한 힘의 상징이다. 우리는 이 위대한 人口가 모든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목적하는 모든 부문에 가능성을 한결 높이는 데 필요 불가결한 기반이다.』라고. 周恩來는 同黨대회에서 이렇게 위키므로써 黨의 政策을 받았다. 一

九五五年, 胎斯主義에 비추어 산아제한은 異端이라고 해쳤을 때 역시 胎斯主義를 받았고 一九五七年 五月에 산아제한을 立法化하고 포고문을 발표할 때에도 동일한 胎斯主義를 받았던 것이다.

中共의 정책입안은 모든 것이 胎斯主義와 정비례한다. 조령도개와는 관계가 없이...

周恩來가 산아제한은 異端이라고說破하였을 때 『人民日報』는 社說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던 것이다. 『中共은 자원이 풍부하고 자연적 조건이 좋은 광대한 土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다 더 방대한 人口도 수용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고.

공산주의자들에 있어서 수단과 방법을 저해하는 것은 아무것도 있을 수 없다. 그들은 필요하면 표현도 할 수 있고 물변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이나 표현하고 물변했던 中共의 산아제한 문제는 이제 또 다시 표현하여 산아제한 운동이 전국적인 양상을 띠고 적극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中共의 변모는 무엇의 미하는 것인가? 우리가 컷취해야 할 것은 이 점인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전반적인 면에서 전략적인 후퇴를 하고 있다는 一側面이다.

반금 전개되고 있는 中共의 산아제한은 그 방법의 양상을 달리하고 있다. 그것은 「산아제한」이란 용어를 쓰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가족계획」이라는 말로 바꾸어졌다. 그리고 그 이유에 도 人口문제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다.

「산아제한」 「산아조절」이라는 용어는 그 용어의 사용을 금지하는 하등의 법을 없이 금지되어 있는 것이다. 반금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산아제한 운동의 선전문구는 다음과 같다. ① 早婚을 하면 좋은 자녀를 낳을 수 없다. ② 일찍 자녀를 가지면 勞動한 시간이 없어진단다. ③ 자녀를 일찍 가지면 아내는 여성의 아름다움을 빼앗기고 남편은 자기비판할 시간을 빼앗긴다. ④ 교육시키는 데 필요요이의 돈이 없다. ⑤ 그러므로서 사회주의 사회 건설이 늦어지고 노동자는 불행해진다.

반금 中共에서 라디오, 신문, 잡지 학교, 장연회 등에 남자는 二十六才 여자는 二十三才까지 아버지가 되자 말고 어머니가 되자 말자고 떠들고 있다. 피임법 강연회가 열리고 산아조절 진료소가 활기를 띠고 있다. 『中共은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고 자연적 조건이 좋은 광대한 土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다 더 방대한 人口도 수용할 수 있는 여유』 그 빛을 앞의 되고 『급속히 팽창해가는 우리나라의 人口는 經濟적 사실로서 우리나라가 세계에 자랑하는 자산』도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방대한 人口는, 그리고 그 人口가 가진 피와 살은 中共의 위대한 힘의 상징』도 그 자취를 한 마디의 해명도 없이 감추어 버리고 말았다.

두 말할 것도 없이 이것은 그들이 엄청난 人口 증가에 당황하여 胎斯의 가르침을 들을 자들이 없음을 고백하는 것에 틀림이 없다.

지금 中共政治局은 一九五七年 三月로 완전히 후퇴하였다. 따라서 이 경우에 있어서의 異端說은 信仰的 信條가 되는 것이다.

一九五八年十二月, 많은 教授들이 右派, 反動分子로 몰려 손발이 묶이 있었다. 그 이유는 그들이 一九五七年 三月 이후, 산아제한의 변호를 저지르고 그理論을 썼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教授들이 이제는 또다시 손발의 자유를 얻어 산아제한의 이론을 옹호해서 떠돌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그 근본을 캐어보자. 실은 一九五六, 五七年은 中共으로 하여금 오늘날의 不安을 가져온 예외편과 같은 해였다. 말이 아닐 정도로 감수원 收穫, 추진중이던 공업계획의 중단, 넘쳐나는 도시의 실업자, 급진하는 인부대—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모든 계획을 조석으로 변경케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한편의 실패가 政治局內의 온건자들의 기세를 돋구었다. 산아제한이 「가족계획」으로 변모하여 다시 기세를 올리게 된 것은 정치국 내의 온건분자의 승리를 말하는 것이다.

이같은 中共의 현상이 그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실패를 자인 고백하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이른바 「百花齊放」운동의 참담한 실패에 대한 비난은 毛澤동으로 하여금 당황케 하였다. 毛는 산아제한을 극히 반대하면서도 이제 그는 싫어 싫어 하면서 온건파에 항복한 것이다.

여기에 있어서 毛澤동은 그의 전법인 一步後退 二步前進을 들고 나왔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는 一步後退가 아

니라 공산주의로서는 치명적인 「三後退」를 깨우치 못한 셈이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한 산아제한의 부활은 그것에 국한된 하나의 후퇴가 아니라 中共의 국한된 후퇴는 모든 정책의 一側面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후퇴한 것은 산아제한 정책만이 아니다. 모

# 伯林問題의 神話

共產主義者가 노리는것

후루시초프



든 전반적 정책이 이것과 같이 하였다는 점이다. 방금 中共내에는 때때 주의 기색이 겹치는 구름처럼 흐르고 있는데 그것은 그들의 모든 정책이 실패하므로 三後退 後退를 머지않아 강요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英國)의 코노 미스트誌에서)

伯林문제처럼 문제의 소재가 명확하면서도 해결의 방법이 그처럼 불명확한 문제는 없다. 그것은 마치 醫師가 진찰을 해서 병명을 명확히 파악했음에도 치료방법이 없는 그러한 병과 같다. 그 치료방법을 모르면 문제에 당하는 자꾸만 증병에 빠져가는 꼴이다.

지난 八月 十三일, 이른바 「伯林的 벽」 「주변을 맞으면서 伯林문제는 또다시 醫師들의 처방의 논의 대상으로 일어났고 한편에서는 그 무서운 병마에서 벗어날려고 伯林성벽을 도망하자는 동맹팀 시민들 동맹 경찰은 무자비하게 쏘아죽이는 폭거로 나오고 있다. 이 폭거는 보다 더 무서운 병을 유발할만 했다. 그것은 무자비한 동맹경찰의 총격에 격분한 서베팀 시민

들이 동맹에 투신했던 사배였다. 이 투석사배는 자못 심상치 않은 사태로 확대될 증거가 농후했으나 미군당국의 적절한 조치로 수습되었었다.

그런데 이와 때를 같이하여 후루시초프는 동맹을 집어삼키려는 그의 푸로그램을 강했다. 그는 보스트로크, 四호 비행사 환영 연설장에서 판에 박은 그 구호, 「서독에서 서방군은 철퇴하라」고 떠들고나서 동맹팀에서 소련사령부를 폐지하고 「방적으로」 점령제에 「폐기를 선언하였다. 이 조처는 소련의 목적인 동맹피괴정권과 단독으로 평화조약을 체결하는 이미 작정된 푸로그램의 코오스를 밟게 되리라는 것은 뻔한 일이다. 소련의 목적은 이미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서방으로 하여금 동맹공산정권을 억지로

라도 승인케 하자는 것이다. 여기서 소련이 노리는 것도 뻔한 것이다. 그것은 소련이 동맹팀에서 점령상태를 종결시키면 서방측은 서베팀과 서독간의 연합은 서방측이 아무리 싫어도 동맹피괴정권과 교섭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사실상 동맹공산정권을 승인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다.

가령, 이렇게 해서 소련은 동맹국(東獨)을 만들어 내었다고 하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생긴 동맹정권의 라면 그들이 어떤한 장면과 케번으로 뛰어들다 하더라도 그것이 독일 인민을 기반으로 해서 생겨난 정권이 아닌 것만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 증거를 들어보자.

그들은 統獨자유선거를 완강히 거부해 왔다. 이것이 그 증거의 증거이다. 그들은 伯林市中에 그 흉칙한 벽을 쌓아올렸다. 그들은 이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것이 둘째의 증거이다.

그들은 공산동독이 싫어서 그 벽을 뛰어넘어 서베팀으로 탈출하는 시민을 무자비하게 쏘아 죽였다. 죽은 사람이 있는 이상 이것을 숨길 수는 없다. 이것이 셋째의 증거이다.

이보다 더 뚜렷한 증거가 어디에 있겠는가.

그러나 이처럼 뚜렷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방측은 동독의 불행을 막아 보려는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그것은 오늘날처럼 핵무기로 장비한 소련의 공산주의자들이 배후에 버티고 있는 이상에는—아무리 반대하고 세

共産圈의 最近動向

계 의론이 때론의 때언도(적의도) 오늘날의 형편으로서는(그와 같은 반 때운동 세계여론도 통하지 않는 곳이 바로 소련 공산주의 광신자들인 것이다.

유일한 하나의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매우 소극적이기는 하지만 일단 동독정권을 사실상 승인해 두고(현재의 긴장을 완화하고) 그 뒤 참용하고 계 동독영내의 인민들에 작용하고 그들로 부터 밑에서 자유화를 촉진시키는 길이다. 그러나 이것은 「장년의 책」이 아닐 수 없다. 케네디 대통령이 도박미판 수상도 은근히 이같은 생각울 가진 눈치를 보었다고 전해져 있고 독일인 가운데에서도 「야스파아스」 「루로만」과 같은 학자들이 이런 의견을 말한 적이 있다.

그러나 가사 이 案이 성립을 본다면 하더라도 전 독일국민은 결코 이것을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다. 일단 이렇게 보아두는 것이 온당하다. 왜냐하면 첫째, 눈앞에서 자유를 찾아 동독혁명을 실행하는 시민을 주저없이 사살하고 타락하는가. 이 날도독의 집단을 어찌 승인하겠는가 하는 것이 일반 독일인들의 공통된 감정이다.

만일 그들을 승인한다면 그들은 더 우기세를 올릴 것이며 서독마저 집어삼킬 위험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독일인의 주장은 당연하고도 남음이 있다. 누가 이같은 독일인의 주장을 나쁘다고 들고나올 수 있었으며 그러한 생각은 잘못이니 집어치우라고 말할 사람이 있겠는가.

그러나 그렇다고 다른 무슨 보충한 수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 東獨의 惡의 象徴

— 울부리히트라는 人物은? —



울부리히트

때때로 후르시호프는 스탈린의 비해 그처럼 포악하지는 않다는 評이다. 그런데도 東獨問題에 있어서는 그처럼 스탈린의 방침을 답습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가 동독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그가 공산주의자인 이상 생장할 수 없는 문제다. 만일 동독을 놓친다면 구라파의 전 위성국은 모두가 붕괴하고 말 것이니까.

동독에는 오래전 부터(스탈린 批判 이후) 「동독의 소 스탈린의 수명」은 얼마나 남아있는가? 라는 말이 퍼돌고 있다. 스탈린 파를 뿌리채 뽑고 있는 후르시호프는 소 스탈린 울부리히트를 언제 숙청할 것인가 하는 얘기가 바로 그것이다. 서방측에는 울부리히트가 제거되기를 원하고 있으며 서방측이 그의 체제를 원하고 있다는 자체가 울부리히트의 수명을 보다 연장시키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적어도 울부리히트가 제거된다면 伯林 문제는 지금보다 완화된 것으로 서방측

여기에 이르러 누구나 말문이 닫히고 만다.

은 보고 있다.

울부리히트는 현재 동독주민들은 물론 동독외교정권, 그리고 黨內에서도 지지자가 거의 없다고 알려져 있다. 그 증거로는 대외나 집회에서 首相 크로테울의 연설에는 박수가 있어도 사실상의 실권자 울부리히트의 말에는 박수가 없다는 것이다.

동독주민들은 공명연한 비밀로 울부리히트를 「惡의 象徴」이라고 말하고 있다. 현재 소련에서는 스탈린을 포악무도한 인간으로 처단하고 있지만 울부리히트가 스탈린의 충실한 추수였으며 그의 비호로 그들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공산주의자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그가 「악의 상징」이라는 별명을 가지게 된 것은 主義나 사상과는 별개로 하나의 인간으로 즉 인간성으로서 그러한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나치스 정권이 수립되자 독일 공산당은 조바로 스탈린이었다. 그 당시 동

부리히트는 아직 알려진 사람은 아니었다. 당시, 독일공산당 당수는 「페이르만」이었다. 페르만은 당원으로 부터 추앙을 받았고 인물로서도 독일인들로 부터 인기가 있었다. 이 페르만이 체포 투옥되자 울부리히트는 독일공산당 중앙위원회를 농간하여 지방을 구출하기 시작했다. 당시 공산당원들은 중전 후에 찾아오게 될 정세의 희망을 걸고 소련파의 유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울부리히트를 사실 인물 이상으로 과대평가하여 크레프린에 보고 하였다. 이때 울부리히트는 파리에 이르면서 자기의 업적을 허위 단조한 문서에 스스로 싸인을 해서 모스크바에 보냈던 것이다. 그러자 이 허위보고가 탄로되어 스탈린의 지탄을 받게 되었다. 이때 그는 자기를 위해서 허위보고를 작성한 위원들을 트로츠키 파라고 모함하여 자기의 입장을 모면하였다. 때문에 모함당한 중앙위원들은 모두 수치를 당하고 말았던 것이다.

그런데 울부리히트가 「악의 상징」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이것이다. 그것은 페르만을 모함하여 그를 죽였기 때문이다. 그것은 두 소 볼가침 조약이 체결된 후, 히틀러는 페르만을 석방하고 소련으로 넘겨줄 용의가 있었는데도 이것을 알지 못한 울부리히트는 가진 수단을 다 해서 방해하고 결국은 유중에서 살해당하게 했던 것이다. 울부리히트는 당내에 자기의 私兵을 양성하고 당내의 라이벌을 하나 하나씩 잡아 죽였다. 이것은 스탈린

의 수법 모두 그것이었다. 오늘날 동북의 국가보안상「에릭히·밀케」는 일찍부터 울부짖고 있는 부심이다. 당시로서는 스탈린에 의해서 수정당한「화인츠·노이만」의 미망인「후바

## 코메콘의 苦悶

— EEC에 對處하는 共産圈 —

현재의 國際經濟情勢에 있어서 共産圈(당연한 문제는 EEC(歐州經濟共同體)의 발전이라는 위협의 대한 대책과 이와 포린의 관계를 가진 공산권의 코메콘(東歐經濟相互援助會議)을 통한 경제 협력체제를 재건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그들은 EEC의 대책을 필요로 하면서도 EEC의 발전을 솔직히 인정하려 들지는 않고 있다. 그들은 인정할 수도 없고 부정할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져있다. 이와 같은 그들의 考慮는 最近의 소련공산당 기관지「컴유니스트」八월호와 공산권 당 기관지「平和와 社會主義의 諸問題」九월호에 발표된 후르시호프 論文, 뒤이어 소련 과학 아카데미, 세계경제, 국제관계 연구소가 제기한 데 1계등이 드레트린의 동요하는 태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소련의 EEC 정책은 당초는 공식적인 마르크스理論의 입각하에「독점자본

노이란」의 회고록에 의해서 세상에 밝혀진 것이며 이 회고록은 오늘날 신화될 수 있는 역사적 자료로서 학계에서 인정함을 받고 있다. (日紙에서)

의 시장분할의 연장이며 결국은 내부 모순으로 自己崩壞한다」는 견해를 내걸었으나 공산권의 뒤집과 EEC의 발전이 명백하게 나타나기 시작하자 그 견해를 표변하여 나타나기 시작한 現實로서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후르시호프는 드디어 그의 논문의 저 EEC의 성과를 솔직히 인정하고 나아가서는 EEC와의 국제분업에 의한 경제협력과 平和경제이라는 새로운路線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 논문은 모스크바에서 개최된二十三개국 마르크스의 理論家會議에서 논의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전기한 소련 과학 아카데미 세계경제 국제관계 연구소가 제기한 논문도 논의되었다. 이 회의는 두개의 논문을 중심으로 EEC 대책을 토의했으나 EEC에 대한 단합적인 이부르치를 요구하는 이태리, 프랑스, 입장인 프랑스

스, 소련은 中國이 이렇게 분열하고 말았다.

이같이 공산권이 분열하는 이면의는 공산권이 가진 경제적 약점이 존재하고 있다. 첫째 최근 3년래 플랜트를 제외한 全共産圈나라가 농업부진의 만성화에 빠져있으며 공업생산이 둔화하고 국민의 소비생활의 증진을 못하고 있다. 공업우선의 공산권 경제가 급후로도 생산성의 향상을 유저해가 커진 시구의 근대적 기계설비 기술의 수입에 依存하는 힘이 전대방하는 것이 다름아닌 농산물, 공업원료, 공업제품의 내수구 수출이며 서구의 그레이트이다. 지금도 공산권의 대서구 무역은 五

## 前例 없는 소련의 軍部對立

아이작크·드 이차

〈英國 에코미스트誌〉



크로 김 소코로프스키

현재 소련의 軍政部 내에는 상당히 주목할만한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각종의 兵科, 특히 通常兵力派와 核兵力派 사이에 공공연한 논쟁이 일어났다는 사실이다. 한때 미국 국방총성에 있었던 논쟁처럼 소련의 將官이며 防衛전문가들은 제각기 世論을 동원하고 압력단체를 움직여 대립하여 자기파의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것은 소련의 상식대로 볼 때, 軍首腦者간의 논쟁이 다소라

九年에서 六一년에 걸쳐 二五퍼센트 증대하였고 近年 증요도를 높여가고 있는 것인데 閉鎖的 EEC의 域外상품에 대한 차별의 강화는 공산권을 西지역에서 격리시키는 경향은 불가피한 현상으로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여기서 공산권은 EEC와의 경제적 협력을 부트짓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EEC의 위협을 최소화하고 축소시키려는 수단을 강구하기 위하여 소련은 국제무역기구, 실적을 재강화하면서 최후의 판세를 결정할 二重관계 방식을 채용하고 있다.

국제무역기구 설치하는 그 구상이 실현될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매우 희미하며 EEC의 위협을 받는 中立國側에 대하여 때를이 대고 있다.

共産圈의 最近動向

도 표면화 하였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며 전례가 없는 일이다. 더욱이 정치적 修正主義의 강한 저류가 비판을 받고 있는 오늘날에는 충격적인 사건임에 틀림없다.

지난 9월경, 모스크바에 「軍事戰略」이라는 책이 나타나서 저지않은 혼란을 일으켰다. 외국의 모스크바 주재 무관이나 저널리스트들은, 서점에 서 이 책을入手할 수가 없었다. 이 책은 공산당원이나 군사전문가등 극히 한정된 범위의에는 판매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책의 내용은 최소소련국방성 기관지 「赤星」에 요약되어 비판적으로 취급되었다.

문제의 「軍事戰略」은 소코로프스키 원수의 주재소에서 수명의 전문가가 집필한 논문집이다. 소코로프스키 원수는 유코프스키의 뒤를 이어 주독소련군 총사령관을 지냈고 一九五三년에서 六〇년까지 육해군 참모총장이었다.

동원수가 현란한 책술 「赤星」이 비판받은 것은 고급장교의 최고 교육기관인 「후문제 軍事아카데미」 총재 크로틴大將이였다.

「軍事戰略」은 명백히 核兵力派의 주장을 대표하고 있다. 스탈린 死後의 오랜동안 참모총장을 지낸 소코로프스키는 거의 軍의 근대화 신병기의 개발, 전략사상의 혁신등을 위하여 누구보다도 많은 일을 했다고 알려져 있다. 그의 재임기간 중 통상병력은 일관해서 삭감되고 그 편성은 축소 되었는데 상비군의 장교단은 대폭적으로 세대되었다. 소코로프스키는 六〇年一월, 참모총장에서 물러났는데 이것이 단순한 인퇴인지 그렇지 않은

△筆者紹介△

아이작크·도이처氏는 英國의 東歐·소련專門家이다. 포오렌드胎生, 同國共產黨員이 었다가 一九三二年, 黨에서 追放을 당하고 英國으로 건너가서 歸化하였다. 氏는 에코노미스트誌, 옵세버誌에서 共產問題를 題評論家로서 活躍하고 있다.

년 군사정책상의 전환에 의한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명확히 알려진 것은 소코로프스키가 각군 장교단의 반감을 산 것이다. 동원수가 참모총장을 그만 두게되자 병력사상 제되는 등 저되고 통상병력은 대폭적으로 부활되었다.

물론, 核兵力의 증가는 현재도 계속되고 있으며 核로케트의 전황가들은 소코로프스키를 밀며 그의 소론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크로틴大將은 「軍事戰略」은 보병의 역할을 경시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그가 시사하고 있는 것은 一九六〇년까지 行해진 兵力사상은 전 참모총장인 소코로프스키의 잘못된 理論이 誤導한 결과라고 지적하였다. 크로틴이 문제삼은 점은 결코 지나간 일만이 아니라 하는 것도 알 수 있다. 그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는 물론, 장래의 통상병력에 대한 군사예산 분배의 규모도 포함해서 하는 異論이다.

물론 「軍事戰略」의 필자들은 통상병력의 역할을 무시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들은 통상병력에 대해서는 장래의 세대대전에 있어서 결정적 단계의 제2義的, 보조적인 기능만으로도만 인정하지 않는다. 이것은 그들이 원칙적으로 核무기 사용에 하등의

제한을 인정치 않고 있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그들은 소련이 이같은 核무기를 사용한다는 것은 미국으로 부터 核공격을 받을 경우에 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소련은 開戰直後의 단계에서 미국에 결정적인 核타격을 주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필경은 核무기에 의한 전제적인 이론인 것이다.

크로틴의 인용에 의하면 「軍事戰略」의 필자들은 「우리들은 최단 기간내에 核력자를 타도하는데 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하고 熱核兵器에 의한 공격은 전쟁의 제1단계에서 거의 군사, 경제적 잠재력, 군용수부와 행정운영, 체제, 전략적 核무기의 예비와 군의 主力을 격멸 하는 데에 있다고 하고 있다. 필자들은 다시 소련이 大氣圈外 利用문제에 있어서 모든 제한을 벗어 버리고 우주공간에 있어서의 모든 優位點을 全面的으로 군사 利用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 소련이 인공위성을 水爆은반사체에 의한 것인가? 또는 스푸트니크 4호에 의한 것인 것이 「軍事戰略」속에 들어 있는지 어떤지는 분명치 않다. 그러나 이같은 議論은 인공위성이며 우주개발을 核로케

트 부대의 효과적인 단일 감독에 들 것을 企圖하고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다. 이같은 核兵力파와 통상병력파의 논쟁의 성격은 외부로 흘러나오는 정치적 반향에서 짐작할 수가 있다. 크로틴인 소코로프스키가 팀이 단지 통상병력을 파소평가한데 대한 비판에 그치지 않고 소코로프스키는 軍에 있어서의 공산당의 지도적 역할을 바르게 말하는데도 실패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이것은 실로 미심장한 비판이다. 보다 더 격렬하게는 했지만 유고프가 黨幹部會로부터 추방되고 국방상을 해임 당했을 때도 그와같은 비판을 받았던 것이다. 통상병력파의 스포스맨인 크로틴은 이렇게 해서 核병력과 전략가의 「政治的信用」을 손상시키려 하고 있다.

소련의 「軍事戰略」은 一九二六年以来 소련에서 출판된 戰略理論中 가장 중요한 著作이라고 독자에게는 소개되고 있는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토트스키가 국방인민위원을 사임한 一九五五年 때부터 소련의 戰略思想은 사실상 踏歩상태에 있는 것이다. 만약 黨指導者의 正統性의 문제가 문제된다면 이 군부대의 논쟁은 보다 더 격렬하게 전개 될 것이다. 또는 정은 필경, 예산분배 문제를 필연적으로 끌고 들어갈 것이다. 이것은 소련의 정체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곤란을 생각한다면 누구나 이해가 가는 문제이다.

우리는 적어도 이상과 같은 소련군 부대의 의전대렬이 소련 권력기구에 어떠한 파열을 가져온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으로 충분히 보지 않든 소련의 군부대원의 정조를 잊을 수 없다는 점에서 관심을 기울일 만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 소비에트 社會主義 體制下의

## 매스·메디아



金 基 漸  
〈空本公報課長・空軍中領〉

「매스·커뮤니케이션」이 現代 生活에서는 政治 經濟 社會文化等 各部門에 甚지 많은 影響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周知하는 事實이거니와, 「매스·커뮤니케이션」의 構造나 機能이 處하고 있는 歷史的 社會的 諸條件과 至極히 密接한 關係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明白한 事實이다.

그러므로 政治的으로나 經濟的으로나 또한 社會的으로도 顯著한 社會體制外 條件을 달리고 있는 資本主義 社會外 社會主義 社會에 있어서 「매스·커뮤니케이션」의 狀態와 樣相을 比較해 본다는 것은 無意味한 것이 아니며, 極히 判異한 樣相을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判異한 樣相이 露呈하고 있다 할지라도 도리어 當然한 것이라 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意味에서 「소비에트 聯邦」의 「매스·커뮤니케이션」은 顯著한 特色을 가지고 있으며, 簡便이거니와 한면 「소비에트 社會」를 構成하는 複雜한 政治的 經濟的 社會的 諸條件에 適合하도록 組織되어 있고 또한 그 機能을 作用하고 있는 同時에 「소비에트」 社會體制 그 自體에 對해서 여러 모로 影響을 주고 있다고 하겠다.

그리하여 소련의 「매스·커뮤니케이션」을 理解한다는 것은 社會主義 社會體制의 本性을 斷面으로 포착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蘇聯自體의 여러가지 歷史的 社會的 背景과의 關聯性에 對해서 認識을 가지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다.

흔히 우리는 蘇聯에 있어서는 모든 權力과 政治活動의 根源은 政府自體가 아니고 「소비에트」 共產黨에 있다고 보고 있는 事實로 미루어 보아야

러한 것은 「매스·커뮤니케이션」에 關해서도 決코 例外는 아닌 상 想이다. 蘇聯에 있어서 「매스·메디아」(Mass Media) 卽 新聞, 라디오, 映畫, 텔레비전 等の 모든 「매스·커뮤니케이션」의 媒體는 이것을 私有하는 것을 許可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營業事業으로 運營하는 것도 禁止하고 있어 國有化로서 運營되고 있다.

嚴密히 말해서 法的 뒷바침으로서 소비에트 憲法의 第二二五條에는 「이런 市民의 權利는 勞動者와 그 組織體에 對하여 印刷所, 用紙, 公共建築物, 通信機關, 其他 用紙, 實現하는 데 必要한 物質的 諸條件을 提供하므로써 保障된다」라고 規定되어 있다. 이 모든 「매스·메디아」가 運營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모든 것은 嚴格한 共產黨의 統制와 監視 밑에서 各種의 黨機關, 政府機關 그리고 各種의 勞動, 學術, 青年, 婦女, 體團體와 軍隊等に 依해서만이 運營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은 蘇聯의 「매스·커뮤니케이션」의 實態를 把握하기 爲해서는 그 前提로서 「소비에트」 社會體制 그 自體에 關해서 더욱이 蘇聯에서와 一般 人民大衆과 共產黨의 關係, 그리고 黨活動의 單純한 媒介機關에 지나지 않는 政府와 黨과의 關係等에 關해서 檢討하고 그 根本인 「볼셰비크」의 理論을 새삼 解明하여 두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소비에트」 社會主義國家와 社會體制가 있기까지는 소련에 있어서 「볼셰비크」의 理論이

그야말로 「소비에트」 體制를 構成하는 原理로 되어 있으며, 共產黨에 依한 「매스·커뮤니케이션」의 全面的인 統制의 理論的 根據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고 現實에 있어 各種의 「매스·메디아」의 組織과 機能을 規制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레스·인켈레스」가 指摘한 바와 같이 衆論形成에 關한 「소비에트」 政策의 發展方向을 主로 決定지은 것은 「레닌」의 思想에 依한 것이라는 點에서 소련의 「매스·커뮤니케이션」의 根本的인 檢討와 研究를 가져다 보면 于先 「레닌」主義의 理論에서 부터 始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레닌」主義의 理論에 關해서 簡略히 論考하고자 한다 「레닌」의 思想이 여러가지 意味에서 「레닌」以後의 「소비에트」 社會體制의 發展方向을 規定짓고 現實의 「소비에트」 聯邦의 諸般制度에 對하여 至大한 影響을 미치고 있음은 否定할 수 없는 事實로 되어 있으며 「매스·커뮤니케이션」에 關해서도 이러한 事實이 決코 例外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소련의 「매스·커뮤니케이션」의 「매스·메디아」의 組織과 運營方 向을 決定지은 것은 「레닌」主義의 理論이 그 밑바탕을 이루고 있다고 하겠다.

「레닌」思想의 始發點은 勤勞大衆과 「볼셰비크」 卽 勤勞大衆에는 計劃的인 革命政治活動의 展開에 不可缺한 革命的 階級意識과 革命的 組織이 缺如되어 있다는 것을 指摘하고 革命的인 政黨인 「볼셰비크」에 依해서만이 徹頭徹尾한 革命이 遂行된다고 主張하였다.

그러므로서 「레닌」에 의하면 「볼셰비크」야 말로 勤勞者階級の 前衛隊이며 職業的 革命軍의 組織으로서 集中化되고 高度로 組織化 됨으로서 勤勞大衆의 指導의 役割을 다하는 集團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革命的 中樞의 集體로서 大衆에게 그들의 支持를 얻으며 「볼셰비크」가 眞實로 勤勞者階級の 利益을 爲해 모든 活動을 한다 것을 그들에게 理解시키고 「볼셰비크」가 革命을 遂行하고 權力을 獲得하려는 革命過程에 있어서의 理論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레닌」의 思想은 革命達成後 今日에 있어서도 勤勞者 大衆과 그 前衛인 共產黨과의 關係를 規定짓는 理論으로서 依然히 持續되고 있는 것으로 注目하지 않을 수 없다. 「소비에트」革命後 現今에 이르러까지의 「소비에트」社會에서의 權力의 焦點은 如前히 共產黨이며 여기서 勤勞大衆의 重要한 課題의 하나로서 信賴하여야 할 指導者가 바로 共產黨이라는 것을 배운 것이라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思想의 背後에는 恒常 「소비에트」體制만이 옳고 「소비에트」의 指導者만이 人類世界의 方向을 알고 있으며 그들의 眞理와 正義만이 勝利하고 存在한다는 것인바 이러한 歪曲된 信念이 가로놓여 있음을 들 수 있다.

그리고 共產黨의 活動만이 唯一한 眞理에 基因하고 있으며 그들의 權力維持와 擴張을 爲해서는 가진 手段과 方法을 쓸 수 있다는可笑로운 思考方式과 併行해서 必然의 「매스·커뮤케이션」에 對한 共產黨의 全面的인 支配를 要求하고 그것을 正當化하려

는 것이다.

또한 이에 따라 「매스·커뮤케이션」의 統制는 黨의 任務遂行上의 合當한 責任으로서 要求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合理化 하려는 것이다.

소련에 있어서의 모든 「매스·커뮤케이션」의 媒體인 新聞, 雜誌, 라디오, 映畫, 텔레비죤 등의 「매스·미디어」는 이러한 理論의 根據로서 組織 運營되고 있으며 그 方向과 內容은 黨에 의해서만이 決定되어야만 한다고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如何한 이러한 「매스·커뮤케이션」에 對한 思考方式은 「레닌」이 「소비에트」體制는 強制와 說得의 均衡에 基因하고 있다라는 것과 「新聞」은 集團의 宣傳者이며 集團의 勤勞者인 宣傳이나 集團의 組織者이다라는 思想으로서 가장 端的으로 表現되어 있다는 것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레닌」主義의 思想은 소련에서의 新聞의 自由와 「뉴스」의 概念에 對한 思考方式과 있어서도 西歐民主主義 諸國의 그것과 顯著한 差異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도 注目할만 한다. 蘇聯憲法 第一二五條에는 「……集會, 街頭進行 그리고 示威의 自由와 더불어 言論出版의 自由를 保障한다」고 되어 있지만 앞서 論述한 바와 같이 그것을 實現하는데 있어서 必要한 物質的 諸條件은 勤勞者과 그 組織體에 提供하는 데서만이 保障되고 있다는 點이 特色이고 보면 蘇聯에 있어서의 新聞의 自由는 眞正한 新聞의 自由라는 것이 獨立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고, 公公然하게 無産大衆과 結付되어서만이 存在하는 黨統制와 監視의 메두리안에서의 自由인 것이다.

이에 反하여 西歐民主主義 諸國에 있어서서는 이의 休業運營組織의 自由로부터 表現의 自由에 이르러까지 他人의 같은 自由를 侵害 妨害하지 않는 消極的인 制限을 賦課하지 않는 것이 通常인 것으로 兩者를 比較할 때 根本的인 相違點을 內包하고 있다는 것을 充分히 明瞭 수 있다.

또한 「레닌」主義의 理論의 인 「뉴스」를 다루는데 있어서 蘇聯에서는 「뉴스」事件 自體가 아니고 社會過程이 「뉴스」이며 「뉴스」價値가 있는 것으로서 取扱되고 있고 「뉴스」의 主要項目은 社會主義 建設의 過程 即 主要한 役割을 차지하는 것은 人間인 아 니고 非人格的 革命 共產黨의 새로운 社會主義 建設計劃 같은 社會過程이라 고 하는 點을 말하고 있으며 이는 美國 같은 나라에서의 「뉴스」의 主體와 價値 그리고 取扱하는 內容과 意味란 또한 蘇聯의 그것과는 全然 달리고 있음도 明白하다.

이러한 「레닌」主義에 立脚한 蘇聯의 「매스·커뮤케이션」에 對한 理論의 根據로서 이루어져 「매스·미디어」가 如何히 組織되고 그 機能을 다하고 있는가는 다음 機會에 미루고.

于先 「소비에트」體制와 소련邦의 「매스·커뮤케이션」統制에 關하여 考察코자 한다.

「소비에트」社會體制의 核心을 이루고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蘇聯 共產黨인 것이다. 그리고 蘇聯의 共產黨은 政府의 行政組織과는 別個로 소 비에트 聯邦 全體에 걸쳐 가장 巧妙하고도 緻密하게 또한 強力히 組織되어 運營維持되고 있다는事實은 누누

나가 肯定 하리라고 본다. 共產黨 黨憲에 의하면 「소비에트」聯邦의 共產黨은 勤勞者階級으로서 組織된 前衛로서 強力한 組織構造를 이루고 있다고 한다.

그것은 蘇聯自體의 行政的 構造의 主要한 三階級 區分으로서 그 基盤이 되어 있는 各級 所謂 「黨細胞」農場, 軍隊 등은 單位로서 組織되어 있는 黨의 最下部組織과 中間에 位置하는 聯邦 構成의 各共和國州 屬領 등을 單位로서 下部組織을 統合하여 構成되어 있는 地方組織인 것이며 最高的 組織으로서서는 말할 것도 없이 莫府의 中央機關이며 「소비에트」全聯邦의 組織인 것이다.

이러한 中央組織의 最高機關이 全聯邦黨大會이며 그 執行機關이 黨中央委員會인 것이나 事實上的 政治權力은 中央委員會 안의 所謂 政治局 (포리트·부로)에 集中되고 있다는 것이다.

蘇聯 共產黨은 「포리트·부로」를 中心하여 最高方針을 決定하고 이에 따라서 各기 下部組織은 上部組織의 統制 밑에서 그 政策을 實踐하게 되는 셈이나 各段階의 黨組織은 各기 應分の 政府機關뿐만 아니라 모든 組織의 活動에 對해서도 統制를 加하고 있는 것으로서 「소비에트」體制下에서는 政府나 그 下部諸機關은 單純히 共產黨 活動의 媒介機關으로서 存在할 뿐이며 黨에서 決定한 政策의 施行實踐機關에 지나지 않는다 하여도 過言은 아닐 것 같다.

이러한 點은 그러한 體制속에 「매스·커뮤케이션」의 統制가 있음지

한것과實地統制을全的으로받고있다  
다는것이例外일수는없다.

換言하면蘇聯邦에 있어서「매스·  
커유니케이션」에對한政策을決定하  
고各種「매스·메디아」에對하여統  
制을加하고있는것은其實政府가  
아니고共產黨이며그中心으로되어  
있는것이黨中央委員會에組織되  
고있는宣傳煽動局이다.

政治局에直屬하고있는이宣傳  
煽動局은黨의指導者가人民全體의  
目標로서決定한長期短期計劃의모  
든目的達成을爲해가장効果의인支  
持活動과督勵宣傳그리고蘇聯에  
있어서의輿論造成或은變動에對한全  
般的인責任을맡고있는것이다.

그리고政治局의基本的인政策決  
定範圍內에서宣傳煽動局은같은手  
段과方法으로서一般的인方針決定  
과特殊行動의方向을定하는것이다  
또한宣傳煽動局은黨의決定은大  
衆에게傳達說明하고이에對한支援  
獲得을爲하는한便大衆의動態와人  
爲的意見을指導者에게傳達하기爲  
한活動을展開하지않으면안된다.

그러나이것은決코「매스·메디아」  
의實地運營의主體가아니고다만매  
스·커유니케이션에關한方針의決  
定과이의統制에任하는것이며어  
디까지나「매스·메디아」를運營하는  
다른官製組織에對한指揮監督을강  
당하고있다는것은注目할만한것이  
다.

이러한役割을다하기에는宣傳煽  
動局은黨員과非黨員의知識層에對  
한宣傳을任務로하는宣傳部勤勞  
者階級の政治活動教育擔當의大衆  
煽動部圖書館博物館그리고地方文

化部等의活動監督을하는文化啓蒙  
部等을가지고있다.

또한新聞部는新聞이나諸般定期  
刊行物과圖書出版의統制監督과新  
聞人訓練配屬移動等を主任務로하  
고있으며映畫放送에對해서는元來  
映畫省과全聯邦「라디오」委員會가  
있어直接管割하고있으나이와同時에  
宣傳煽動局의特別部署에依해統制  
되고있다.

이밖에도演劇家音樂藝術家文人  
畫家等의監督에任하고있는藝術部  
科學部學校部等細分되어嚴密하고  
도巧妙한構造와監督을專門分野別  
로擔當하고있다.

그리고宣傳煽動局은全聯邦에걸  
쳐廣範하게下部組織을가지고있  
으며最下級細胞에는그組織의宣傳  
과煽動活動에責任을지는書記까지  
配置하고있다.또한中央의宣傳煽  
動局과 마찬가지로 모든機能을갖고  
「매스·메디아」에對하여自己批判과  
將來의方針까지指示하고 많은黨員  
을各部幹部로서潛入시켜嚴格한「매  
스·커유니케이션」에對한 모든統制  
를하고있다는것이다.

이러한點으로부터무어보아蘇聯을  
爲始한社會主義社會體制下的 모든  
「매스·커유니케이션」은오로지共產  
黨의徒屬으로서 모든活動은統制되어  
監視監督의테두리안에서組織運營되  
고方向內容까지도徹底한黨政策에  
依해서만이 이루어 지는데反하여眞  
正一般大衆의現代社會生活에政治  
的經濟的社會的文化的으로自由로  
展開되고있는西歐民主主義와資本  
主義社會體制下的 그것과는너무  
나對照的인것은再言의餘地가없

거니와이러한蘇聯의「매스·커유니  
케이션」이人間思想의自由로운交  
換을爲한存在가아닌것은勿論利  
潤을追求하는手段이될수도없는것  
이고보면어디까지나「소비에트」體  
制을떠나서는理解할수없는存在이  
고「매스」나「레닌」을前提로해서만  
이存在하는것이며

同時에이러한蘇聯共產黨의強力한  
「매스·커유니케이션」의統制가앞으  
로어떻게自由世界에對하여加一層  
拍車를加하여挑戰해온것인가를생  
각하지 않을수없다.現代科學의高  
度化한發達は各種「매스·메디아」  
의電擊的인開拓과進展을가져오고  
있어이에對處한準備가自由民主社  
會體制下에서의「매스·커유니케이  
션」의또하나의緊要한課題라고하  
겠다.그러한데서七月十日美國의  
「넬스타」中繼人工衛星은宇宙軌道에  
올려 놓으므로電波送受信技術에  
一大革命을가져온事實은蘇聯에앞  
서 이루어 졌다는點을注視하고 앞  
으로의「매스·커유니케이션」에 새로  
운分野의問題點을提起하였으며

특히蘇聯에앞서民間人의손으로이  
루어졌다는데큰意義가있다할것이  
다.

要컨대蘇聯에있어서의「매스·커  
」의本質은그것이徹底하게한方便  
으로되어 있다는事實이다.  
그들의말대로한다면社會의推進  
力으로서의底力口實을한다는것이  
데이것은共產黨의文化政策의一環  
을이루는것으로서常識에屬하는問  
題라하겠다.  
그러나이러한「매스·커」의活用  
은「매스·커」이 지닌基本的性格을

몰어잡고어는意味에서는그弱點을  
逆利用하는것이되는것이다.即與  
論의形成過程이나그要因을念頭に  
두고大局的으로一定한方向을政府  
나黨이잡는다는것이그것이다.

어떤것을求하지않고發  
見하려고하는것.質問하기  
를斷乎하게拒絕하면서人  
生의수수께기에대한最後  
的인回答을얻으려고期待  
하는——이것은이제까지考  
察된가장로맨틱한種類的  
現實主義이며 아무것도  
이없이무엇을얻으려고하  
는奇妙한處事이다.

“Everyman his own his-  
torian” American histor-  
ical review, XXXVII (1932,  
233; Reprinted in every  
man his own historian (19  
35), 250;

# 하지 앞는가

## 假想한 美蘇의 被害推算

만일 美國이 소聯으로부터 공격을 받는다면 즉시 보복하여 상대방을 廢虛化시킬 것이다.

소聯이 美國을 기습해 온다면 도대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를 戰略上의 연구로부터 기술해 보기로 한다.

### 美·소 兩側에서 一億人이 爆炸

一九六二年 x月 x日. 美國東部時間으로 오후 五시에 후르시초프가 그의指揮下에 있는 全兵器를 동원해서 美國本土를 공격하였다고 하자.

이 공격과 이것에 계속될 一聯의 공격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美軍部指導者의 최근의 推定을 중심으로 分析해 보면 死傷者의 수는 可恐하리만큼 많다.

十二時間 이내에 美國에서는 三千萬名이 死亡하고 산업능력의 三分之一 이상을 喪失한 것이다. 그후 死亡하는 수가 달할 것이다. 한편 소련에서는 十二

時間 이내에 死亡하는 자 一億名, 産業施設은 廢虛化되고 衛星國은 반란, 후르시초프의 「帝國」은 混亂해질 것이다. 후르시초프는 水爆미사일의 단 주를 늘들으로써 소聯을 滅亡의 길로 이끌게 될 것이다.

### 美戰略基地 全滅

戰爭의 비참한 地獄相을 좀더 상세히 살펴 보자. 오후 五時. 워싱턴에서는 官吏들이 되곤해서 짐으로 돌아가고 있으며, 데트로이트에서는 上番하는 노동자들이 交代時間을 기다리고 있다. 샌프란시스코의 實業家は 저녁 食事を 하고 있다.

이때, 네브라스카주 오마하 郊외의 地下 十四메타에 자리잡은 戰略空軍司令部(SAC)의 붉은 信號燈이 갑자기 반짝거리며, 부사가 요란스럽게 울렸다. 알라스카와 그린랜드에 있는 레이더 警報網으로부터의 非常警報였다. 즉시 緊急戰關指令이 내렸다. 八十個基地에 있는 戰略空軍隊員은 비상

大統領도 警報를 받았고 聯合參謀本部에도 통고하였다.

十五分후인 오후 五時十五分. 오마하와 그 근처에 있는 카운실·블러츠의 上空에 갑자기 한순간 눈도 뜰수 없는 閃광이 비쳐더니 푸른 하늘은 靑白色으로 변해 버렸다. 흰빛이 없었지기도 전에 二十萬名이 即死해 있었다.

소聯의 核爆彈은 미사일 基地를 노리고 있었다. 샤이엔(와이오밍州), 스포케인(와싱턴州), 덴버(콜로라도州), 토페카(칸사스州) 등의 基地가 산산히 파괴되었다. 全國에 散在해 있던 SAC 基地도 불타 버렸다. 防空司令部도 파괴되고 軍事通信網도 피해를 입었다.

한편 美國의 沿岸밖에서는 소聯潛水艦이 떠돌아서 유도탄을 비같이 沿岸都市에 퍼부었다. 東部海岸의 칼스튼(사우스캐롤라이나州)에서는 美國의 폴라리스 誘導彈의 集積지구와 市街의 半이 파괴되었다. 노퍼크(버지니아州)나 西海岸의 샌프랜시스코, 산디아고(캘리포니아州)의 海軍物資集積所도 같은 운명을 보았다. 로스앤젤스(캘리포니아州)의 灣口에도 대부분 파괴되었다.

이러한 誘導彈 공격의 목적은 우선 美國의 報復 공격력을 一瞬間에 마비시키고 도시 주민을 大量으로 죽여서 美國國民의 士氣를 꺾는 데 있었다. 미사일의 第一擊으로 더 아슬 뻘뻘한 데를 더고 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誘導彈은 공격의 첫 순서에 지나지 않는다. 오늘날에 있어서 소聯의 主攻擊力은 아직도 爆擊機이다. 誘導彈은 후에 올 폭격기를 위한

# 후르시초프는 美國에

## 核攻撃

### 核全面戰爭을

先導 역할을 저지 않는  
美國의 도시는 그러므  
로 그數時間후에 소련쪽  
격의 공격에 휩쓸렸다.

### 極東地域の 基地도 核攻撃

여기서 時針을 三十分  
늦추어서 모스크바 시간  
午前十二時로 해 보자.

이제 美國攻擊의 불길  
이 막 태오르려하고 있  
다 모스크바 北方의 가리  
닝에서도, 시베리아 東部  
海岸의 아나도일에서도,  
그리고 中央아시아 西部

의 마그니도 고투스크에  
서도 巨大한 T-3型 誘導彈이 하  
늘을 향해 놓여 있다. 마침내 그것은  
맹렬한 화염에 휩싸이면서 천천히發  
射臺를 떠나 밤하늘로 살아져 간다.  
알렌게리스크, 가라, 오스도로프, 다  
이밀半島의 비행장에서는 巨人爆擊機  
배어와 바이슨이 차례로 떠올라갔다.

空中給油機도 소련의 다른 基地에  
서 떠올랐다. 그 후로 푸디 등의 中  
距離爆擊機가 계속 離陸하였다.

中距離爆擊機인 바자와 브라인비에  
도 명령이 전달되었다. 또한 歐羅巴,  
알라스카, 日本, 臺灣, 沖繩에 있는  
美軍基地를 향해 中距離誘導彈이 발  
사되었다. 美國沿岸 밖에 潛伏하고 있  
던 소련潛水艦은 『위로 퍼서 目標地  
點에 艦上誘導彈 「코멘」을 발사하라』  
라는 無線連絡을 받았다.

소련의 美國奇襲攻擊은 이렇게 해  
서 幕을 올린 것이다.

### 報復時間을 알아 채는 소련

후르시초프가 保有하고 있는 兵器  
는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二十메가톤 核爆彈을 실은 大陸間  
爆擊機 百五十臺. 十메가톤 이상의 核  
彈頭를 가진 大陸間彈道誘導彈이 七  
十五내지 百個, 空中給油를 받으면서  
美國에 도달할 수 있는 中距離爆擊機  
二百臺, 潛水艦에 積載되어 六百四十  
킬로 날을 수 있는 誘導彈이 五十個.  
이것들은 美本土 공격용으로 사용된  
것이였다.

또한 소련國境 근처에 있는 美國의  
海外基地를 공격하기 위하여서는 中  
型爆擊機 百臺, T-2型 및 T-4  
型 中距離유도탄 三百個가 사용되었  
다.

후르시초프는 戰爭開始의 시간을 신  
중히 선택하였다. 소련이 第一擊을 가  
하면 美國은 반드시 보복공격으로 나  
올 것이다. 그러할 때에 美爆擊機의  
主力編隊가 소련에 도달하는 시간은  
밤이 아닌 편이 좋을 것이다. 그래서  
소련제트機 및 防空設備가 효과적으  
로 움직일 수 있는 때를 고른다.

時間의 문제가 제일 중요하였다. 미  
사일 潛水艦이 美國都市沿岸에 숨겨  
져기 위해 한달전에 소련항구를出發  
하였다. 誘導彈發射의 순서는 신중히  
결정되어 있었다. 午後五時에는 美國  
본만이 아니라 沖繩, 英國, 伊太利 등  
전 세계에 核爆發이 일어나겠음 計畫

되어 있었던 것이다.  
어두움에 숨어서 최초의 소련爆擊  
機가 二, 三시간안에 美國으로 다가  
온다.

그러나 美國沿岸海上이나 카나다 상  
空에서 美防空司令部의 遠擊機와 맞  
부딪칠 것이다. 都市 주변에 배치된對  
空미사일 나이기, 하유리드와 포말이  
美軍의 손에 의해發射되었다.

그러나 소련제트機의 一部는 防空  
網을 뚫고 美本土에 來襲해 왔다.

美國의 中心地 뉴욕에는 二十메가  
톤의 水爆이 폭파되었다. 爆心地는 쾰  
럼버스. 새클. 미친듯이 태오르는 『불  
길』. 直徑十八키로에서 八十키로에  
까지의 圓形地域을 휩쓸었다. 뉴욕시의  
十七개區(카운티)에서는 七百五十萬  
의 死傷者가 발생하였다.

워싱턴에서는 議事堂부근에 直徑약  
八百메터의 큰 구멍이 입을 벌렸다.  
이 十메가톤짜리 水爆으로, 數키로면  
이진 알링톤(버지니아州)에서는 煉瓦  
建造의 아파트들이 爆風에 날라갔으  
며 死傷者가 百萬名 以上이나 나왔다.  
爆風과 熱氣로 死傷者는 驚장히 많았  
다.

그후 數週일이 지났어도, 아직 員  
傷에 치료가 미치지 못했거나 「죽음  
의 계」의 第二次放射線으로 인하여  
數百萬名의 죽어갔다. 千二百萬戶의  
住宅이 파괴되었으며 불타 없어진 都  
市가 四十이었다. 誘導彈, 爆擊機 등  
의 시설도 큰 타격을 받았다. 그러나  
美國은 살아 남았다.

### 그러나 「힘」은 남았다

美國의 軍事指導者들은 후르시초프

가 감행한 奇襲攻擊의 종결산을 따져 보았다.

「소련의 미사일은 美國의 「弱點」 군사 목표에 대하여 커다란 戰果를 건 우었다. (註) 이런 경우 「弱點」이라는 用語는, 보통의 미사일 基地와 같이 地上에 固定되어 있어서 敵의 노림을 받기 쉬운 目標에 대한 군사용 어이다. 이에 反해서, 폴라리스 潛水艦이나 地下미사일 基地와 같이 숨겨져 있는 것을 「強點」 목표라고 불리우고 있다. 그러나 신중히 散開한 防空網의 力 때문에, 소련의 공격을 弱화시킬 수가 있었다. 미사일 潛水艦에 의한 공격도 부분적인 효과밖에 진우지 못하였다.

소련이 投下한 核爆彈의 총수는 百五十發에 지나지 않았다. 그 에너지의 합계는 一千五百메가톤이었다.

그러나 美國本土는 이상과 같은 무서운 파괴로부터 十年이내에 原狀復舊가 가능한 것이다.

海外에 있는 軍基地는 더 심한 打擊을 받았다. 本土에 비해 한층 더 격렬하고 정확한 타격을 당하였다. 이것은 警報가 發해진 후 부터 방어할 때까지의 時間이 짧았기 때문이다.

후르시호프의 공격이 완전한 奇襲은 아니었다. 많은 소련의 潛水艦이 美國近海에 잠복하고 있었다. 사실 미軍에 의해 탐지되고 있었다. 소련 內에서의 軍用無線 연락도 점차 빈번해지고 있었다. 「開戰迫頭」를 알리는 諜報機關의 보고도 제발리 흘려들 어오고 있었다.

그러므로 美國은 警戒陣을 펼 수 있었으며 또 즉시 反擊할 체제를 정비하여 敵의 공격을 弱화시킬 수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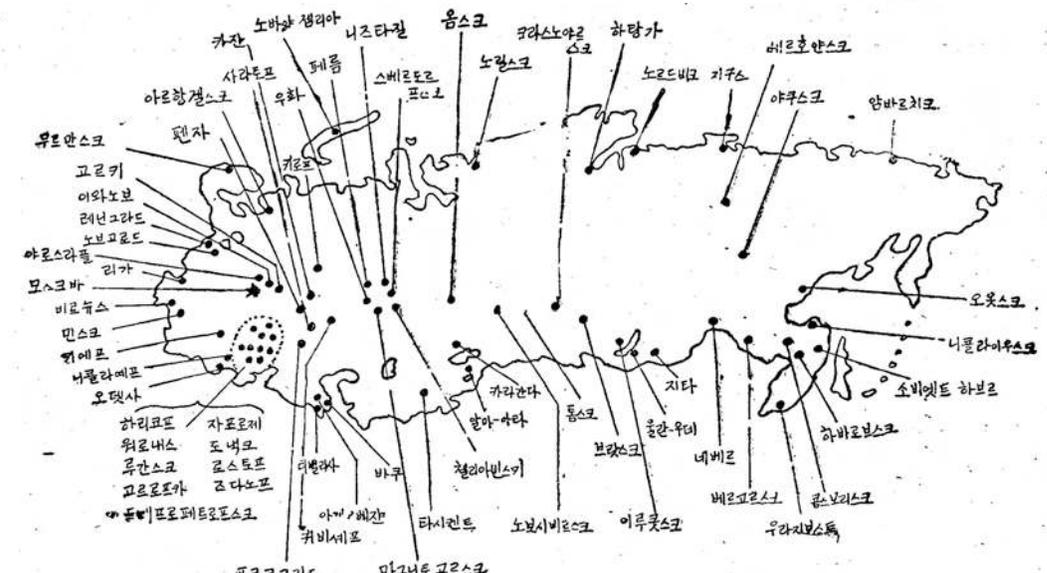
었다. 可恐한 파괴를 입었으나 그때도 美國의 強力한 回復력은 남아 있었다. 다음은 美國의 차례이다.

### 「恐怖의 報酬」... 소련은 무덤으로

「소련미사일 접근!」이란 최초의 警報가 나온 지 불과 數秒후였다. 綠點 (Green dot)이라고 불리우는 暗號電報가 戰略空軍司令部(SAC)로부터 전 세계의 美軍 基地로 흘러 나갔다. 地上 警報가 난 十五分후, SAC의 巨人爆擊隊는 소련 미사일 第一彈이 落下하기 보다는 빨리 소련本土로 機首를 들리고 있었다. 그러나 美國의 미사일은 그 후 얼마동안 待機되고 있던 미사일은 미사일을 되돌아 오게 할 수는 없기 때문이었다.

海軍의 航空母艦은 「소련 潛水艦의 追跡을 돕기 위해 도피해체를 취하라」라는 명령을 받았다. 소련近海를 순찰중인 폴라리스 潛水艦도 경계 명령을 접수하였다. 소련 부근에 있는 數十個 基地로부터 戰爆機가 떠올랐다.

美本土의 SAC 基地로부터는 B-52 B-58의 제트폭격기가 三百五十架 이상이나 떠올랐다. 실려져 있는 各種의 水素爆彈은 비행기 一臺當 五十메가톤이나 된다. 그 中 일부는 八十메가톤에 달하는 巨폭을 공격할 수 있는 하운드. 더. 미사일이 실려져 있다. 마침내 美國의 誘導彈基地에서는 ICBM인 아틀라스, 타이탄이 九내지十개가 發射되었다. 소련 근방의 美 海外基地에서는 空軍의 B-47 제트



美國의 核攻擊을 받을 경우, 소련本土는 廢墟化한다



한데 년 그라드에는 爆風과 火災로 생  
存자가 거의 없었다.

### 廣島의 二千五百倍

모든 「憤激」의 화살이 모스크바에  
로 쏘아졌다. B-52 一臺는 廣島上  
空에서 투하된 核에너지의 二千五百  
倍의 威力을 갖고 있다. 밀집한 아파  
트에서, 지하실의 방공호에서, 地下  
鐵의 한가운데서, 人間은 순식간에 蒸  
發한다. 이러한 大殺害로 크레믈린은  
꺼져 없어진다. 소련은 무덤으로 변  
하고 만났었다.

죽은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생  
存자가 그들을 처리할 수도 없었다. 다  
행히 살아남은 부상자들도 住宅과,  
방사능을 쏘인 음식물의 찌꺼기를 가  
지고 다 부게 될 것이다. 飢饉과 飢饉  
은 이미 시작되었고 전염병도 퍼지기  
시작하였다.

소련의 主要都市에서 겨우 모음을  
나타내는 사람은 스물도 안 되었다.  
造船所, 工場, 住宅도 없어졌다. 이  
제는 소련이라는 나라의 백다귀만이  
남아 있다는 느낌이다.

그러나 이러한 戰爭에서 도대체 누  
가 이긴 것인가? 核戰爭에는 勝利者  
가 있을 수 없다. 여러가지 段階의 「敗  
北者」가 있을 뿐이다.

### 눈에 보이는 소련의 完敗

후루시초프가 美國보다도 한층 심  
한 敗北者가 되리라는 것은 명확한 사  
실이다. 그는 전쟁을 시작할 힘은 가

졌을 망정 전쟁을 끝낼 수 있는 힘은  
가져고 있지 않다.

美國은 破壞로부터 다시 일어나는  
데 二十五年이 걸릴 것이다. 반면에 소련  
은 二十五年이 걸릴 것이다. 여  
기에는 물론 軍기가 있다. 이제까지  
記述해온 「紙上戰爭」은 利用할 수 있  
는 限 모든 公式 資料를 분석하고 몇  
가지의 연수를 종합해본 「靑寫眞」이  
기 때문이다.

물론 美 소 兩國의 이곳 저곳에 있  
는 基地가 어느 만큼의 공격을 받아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느냐라는 점에  
있어서는 뚜렷치 못한 것도 있다. 武  
器의 기능이나 風向, 氣象 조건에 따  
라 여러가지로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리 점도해보아도 후르시  
초프가 좀더 심한 敗北者가 되리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一年이 더 지나면 후르시초프의 미  
사일이 더욱 많아질 것이다. 따라서  
美國이 第一擊으로 받는 피해도 커진  
다. 그렇지만 美國에도 당연히 미사  
일이 증가한다. 아틀라스, 타이탄誘  
導彈은 앞으로 地下基地로 옮겨져서  
로써 이미 「弱함」이 아니라 「強함」이  
될 것이다.

미네티렌 數百個가 가까운 장래에  
배치될 것이다. 폴라리스 潛水艦은 四  
十一척으로 증가한다.

그렇게 될 때 美國의 攻擊力은 I C  
BM 千二百個, 爆擊機 千二百臺, 폴  
라리스 誘導彈 六百五十臺로 될 것이  
다.

美國의 맥나마라 國防長官은 최근  
에 다음과 같이 言及하였다.  
『美國은 대구포의 奇襲攻擊을 받기

라도, 意思만 있으면 敵國의 사회를  
파괴할만한, 충분한 反擊力을 갖고 있  
다.』

후르시초프는 이 警告가 있는 뒤로  
壓迫의 軍事力이 있는 것을 알고 있  
다. 奇襲攻擊의 결과는 「소련의 荒廢」  
로 나타날 것이다.

때때로 후르시초프는 되지도 않는  
말을 저거리는데, 친연스럽게도 소련  
이 살아남을 것을 바라고 있다.

### 美·蘇 미사일 潛水艦勢力比較

量·射程距離·彈頭·水中發射等美國이 優勢

美國은 總計 96 個의 「미사일」을  
적재한 六隻의 「플라리스」 潛水艦  
을 가지고 있으며 大部分 一千哩의  
사정거리를 가지고 있다. 一千五百  
哩의 사정거리를 가진 것도 一部를  
차지한다. 이들 잠수함은 潛水狀態  
에서 「플라리스」를 발사할 수 있  
다. 모두 原子推進式이며 機關의 爆  
音없이 航行한다. 때문에 소련의 기  
습攻擊을 받을 우려는 거의 없다.

소련은 약 30 隻의 「미사일」발사  
잠수함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중 약 十隻은 原子추진式으로 믿  
어진다. 이들 잠수함은 各各 2 個의  
「미사일」을 적재하고 있으며 400~  
600 哩, 나머지 大部分은 200~300  
哩의 射程거리로 알려져 있다.

美·소의 「미사일」 잠수함을 對  
比하면 數的으로나 사정거리로 보  
아 美國이 越等하다. 더우기 소련  
의 잠수함은 水中發射가 가능한 것  
은 一隻도 없다는 點이다. 이것은  
美國이 그만큼 強함을 의미하고  
있다.  
미사일을 발사하려면 浮上해야만

하는 것이 소련의 미사일 잠수함이  
다. 이것은 그만큼 취약한 것이다.  
그런데 太平洋이나 太西洋에서 浮  
上할 수 있는 곳은 極히 制限되어  
있으며 그것은 항상 美國의 監視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소련  
의 잠수함용 「미사일」은 「플라리스」  
에 비해 裝置된 彈頭가 크지않다고  
알려져 있다. 뿐만 아니라 大部分  
은 「플라리스」에 比해서 작은 것  
으로 알려져 있다.

가령 소련이 奇襲을 해왔다 하더  
라도 美·소의 潛水艦 「미사일」의  
比率는 美國에게 대단히 有利하게  
된다.

以上으로 볼때 美·소의 잠수함  
勢力은 몇가지 點에서 美國이 有利  
하다. 즉 美國은 水中發射가 可能  
하며 射程거리가 越等하게 멀고 「미  
사일」 적재량이 있어서도 優勢하다.  
彈頭に 있어서도 一部를 除外하고  
는 소련 것은 美國에 比해서 작다.  
특히 사정거리에 있어서는 美國  
특히 300 哩에 대해서 美國은  
1,500 哩이다.

이러한데서 「武力에 의한 世界征服」  
이란 그의 野望은 브레이크가 걸려져  
있는 것이다. 情勢를 요약하면, 美國은  
스스로가 먼저 攻擊을 加할 力이 없  
으며, 후르시초프도 냉정한 事實에 당  
면해서 감히 攻擊을 걸어오지 못할 것  
이다. 이것이야말로 「恐怖의 均衡」  
이 平和를 확보한다는 비웃을 만한 現  
實의 모습이다.

(김기태譯)

# 農家所得 增進을 爲한

## 農業經營 改善策



李 源 烈

空軍士官學校 三學年

### △目 次▽

- (一) 序 言
- (二) 韓國農業의 一般性과 特殊性
- (三) 有畜業과 特用作物의 育成方案
- (四) 結 言

#### (一) 序 言

論者は空軍士官學校生徒입니다。士官學校設立目的이國防問題를 다루기爲한것인데經濟問題를論한다는것은 좀異常하게여겨질것입니다。그러나 지난四千年間에大小八千餘件의戰爭이있었고紀元前一四九六年부터今日까지二百四十四個年밖에平和의期間을갖지 못했은즉十四年間만에 한번의人類는戰爭을치루어야만했었습니다。

戰略家들은戰爭의原因을여러가지로分類하지만根本的原因은經濟問題였던것입니다。이와같이國防問題는經濟問題와直結되는것이며오히려經濟問題內에國防問題가包含되는것입니다。그래서우리는空軍士官學校에서經濟學分野를重要한課目中의하나로다루고있읍니다。

英國의有名한經濟學者,「콜린클라크」는産業을第一次,二次,三次産業으로分類한바있지만經濟의自立을指向하는後進社會특히우리나라에서는一次産業의튼튼한基盤위에第二次,第三次産業을育成시키지않으면안되리라생각합니다。그리하여論者は특히農業問題에興味를가지고그동안저내왔기때문에農家所得增進을爲한農業經營改善策이란問題를擇해보았읍니다。

問題解決에앞서韓國農業의一般性과그特殊性을살피고다음으로이를土臺로韓國農業經營을改善시키지않으면안되는가특히有畜業과特用作物의育成策에對하여具體的으로提示하겠읍니다。

#### (二) 韓國農業의 特性

##### 一、一般의 特性

- ① 우리나라의農業은보잘것없는몇가지의 적은量의原料와生存에必要한食糧을生産하는原始生産業입니다。
- ② 가물, 홍수, 폭풍우, 병충해 등의自然災害에너무나도脆弱합니다。
- ③ 商品生産이아니고單純히生産이며
- ④ 主로米作中心의耕種農業입니다。
- ⑤ 地勢의變化가많고資本의不足等諸條件때문에機械化의導入이極히어렵고檀君때使用했던호미를아직도버리지못하고人間의근육에만依存하는實情입니다。

⑥ 副業, 加工業이 貧弱하며 勞動力의 不均衡性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⑦ 農民들은 너무나도 後進性에 墜어 있습니다.  
 二, 具體의 特性

① 二百餘萬町步를 二百三十萬戶의 農民들이 所有하고 있기 때문에 農  
 民平均 一人當 四百三十町步 이는 印度의 1/4, 暹羅의 1/18, 美國의 1/60 밖  
 에 되지 않습니다.

② 五反步 以上の 農家가  
 四十三%를 占하고 있으며  
 ③ 現在 水利不安全帶이 五〇% 차지하고  
 있는 데 萬一 政府에서 完全히 水利事業을 完成  
 한다면 亦도 全番面積의 七〇%밖에 할 수 없  
 다고 專門家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④ 農家收入面에서 보면 耕種收入이 八十%  
 養畜收入이 겨우 六%를 차지하는 收入源이 너  
 무도 單純하여 收入을 年中 平均 調節할 수 없  
 습니다.

⑤ 四十年間에 여덟번이라는 큰 災難을 當  
 하였는데 經營에 危險性이 많고  
 ⑥ 輪作을 하지 않기 때문에 土地는 漸次  
 황폐해가는 實情이며 또한 生産物 相互關係에서 年을 수 있는 經濟的인 利  
 點을 얻을 수 없고,  
 ⑦ 每年 外穀을 約 四百萬石을 들여오고  
 ⑧ 總糧農家가 五十二萬戶에 達하며  
 ⑨ 農家一戶當 年平均 二千圓의 赤字를 내고 있는 즉 全 農家의 年間 總  
 赤字 約 五十億圓에 達하며

⑩ 現在까지 果積된 全 農家의 總 負債가 八百八十億圓(一九六〇年 九月末)  
 이니 政府에서 八十億圓을 高利債整理 資金으로 放出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百億圓의 負債가 남아 있습니다.  
 이를 打開하기 爲하여 國土開發, 水利事業促進, 肥料의 合理的 利用, 單位  
 生産高의 增加, 機械의 導入, 農業協同組合 育成, 教導事業等과 같은 改善策  
 단으로서 이러한 難問題를 根本的으로 解決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  
 면 糧穀增加率은 年平均 〇.九%인데 人口增加率은 年平均 二.一八%이어서  
 二次産業이 아무리 發達한다 하더라도 現在 全國組織의 勞動者數가 三十萬名  
 밖에 되지 않으니 人口의 完全한 吸收은 極히 어려운 實情에 있습니다. 이런 즉  
 米穀의 增産단으로서 農家負債는 解決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根  
 本的으로 解決해 주고 農家經濟發展을 期하고 所得增加를 가져오는 다른 方  
 案을 찾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收入源이 너무나도 單純한 Mono  
 culture의 經營樣式을 止揚하고 Multi culture의 經營樣式으로 轉換시키기

(I) 農家戶當耕地面積比率

3反步未滿	19.7%
3反步以上~5反步未滿	23.2%
5 " ~1町步 "	30.1%
1町步 ~2 "	20.7%
2 " ~3 "	6.0%
3町步以上	0.3%

(註) 公共團體 所有의 耕地 面積을 除外

爲하여는 다음의 두가지 條件이 必要합니다.  
 ① 市場性과 收益性이 높아 農家所得增進에 寄與할 수 있는가의 與否  
 ② 國際的인 需給面에서 海外輸出하기에 容易한가의 與否

로서 考察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첫째로 市場性과 收益性에 있어서 畜産物, 果實, 野菜, 特用作物은 一般的으  
 로 主穀에 比하여 必要的인 彈力性이 높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海外輸出에 關하여 살펴보면 美國의  
 剩餘農産物로 糶치를 賣고 있는 일이라든지 버  
 마, 브라질 등 糧穀輸出을 못해서 애를 쓰고 있  
 는 것을 볼 때 韓國米의 國際市場에서의 競争은  
 極히 어려운 問題에 부딪치나 一九五六年度 米  
 需으로 輸出한 바 있는 生豚은 香港에 있어서의  
 一日 需要量이 三千頭인데 中共産, 臺灣産, 淸  
 波, 日야産 百五十五, 百七十弗 韓國産 百  
 當 百八十八弗을 받아서 採算이 맞았던 것이며  
 기를 거고 採算이 좋기 때문에 대단히 好評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果實, 野菜를 보면 今年  
 度 四月中 要求量의 七十五%밖에 供給 못했으  
 며 이들은 우리 側의 質의 改善, 大量生産으로 海  
 外輸出을 促進시킬 수 있고 向後 國內에서도 國  
 民所得 增加와 同時에 그 需要가 크게 成長한  
 것입니다.

이와같은 好條件下에서 米穀 偏重의 單純經營  
 에서 오는 모든 危險性을 排除하고 畜産, 特用  
 作物을 育成하여 複合化함으로써 所得增加  
 를 이룩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具體的인 育成 方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三) 有畜業과 特用作物의 育  
 成 方案

(A) 有畜業의 育成策  
 그러면 도대체 有畜業의 育成은 어떻게  
 韓國經濟成長을 높이고 아슬러「農家所得을  
 올릴 수 있겠는가」고 하시 말하면 그 長點이  
 단 무엇인가 라는 問題부터 다루어야 하겠  
 습니다.

① 制限된 農業資本의 效率을 높입니다.

(II) 四種作物의 需要成長率 및 供給成長率

	需要成長率(%)		供給成長率(%)		A-B(%)
	A	B	A	B	
穀物	3.30	1.00	3.30	1.00	1.30
畜産物	7.43	4.49	7.43	4.49	2.94
蔬菜類	5.63	0.75	5.63	0.75	4.89
果實類	11.58	2.47	11.58	2.47	9.11

註: 人口增加率 2%  
 資料: 農協月報

(III) 畜産物輸出實績

種別	(1961年 11月末 現在)	
	數量	外貨金額
豚毛	190,251kg	1,224,368
牛骨	1046,200kg	58,010
獸毛類	47,536kg	98,264
毛皮	207,565株	149,186
生豚	58,767頭	2,251,246
計		4,051,075

資料: 農林部

③ 地力の永久維持는 營農의 가장 重要한 根本의 問題인 것이니 地力의 酸性化防止와 물에 溶解되지는 않는 肥料成分을 溶解시켜 農作物이 잘 吸收하고 양분이 적어져 發芽와 發育을 促進시키므로 生産高를 높여 주며 開墾地나 干潟地와 같은 모래땅에서는 土地의 改良도 이를 수 있고 五畧의 畧은 二百五十萬의 金肥에 對하러 韓國에서 少, 卽지 四百餘萬頭만 기준하면 百萬은 到하는 金肥를 節約할 수 있습니다.

現在 우리 農家 經營費中 肥料費가 三十五% 援助資金中에서 肥料資金이 約六十億원이나 차지하는데 이로써 個個 農家의 支出은 節約되어 各 農家나 國家는 그만큼 總所得이 增加할 것이며 두번째 말한 地力을 維持할 것입니다.

③ 遊休勞動力을 有利하게 利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전 내일은 人口問題라고 했지만 韓國 역시 이것이 큰 問題입니다. Matsuzaki는 人口論에서 人口는 幾何級數로 增加하는데 食糧生産은 算術級數로 增加한다고 했는데 米穀增加는 〇, 九%인데 現在 人口 增加率은 二, 八%, 一年마다 大邱만한 大都市가 韓國에 하나씩 하나씩 늘어나고 있는 現象이며 農民一人一日平均 勞動時間 三, 七時間이 더 아깝게 浪費하고 있는 勞動力을 吸收시킬 수 있으며 또한 農繁期에도 養育시키며 畜力利用으로 效果的 作業을 할 수 있으니 세번째 말한 勞動力의 不均衡性을 打開하여 주는 것입니다.

④ 土地의 集約의 利用과 廢物을 利用함으로써 韓國農家의 零細性에서 오는 苦惱을 어느 程度 解消시켜 줄 것이며

⑥ 皮革, 油脂工業, 副業, 加工工業을 造成하여 주느니만큼 農村의 遊休勞動力을 吸收하고 이에 따라 所得水準은 올라갈 것이니 農村工業의 振興도 育成시킬 수 있습니다.

⑧ 畜產物에서 나는 副產物은 醫藥, 化學의 原料生産으로 多額의 外貨獲得과 節約國內 醫藥界의 振興을 促進시켜 주며

⑦ 國民保健體位 向上策을 이룩할 수 있는 것입니다. 近來 日本을 다룬 것은 國의 말에 依하면 戰後 그들의 體位는 向上되어 옛날 「倭人」이라고 부르

게 된 것을 오히려 우리 韓國國民이 듣게 될지도 모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大部分의 農村어린 이들은 靑壯期 보리박한 그릇으로 極히 低位한 榮養攝取을 하고 있으니 二世 國民들의 健康은 極히 危殆로운 現象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 農家에서 葉소한 마리만 기준하면 五畧의 것을 따므로 한 사람의 食糧을 節約하여 줄 뿐만 아니라 年平均 一日 한 農家에 對하여 七그람의 動物性 단백질을 提供하여 주며 男女老少 할 것 없이 는, 발효의 物을 利用하여 손쉽게 기를 수 있습니다. 이의 좋은 예로서 蘇聯의 食品生産의 八十%를 畜產에서 얻고 우리 韓國과 地理의 一으로 經濟의 一으로 伊太利에서는 二十五%를 畜產에서 얻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곱째로 말한 食生活構造를 改善하여 줄 것이니, 저의도 最少限 六百三十萬石의 食糧을 節約하여 줄 것입니다.

⑧ 現金收入의 圓滑에 關하여 살펴보면 間接的으로 一般 農產物의 生産高를 增加시킬 뿐만 아니라 農民들이 現金을 얻기 위하여 一時 放賣하는 데서 오는 弊端을 除去하여 줄 것이며 凶年 豐年을 不拘하고 年中을 通하여 그 收益을 늘려 줄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같이 農事資本의 效率를 높이고, 地力을 酸性化에서 防止하고, 土地의 集約의 利用, 遊休勞動力의 適切한 分配, 農村工業의 育成, 醫藥業의 發展으로 外貨獲得, 國民體位 向上 六百三十萬石의 食糧을 節約 年中을 通하여 現金收入을 圓滑히 해주는 有畜業을 어떻게 造成할 것인가?

① 家畜의 經濟的 價値 與否 飼料

② 飼料作物의 豐富性으로써 가려야 할 것입니다. 첫째 經濟的 價値는 보아 穀類를 必要로 하는 家畜보다 풀을 主飼料로 하는 家畜을 最大限度로 育成시켜야 될 것이니 葉소 토끼 소일 것입니다.

한편 밖에 일을 하지 않고 많은 飼料를 必要로 하는 役用專門의 韓牛를 兼用種으로 改良한다는 것인데 예로서 蘇聯은 牛, 고기, 일을 겸하는 소가 있어 畜產에 큰 役割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飼料資源의 擴充問題에 關하여 考察해 보겠습니다. 論者는 어느 養畜家를 찾아옵니다. 宅에서 하고 있는 畜產에서 가장 困難한 點이 무엇입니까? 『예, 資金도 資金問題이지만 飼料確保가 第一問題입니다.』 果然 그렇습니까?

韓國을 有畜業으로 轉換시키는 가장 큰 애로는 바로 飼料問題인 것입니다. 農民들은 풀, 草 등을 芻糧으로 利用하니 이를 經濟的으로 利用하자는 것이

입니다.

다음에는 牧野地 設置問題를 보면 蘇聯은 全國土의 十二% 耕地面積을 中心으로 百七十餘萬町步에 達하는 牧野地를 中心 利用하여 세 사람이 한마리

말로 百六十餘萬頭의 소를 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全國土의 七十三%가 山野이며 傾斜度 百五十 以下の 牧野開發 可能地가 二百二十二萬町步 二重 傾斜度 〇. 1% 이하가 百四十萬町步이니 韓國도 百六十餘萬頭를

기를 수 있고 牧野地가 없더라도 二百餘萬町步의 耕地에서 나는 副產物을 利用하여 自力으로 기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飼料作物 栽培에 關하여, 어느 동농가의 말을 잠깐 빌린다면 一反步 卽지 三百坪에서 穀物이 잘 되어야 五千원을 收入하나, 卽지는 五, 六個月生

이 모든 費用을 除하고도 한마리 당 三千원의 收入이 나오니 三百坪에서 나는 飼料로서 最少限度 四마리는 기를 수 있다는 것이니까 그 收入은 비할바가 아닙니다. 이와같이 有畜業에 依한 生産高가 單純한 主穀農業에 依한 生産高

를 훨씬 超過한다는 것은 理論的으로나 實際的으로나 明白합니다. 따라서 先進 農業方式에서 는 耕地의 一部分 또는 全部를 飼料作物으로 利用하는 것이 營

農의 普通方式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로서 스웨덴을 들어 보면 農業人口가 全人口의 五十%를 차지하는 이 나라에서는 飼料穀物 및 飼料作物의 強制栽培을

農業政策의 基本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現在 畜面積 百二十餘萬町步中 五十%밖에 毛作을 양고 있으니 나쁜 밭에는 飼料을 심고 논에는 보리 其他 穀物을 심어서 効果의 으로 利用하면 큰 收益을 올릴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한바와 같이 家畜의 經濟的 條件으로서 水, 鹽소, 토끼 그리고 役用專門의 韓牛를 兼用種으로, 飼料問題는 解決되었읍니다. 그러면 畜產政策으로서 大우어야 할 點은 무엇이 겠읍니까?

- ① 無畜 零細養畜家에게 低利資金 融資
- ② 集約 酪農部落 造成과 人工授精
- ③ 家畜 共濟金 支給
- ④ 飼料配合 工場의 設置
- ⑤ 飼料 導入으로 不足量 補充
- ⑥ 飼料 最低價格制 確立이러한 畜產物을 處理하는 措置가 隨伴되지 않으면 適正販賣價格維持가 至難하므로
- ① 軍納促進과 海外輸出의 促進
- ② 저장시설과 冷凍施設 完備
- ③ 家畜衛生等 여러가지 問題가 大우어져야만 할 것은 勿論이고 追加하여 論者가 主張하는 것은 스페인에서와 같이 飼料作物, 穀物을 三百坪當 強制栽培을 實施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一定 時日이 지나 政府에서 禁止하여도 農民들은 他農作物보다 收支가 맞기 때문에 할 것입니다.

(B) 特用作物의 育成策  
 담배, 인삼, 포고, 잣, 오부자, 뽕나무, 밤나무, 약초, 특히 박하 其他 作物들은  
 ① 山野等 어느곳에든지 栽培할 수 있고  
 ② 勞動力이 적게 들므로 男女할 것 없이 栽培가 可能하며 農村의 많은 遊休勞動力을 吸收할 것이고  
 ③ 이들은 國內需要는 勿論이고 海外輸出이 容易합니다.

時間 關係上 全部 檢討할 수는 없고 뽕나무와 밤나무에 關하여만 살펴 보겠습니다.  
 뽕나무에서 나는 生絲는 化學纖維工業이 發達하며 그 需要가 減少했다고 하지만 광복 保溫等에는 나이에 비해 較할 수 없이 優秀하며 日本은 全世界 貿易의 八十%를 輸出하고 있습니다. 韓國도 이의 장려는 國內의 原料를 保는 勿論 外貨獲得에 크게 보탬이 될 것입니다.  
 日本에서 하고 있는 適地適產主義를 擇하여 山間地方

(IV) 畜의 利用度 (單位: 町步)

年度	一毛作	二毛作	計
1956	804,169,7	394,482,1	1,198,651,7
1957	816,701,8	389,934,8	1,206,636,6
1958	807,306,6	402,355,1	1,209,661,7

資料: 農林部 統計課

(V) 時價

磅當	부라질	대만	한국
	4.40弗	4.90弗	5.50弗

資料: 農協月報

에 크게 장려한다면 一九七〇年度에는 六十五億圓의 外貨를 獲得할 計畫을 政府에서 樹立하고 있다는 消息은 讚揚할 바라고 생각합니다.  
 밤나무는 果樹보다 栽培가 容易한데 陰地, 傾斜度, 土質에 不問하고 잘 자라며 三年째부터 열기 始作하니 山에 밤나무를 심는다면 二千四百萬石의 糧穀과 同一한 밭과 附加하여 年粟 二十四萬石을 얻을 수 있으니 農家의 收入은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나 經濟的으로 맞지 않는 山林事業보다 밭 栽培事業을 積極推進해야 할 것입니다. 좋은 例로서 瑞西의 알프스 山을 들 수 있습니다.

(四) 結 言

以上에서 論者는 簡單하나마 農家所得 增進을 爲한 가장 根本的인 農業經營 改善策으로서 現在의 米穀偏重의 Monoculture의 인 營農構造 自體를 有畜農業과 特用作物을 追加한 經濟의 多樣化를 圖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力說하였읍니다. 생각컨대 今般 政府는 經濟開發 五個年 計劃을 立案 實行함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工業化와 아울러 農業部分에도 重點的인 政策이 施行되고 있지만 資本이 極度로 不足하고 모든 面에 時急한 施策이 要請되는 現實에서 어떠한 政策을 選定하고저 할 때에는 그 政策이 早速한 時日內에 그것도 恒久的으로 일어나 많은 經濟的 惠擇을 가져다 줄 것인가 하는 點으로서 그 優先順位 다시 말하면 Priority를 定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런 點으로 보아 農業部分 施策中에서도 가장 時急하고 重要한 問題는 有畜農業과 特用作物의 장려 育成問題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政府는 무엇보다도 이 點에 留意하여 깊은 研究와 強力한 施策이 있어야 할 것은 勿論이고 當事者인 農民들의 이 點에 對한 理解와 意慾의 增進이 더욱 必要하다 하겠읍니다. 그러므로 政府는 勿論 農業問題에 關心을 가진 모든 사람은 農民大衆으로 하여금 有畜農業에 對한 認識을 더욱 높여서 하루 速히 充足한 農村과 明朗한 社會를 建設해야 하겠읍니다.  
 以上

내가 지킬

---

새 헌법

---

내 투표표

---

정하자

空軍 예비역 將兵을 찾아서

# 그後の生活

經濟企劃院 統計局 金 煜 鎮



金 煜 鎮 氏

「將來의 世界는 統計에 依하여 支配될 것이다。」이라는 第2次大戰末期에 英國 人의 「Economist」誌가 豫言한 것이다. 십여년전의 이러한豫言이 오늘날의 世界에서 立證되어가고 있다. 한나라의 産業의 現代化, 經濟力等이 그나라가 保有하는 統計機器의 臺數에 依하여 測定되는 實情인 것이다. 事實上 現代의 文明社會에서 解決을 要하는 여러가지 複雜한, 政治, 經濟, 社會, 文化上의 問題의 本質을 把握하여 結論에 到達하고 決定을 내리는 데 統計는 不可缺의 道具인 것이다.

統計에 對한 認識이 強한 나라에서 是個人이나 團體를 莫論하고 量의 接近方法으로 모든 問題를 解決한다. 量의 接近方法을 爲하여 蒐集된 統計資料는 分析批判된 다음 資料의 効用與否가 決定되고 効用性이 認定된 資料는 保管된다. 이러한 資料는 個人이나 國家가 問題를 解決하는데 使用된 傳이나 그들 의 주역九九式 思考의 傳統 및 習慣을 止揚하고 科學의 事實에 基礎하여 思考하고 問題를 解決하도록 助長한다.

더우기 우리나라는 解放以後 國土가 兩斷되므로써 여러가지 社會文化의 悲劇을 겪었으며 아울러 하나의 經濟單位로서의 韓國은 鑛工業 資源과 施設을 共產主義者들에게 強占당한 채 自立的인 經濟를 이룩하지 못하고 外國의 援助에 依存하여 왔던 것이다. 이러한 外國援助 依存性을 止揚하고 自主經濟의 確立을 爲하여 革命政府가 樹立한 經濟開發五個年計劃은 그 規模나 內容에 있어서 舉族의 인 心을

흔아니라 앞으로의 民族死活을 左右하는 것으로서 國民의 知力, 精力, 및 財力의 總動員을 切實히 要求하는 것이다. 이러한 目的을 爲하여 우리나라의 統計事業은 切實한 重要性을 갖는 것이다. 統計는 우리가 當面하고 있는 問題의 性質과 樣相을 弄明하고 파악하는데 必要한뿐 아니라 弄明된 問題를 解決함에 必要한 資料를 供給함에도 勿論으로 必要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國際聯合의 勸告에 따라 처음으로 全世界에 實施하는 國勢調査活動에 參加하였으며 世界共通의 基準에 따라 一九六〇년에 人口, 住宅, 農業을 範圍로 하는 綜合的인 國勢調査를 實施하였다. 蒐集된 資料를 處理하기爲하여 六七〇名의 人員을 確保하고 最新式 ICBM 資料處理機 一五八臺를 購入或은 借用하였으며 資料處理에 必要한 經濟企劃院 統計局 建物도 竣工되어 資料處理는 本軌道에 올라섰고 只今으로부터 滿一年後인 一九六三年 三月에는 國勢調査總覽을 發刊發表할 豫定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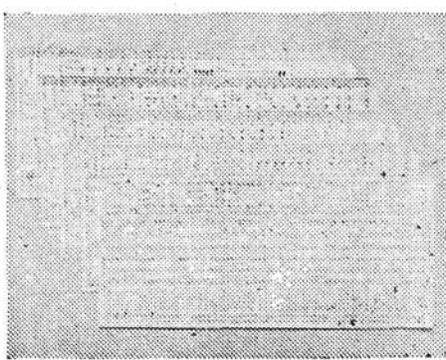
現在 우리나라의 統計局에서 使用하고 있는 資料處理機器는 Punch Card System의 基幹이 되는 穿孔機, 檢孔機, 分類機, 會計機等이 있으며 補助機械로서는 翻譯機, 複寫穿孔機, 照合機, 集約穿孔機, 電子統計機, 電子計算機等이 있다. 이러한 機械의 造作을 爲하여 이미 우리나라 技術者들이 日本에 派遣되어 所定の 教育을 받았으며 現在 統計의 實務을 通하여 機械의 造作 技能者가 養成되고 있다. 空軍에서 所定の 服務年限을 마치고 一九五九年十一月三〇日에 豫備役으로 轉役한바 있는 全煜鎮氏도 이러한 技

能者의 한 사람으로서 經濟企劃院 統計局에서 그의 卓越한 能力을 發揮하고 있다. 다음의 글은 氏의 지난 날을 대강 엮은 것이다.

歐羅巴에서는 나치獨逸의 狂的인 戰爭準備로 戰雲이 감돌고 亞細亞에서는 所謂大東亞共榮圈을 口實로 하는 日本 軍國主義者들의 侵略의 砲聲이, 大陸을 뒤덮던 一九三七年七月十七日, 大陸에서 태어났다. 서울에서 齊洞國民學校를 卒業한 나는 運輸業을 經營하지던 父母님 의 意圖에 따라 서울商業中學校에 入學하였으되 一九五六年에서 商業高等學校를 卒業하였다. 高枝時節에는 珠盤보다는 野球가 좋았고 薄記보다는 피제의 「정은」 베르트의 「슬픔」이 훨씬 좋았다. 그當時 卑鄙하고 無能했던 自由黨 爲政者들에 對한 울분은 十代의 나의 마음속에 삭트면 莫然한 反抗意識과 얼버무려져 概成世代와 概成秩序에 對한 無分別하고 條件없는 反抗으로 굳어졌다. 그러나 위대한 消極의 이고 內省的이었던 나는 잠재의 力적인 反抗이나 거지던 울분을 文學作品을 읽고 클라식 음악이나 들으며 달래었다. 大學에 入學할 때는 아버님의 反對를 무릅쓰고 政治科를 選擇했다. 政治科를 選擇하게 된 나의 意圖는 보다 積極의 이고 動的인 方向으로 나의 人間性을 發展시켜 보려는 것이었다. 檀大 政治科에 入學하면서는 말서스의 人口論, 스티스의 國富論, 마카벨리의 君主論等, 스티스는 데로 읽었다. 그當時 政治, 經濟, 理論에 對한 基礎知識이 없던 나에게 그러한 것들이 消化될리가 없었다. 제

위칠수 없었던 不滿은 累積되어 갔고 그러한 生活의 일차 동안 계속되었을 때는 습박하는 듯 느껴지는 정신적인 압박을 벗어나기를 갈망하게 되었고 환경도 바뀌를 접하여 軍에 入隊할 것을決心하였다. 내가 空軍에 入隊한 것은 一九五六年도 저물어가던 十一月이었다. 航空兵學校에서 처음으로 겪은 軍隊生活은 몹시도 고된 것이었다. 새벽의 起床나 말로 始作되는 하루의 訓練은 빈틈없이 짜여진 日程이었다. 動作을 하면서 다음 段階의 動作을 미리 생각하여 두지 않으면 세수할 틈조차도 허락되지 않는 各박한 時間表에 따라 激烈한 訓練을 받아가는 동안에 내대로의 獨特한 타성을 면치 버리게 되고 軍隊라고 하는 團體를 構成하는 因子로서 要求되는 人間型으로 다듬어져 갔다. 「集合」의 口令이 떨어지면 하면 것이 무엇이던간에 미련 없이 던졌고 列中の 定하여진 내자리에 어김없이 찾아 들었다. 걸을 때는 나도 모르게 앞사람의 뒷통수를 노렸고 肺는 어김없이 앞사람과 呼吸을 같이 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는 여러번의 精神의 인갈들과 회의를 克服하여야만 했다. 처음 新兵訓練課程이 始作되고 닳새 되던날 도망할 決心하여 보기도 했다. 실체 그러한 나의 決意를 實行에 옮기려고까지 했었다. 새벽 起床나 말에 나는 同僚들과 함께 集合場所인 練兵場으로 뛰었다. 동짓달 새벽의 廣場은 몹시도 차고 매서웠다. 點呼集合場所를 向해 同僚들

과 함께 뛰면 나의 발길은 어느새 나도 모르게 練兵場수련으로 向했다. 빛물이 흐르며 판 응덩이에 들어가 끈숨을 몰아쉬는 데 集合을 完了한 同僚들의 番號소리가 들렸다. 한번 끝난 후 얼마 동안 잠잠하니 또 다시 番號가 始作된다. 세번째로 반복되는 同僚들의 番號소리를 들으며 나는 集合場所를 向하여 뛰었다. 「不足한 番號를 메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하는 생각만이 머릿속을 덮은 채 도랑에 얻어 지며 자막에 아물거리는 同僚들의 희미한 隊列을 向해 氣力을 다해 뛰었다. 點呼가 끝난 후 週番士官室에 呼出되었다. 「用便을 보러 갔었



→ 統計 카 아 드

다」고 변명을 한 후 얼마 동안의 罰戒를 들었다. 週番士官室을 물러나올 때의 나의 氣分은 날아간 듯 하였다. 季節 탓도 있었겠지만 灰色으로만 보이던 新兵隊 建物과 練兵場等 은 누리가 머오르는 햇빛을 받으며 따뜻하게 나를 감싼다. 年경 처음으로 나는 환경의 조소가 아닌 환경에의 反抗이 아닌, 환경에의 효과적 적용에서 오는 人間의 희열을 호탕하게, 그리고 實感있게 느꼈다. 그로부터 나는 아무리 不自然스럽게 造作된 人爲의 環境일지라도 別로 苦痛을 느끼지 않으며 적용해갈 수 있었다. 入隊한 달이 되던날, 크리스마스 때는 同僚들과 크리스마스 파티를 만들어 제법 흥겨우게 지낼 수 있었다.

新兵教育을 마치고 처음으로 配屬된 곳은 四三施設戰隊였다. 그곳에서 一年間의 營生생활을 한 후 配屬된 곳이 十戰團飛行團이었다. 週末外出을 하게 되면 서울에 있는 집에도 들렀지만 때로는 同僚들과 함께 오후 7시, 화창문, 방화수류정 등 고저도 들머르고 音樂鑑賞室에 들러 古典音樂의 심오함에 심취하기도 하며 한 주일의 피로를 풀기도 했다. 그곳에서 轉役時까지 勤務했으니 三年間의 軍隊生活을 마치고 兵長으로 轉役할 때는 이미 나의 몸의 일부, 나의 피부가 되어버린 듯한 푸른 유니폼을 벗기가 사뭇서 운하기까지 했다. 막상 轉役을 하고 나니 그때까지 復校만을 생각하던 나에게 社會生活에 對한 새로운 意慾이 움트기 始作했다. 처음에는 아버님의 事業에 助力하기도 했으나 그것보다는 새로운 分野에서 나 자신의 獨自의

인 터전을 마련하고 싶었다. 그러던 차에 統計局에서 統計職員을 募集하는 新聞公告가 눈에 띄었다. 應試資格은 兵役을 필한 高校卒業者였으며 試驗科目은 國語, 數學, 社會生活 및 一般適性檢査였다. 三百名募集에 志願者가 一千七百名이나 되었다. 試驗은 勿論 公開競爭試驗이었다. 軍隊生活이나 轉役後의 生活을 通해 平素에 즐기던 讀書의 德擇이 있는지는 모르나 合格者名單에는 나의 이름도 끼어 있었다. 이로부터 最初의 나의 生活人으로서의 獨自의 社會生活이요 國家公務員生活이 始作된 것이었다.

所定の 教育을 받은 후 現在 經濟企劃院 統計局에서 統計調査表의 內容分析 및 機械造作等의 實務에 從事하고 있는 氏는 찾아간 記者를 반가히 맞아 統計調査表를 保管하는 倉庫로부터 電子計算機等 最新式 集計機械 등이 즐비하게 設置된 集計室에 이르러 가까이 親切히 案内하여 주었다. 異邦의 어느 事務室과도 같은 넓직한 방안에는 百을 헤아리는 穿孔機가 비둘로 秩序정연하게 놓였고 每機械마다 한사람씩 Operator (大部分이 未婚女性)가 붙어 앉아 勤務에 熱中하고 있었다. 修學旅行은 시골學生을 쳐다보는 듯한 눈초리를 휘두르며 질문이나 질문에 수줍은 듯 웃음으로 대하는 氏의 人像이 아무래도 內性的이었다. 作別人事를 하고 統計局門을 나설 때는 어느새 늦가을의 太陽이 西山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었다.

(끝)



# 健康한 肉體 · 健康한 精神

崔 臣 海

☆ 醫博 清涼里腦病院長

있을 때는 대수롭지 않지만 있던게 없으면 참을 수 없이 답답한 것은

『공기·마누라·돈·건강……』

돈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는 남에게 돈을 취하려 다녀 봐야 아는 것이다.

자기가 건강할 때에는 건강이란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지만 병에 걸리든지, 부상을 입어 병신이 되든지, 허어서 죽음을 가까이 했을 때에는 누구나 건강이란 귀중하고 고마운 것이지 절실하게 느끼게 되고 건강했을 때에 좀더 참되게 노력해보지 못했던 지나간 날의 방종이 후회되는 법이다.

## 四十年前 느끼는 건강의 고마움

건강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나이는 四十 지나서 부터다. 孔子는 四十不惑이라 했는데, 유혹을 받아도 흔들리지 않는 확고부동의 境地란 정신적면만이 아니라, 신체적면까지 뜻하는 것이리라.

二十代 三十代에서는 자기 건강을 믿고서 술이고 색이고 마음 내키는대로 방종하다가 四十 고개를 넘어서면 무엇인가 두려운 생각이 앞서기 마련이다.

내 돌래의 친구들을 보더라도 그 전에는 술을 밤늦게 마시던 친구들이 四十 고개를

넘어서면서는 모두 술이 약해졌다는 핑계로 술을 삼가고 술잔을 거리는 것이 눈에 띄인다.

四十年 남자란 모조리 惡漢이 된다는 말따나 모조리 자기 몸만을 생각하게 되어서 보약이나 호르몬 따위의 약에 마음이 쏠리기 마련이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그것은 흔히들 건강이란 것을 육체적인 건강만을 생각하는 경향이다. 건강에 조심하고 음식을 가려 먹고 운동을 하고 있는데, 과연 몸만 튼튼하면 그 사람을 건강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 몸과 마음의 중의의 알맞춤

신체만 건강하면 지구를 뒤흔들 수 있는 우주선에 탈 자격이 부여될 것일까 하고 물어 보면 누구나가 다 아니라고 대답할 것이다. 신체도 신체라야 나쁘고 대담한 정신력 없이는 제트기나 宇宙船을 탈 자격이 없음을 누구나가 다 알고 있다.

나같은 精神科醫師는 하루에도 여러명의 정신병자를 진찰하고 치료하고 있는데, 특수한 병은 제외하고 대개의 정신병자는 모두 신체적으로도 멀쩡한데, 다만 정신의 障



害로 人間生活에서 낙오된 사람들이다. 신체는 건강한 病者들이 아니다. 健全한 身體에 健全한 정신이 깃든다는 격언이 여기에 안 맞는다.

그런가 하면 결핵요양소 같은 데에 가보면 몸은 결핵에 걸려서 병을 앓지만 정신력은 완전하리만큼 건강한 사람들을 볼 수도 있다. 병들어서 골골하면서도 쉬지 않고 붓을 들 어 哲學이나 詩나 小說 따위의 大作을 써서 後世에 남겨준 先人들이 있는 것이며,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부터 불려받은 人類의 遺産을 자랑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지만 신체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한 完全한 의미로서의 건강체는 하나만이 만들어준 藝術品이라 하리만큼 아름답다. 신체의 건강을 떠난 정신의 건강을 생각할 수는 없고 정신의 건강이 수반되지 않는 신체만의 건강도 무의미하다. 신체와 정신은 중의의 알맞춤같은 관계에 있는 것이며, 한쪽면이 더러운 중이를 우리는 깨끗한 종이라 치지 않는 것같이 신체나 정신의 한쪽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건강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다.

# 健康한 精神이란

신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란 현재 병에 걸려 있지 않은 몸을 가졌고 항상 쾌락한 기분으로 충분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태 즉 신체적인 勤勞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강한 체력을 가졌고, 또 오래 살 수 있는 상태를 통털어서 말하는 것이다.

정신의 건강이란 現實社會에서 생활함에 부딪히는 여러가지 곤란한 일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自主적으로 現實적으로 現實적으로 처리해 나갈 수 있는 정신력을 가지고 있을 것은 물론이요, 가정생활이나 社會活動을 함에 있어서 원만한 對人關係를 유지할 수 있는 정신상태를 가지고 있을 것과 또 정신노동을 감당해 낼 수 있는 지속적인 능력을 갖추어야 비로소 건강한 정신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정신병적인 증상이 없어야 함은 말할 나위조차 없다.

건강한 정신상태라고 반드시 과거의 聖인과 같은 堅固한 精神狀態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에지프트」의 聖者 「시몬·스티리타스」라는 사람은 石柱위에 二十九年 동안이나 비바람을 맞아가면서 抄박 서서 苦行을 쌓았으므로 많은 사람으로부터 敬仰을 받았다 하고, 예수는 山上에서 四十日 동안이나 斷食기도를 드렸다 한다. 그만큼 신체나 정신력이 강했던 사람들이다.

그렇다고 예수용내를 내어서 山上에서 며칠씩 단식기도만을 올렸다고 우리같은 凡夫들의 정신상태가 갑자기 강해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알맹이 없는 거죽만의 흉내는 원숭이들이 잘하는 노릇이다. 사람은 원숭이가 되어서는 안된다.

陶淵明이 詩賦百篇 一斗酒라 했다고 흉내내어서 平凡한 詩人이 술잔만 마셨다고 결코 좋은 詩가 百篇이나 쏟아져 나올리 만무한 것과 마찬가지로.

정신건강을 위한 첫걸음은 자기 자신을 아는데서 시작한다. 정신분석학에서 말하는 自己分析이라는 것이다. 「他人을 아는 것은 智勇 自己를 아는 것은 明이라」하는 옛말따라나 心理學的으로 精神醫學的으로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자기의 智能이 얼마나 되는지, 精神的 持續力이나 性格은 어떤 것인지 알아 보는 것이 좋다. 영국의 「갈로버」박사는 건강한 정신상태를 정의 하여 말하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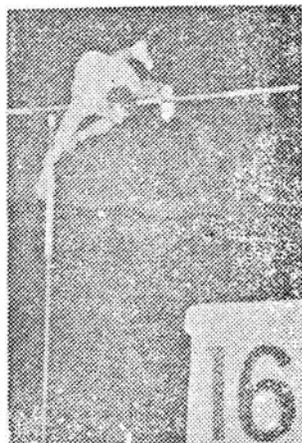
「정신병적 증상이 없을 것, 행동이 자기의 정신적 葛藤에 左右되지 않을 것, 충분한 근로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 自己 이외의 무엇인가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을 들고 있다.

화나는 김에 남을 욱하고 때리거나, 직장을 쉬거나, 조금치도 自己以外的 무엇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건강한 정신상태가 아닌 것이란다.

自己 몸 이외의 무엇인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대상이 자기가 속해있는 집단이나 군대나 戰友도 좋을 것이요, 민족과 나라도 좋다. 더 나아가 사랑의 대상이 人類라면 더욱 좋을 것이다.

## 健康한 정신을 얻기 위해서

흔히들 사람의 두뇌는 유전적인 것이라고 단념해 버리는 수가 많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정신력이란 孔子가 말한 知德勇의 三要素를 충분히 섞여 가진 상태를 말한다.



知만을 에로 들어 보더라도 우리는 일상 회화에서

「저 사람은 유명한 대학교수의 아들이니 머리가 똑똑할 수 밖에……」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다. 즉 정신력은 유전적이어서 先天的으로 타고난 八字소관이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했자 별수 없다고 諦念해 버리는 사람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요새의 實驗心理學은 그렇지 않을 증명해 주니 고마운 일이다. 記憶力만을 에로 들어 보면, 타고난 소질 즉 知能指數가 물론 문제되지만, 그보다도 기억을 방해하는 정신적 갈등과 不安이 없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보다도 더 큰 문제는 그 사람이 얼마만큼이나 기억력을 증강시키는 훈련을 꾸준히 하고 있는가에 문제의 초점이 달려있는 것이다.

아무리 날카로운 칼이라도 오랫동안 쓰지 않고 창고속에 넣어두면 녹이 슬어 들지 않는 법이지만, 싼 칼이라도 매일 갈고 손질을 해두면 예리하게 잘 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무리 좋은 머리로 태어난 사람이라도 도무지 기억하는 훈련을 쌓지 않는다면 점

집 머리가 나빠질 것은 뻔하다.

기억력을 증강시키는 길은 每日 쉬지 않고 책을 읽고 무엇인가를 의우고 생각하고 계산하는 데에 달려있다. 가령 영어단어나 詩나 科學의 法則같은 것을 매일 쉬지 않고 조금씩 암기하는 습관이 형성된다면 이는 大腦生理學에서 말하는 바의 條件反射가 형성되어서 기억력이 놀랄만큼 발달되는 법이다.

정신력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건전하게 人格이 成長되어야 함은 물론이지만, 青年期에 있어서는 자기의 정신적 갈등과 不安을 해소시키고, 昇華시키도록 노력하는 것이 先決문제다.

先賢이나 哲人들의 책을 읽는 것도 좋다. 宗教에 歸依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스포츠」나 健전한 오락으로 不安을 轉換시키도록 努力하는 것도 좋다.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일상생활에 있어서 집안에서나 직장에서나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좀 더 원만한 對人關係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보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정신수양 한답시고 방안에서 책이나 읽든 지 공상만 하는 것은 무의미한 짓이고 시간 낭비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사람이란 社會性을 띤 동물이기 때문에 人格수양의 道場을 사회와 고립된 산속에서나 닫혀진 방속에서 찾을까 아니라 동네에

# 스포츠 정신과 軍人精神



<筆者>

두 말할 것도 없이 自古로 스포츠精神과 軍人精神은 一脈相通하는 것이며 歸一되는 것이라 하겠다.

이제 그 實例를 古代로부터의 우리나라 體育發達史를 통하여 說明해 보기로 한다.

## 古朝鮮時代의 體育과 戰爭

有史以前의 體育은 東西國家를 莫論하고 于先 살기 爲하여 即, 衣食住를 解決하기 爲하여 그들의 體力를 涵養하였으며 猛獸같은 사나운 敵을 만났을 때 싸우기 爲한 氣力을 培養했으며 強한 剛志力을 길러온 것이다. 그러나 氏族社會에서 部族社會로 變遷함에 따라 그 部族을 다스릴 수 있는 族長이나 타나서 그 部族을 다스리었고 他部族을 侵

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友人들과 섞여 있는 곳에서 行住坐臥二十四時間동안 어디 서나 어느 때나 인적條鍊의 道場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만이 나중에 大成할 사람인 것이다.

李 曉

☆ 大韓體育會副會長

略하여 領土를 擴張하기 爲해 武藝를 必要로 하였던 것이다.

이와같이 部族이 커져 하나의 國家形態를 이루게 되자 國家를 守護하기 爲한 軍人이 必要했으며 戰術이 必要했던 것이다.

古朝鮮의 韓半島 南쪽에 位置하고 있었던 三韓에서는 戰鬪를 할 수 있는 軍人을 養成하기 爲하여 男子들에게는 달리기, 뛰뛰기, 창던지기, 말분어 싸울 수 있는 겨투, 씨름 水泳, 弓術, 乘馬, 登山, 投石等의 基本的인 運動을 하였다.

이와같이 基本的인 運動에 能熟하게 되면 國家를 爲하여 싸울 수 있는 軍人으로서 兵營에 들어가게 되었다. 여기에서는 이미 배

은 基本的인 訓練에서 보다 強하고 튼튼한 身體를 갖기 爲하여 身體活動을 하였던 것이다. 달리는 말에 뛰어 오르기, 달리는 말에서 뛰어 내리기, 말을 달리며 활쏘기, 창던지기 등이었다.

當時에 만들어진 櫛弓이라는 활은 널리 中國에까지 이름을 떨쳤으며 이것은 古朝鮮時代에 있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體力向上과 身體活動의 狀況을 알려 주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또한 上古時代의 國民들이 生活하기 爲하여 武藝를 길렀고 強한 精神과 身體의 發達은 그 時代에 使用했던 弓, 刀槍, 斧, (도끼)等 戰爭에 必要한 여러가지로 보아 알 수 있다. 이들의 精神訓練과 肉體訓練이 武藝를 基本으로 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을 想像할 수 있다.

그 當時의 體育의 目標은 身體를 強하게 하여 國家를 爲해 싸울 수 있는 사람을 養成하기 爲한 것으로 본다. 또한 當時의 體育는 部族社會나 國家防衛의 目標에서 實施되었음을 알 수 있고 또 豫測할 수가 있다.

이와 같은 體育의 發達은 東西를 莫論하고 國家防衛와 戰鬥能力의 向上發展을 目標로 하였음을 알 수 있는 것은 가장 오랜 文化를 가졌던 「에집트」 「페르시아」 「그리스」 등의 예를 보아도 알 수 있다.

### 三韓時代의 體育과 軍人

小國家社會가 擴大되면서 鬭爭의 規模도 커졌으니 이것은 國家를 統治하는 統治者의 領土慾, 人民慾, 外國侵略에 對한 防禦策의 하나로서 軍事的인 活動이 더욱더 強하여져 기 시작하였다. 이 때까지의 北倭와 南倭에 對하여 여러 部族國家들이 高句麗, 百濟,

新羅 등의 統合으로 말미암아 完全한 國家의 形態를 갖추게 되었다. 이들은 서로가 同盟하여 侵略을 일삼았다. 이렇게 強한 勢力으로서로 接觸하게 되자 國民의 教育은 侵略을 爲한 武藝를 習得하는 武術教育으로 變하였다.

高句麗에서는 庶民이나 平民의 子女들은 尙書이라는 私立學校에서 칼쓰기, 槍던지기 弓術, 달리기, 뿔뿔기, 城廓오르기, 밭술오르기, 무거운 짐나르기, 投石등을 가르쳤다. 이러한 戰爭이 일어나면 國家를 爲하여 목숨을 바칠 수 있는 健全한 精神과 強壯한 體力를 培養하였다.

또한 國家의 安全을 爲하여 해마다 봄과 가을에 全國에서 모인 武士들이 御前에서 狩獵을 하여 가장 많이 잡은 사람에게는 賞을 주고 各種武術大會를 열어 壯元을 한 사람은 國家에서 登用하였던 것이다. 가을에는 大同江邊에 모여서 兩便으로 나누어 石戰을 벌려 有名하였으며 이 곳에서 죽는 사람도 있었으나 이것은 高句麗人의 靚은 氣象을 보이기 爲한 一種의 身體訓練이었다고 하겠다.



百濟는 高句麗와 비슷하였다. 그것은 百濟의 始祖가 高句麗의 遺民이었던 것이다. 新羅는 花郎道가 생기어 靑少年의 心身鍛鍊의 目標로 되었다. 花郎道의 起源은 正確하지는 않으나 三國史記에 依하면 眞興王三十七年(西紀五七六年)에 南毛와 俊貞의 두 女子를 中心으로 일어나게 되었다고 한다. 처음에는 女權社會의 體제를 內包하면서 漸次 男子中心으로 變遷된 것으로 新羅社會의 發展과 國勢가 興盛함에 따라 眞興王三十二年에 社會制度化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一五에서 二〇세의 少年들로써 構成된 集團으로 數百名 數千名에 達하여 이들을 郎道라 하고 이들을 指導하는 사람들을 國仙, 仙郎, 風月徒, 香徒라 하였으며 날마다 무리를 지어 山川을 徒步하며 心身を 鍛鍊하였으며 歌樂을 즐기며 情緒의 陶冶와 道義를 鍊磨하고 高尚한 氣風 및 奉公精神 등의 涵養을 目的으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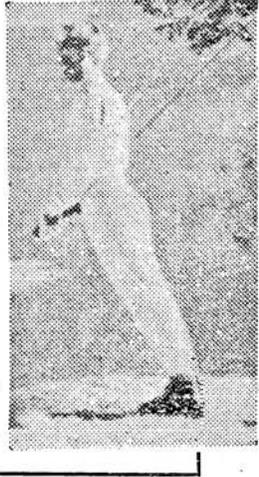
이것은 一種의 武士團, 教育團體 및 社交團體의 하나이며 相互協同의 精神과 儒敎思想의 忠孝와 佛敎의 護國精神이 合쳐서 이루어졌으며 指導者에 對한 順從, 戰場에서

의勇敢性、愛國의忠誠心、傳統과道德의尊重、相互間의友義와信義를生活의信條로 삼았으니 이들의五戒는 다음과 같다.

- ① 事君以忠
- ② 事親以孝
- ③ 交友以信
- ④ 臨戰無退
- ⑤ 殺生有擇

이와같은 絶對的愛國心과 高潔한 禮儀에서 우리는 無雙한 勇猛性을 엿볼 수 있다. 따라서 禮儀와 道義를 길러 道德과 志操를 가지고 武와 歌를 즐겨 戰爭에서의 士氣와 情緒를 昂揚하도록 山川을 돌아 다니며 心身을 鍊磨했다. 이것은 少年들에게 心身의 活動이 身體的으로는 勿論, 精神的으로는 睿智에까지 미치지움을 알 수 있다.

身體를 鍊磨하는 手段으로서 달리기, 뛰기, 水泳, 씨름, 제기차기, 協同心을 爲한 줄달리기 등이었다. 이 줄달리기는 三南地方에서 新羅를 거쳐 高麗 李朝時代를 지나 解放前까지 行하여졌음을 알 수 있다. 三國時代에 男子들은 戰爭에 나가서 죽는 것을 榮光으로 알았고 國家나 民族父母를 爲



하여 自己의 목숨을 버리는 것을 例事로 여겼다. 三國에서는 모두가 戰爭에 나가서 後退하는 것을 가장 卑屈한 行動으로 알았고 죽을 때에도 敵國을 向하여 죽어야 屍體의 埋葬이 許諾되었다. 이것을 볼 때 얼마나 武를 崇尚하는가를 알 수 있다. 百濟에서는 제기차기, 공차기, 바둑, 윗놀이 등이 有名하였다. 이 윗놀이는 百濟時代로부터 傳해진 가장 오래된 娛樂의 一種인 것이다.

三國時代에 行하여졌던 體育이나 娛樂은 現在外國에서 들어온 體育이나 娛樂에 비추어 獨創의이고 自然스럽고 汎國民的인 스포츠와 娛樂이라고 할 수 있다. 이當時의 狩獵大會나 弓術大會같은 것은 鍊武大會의 手段이라고 볼 수 있으나 戰士들의 스포츠 또는 餘暇를 善用하기 爲한 「레크리에이션」의 性質을 가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古朝鮮의 體育은 西洋의 「그리스」以前에 體育과 恰似하고 政治的經濟的, 軍事的으로 형성했던 三國時代의 體育은 「希

### 臘時代의 體育과 對照할만 하다.

#### 高麗時代의 體育과 軍人

世界의 어느나라에서든지 統一이 되기以前에는 文武力에 힘쓰다가 平和가 되어서 國民들의 生活이 安樂하게 되면 遊興에 빠지게 되는 것은 「로마」時代를 研究해 보게 되면 더 잘 알게 된다.

우리나라도 新羅가 統一을 하기 以前에는 國民이 서로 團結하고 協力하여 強한 統治國家가 되었으나 統一以後 平和가 오래 持續되면서 精神的의 緊張이 緩和되어 國民은 奢侈에 빠지고 王室內部에는 王權 다툼이甚하여 저서 新羅는 亡하게 되었고 後三國을 統一한 高麗時代로 變하게 되었다.

高麗時代의 武士들의 體育은 大部分이 北方民族들과 鬪爭하기 爲한 身體訓練이라고 볼 수 있다. 新羅의 剛健한 精神을 繼承받은 太祖自身이 武人出身이므로 果敢히 北進政策을 推進시킬 수 있었던 것도 當時의 武術이 얼마나 卓越했었는가를 알 수 있다.

體育은 또한 宗教와 關聯을 갖고 있었다. 國初에는 佛敎가 國敎로 되어 있었으므로 三國時代의 武士訓練에 게을리 하지 않았으나 成宗以後에 儒敎가 들어와 事大思想이 據頭하여 쇠약했던 氣象은 없어져 가고 大陸에 依存하는 마음뿐이어서 國民들의 身體活動은 줄어들고 文弱에 흐르게 되었던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王은 外國의 군사에게 쫓겨 달아나고 臣下는 목숨을 가누기 爲하여 逃亡하는 일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이러한 羞恥는 李朝五百年을 연달았으며 우리나라의 崇高한 花郎精神을 完全히 喪失하고 말았다. 더구나 成宗以後에는 文官과 武官의 差別을 두어 文臣을 높이고 武臣을 낮추

어百折不屈의 護國의 守護神인 武臣들은 年少한 文臣에게 賤待를 받고 處待를 받아 武臣들의 怨恨은 높아 갔으며 子女에게 健康한 身體와 精神을 繼承하는 代身에 文學을 崇上하게 引導했던 것도 自然的인 現象일 것이다. 國家의 興亡을 눈앞에 보고서도 外面을 하고 一身의 安樂을 일삼는 世態와 氣風이 생기게 마련이었다. 過去 우리나라가 外國의 奸惡한 말굽아래 踏 밟히게 된 原因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이다.

契丹이 侵入하자 文臣들은 降服을 주장하였으나 홀로 抗爭하다 贊岐가 契丹王앞에서 도 죽음을 두려워 하지 않고 『나는 高麗의 臣下이니 어찌 오랑캐의 臣下가 될까보냐』 하고 끝내 抗戰하다 죽은 康兆나 哈公진 같은 사람들은 高麗武臣의 굳센 意志와 氣風을 뚜렷이 나타냈다. 이밖에도 많은 武臣의 百折不屈의 精神과 三別抄의 自主獨立精神은 高麗武臣의 傳統的인 愛國愛族精神의 發露이라 할 것이다.

이와같은 武士들의 自主의인 精神은 三國時代의 武藝와 新羅統一의 體育를 繼承發展시킨 것이며 水泳, 手搏, 跆拳道等이 行하여졌음은 高麗體育의 前進를 보여주는 特殊한 것이었다.

그러나 中期以後 儒敎가 興盛하게 되자 國民의 身體的인 面과 精神的인 面이 弱화되어 말할 수 없는 恥辱과 怨恨의 사무친 屈辱을 當하게 되었던 것이다.

X X X  
以上 列記한 바 體育史를 通하여 보더라도 體育를 勸獎하고 興盛했던 時代는 國力도 莫強하여 지고 어떠한 侵略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現代에 있어서도

『體力은 곧 國力』이라고 할 만치 個個人의 體力 增強은 國防上 見地로나 產業經濟와 文化發展을 이룩할 수 있는 重大要素이며 原動力이 된다는 것은 再言할 必要가 없는 것이다.

不撓不屈의 敢鬪精神이 스포츠精神이오 스포츠精神이 곧 軍人精神이라 하겠다. 스포츠는 健全한 精神과 團結力(協同精神) 그리고 強壯한 體力을 培養한다는 것은 前記한 바 있거니와 近代에 있어서 五大強國이라고 하는 美國, 소聯, 英國, 佛蘭西, 獨逸等의 例를 들어도 이나라들이 일마나 體育의 向上發展되었는가를 보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國家의인 重要政策으로서 스포츠發展을 汎國民的으로 展開하고 있으며 그들의 國力과 同一하게 各種 國際競技大會에서 雌雄을 다투어 싸우고 있는 것이다.

前記한 바 軍人精神과 스포츠精神이 同一하다는 것은 各國의 軍에서도 스포츠를 強力히 勸獎하여 心身을 鍛鍊시키고 있는 것으로도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또한 世界軍人 體育大會, 또는 美國士官生徒들의 力戰, 勳章戰等은 너무나 有名한 것이며 우리의 三軍士官學校體育大會等도 그 實例의 하나로 들 수 있다.

이와같이 體育를 重要視하여 體育發展 本然의 姿勢로서 우리나라가 總進軍한다면 스포츠에 있어서도 世界第四位の 國軍을 保有한 大韓民國으로서 遺憾없는 矜持와 實力을 發揮하고 誇示하게 될것임은 贅言을 必要로 하지 않는 바이다.

(끝)

## 체조의 역사

### 1 도이취 체조

창시자는 Guts Muths\* 一七九三년에 『 청년의 체조』라는 글을 써서 체조라는 것을 처음으로 설명하고 유희경기와 확연히 분리 독립시켰다. 체조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Friedrich Ludwig Jahn\* 一八〇九년 고등학교에서 체조를 가르쳤고 一八一一年에는 처음으로 운동장을 만들고 중체조 기계를 만들 수 있는 여러가지 기계를 발명하였다. 그후 Adolf Spiess는 보통체조를 고안하였다. 그를 도이취 학교체조의 아버지라고도 한다.

### 2 스웨덴 체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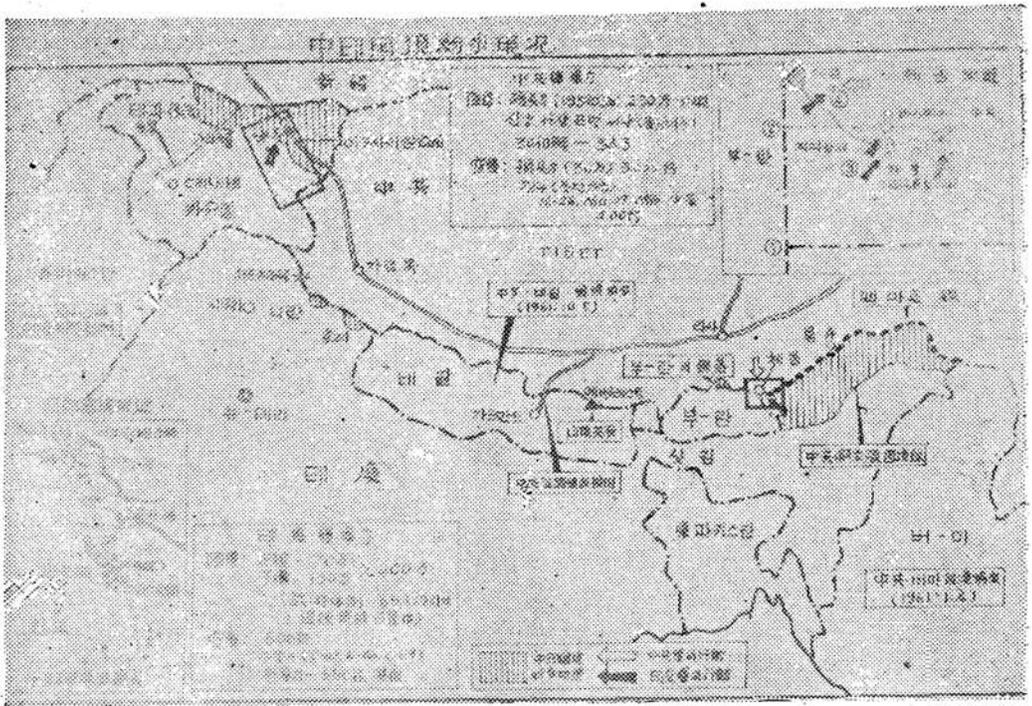
一八四一年 Pehr Henrik Ling\* 의 학부 세위진 왕립체조연습소에서 시작되었다. 스웨덴 체조는 생리학, 해부학에 기초를 두고 있다. 신체계를 교정하고 미적으로 발달시킨다. 그러나 형식에 흘러 단조로워졌다.

### 3 덴마크 체조

닐스 북크의 체조라고 한다. 一九二〇년 이후 二〇세기 초두 三〇년간 전 유럽에 유행하였다. 농업국의 국민들의 건강에 주안을 두어 도이취 체조, 스웨덴 체조에 좋은 점을 따서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제거하고 신체의 이상적인 발달을 목적으로 한다. 즉, 가동성, 힘, 기량의 양성등에 주안을 두고 있다.

### 4 스콜 체조

체코슬로바키아의 스콜대회에서 행하여지는 이 체조는 근대 스포츠 필수의 조건인 一系不亂의 隊形과 동작, 변화등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 印·中共國境紛爭의 性格

☆ 目 次

- 一、序 論
- 二、國境線 接近地域의 概況
- 三、印·中共 國境線 분쟁의 背景
- 四、紛爭發生 原因
- 五、軍事面에서 본 印·中共 國境紛爭
- 六、各國의 反響
- 七、結 論

### 一、序 論

「히말라야」山脈을 沿한 三千킬로 미터에 達하는 國境線을 지니고 있는 印度와 中共의 國境紛爭은 至今 미로소 始作된 것이 아니라 至今으로 부터 八年前 即 一九五四年 七月 中共 側이 印度의 巡察兵(Patrol)의 中共 領內侵入에 對한 非難이 有은後 印度는 中共 側의 非難을 틀리며 오히려 「티베인」이 侵入하였다는 回答) 印度와 中共과의 公式文書에 依한 交渉이 始作되었으나 一九五九年 六月과 八月에는 中共軍이 印度領에 侵入하고(當時 中共軍 四萬名 集結說) 印度軍도 前進司令部를 設置하여 小規模의 戰鬥을 行하여진 것이 그 始發이라고 보겠다.

其後 世界의 耳目을 集中시키면서 展開된 印·中共 國境紛爭事件은 지난 九月九일부터 再燃되어 事態를 더욱 惡化시켜 마침내 印度는 戰時體制를 確立하고 있으며 中共軍은 戰線에 三萬兵力을 投入하고 小規模의 戰鬥에 戰鬪狀態 突入하여 緊迫感을 造成하고 있다.

西方에서 「유카」事態가 惡化되어 戰鬪 一步前에서 蘇聯이 美國案을 受諾

하여 若干好轉되어 가고 있는 듯이 보 이는 오늘날 印·中共 國境紛爭問題亦是 重大한 問題로 取扱되고 있는 바 이에 그 現況을 概括적으로 解說하고 主로 軍事의 인面에서 그 趨勢를 더 들어 보기로 한다.

### 二、國境線 接近地域의 概況

(一) 印度의 東北國境 特別地區 「앗산」州의 東北部에 位置하고 있으며 「히말라야」山脈에 따라 中共領 西藏과 버마와 接境하고 있는 이地區는 中共軍의 西藏進駐와 아울러 軍事的으로 重要性을 더어 왔으므로 印度 政府는 이곳을 特別地區로 하고 있다. 「西藏」首領 「라라이 라마」가 一九五九年 四月에 「히말라야」山脈을 넘어 「西藏」으로부터 脫出하여 온 것도 이 地域이며 「라마」教徒가 相當數 居住하고 있다.

#### (二) 「라다크」地區

이 地區는 中國 清朝時代까지는 西藏의 支配下에 있었는데 清朝末에 이르러 「카슈미르」의 勢力下에 들어갔다. 「카슈미르」는 地理的으로 「차크」, 「카슈미르」, 「라다크」의 三個地區로 形成되

어 있다. 『차르』地區의 人口는 八五%가 『원두』教徒 『카슈미르』地區의 人口의 九五%가 回教徒인데 比하여 『라다크』地區는 人口十萬名中 六〇%가 『라마』教徒이다.

(三) 『깃진』  
인도의 保護國으로서 面積은 七千 百平方킬로미터 人口十三萬七千名 種族은 『네팔』人, 『부탄』人, 『레부차』人 등이 많다.

國教는 佛敎인데 住民中에 『원두』教徒가 많다. 一八一六年까지 清朝의 屬國으로 있었던데 一九一四年부터 四七年까지 英國의 保護領 一九五〇年 十二月 印度의 保護國으로 되었고 國防, 外交, 交通部門은 印度에 委託하고 있다.

(四) 『부탄』  
인도의 保護國으로 面積은 四萬六千六百平方킬로미터 人口는 六三萬名 大部分이 西藏系의 『보차스』族으로 西藏語를 使用하며 『라마』敎를 信仰하고 있다. 清朝의 屬藩으로 있었던데 一九一〇年 英國의 保護國으로 되었다가 一九四七年에 獨立하고 印度에 外交權을 委託하여 保護國으로 되었다.

### 三、印·中 中國境紛爭의 背景

(一) 『印·中』國境을 圍繞한 紛爭은 『西藏』問題가 契機가 되었는데 一九五〇年 十月 中共軍이 西藏에 進駐하였을때 『네루』首相은 『中共』軍의 『西藏』侵入은 가장 놀라운 일이며 有感스러운 일이라 하여 『中共』側에 抗議를 提起하였는데 그뒤 그 후 一九

五九年的 『西藏』事態時 『네루』首相이 中共軍의 『西藏』反亂鎮壓을 武裝干涉이라고 한 때로부터 더욱 中共과 對立되었고 『印·中』國境에서의 紛爭이 頻發하게 된 것은 『中共』軍이 『西藏』反亂의 鎮壓, 『다라이』라마의 追跡이라는 劇的인 形態로 國境線에 進出한 때부터였으며 특히 『다라이』라마의 印度亡命은 『印·中』關係를 더욱 刺戟시켰다. 따라서 印度는 對 『中共』政策으로서 國防強化策을 樹立하는 한편 對 『中共』外交策으로 代替하여 一九五四年 『中共』과 友好條約을 締結하고 西藏의 新地位를 正式로 認定하고 將來의 紛爭은 平和原則에 立脚하여 解決할 것을 約束하였다. 一九五六一—一九五七年에 『라다크』地區에서 『中共』은 新疆과 西藏을 連結하는 軍用自動車道路를 建設함에 『印·中』兩國은 紛爭의 실머리를 造成케 된 것이었다.

(二) 印度와 『中共』間에는 이러한 相互不信感이 發生한 것 외에 『네팔』과 『파키스탄』等 『印·中』國境에 介在하는 나라들과 『印·中』國境의 『三角』關係가 『印·中』關係를 더욱 惡化시키는 큰 要因으로 되었다. 中共은 一九六一年 十月에 『네팔』間에 國境條約을 締結하고 『西藏』의 『라사』로부터 『네팔』의 『카트만두』協定에 調印하였는데 이事實은 本來부터 『中共』의 進出에 警戒적이었던 印度를 刺戟시켰으며 한편 『네팔』 『마넨드라』 氏는 『네팔』로부터 追放된 亡命政治家가 印度에서 反 『네팔』政治活動을 行하고 있다는 면에서 『印度』에 強한 不滿을 가지고 있다. 그런 機會를 利用한 中共은 『네팔』과의 友好關係를 增進하고 『陳毅』中共外相은 十月 中共 『네팔』國境條約調印 一週年 祝賀會席上에서 『네팔』에 對해서 萬一어떠한 外國勢力이 攻擊을 敢行한다면 『中共』政府와 人民은 『네팔』側에 선다.』라는 演說을 하여 印度를 不快하게 하였다.

(三) 또한 『中共』은 十月 十二日 부터 『北京』에서 『파키스탄』間에 國境會談을 開始하고 있고 『印度』 『파키스탄』間에 『카슈미르』의 歸屬問題를 둘러싸고 紛爭中에 있다. 특히 『中共』 『파키스탄』間의 國境問題라는 것이 『中共』의 新疆地方과 『카슈미르』과의 境界問題外에 없다는 事實로 볼때 『中共』 『파키스탄』間의 國境會談開催는 『印度』 『中共』間의 對立을 激化시키는 또 하나의 問題로 되고 있다.

### 四、紛爭發生 原因

(一) 以外에 問題를 惹起시킨 直接的인 原因으로서는 地理面에서 두 가지로 分析할 수 있는데 첫째 原因은 『中共』과 『印度』間의 國境線이 兩國間의 解釋에 따라 相異한 것이다. 例컨대 東北邊境地區에서 『印度』는 『부탄』 東北端으로부터 『파라』北端까지의 『히말라야』山脈의 頂上을 國境線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印度』側의 主張에 依하면 이것은 一九一四年 『실라』에서 開催된 會談에서 『英國』 『中國』 『西藏』間에 假調印된 『맥마혼 라인』(當時 『英國』代表 『맥마혼』氏의 이름을 딴 것임)으로 一九四八年 獨立하자 『맥마혼 라인』을 그대로 英國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劃定된 境界線이라는 것이다. 한편 『中國』(中共

에서 莫大한 資金이 必要한데 反하여 外貨 饑饉으로 이두는 展望을 招來하고 있어 이러한 問題를 惹起시켜 西方의 外貨를 얻으려는 黑幕도 엿보인다. 特히 『印度』는 『蘇聯』의 M I G-2 二購入 問題 및 立아 問題를 西方側으로 부터 不信을 招來한 바 있었는데 今般機會에 이러한 諸般失策을 挽回하려는 局面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國內의 으로는 『印·中共』國境紛爭에 總廠起하여 『中共』을 非難하고 있는 全國民으로 하여금 軍事力 增強 命令을 宣布함으로서 國民의 增產意慾을 促進시키고 耐乏生活을 하겠음 하하여 外貨不足으로 起因된 經濟의 沈滯을 挽回하려는 데 또한 目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以上과 같은 背景과 原因을 둘러싸고 『印度』 『中共』間에는 國境問題를 中心으로 一九五四年부터 一九六二年 現在까지의 八年間에 約四百餘回에 達하는 覺書戰이 展開되어 고 數十回의 小規模 統擊戰이 展開되어 있다.

### 五、軍事面에서 본 印·中共 國境紛爭

十月二九日 印度政府代辯人이 發表한 衝突被害狀況에 依하면 印度는 지난 二十日 攻勢를 取한 以來二千五百名 程度의 兵力損失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至今 『印度』 『中共』雙方的의 戰鬪가 한창인 東北邊境地區와 『라다크』의 두 個地點을 純軍事的인 立場에서 보면 東北邊境地區는 『印度』 軍事의 生命線이고 『라다크』地區는 中共의 戰略의 據點이다. 만일에 中共이 印度를 征服하려고 하면 그 本格的의 進

路는 東北邊境이 된다. 왜냐하면 그 地區에서 『맥마혼』線만 突破하면 그들은 『칼카타』와 『힌두스탄』 平原을 침사리 손아귀에 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比하면 『라다크』는 危險峻한 自然의 地勢때문에 比較的 印度側에 有利한 軍事 阻止線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中共으로서서는 一九五九年 九月 西藏과 新疆을 連結하는 高速 道路를 『라다크』地區에 建設하고 있으며 『네팔』이나 『부탄』에 대한 支配力을 強化하고 있다. 그와 같은 立證으로서는 一九六一年 十月五日의 『네팔』 『中共』間에 國境協定이 調印되었고 『네팔』의 『카투만드』와 中共間에 이 道路가 完成되고 따라서 中共은 『印度』가 『라다크』에서 그들의 經濟 主權을 承認한 해준다면 東北部 『맥마혼線』에 對한 印度의 主張대로 讓步 하겠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印度로서는 『라다크』地區에 對한 『中共』의 道路 建設에 不滿을 가지고 있을뿐 아니라 『카슈미르』를 通하여 나을 中共軍을 阻止하여 東南亞를 侵透하지 못하도록 努力하고 있다. 『印度』 『中共』 案을 一蹴하고 東北邊境地區와 『라다크』 全域에 걸친 中共軍의 撤收를 强要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事實을 알고 있는 『中共』은 三萬名 以上の 兵力을 國境線에 配置하고 있는데 即 東北邊境地區에는 師團 以上の 兵力을 投入하고 『라다크』地區에는 戰車隊를 動員하여 印度가 어떤 對象條件을 내걸 때까지 軍事壓力를 繼續 加한 態勢에 있다. 이제 『印度』 『中共』兩軍의 主要戰鬪線을 보면 九月九日 『中共』軍이 처음 印度東北區邊境區 『체둥』을 攻擊하여 事態를 惹起시켰고 九

月十一日에는 『토왕』을 侵攻, 九月十三日에는 中共軍 三百名이 『부탄』 『印度』領에 侵入했다. 十月十日 『印度』發表에 依하면 『맥마혼』線上에서 『印·中共』間에 熾熱한 戰鬪가 展開되었는데 中共軍은 五천 미터 迫擊砲 自動銃, 手榴彈을 使用하여 『印度』領內에서 陣地를 補強中에 있었다. 따라서 『印度』空軍은 東北國境에서 出動 態勢를 갖추고 있으며 十月十二日 中共은 『印度』機一臺가 西藏地區에 飛었다고 發表하였다. 그리고 印度는 緊急 國防會議을 開催 十月, 十六日 空軍副司令官 『하르진』 에르진 少將을 美國에 派遣코 大型輸送機 購入交涉, 『印度』陸軍 六五歲까지의 退役 將校全員召集(十二, 十一), 戰時內閣 構成(十, 二十六)等, 諸般軍事措置를 取하여 『中共』軍에 正面對立하고 있다. 그리하여 마침내 十月二十九日에는 全面的 反擊을 開始하여 喪失 했던 몇개의 陣地를 奪還했고 中共도 攻勢準備를 하고 있다. 이와 같은 戰鬪 態勢에 있는 『印度』 『中共』兩國의 軍事力을 對比하여 본다면 『中共』은 陸軍總兵力이 定規單만하면 『라다크』 五個師團에 二五〇萬名 近接된 西藏 『공명』 『성도』의 四個軍구 兵力은 約 三〇〇個師團에 三四萬名이고 空軍은 總兵力 三〇〇萬名에 保有 臺數 約 三千臺이며 그 中 動員 加能한 近接 軍구인 광주군구의 兵力은 IL-2 十八, MIG-17, MIG-15 等 攻擊, 爆擊機를 包含하여 約四百臺가 動員 加能한데 이는 前進基地인 公明 서장(라사)基地를 利用한 것이 豫想 된다. 한편 印度의 軍事力을 보면 陸軍은 總兵力 正規軍이 二〇〇個師團에

約七十萬名 豫備兵이 百三十萬 都合二 百萬으로서 이는 中共軍 正規兵力보다도 적은 수를 헤아리고 있다. 空軍 兵力은 保有 臺數가 約 六百臺로서 그 中 戰鬪機는 約 三五〇臺를 保有하고 있는 것이다.

### 六、結 論

上述한 바와 같은 印·中共國境의 紛爭 地區는 다쳐을 嚴察으로 休戰에 그칠 것이 豫想된다. 그렇다만 印度가 將次 取할 方法로서 豫見되는 것이 外交 戰鬪인바 平和五原則에 立脚한 交涉는 難望이다. 왜냐하면 平和五原則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中共의 政策道 具에 不適하고 目的이 아니었다. 『印度』가 『中共』에 對한 外交의 阻止力으로서 期待하는 것은 『푸르시 초프』의 調停役割일 것이다. 그러나 『푸르시 초프』는 『中共』이 提案한 戰鬪行為의 即時 中止 無條件 交涉 開始의 二案을 들 고 調停役割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印度』로서는 國境線으로 부터의 『中共』軍 撤收(即 九, 八線維持)를 條件 附로 始終一貫 固執하고 있다. 다음 으로 『印度』가 取할 方法으로서는 美英 諸國에 積極의 支援를 希求한 것인바 『美·英』諸國은 이미 聲明을 通하여 『印度』에 對한 積極의 援助用意을 表明했음으로 그렇게 되면 紛爭은 더욱 惡化될 것이고 解決은 難望일 것이다. 即便 UN을 通한 解決은 中共이 非 加盟國이므로 이 亦是 難望일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豫想되는 것은 『印·中共』國境紛爭問題의 完全한 解決은 難望이고 兩國의 相互不信感情이 解消되지 않는다 하여도 現在의 外間은 緊張狀態는 當分間 繼續될 可能性이 濃厚하다.

(김득순)

# 三次元의 세계에서

## ! 그라이다 處女비행을 마치고 !

### 최영일

형님!  
발밑에 보이는 누렇게 병든 새  
갈의 발과 인적 드문 강가를 보며  
가을을 느낍니다.

흐릿하면서 명확하고, 접근할  
수는 아예 없을 것 같으나, 가까  
이서 먼저 볼 수 있는 그런 그림  
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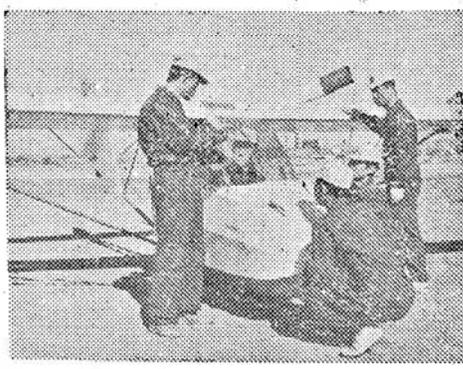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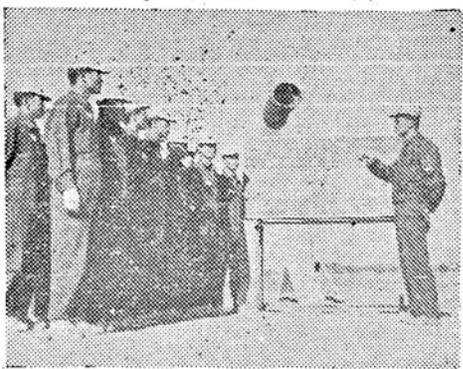
지상 二五〇미터, 참으로 어이  
없는 고도입니다. 에레베스트산  
아니 백두산의 높이에조차 견주  
어 볼 수 없는 낮은 고도입니다.  
그러나 아마 여기서 느끼는 맛은  
수천 미터의 높은 산을 정복했을  
때의 그것에 못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는 형식과 죄악이 가득한 땅  
을 떠난 곳입니다.

여기는 사랑이 있고 신의가 있  
습니다. 세상의 선(善)과 미(美)  
와 거룩을 여기서 체험해 봅니다.  
그러면서 거짓과 추함과 속됨은  
말끔히 떨어져 버린 투명한 지역입  
니다.

흠은 이는 추억에 살고 젊은이  
는 희망으로 산다고 하지 않았습  
니까?

나의 위치를 나타내기 위해서  
는 위도와 경도만으로는 부족합  
니다. 나는 순간적이거나 三차원  
의 세계에 들어갑니다. 三차원  
의 좌표에서 푸른바탕에 푸른물  
감으로 채색된 추상화를 봅니다.

이 무별대환 푸른색의 입체화  
는 나의 꿈이요 가야할 길입니다.  
지금 나는 참된 삶의 방법을 배  
우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졸리  
던 도의 시간이 아니고 애매하고  
의견상 정연히 조직된 추상적 운



리 강령도 아니면서 구체적으로  
몸으로써 배우고 마음으로 새겨  
서 참살을 배우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고 보니 자연  
히 가지각색의 품격이 제멋대로  
뒹이 있습니다.

형이 그렇게 고대하리라 짐작  
되는 활공비행의 소감을 이제 짧  
막하게 적어 보렵니다.

처음 입소할 처음에는 커다란  
희망을 안고 또 그것을 억누르고  
달래고 하면서 주출한 마음이었  
습니다.

첫번의 처녀 비행은 그저 황홀  
과 감정으로 마음마저 공중으로

원통 뜨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취  
한 사람처럼 의식이 희미한 가운  
데 벌써 나의 애기(愛機)는 착륙  
활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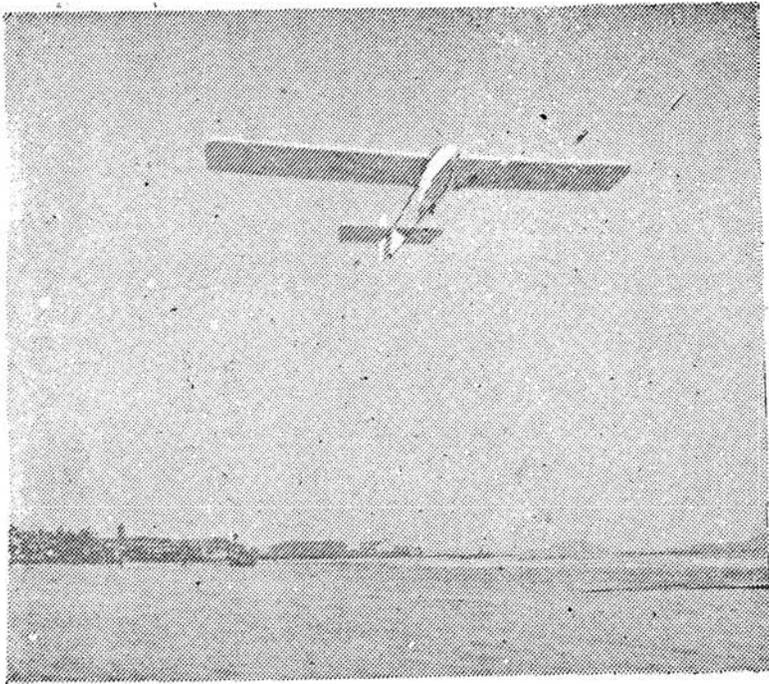
철봉에 거꾸로 매달려 산과 하  
늘을 볼때 느끼는 피이한 느낌처  
럼 공중에서 보이는 세상은 정말  
아름답기만 했습니다. 그 추함과  
불결과 깨어진 질서가 하나의 예  
술적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채 만  
으로 비쳐어 들었습니다.

지상의 모든 것은 그만 높이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인간을 굽어 보  
실때의 느낌이 이런 것이리라 생

자이 문득 들었습니다. 제가꿈제가 잘나고 남의 위에 있노라고 우쭐대는 꿈이 눈물이 나도록 가여운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지금 한강 철교 넘어 회미하게 보이는 관악산을 멀리 느끼면서 「몬트렐 스틱(조종간)」에 손을 잡아 전 신경은 두뇌의 모든 기능을 촉각과 운동신경 활동에 충동원이 되었습니다. 투명하게 표백되는 정신을 의식하며 싸늘한 긴



장과 초조가 호흡을 가쁘게 합니다. 가벼운 흥분을 의식합니다. 이렇게 해서 마음은 점점 더 크고 넓게 펼쳐 퍼지고 정신은 드높아 부풀어 갑니다.

희를 거들할수록 희고 양순하며 날씬하게 몸차림을 한나의 그 라이다를 애인으로 불안고 또 그 품에 포근히 안기는 시간이 그리워 집니다. 가벼운 두려움도 이런 가시어졌습니다.

시간의 길고 짧음을 시계로만 재려드는 습성이 무안해 졌습니다. 불과 열흘의 시간이 이제 절반이 지나 갔다고 생각할 때 태고에 이 곳으로 옮긴 것 같은 착각은 웬일입니까?

시간을 낭비함은 실로 자살임을 여겨서 깨닫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고정된 상태에서 의 단계적인 발전을 선행하던 자신은 허물어져 가는 동요를 느낍니다.

형님!

젊은 꿈의 보람을 참되히 쟁이 보는 시간들입니다.

고요한 밤에는 단꿈속에 피로를 풀며 푸근히 잠속에 찾아 듭

니다.

남은 날을 마치고 다시 만나는 날은 이렇게 변모된 자신의 안과 밖을 전지해야 하겠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 졌습니다. 칼뿔을 일쿠었다가 화롯불에 구어 먹으며 맞대고 앉아 밤을 뜬우머 이야기 하던 지난날의 기억이 되살아 오는군요. 이런 계절이면 형의 건강이 마음에 걸립니다.

길어 졌나 보군요. 그럼 몸조심하기를 빌며 이만 그치겠습니다.

빠짐없는 국민투표

바로서는 내 나라

국민투표 계몽표어

# 原子力時代와 민주主義 (上)



「原子力時代와 민주主義」라는 두 용語는 일종의 混成語로서 논제로서使  
用하기에는 편리한 것이지만 그 논제가 나타내는 주제 자체에 관하여 논급함  
에 있어서는 두 용語의 내용을 음미하여 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렇  
게 하므로서 두 용語는 실로 광범한 내용을 갖는 것임을 알수 있는 것이다.

아-놀드·로인비

(우선) 原子力時代라고 하는 용語가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의미하는  
내용은 「原子」의 구조를 이론적으로 발전하였다는 사실이나 핵  
分裂裝置를 기술상으로 발전하였다는 사실만은 아닌 것이다. 그것은 西洋世  
界에 있어서 十八세기 이래 속도를 더하여온 기술혁명과 十七세기 이래 속도  
를 더하여온 과학혁명의 급격한 가속도적 진전이라고 하는 것도 함께 암시하  
는 용어인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原子力時代」라고 하는 용어가 이 글에서 의미하는 내용중  
가장 특색있는 부분은 아닌 것이다. 오늘날의 科學의 技術의인 발전의 내용중  
度化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들에게 특의의 기분을 갖게 하지는커녕 도리어 불  
안한 기분을 일으키게 하는 면이 더욱 큰 것이다. 「原子力時代」라고 할때 우  
리가 느끼는 것은 우리들의 불안한 이 새로운 時代가 도하나의 時代, 즉 우  
리들이 일찍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낡은 時代(戰爭이 행하여지는 時代)와 時  
間的으로 지금 중부되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물이커 보진대 五천년전 옛  
날 最古의 문명이 일어나서 당시의 人間社會에 生活資料의 여유와 社會的 組  
織力을 갖추게한 이래 인류는 戰爭이라고 하는 것으로 끊임없이 고통을 겪어  
왔다. 더하는 생활자료의 여유라던가 사회적 조직력등이 생겨나지 않았다면  
戰爭이라고 하는 변태적인 사회제도도 결코 출현할 수 없었을 것이다. 전쟁을  
노예제라던가 또는 노예제까지는 못되더라도 일종의 사회적 불공평의 상태라  
던가 하는 것과 같이 지금까지의 「文明」에는 불어나니는 病患의 하나였던 것  
이다. 최근 백년간의 인류는 노예제라고 하는 병환을 사실상 치유할 수 있었  
으니 또 최근 四·五십년 동안에는 노예제 정도로 심한 것은 아닐지라도 역시  
하나의 병환인 사회적 불공평이라고 하는 사태도 이를 완전히 개선, 치유하  
지는 못하였지만 적어도 이를 경감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유망한 스타트를 하였  
다. 그러나 우리들의 세대에 있어서는 지금까지를 살펴볼 때 戰爭이라고 하

는 병환을 치유코지한 우리들의 노력은 크게 실패한 것이다. 그뿐 아니라 과  
거에 있어서 몇번이나 文明을 사멸시킨 戰爭이라고 하는 지독한 社會病에  
대하여서는 그 病患이 가져오는 결과를 경감시키지는 못하였고, 상공치 못했다.  
도리어 科學의 技術의인 발전이 최근 가속도적으로 진전되므로서 戰爭이 가  
져오는 결과는 한층 심각하게 되었다. 더우기 原子爆彈의 製造手段이 발전  
되므로서 그야말로 글자 그대로의 의미의, 인류를 완전히 自滅시킬 수 있는  
정도의 戰爭兵器를 갖게된 것이다. 더우기 이러한 발전이 이루어진 것은 戰爭  
이 아직도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여겨질 때인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戰爭이  
행하여지는 時代」와 「原子力時代」가 시간적으로 중부되어 닥쳐온 것이 이러  
한 原子力時代의 특색인 것으로서 이 특색은 「原子力時代」라고 하는 용어의  
어느 부분에도 직접으로 表現되어 있지 아니하지만 이러한 특색이야말로 「原  
子力時代」의 諸特色中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가장 뚜렷하게 자  
리잡은 것이다.

오늘날 民主主義라고 하는 용어는 科學이라고 하는 용어와 같이 靈驗의인,  
또는 秘蹟의인 용어로서 여하튼 미신적인 용어인 것이다. 西洋化되어 가는 現  
대의 우리들의 세계에서는 「民主主義」와 「科學」을 믿지않고 따라서 그것을 實  
行치 아니한다고 말할 수 있는 自信이 있는 社會는 없다. 다시 말하자면 「非  
民主的」이라던가 「非科學的」이라던가 또는 훨씬 더 極端의으로 말한다면 「反  
民主的」이라던가 「反科學的」이라고 自認한다는 것은 文明이라는 것의 圈外에  
있음을 自認한다는 것이 된다. 民主主義와 科學에 대한 말란의 忠誠을 약  
속하는 공통적인 경향은 특기할만한 것이다. 그것은 그야말로 오늘날의 세계  
전체에 보편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만은 資本主義도 共產主義도, 그리고  
西洋圈의 사람도, 또 그렇지 아니한 사람도 모두 한결같이 입을 모아 부르짖  
고 있는 것이다. 더우기 「한결같이」라고 한 것은 의미있는 것이다. 民主主義

라는 공통의 미신적인 말을 실사입으로 뇌이는데서 부터 實行에 옮긴다 할 때 그들이 취하는 여러가지 方法에 있어서 一致하고 있다는 의미로 말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 (民主主義)

대衆에 의하여 효과적으로 통치한다는 의미가 될 것이다. 이것은 實行의 면에서 지금까지 한번도 달성되어 보지 못한 理想인지도 모른다. 西洋에서는 中世 스위스의 森林地의 어떤 州와 地方에 있어서의 알페 산대大王 이전의 알카디아의 高地地方의 어느 都市國家에서 가장 理想에 가까운 政體에 達하였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역시 글자 그대로의 의미의 民主主義의 完全한 達成은 人間性이 도저히 미치지 못하는 政體인지도 모른다. 만약 그렇다면 그점이 民主政治와 寡頭政治(少數支配에 依한 政治)의 政治間의 비교적 중요한 相異點인 것이다. 그러한 寡頭政治의 形體가 事實上으로는 대부분의 경우의 政治形體였던 것이다. 그것은 民主政治라고 公公然히 表現하고 理論적으로는 寡頭政治를 排擊하는 社會에 있어서 까지도 사실 상으로는 그러하였던 것이다.

理論上的의 寡頭政治는 아니라 理論上的의 民主政治도 마찬가지로 事實上에 있어서서는 대개 寡頭政治였던 것이다. 왜냐하면 大衆이 직접적인 方法으로 效果的으로 政治力을 行使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곤란하며, 아마도 불가능한 것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大衆이 스스로 政治力을 行使하는 手段을 어느정도 爭取하였다고 할 수 있는 場所와 時期에 있어서서는 대체로 市民의 代理者가 되어 行動한 것을 公約한, 政治的으로 有能한 少數者의 手中에 大衆이 스스로를 맡긴다고 하는 方法에 의하여 達成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위임 받은 少數者가 大衆의 利益에 少數者 自身의 利益을 追求한다는 것으로서 맡겨진 信任을 惡用하는 誘惑에 完全히 이진 것은 드문 일인 것이다.

그러나 지금이야말로 原子力時代의 科學的 技術의 成果의 덕택으로 직접적인 形體의 民主政治가 廣大한 規模로서, 全世界의 規模에 있어서까지도, 實際적으로 可能해진 것이다. 최근의 高速度의 機械의 通信이나 交通手段의 發明이 이루어지기 이전의 時代에 있어서서는, 즉 다시 말하면 通信하는 人間의 肉體가 場所를 옮기지 아니하고서도 長距離間에 논이나 귀를 통해 通信을 행하기 이전의 時代에 있어서서는 직접적인 形體의 民主政治가 物理的으로 可能하였던 國家는 아무런 것이나 할지라도 그의 領域은 政務가 행하여지는 場所로부터 一日의 行程으로서 到達할 수 있는 程度의 것이었다. 아메리의 都市國家의 歷史上的의 領域 안에 들어가서는 앤티케는 바로 이러한 條件을 갖추기에 과히 크지 아니한 程度의 것이었다. 로마共和國의 領土는 紀元前 四世紀末 이전의 이러한 조건을 갖추 수 없을 정도로 커졌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第三世紀에 로마共和國의 憲法의 기초를 직접적인 民主政治에 두려고 한 企圖가 失敗한데 對한 하나의 說明이 될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에 있어서서는 鐵道, 航空機, 라디오, 텔레비전의 덕택으로 人間의 政治地理學의 人意味에 있어서서는 美國은 紀元前 四四四年 當時의 앤티 케보다도 적은 나라인 것이다. 紀元前 四四四年에 에페우시니아나 마라톤의 農民이 페리크레스와 접촉한 程度보다도, 그리고 페리크레스가 그들의 選舉 民과 접촉한 程度보다도, 오늘날의 大統領選舉運動期間中을 통해서 美國 選舉 民은 훨씬 더 緊密하게, 훨씬 더 계속적으로 大統領候補者들과 접촉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原子力時代에 있어서의 機械文明의 世界에서는 直接的인 民主政治가 그야말로 實際的인 政治形體가 되었음을 意味하는 것이다. 순수하고 效果的인 直接的인 民主政治를 確立한다는 것이 그야말로 物理的인 問題뿐인 것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現在의 世界에 있어서서는 직접적인 民主政治가 實際적으로 可能한 일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 (그러나)

여기서 우리들은 自問하여 보지 않을 수 없다. 즉 「必要한 物理的인 民主政治가 現實적으로 實現되었던가 하는 것이다. 다만 아메리의 경우에 있어서서는 必要한 物理的인 條件이 機械上的의 發明에 의한 距離의 克服에 의하여 생겨 아니나 領土의 範圍가 좁으므로 實際上的의 距離가 局限되었기 때문에 갖추어졌던 것이다.

앞서의 自問의 結果는 그 대답이 단연 否定的인 것일 수 밖에 없다. 아메리의 農民이 에레우시나 마라톤의 自己집으로부터 아메리의 議會場이 있는 場所까지 하루에 걸어서 갈 수 있다고 하는 物理的인 條件만으로서, 자동적으로 아메리의 農民이 페리크레스가 내진 政策과 페리크레스의 政敵이 내진 政策을 比較해서 賢明한 判斷을 하는 政治的인 能力을 부여받고 있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그 結論은 다음과 같은 것임에 틀림없다. 즉 選舉民과 政治家와의 사이에 人格的인 접촉이 맺어지기 위한 物理的인 可能條件이 없으면 직접적인 民主政治는 行할 수 없으며, 그것만으로도서는 그 物理的인 條件은 역시 可能性的인 條件에 불과한 것이며, 그것만으로도서는 投票者가 物理的인 自己들의 손이 미치는 範圍內에 들어있는 政治力을 有效하게 行使하는 것을 確實하게 保證하는데 必要한 利點을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닌 것이다. 物理的인 可能條件은 不可缺의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서 충분한 條件은 아닌 것이다. 직접적인 民主政治가 效果的으로 實現되기 위한 積極的인 條件은 投票者의 大多數가 政治的인 判斷力을 갖는다는 것이며, 또 政治的인 判斷力에는 知的인 能力과 道德的인 品性이 필요할 것이다. 民主政治가 그러한 判斷力에 依한다 한 直接的인 民主政治는 아니나 選出代表制 民主政治에도 해당되는 것이다.

그러한 實問에 對한 「에스」라는 대답이 美合衆國憲法과 一八三二年的 英國의 選舉法改正案의 基盤이 된 前提가운데는 있었다. 그 前提는 두가지의 내용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 첫째는 政治的인 實務가 보통의 知能과 教

育과 生活經驗이 있는 成人市民이라면 누구라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한 것. 둘째로는 그러한 意味의, 及び 어떤지 아니한 人間の 資格을 갖추고 있  
는 成人들만으로 選舉資格을 制限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상의 前提의 두가지 條件은 다분히 모두 實際로 達成된 적이 없는 것이  
다. 그뿐 아니라 이러한 두가지 條件은 최근 百年間의 歷史上的 事件에 依하  
여 세상이 尙 尙 程度로 뒷받침된 것이다. 한편으로는 直接的인 民主政  
治에 必要한 物理的 條件을 備한 것과 進혀 동일한, 生活의 機械化라고 하는  
結果로서 政務가 尙 尙 繁雜하게 되었다. 同時에 또한 前으로는 成人參政  
權을 採用하므로써 選舉民의 數가 增加하였으나 그 質의 低下는 可할 수 없  
었다. 이것은 擴張一路를 걷는 西洋世界의 圈內에 들어가게 된 西洋의 인 或은  
非西洋의 인 多數의 나라가 西洋의 인 議會主義의 選出代表制의 政治體制를 名  
目的으로 採用하게 된 때문이기도 하다. 名目的으로 民主化된 이들 非西洋의  
인 나라의 여러 곳에서는 成人人口의 少數조차도 政治의 인 知識經驗이라고 하  
는 素養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政治의 實務가 지금까지 보다 훨씬 理解困難하게 되었다. 또 原  
子兵器의 發明에 의해서 前代未聞의 強力한 物의 推進力이 政治行動에 導入되  
어왔기 때문에 政治의 인 과제가 과거에 있어서 보다 비교적도 安穩 정도로 重  
大事가 된 것이다.

筆者自身の 母國인 英國이라고 하는 一國의 局地的인 政治機構의 運用이라  
고 하는 點에 있어서는 十九世紀의 英國의 政治生活의 基本的인 두가지 制度  
即 議會에 있어서의 質問이라는 것과 所得稅納稅者에 의한 所得稅의 運營이  
라는 것— 이러한 두가지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본다면 十九世紀의 前提의 인  
基盤이 지금 얼마나 不適當한가를 알 수 있는 것이다.

議會의 質問이라고 하는 制度는 오늘날의 公務員의 氣分이나 行動에 여러  
가지 不幸福한 影響을 의연히 주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어떤면 不可避한 것인  
지도 모른다. 어떤 方針이 그것 自身の 長點으로 보아서 다른 方針보다도 좋  
으나 또는 나쁘나 하는 點에 따라서 行政上의 決定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方針이 다른 方針보다도 議會에서 거부스런 質問을 적게 받는다는 全려  
다른 計算에 立脚해서 決定이 내려지는 일인 얼마나 많은가 하는 점을 보아  
서 英國에서 第二次 世界大戰中 臨時公務員으로서 근무한 外部者가 얼마나  
한숨을 쉬었을까 짐작된다.

(이러한) 議會質問의 制度는 英國의 政務行政上에 이처럼 不幸福한 結果  
으로 健全한 機能을 거의 발휘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 健全한 機能이란  
議會에 選出한 代表者를 통해서 選舉民이 職業的인 公務員을 어느 程度로 可  
를 한다는 機能임을 말한 나위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英國에 있어서의 이러  
한 重要한 民主的目的을 達成하는 道具로서의 議會質問制度는 붕괴되어 버렸  
다. 그 붕괴의 이유는 議會의 質問에 對해서 官僚公務員이 이전에 비해 대담

### 인품속에 두려워 말고

### 자수로서 행복 찾자

간첩 자수기 간  
표어

을 민속하게 아니한다거나 誠實하게 대답을 아니한다거나 하기 때문이 아니  
라 公務라고 하는 것이 繁雜化되고 專門化되었기 때문에 議會側이 어떠한 質  
問을 正작 할 것인가를 안다는 것이 거의 不可能하게 되었기 때문인 것이다.  
어떠한 質問을 할 것인가를 아는 데 必要한 知識이 오늘날에 있어서는 特定  
의 小分野에 職業的으로 종사하는 比較的 下級の 公務員의 머릿속에 밖에는  
없는지도 모른다. 그들이라 할지라도 그야말로 올바른 대답은 모를 것이리라  
왜 그러나하면 그야말로 重要한 質問은 하나나 둘의 사소한 分野뿐 아니라  
全體를 認識에 넣는 質問이기 때문인 것이다. 오늘날 公務行政의 하나의 법  
위가 위성론의 펜타곤(國防省)과 같이 크게 되었기 때문에 넓게, 크게, 그리  
고 더우기나 重大한 質問에 대한 답을, 알고있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  
다. 그 官廳을 擔當하고 있는 長官이 그 대답을 모르는 것은 사실이며 事務  
官僚로서 專門職業의으로 그 官廳의 長이 된 사람도 모를 것이다.

그뿐 아니라 適切한 議會質問에 대해서 關係公務員의 全員一致의 協力에  
의해서 올바른 最低限의 答이 나온다 할지라도 아마 六·七百 페이지에 달하  
는 長文의 報告書가 될 것이다. 이러한 議會報告書에 아무리 精을 기울여 索引  
을 붙이고 註釋을 달아 할지라도 그것만을 위한 專門의 研究에 一生을 바치지  
아니한다면 그 내용을 파악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  
은 狀態에 있어서는 議會質問에 對한 完全한 答을 내놓으면 不正直한 마음으  
로 眞實을 감추려고 하기 때문이 아니라 正直하게 詳細하게 解明시켜 努力하  
기 때문에 도리어 眞實을 가리우는 것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어들로  
서 眞實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눈이 부실 程度의 밝은 光線으로서 眞實을 감  
추는 것이다.

英國의 稅務行政이 어찌되었는가 하는 점도 같은 포인트를 說明하는 하나  
의 예가 될 것이다. 英國의 所得稅辦務官은 名目上으로는 納稅者의 代表이  
지 政府의 代表者는 아닌 것이다. 그러나 繁雜化된 經濟財政生活이 不可避의  
으로 反映되어 所得稅法 및 稅課稅라는 것은 實際로는 法律專門家의 두개의  
大軍간의 知的인 長期戰의 戰場으로 變化하여 버렸다. 오늘날의 英  
國의 所得稅의 運營이 社會的 經濟的으로 なる 最惡의 結果의 하나는 英國內  
의 가장 有能한 頭腦의 主人公들을 實로 많이 生産的이고 創造的인 일에서 引  
져 내어 이러한 불필요한 分野의 일에 사용하는 점이다.

# F-100 系列 航空機

空軍少將 洪 聖 杓

地球上에 存在하는 모든 것은 人間으로 부터 物體에 이르기까지 自體가 所有한 固有의 名稱을 갖지 않은 것이 없다.

더우기 그의 重要性에 따라서는 더욱 細分하여 獨目的이고 識別할 수 있는 이름을 가졌는데 특히 人間은 相互言語가 通하고 交流가 甚함에 사람이라는 태두리 안에서서도 個個人이 다 各已 相異한 이름을 갖고 있어서 알아내는 데 便利하도록 되어 있다. 動物中에는 亦是 人間은 그의 必要性에 의하여 他動物과 달리 各自의 이름을 가져 識別할 수 있게 한 것과 같이 物中에는 오늘날 軍事武器가 最高潮로 發達하여 數 많은 任務에 當하는 武器가 出發함에 이를 識別할 切實한 要求에 應해 人間과 같이 個體에 對한 이름은 없지만 外部에서 보아서 形體가 다른 것이란 만 그 固有의 名稱을 가져 作戰上 또는 用途上 便利하도록 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에도 많은 航空機를 導入하여 北傀空軍이 何時라도 奇襲攻擊으로 再侵해온다 하더라도 自信있게 防禦할 수 있는 態勢을 完備하고 있거나와 그 中에는 같은 種類라던 몰라도 種類가 다르던 그의 機種別로 나누어서 名稱을 붙였고 또 나아가서는 任務別로 區分하도록 數字나 符號로 分探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그것은 다름아니라 같은 戰鬥機의 種類인 F-86이라 하더라도 戰鬥爆擊機의 任務를 가진 F-86B型和과 全天候爆擊機의 任務를 가진 F-86D型이 있거나 것이다. 航空機의 이름을 붙여

알아보기 쉽도록 하는 것을 命名이라 고 부르는데 이렇게 하여야만 보지 못한 航空機라든지라도 많이 볼러보고 거기에서 어떠한 航空機인가 하는 好奇心으로부터 더욱 關心이 많아졌다가 實際로 出現하였을 境遇에 印象 깊게 남아 곧 他機種과 區別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原理는 人間社會에서도 흔히 찾아 볼 수 있는 것으로서 特히 婚姻期를 맞은 處女들이 自己父母로부터 相對方 約婚者로 紹介될 男子의 이름을 여러 번 듣고 몇 대로 想像해보다가 實際로 앞에 나타나면 數 많은 男性들 間에서 한번 보아도 強烈하게 印象에 남은 것과 같은 理致 일 것이다.

이렇게 이름만 알아 두었다가 實物이 出現하였을 때 容易하게 他機種과 區別할 수 있도록 命名하고 識別케 하는 것을 識別法이라 하여 部隊訓練에서 戰鬥操縱士나 一般將兵들에게 教育을 實施하여 敵我航空機의 識別要領을 習得케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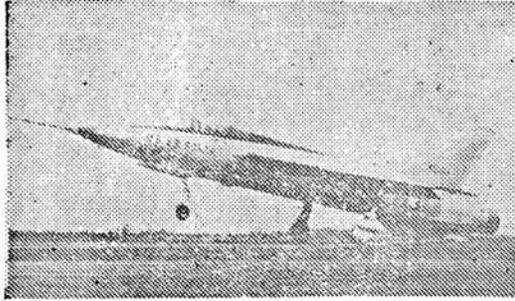
여기에서 識別하기 容易하도록 命名하는 데 있어서는 世界各國마다 相異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와 直接 關聯있는 美國만도 陸海空軍이 다 各已 獨特한 命名法을 붙이고 있어 航空機의 이름만 보아도 軍을 區別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면 美國의 航空機中 實戰에서 敵에게 많은 被害를 줄 수 있는 戰鬥用機를 保有한 海軍과 空軍의 命名法을 보면  
空軍의 機種別 記號는  
B는 爆擊機(Bomber)  
C는 輸送機(Cargo)  
F는 戰鬥機(Fighter) 等 이라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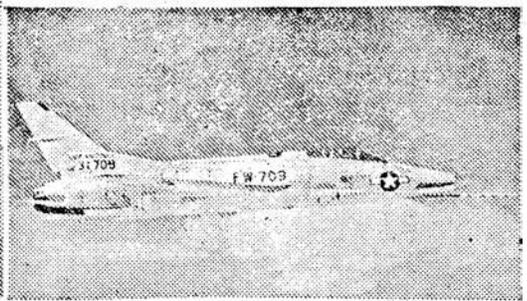
누어 있는 데 이러한 機種記號는 頭文字를 따서 하였거나와 頭文字를 따서 붙인 海軍機도 空軍과 같은 것이 있으나 大部分 다른 데 그 內容을 보면 B는 戰鬥機로 空軍과 같으나 海軍에는 爆擊機 代身 攻擊機라 하여서 "A" (Attacker)의 略字)를 붙였는데 輸送機는 그의 理由가 뚜렷하지는 않으나 B는 字를 頭文字에 붙인 것이다. 頭文字에서 만도 美國內에서 陸海空軍이 相互 다르니 他國의 命名法이 各國의 固有한 特徵을 나타내었다고 하는 것도 當然한 것이다.

그 다음에 美空軍은 機種記號인 頭文字 다음에는 어느 會社에서 設計해서 製作하여 實戰에 使用케 하는 것은 不問에 붙이고 空軍에서 民間會社와 契約하여 空軍機로 試驗段階에 들어가면 벌써 空軍機로써의 數字가 붙어서 나오게 되는데 數字가 붙어서 試驗段階에서 實戰用이 되지 못한 것이 大部分으로 되어 있어서 例를 들어보면 F-111(TEX)까지 出現한 段階에 들어갔는데 그 中 많은 機種이 이 世上 사람에게 알려지기 전에 이미 없어진 것이다.

그 數字 다음은 普通은 內部를若干 改良한 것 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F-86B型和 F-86D型은 任務上 相異하지만 外型上 恒常 보는 바와 같이 곧 識別할 수 있도록 다른 것이다.  
美海軍의 命名法은 美空軍과 같이 繼續한 數字를 붙인 것이 아니고 같은 戰鬥機라 하더라도 會社의 製作番號가 붙어 있는 것이다. 거기에서 例를 들어 보면 最大速度, 音速 1.97의



F-101



F-100

速度를 가진 F-8U-2N Crusader  
艦載戰機인 頭文字 F는 戰機의  
고그다음 '9'는 다음의 불인 'U'  
字即 Chance-Vought 會社를 가리키  
고 文字記號와 더불어 戰機를 Ch-  
ance-Vought 會社의 8番號 製作한 것  
을 뜻하며 다음 '2'는 두번 改良한 것  
이로써 'N'字는 改造記號로써 全天  
候戰機를 말하는 것이다. 이와같이  
美海軍은 複雜하여 航空機의 名稱을  
 잘 理解하지 못하는 것이다.

此際 恰當 소련 航空機의 命名法을  
보면 1935년부터 1940년까지는 美空  
軍의 命名法과 같이 機種別로 頭文字  
를 붙여서 連續番號를 붙였으나 그後  
부터는 獨裁國家인 第二次大戰敗亡前  
獨逸의 方法을 따서 個人的 英雄性을  
提高시킨 目的으로 頭文字에는 機種  
別代名에 設計者의 頭文字를 따서 붙  
이고 繼續番號는 普通은 戰機만이  
畝數를 붙이고 그外에는 偶數를 붙여  
서 命名한 것이다.

現在 北傀空軍이 保有하고 있는 것  
은 모두 소련製로써 戰機機단도 MIG-  
15 BIS 17, 19까지 있으나 MIG 機의  
頭文字는 現 소련副首相 Mikoyan의  
同生인 Mikoyan 設計家와 Gurevich  
라는 數學者가 共同으로 設計製作하  
였는데 實戰用으로 나온것中 最新銳  
機인 MIG-21 (Faceplate)까지 出現  
하였어 MIG-21과 美空軍의 F-  
104와 對等한 性能을 가지고 있다.  
一般사람들이 소련은 戰機는 모두  
MIG 라는 頭文字를 붙이는 것으로 錯  
覺하는데 比較의 只今까지 實戰用이  
로 世界各國의 량이 안된것은 MIG  
戰機機단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은 MIG-15 BIS의 'BIS'

는 改良型을 말하는데 仔細히 알수 없  
으나 佛語의 '앵글' 또는 再品이라는  
뜻으로 解釋하였다. 그리고 西方世界  
에서는 소련 航空機의 對하여 Code  
Name를 붙이고 있는데 戰機는  
'F' 爆擊機인 'B' 輸送機인 'C' He-  
licopter인 'H' 其他機種은 'M'字로  
頭文字를 써서 命名하고 있는데 이는  
소련이 航空機의 名稱自體까지 西方  
陣營 情報當局에서 確認하여 發表하  
기 前까지에는 極秘에 붙여 發表하지  
않음으로써 한 소련 航空機를 相對로  
西方各國이 제멋대로 命名함으로 해서  
일어나는 作戰上의 混亂을 防止하는데  
있는 것이다.

너무나 길게 題目과 동원시킨 것과  
같은 感을 주는 識別法에 對한 講座만  
늘어놓은 것 같은데 實은 F-100 系  
列을 說明하기 爲한 序論이 길어진 것  
이다.  
그런데 지난 8월 22日 下午 張參謀  
總長님은 空軍本部에서 內外記者會見  
에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次期戰機  
導入問題의 言及하여 F-100 系列戰  
機라고 말씀하신 것이 잘못 訛傳되  
어 一部國內外 新聞誌上에는 F-100  
戰機를 導入할 것으로 誤導한 事實  
이 있음은 너무나 나는 事實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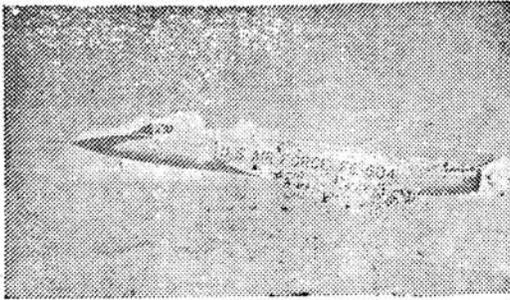
위 訛傳되었는나이는 是非는 論한 것  
이 없고 다만 F-100 系列을 F-100  
으로 錯覺한 것은 그만큼 航空機의 命  
名法을 잘 認識하지 못하는 데서 起因한  
것이 아닌가 보고 있다. F-100 系列  
이라면 두말할 것 없이 美國製 戰機  
機이고 또若干 常識을 넘어서면 系  
列쯤 되면 이미 美空軍의 新銳戰機  
이라 함을 짐사리 알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美海軍은 한 會社에서 戰

戰機로 100個機種以上을 製作하지 못  
하였다고 하는 것은 明若觀火한 事實  
이기 때문이다.  
F-100 系列이라 해서 無條件 最新  
銳機라고만 할수 없고 F-100 系列보  
다 次의 數系列에도 1~2機種이 있으  
나 尤고롭게 連續番號를 붙이다 보니  
F-100 Super-Sabre 戰機機단부터 音  
速을 월선 넘은 新銳戰機가 된 것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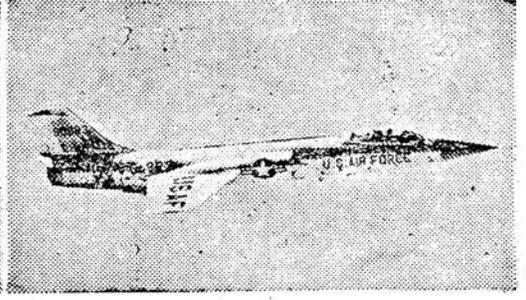
그러면 여기에서 F-100 系列로 100  
100 Super-Sabre 戰機 爆擊機로부터  
繼續의 100 連續番號대로 簡略히 說  
明함으로써 좀더 認識을 새롭게 하  
보자는 것이다.

F-100 Super-Sabre 戰機 爆擊機  
F-36 戰機를 製作한 North-Ame-  
rican製 航空機로써 每年 10月 2日  
國軍의 날 空中示威에는 贊助出現으  
로써 漢江 白沙場上空을 爆音도 요란  
하게 날아가는 印象의인 大型戰機  
인 것이다. 그의 最大度는 MACH  
1.3까지 낼 수 있는 것으로 現在까지  
極東은 만한 것도 없고 西歐羅馬巴에도  
多數配置되어 共產侵略에 對抗하여 平  
준히 數年間 一線部隊에서 就役한 實  
錄이 붙어 있다.

그런데 F-100 Super-Sabre 가 戰  
鬪行動半徑이 戰術爆擊에 알맞은 距離  
까지 攻擊할 수 있는 데다가 그의 火  
力은 翼上의 Side Under를 비롯한  
各種 武裝은 3375 kg까지 積載할 수  
있는 것이다. 한때 兇惡하는 共產勢  
力의 防禦를 爲하여 猛威를 떨쳤지만  
보다 新銳機의 出現으로 머지않을 將  
來에 一線에서 물러나게 되었는데 이  
F-100 Super-Sabre는 現在 北韓傀  
僞空軍이 保有하고 있는 中 最新銳機



F-102



F-104

라고 하고 MIG-19(Farmer)戰機機外性能上對等한 것이 알려져 있다.

**F-101 Voodoo 長距離戰機**  
McDonnell 會社製로 그의 最大速度가 MACH 1.85 인데다가 그의 航續距離가 約 4,500 km 까지 飛行할 수 있어서 戰略爆擊機를 掩護하고 戰機로써 共産諸國과 接壤한 一線部隊에 配置되나 있는 것이다. 이 F-101 戰機는 最初로 核彈頭를 가진 MB-1 Genie 空中對空中誘導彈을 裝備한 全天候戰機로써 F-100 Super-Sabre 와 같이 우디나라의 空中示威에서 날개가 잘고 胴體가 긴데 3個의 Engine 이라 붙을 용이며 飛行하고 있기 復座戰機인 것이다.

**F-102 Delta-Dagger 全天候爆擊機**  
Convair 會社의 特徵인 三角翼을 붙인 超音速戰機로써 그의 音은 全天候性과 敏活한 機動性을 遂擊戰機로써 인정받은데가 그의 武裝이 2.75 Rocket 24發以外 者의 百發百中的 命中率을 가졌다는 最新 空中對空中 誘導彈을 6發이나 裝備하고 있으며 如何한 氣象下에서도 作戰할 수 있는 敵機를 發見하고 接近하여 誘導彈을 發射하는 以外에 機體의 操縱이나 Engine Control 等 모든 것이 自動化된 MG-10 射擊管制裝置는 人間을 無力케 하고 있는 것이다.

**F-103 全天候遂擊機** 다음의 XR 103 戰機機는 實戰用。되지 못하고 實驗段階에서 끝나 世上사람들에게 알려지기도 前의 廢棄된 것이다.

**F-104 Star-Fighter 戰機**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世界的으로

有名한 多用途性을 가진 音速 二倍以上の 最新銳戰機인 것이다. Lockheed 會社製인 F-104 Star-Fighter 가 多用途性을 비롯한 全天候能力 그리고 最大速度가 優秀하나 戰機行動半徑이 짧은 理由로써 美本土防空司令部에 配置되었으나 歡迎을 받지 못하는데 中西獨에서 局地戰의 理想의 이라하는데 着眼하여 內部를 若干改良하고 武裝을 補充한 F-104 G型을 Lockheed 會社와 合同으로 製作하면서부터 西方世界各國에서 一大脚光을 받던 戰機인 것이다. 現在 西獨을 비롯하여 日本의 F-104 J/Canada 의 CR-104 等 數個國에서 好評을 받고 있지만 이 F-104 Star-Fighter 가 全聯의 MIG-21 戰機와 對照하면 3倍의 音速로써 F-104 가 多用途性戰機인 데가 戰開爆擊時의 2,000 CB의 小型核爆彈을 胴體上의 一個를 裝備할 수 있는 것이다.

F-104 가 西方各國空軍에서 導入하고 있다 것과 美를 같이하여 全聯에서도 MIG-21 戰機를 인도내시 아空軍을 비롯하여 印度에 六二二에서 二個大隊의 二四臺를 貸與한 計劃等 漸次의 衛星國空軍에 裝備케 할 려는 徵候가 잇는 것이다.

**F-105 Thunder-Chief 超音速戰術爆擊機**  
Republic 會社製로 이 F-105는 戰機라고 부르지는 것이 妥當한 輕爆擊機라고 부르는 것이 妥當한 長距離의 戰機行動半徑의 가지고 그의 積載量도 核爆彈을 비롯한 各種新銳武器 7屯까지 裝着할 수 있는 音速 二倍以上の 戰開爆擊機이다.

美空軍은 이 F-105 戰開爆擊機가 出現하면서부터 戰術輕爆擊機의 概

念差가 不明해진 것 같다. 왜냐하면 이미 論한 바와 같이 長距離의 戰機行動半徑을 가지고 7屯의 積載量을 가진 航空機라면 輕爆擊機하고 區分할 수 있는 것은 乘員의 一名으로 써 航法士가 搭乘하지 않는다는 것뿐이다. 그래서 인저 모나 오날란은 大型的 戰開爆擊機를 多數 製作하는 代身 戰術輕爆擊機는 多數 設計하지 않은 傾向이 強力하게 흐르고 있다. 一九五八年五月부터 美戰術空軍에 引渡하기 始作하고 그 다음인 一九五九年末에는 이미 機體生産을 中止된 것이다.

**F-106 Delta-Dart 全天候爆擊機**  
F-102 Delta-Dagger의 改良型으로서 Convair 會社製인 두 말한 必要가 없다. 本機는 MA-1 飛行射擊管制裝置를 가지고 地上 Seg(半自動防衛施設)에서의 指令電波를 自動적으로 解析하고 離陸直後로부터 着陸直前까지 自動的으로 飛行하고 敵機에 對한 接近이나 誘導彈發射까지 完全 自動化된 優秀한 戰機이다.

**F-102 戰機**의 最大速度가 MACH 1.2 인데 改良發展한 MACH 2.0 以上을 내게 하고 實用上昇限高度 21,300 m 以上까지 上昇飛行할 수 있는 以外에 核彈頭 空中對空中誘導彈 MB-1 Genie 一個를 裝備하는데 特異한 改造를 하였다.

**F-106 全天候戰機** 다음의 XR-107 가 F-105 Thunder-Chief 改良하였는데 實戰用으로 別差異를 나타내는데 特徵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實驗段階에 끝난 것이 아니라 있기 XR-108 도亦是 F-106 Delta-Dart 改良

發展하여 音速三倍의 激擊機로 製作하였으나 오직 激擊力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地上對空中誘導彈이 代用할 수 있다는 結論아래에 亦是 實驗段階를 벗어나지 못한 것 같다. XR-109 亦是 設計構想上的 지나치 양고 이 世上의 實例을 보지 못하고 살아진 것이다.

그런데 最近 美空軍은 F-110 戰術戰術機를 命名하게 이르렀는데 이 F-110 戰術機는 새로운 設計製作이 아니라 美海軍의 艦載戰術機인 McDonnell 會社製의 F4H-1 Phantom 主要部分만 改良하여 戰術多用機로써 實戰에 就役할 計劃이 六三年度 調達計劃에 들어 있는 것이다.

F4H-1 Phantom 艦載戰術機는 最大速度가 MACH 2.0 以上이며 그 외에 全天候性을 兼備한 大器管制裝置나 自動操縱裝置가 完備되었고 戰術行動半徑이 2,340 km 나 되는 長距離 戰術攻擊機인 것이다.

곧바로 F-111 戰術機는 一名 TEX 計劃이라고 부르는데 이 F-111 戰術機는 戰術機라기보다 爆擊機라고 말하는 것이 適切한 表現이라 할 程度이다 한다. F-111 戰術機는 現在 美空軍의 B-52 戰略爆擊機의 四個를 裝備할 수 있는 1,500 km 以上の 射程을 가진 空中對地上彈道彈 "SKYBOLT"를 小型으로 改良한 彈道彈을 搭載시킬 豫定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以上과 같이 F-100 系列을 略述하여 보았는데 그의 特徵이 너무나 단 몇 가지를 들어 볼 수 있다. 첫째로 무엇보다도 超音速度 戰術機로써 F-102 DELTA-DAGGER가

最大速度 MACH 1.2가 最低로 大概의 戰術機를 MACH 2.0 以上이라고 하는 點을 들 수 있다. 둘째 任務別에서 한 任務를 떠난 多用性이고 그 외에 全天候性과 完全 自動化로 轉換하고 있는 點이다 任務에서 이미 XR-107는 戰術爆擊機이고 XR-108는 激擊任務만이기 때문에 實戰에 使用치 않으며 F-104로 부터는 多用性을 가진 戰術機로 變遷한 것이다.

첫째 偶然的의 一致인지 모르나 F-100 系列로부터 小型의 戰術核爆彈을 裝備할 수 있게 된 것이다. F-111는 이미 核彈頭를 지니 核彈頭로 裝着된 空中對地上 彈道彈을 搭載하게 이룬 것이다. 곧바로 비록 戰術機이지만 機動性이 좋고 自動化된 全天候性을 利用한 戰術爆擊機로써 輕爆擊機와 代替하기 爲하여 基地에 離陸하여 敵目標地까지 飛行하여 攻擊한後 無事히 歸

還할 수 있는 戰術行動半徑이 長距離이라고 特徵을 들 수 있다. 大型의 軍事武器의 發展은 小型 航空機에 이르러까지 數없이 發展해 왔지만 앞으로 더욱 改良製作된 것이 豫想되는 이 方面에서 앞으로 出現할 武器에 興味를 두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航空機에 對한 認識도 세 로이 하여야 할 것이다.

時 間



夢 的 승

★ 空軍大領

時間은 흐른 다. 어제도 오늘도 아니 永劫한 어느 날까지

마치 脈搏인양 時間은 쉬지 않고 흐를 것이며 一瞬을 아로새기는 秒가 겹쳐 歲月을 形成하고 歷史를 이루한다는 事實을 나는 요즘 새삼 뼈저리게 느낀다.

二年前만 해도 나는 時間이라는 것에 對하여 골똘히 생각해보거나 神秘스럽게 쳐다보지도 않

았다. 오히려 歲月의 흐름을 恨 嘆하는 사람을 볼때 쓴웃음을 품 었던 것만은 솔직한 나의 告白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요즘의 나는 時間이라는 것에 對하여 形而上學的인 어떤 神秘를 느낀다. 지나가 버린 過去가, 이렇게 말하는 過去는 決코 살아져 없어져 버린 것 같아 도그 매듭진 어느 行爲의 結果는 엄연히 現在에 直結되어 어찌 한 아쉬움을 뚜렷이 發見하게 되

어 未來는 비록 다치지 않았더라도 未來가 如何히 形成되느냐를 左右할 直接的인 原因이 되는 것이 아닐까. 이러한 것을 모두 時間이라는 것이 마련해 주고 있다는 것을 切

實히 느끼게 되었다.

이런 생각은 내가 再昨年 이 지 境地를 彷徨하고 난 후 삶이라는 것이 그 얼마나 尊貴한 것인가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꼈다. 단 한 번밖에 죽을 수 없는 것이기에 삶은 正녕 尊貴한 것이기 때문에 삶과 죽음의 사이에는 흔히 奇蹟이 생기게 마련인 것이 아닐까?

나는 확실히 요즘 時間에 關心을 기울이게 되었다. 時時刻刻으로 秒를 아로새기는 소리를 들 때 다름박질하는 내 人生的 黃昏을 느끼는 것이다. 宇宙의 壯嚴한 始初와 最後의 그날을 想像하면 어쩐지 마음이 複雜해지는 것 같다.

# 나를 움직인 책 들



- 8. 金 基 錫
- 9. 王 學 洙
- 10. 韓 太 壽

## 나를 움직인 티끌

— 讀書記 —

金 基 錫

★ 서울特別市敎育會長

나는 어려서 어머니께서 謝氏南征記를 읽으시는 것을 머뭇 들었다. 사씨가 어렸으니 교씨가 어렸으니, 사씨가 낡은 어린애를 교씨가 잘발에 버렸으니, 사씨가 동정호에서 배를 타고 남으로 내려갔다 하니, 나는 이야기들이 있었다. 전체 줄거리를 잘 알 수는 없으나 본부인인 사씨와 그 다음에 들어온 여자인 교씨와의 사이의 싸움으로서 어질고 현숙한 사씨에 대하여 교씨가 인제나 모함하는 이야기였는데 나중에는 어진 부인이 이기고 악한 여인이 응보를 받는다는 것이었다.

이 전기를 읽는 어머니 언젠가 사씨의 편인 것은 더 말할 것 없었다. 어머니는 이것을 읽으실 때 사씨편에 자기신세를 두서서 사씨가 고생하는 데 목에 가서는 목이 떨리고 무소리가 흐릿하는 것이었다. 그때 나는 바지저고리를 갖추어 입는 것이 아니고 두 령이라고 위에만 입고 돌아가는 어린 것이었는데 어머니가 좋아 하시니 사씨가 내게도 좋았고 어머니의 싫어하시는 교씨가 내게도 싫었다. 그리고 나중에 잘대발을 보기만 하면 거기에 몸을 여인이 남이 낡은 어린이 물내이다 버린 것만 같고 바다나 호수물 보면 어진 부인이 모함애 물려 의로운 배에 몸을 실은 형상이 눈앞

에 어리는 것이었다.

二.

그 뒤 나는 좀 자라서 천자를 배워 한문 글자물의 우고 쓰고 하면서 아버님을 따라 저녁이면 어른들이 모인 사랑방에 가서 아버님이 한문으로 된 三國誌를 우리 말로 번역해 가면서 읽으시는 것을 어른들 틈에서 들었다.

유, 판, 장 삼인의 도원결의에서부터 적벽강의 싸움, 장판교의 싸움, 화용도 싸움, 추도엄란한 진을 넘어 들어가는 싸움, 언젠나 사문표에 얹아 백학선을 부는 제갈공명, 손권, 조조, 그리고 손권의 모사인 주유와 그 장수 서성정봉, 조조의 모사 사마희 유 현덕편의 제갈량, 판문장, 장비, 조자룡.....

가장 감격되는 장면이 처음의 도원결의와 그 뒤 관우와 장비가 현덕의 두 부인을 모시고 쫓겨가는 장면과 관운장이 팔에 화살을 맞고 그것을 때고 살을 긁어 내는 장면과 제갈공명의 출사표와 공명이 죽은 것을 숨기고 사마희를 찾아가게 하던 장면과 : : 가장 인상적인 것은 삼국지연의 : : 가장 하고도 재미나는 이야기들 봉하여 어려운 싸움을 하면서도 임금과 신하, 장수와 군사, 군사와 군사 사이에 두터운 신의 아름다운 인정이 흘러 내리는 일이었다. 우리들이 봉건시대의 도덕을 봉건잔제라고 하여 경홀히 여기기가 일수거니와 그 생과 파종조와 감정이 오늘날의 우리와 같지 않은 몇백년 몇천년전 이야기 한 말로 어딘지전의 부드러운 가슴에 한없는 높고 맑은 물결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었다.



로 맞는다 고 하면 한없는 음성한 지혜와 덕행이 나를 가꾸고 빛내기 에 이를 것이지 이 책들은 책으로 읽을 것이 아니요 偉大한 人類의 遺産으로서 正當드러 발아 드릴 길이 남았을 따름인 것이다.

## 옛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王學洙

★高大教授

讀書를 해야 한다는 말을 듣기 이전에 글 읽는 것이 무척 재미가 있었다. 두메골 寒村에서 卍 先生님께서 두 무릎을 단정하게 꿇고 千字文이니 童蒙先習이니 通鑑小學들을 배우고 읽고 의우고 講을 받을 때는 하나 義務感에서였지 글 읽는 재미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이 나의 솔직한告白이다.

차라리 사랑방 漢文에는 무식한 농군들의 古談이야기 책 읽는 것을 듣다가 어찌 넘어 배워 버린 國文(당시에는 藝文이라 불렀으며 이것을 배우는 것을 집안 어른들은 신봉히 여기지 않았었다)으로 갖은 어른들의 눈물 피해가며 春香傳이라 趙雄傳이라 玉樓夢이라 九雲夢이라는 따위를 읽는 재미가 여간 아니었다. 흥부傳, 淑香娘子傳도 記憶에 새롭다.

書堂房 무시무시한 舊式教育을 벗

어나 國民學校(당시는 普通學校라 했다) 교육을 받으면서 讀書慾은 意外로 強力했으니 機會도 많고 自由도 흔했으니 다치는 대로 손에서 책을 뺄 줄을 모를 地境이었다. 이른 봄 파스한 陽光을 받으며 山골짜기 누구의 외로운 영혼이 잠들고 있는 저 모르는 뒷부리(古塚)에 누어 푸르다크의 英雄傳을 熱心히 읽었으며 한여름 무더운 날에 시내하에서 북을 하고 참마의 수박이 인어가는의 발원두막에서 무침을 빼고 누어 世界兒童文學全集類를 數없이 읽어 내리었다.

그 중에서 지금도 생각나는 것이 푸하나 있다. 에익스피어의 명작「베니스의 상인」이 곧 그것이다.

伊太利의 베니스는 곤도라의 노젓는 소리라 뱃노래에 날이 새고 저두는 물의 도시이다. 예전부터 외국의 진귀한 물건을 실은 배들이 꼬리를 물고 드나들었기 때문에 화려한 장사를 하는 부자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 그 가운데 안토니오라는 젊은 상인이 있었는데 그는 큰 배를 여러 개 가지고서 아무 부족함도 없이 지내고 있었다. 거기다 친성도 없이 아내도 없었다. 이 사람이서 친구는 물론 근색한 사람을 위해서는 어디까지라도 도와주려 하는 착한 마음씨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었다.

그는 귀족 출신인 친한 친구의 결혼비용을 마련해 주기 위하여 여러 곳을 찾던 나머지 드디어 베니스에서 소문난 돈을 잊은인 사이룩이라는 유대

인의 집을 방문했다. 이 자는 기록교도의 상인들에게 아주 비싼 이자로 돈을 빌려 주어서 남의 피를 빨아 부자가 된 놈이었다. 인색하고 욕심장이 인피대인 청사정도 없이 빌려준 돈을 받아 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뱀처럼 그를 싫어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 안토니오는 이 자를 총총이 보기도 미워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 자도 또한 안토니오를 몹시 미워했으며 언젠가 안토니오를 해치고 버리고 있는 터이라, 三千다섯을 빌려주는 차용증서에 기한을 어길 때에는 보증인인 안토니오의 몸 어디에서든 저 파드의 살을 베어 내도 괜찮다는 조건을 붙였다.

친구는 안토니오의 친절과 후원으로 결혼을 부자집 귀여운 아가와 했으나 안토니오의 배는 파선을 하고도 기한을 넘어서 잔인한 이 유대인은 기어코 파운드의 살을 요구한다. 二十배로 돈을 치르겠다는 친구의 간청도 아랑곳없이 마구 파운드의 살을 도려내려고 법정에서 칼을 끄내서 가는 것이 아닌가. 재판장 그 고을 공작님의 난처한 판국에 한 철교에 뽀 법학박사의 신기한 재판이 벌어졌다. 그는 부자라다 못하여 드디어 추상같은 인도를 내렸다.

「좋아 그렇다면 더 이상 부탁을 하지 않겠다. 베니스의 법원이 이것을 용서하고 법정의 명한다. 안토니오의 살 하나라도는 확실히 그대의 것이다. 그러니 그대는 안토니오의 가슴에서 살을 베어 내도 좋다. 아니 반드시 베어 내야만 한다.……」

「정말 공명정대하신 법재판관님이 을시다」하고 춤을 출듯이 기뻐한 사이룩은 칼을 추켜들며 안토니오에게 다가들었다. 그러자 그 순간 철교에 뽀 재판관의 저엄한 음성이 울렸다. 「잠깐 기다려, 사이룩! 아직 언도 할 것이 남았다. 이 증서에는 한 방울의 피도 그대에게 준다고는 적혀 있지 않다. 살 하나라도라고 분명히 적혀 있을 따름이다. 따라서 증서대로 살 하나라도 베어 내라. 만약 그때이 기록교도의 피를 한 방울이라도 흘린다면 그대의 토지도 재산도 모두 베니스의 정부에서 몰수한다. 알았는가?」

어린 동심에도 분노와 감격이 배워졌다. 그래서인지 지금도 꼬리대금 업자하면 뽀 법관하면 신성해 보인다. 하기가 꼬리대금 업자의 돈만을 두둔하는 법관도 있는 듯한 풍문도 있기는 하지만.

中學校 시절은 주로 민족의식이 싹트기 시작하면서 부터 그 방면 책을 읽는 것을 즐겨했다. 春園의 「홍」 沈薰의 「常綠樹」는 아직도 記憶에 생생하다.

羅稻香, 金素月, 金東仁, 崔南善, 李孝石, 韓龍雲, 玄鎮健, 李箱, 鄭址鎔, 金東煥, 崔躍海, 咸大勳, 李無影, 金末餘女史等等이 時節에 글로서 나에게 그 무엇인가 가르쳐 주고 깨우쳐 준 그러니 이제 불려보아도 의처보아도 내담이 없는 그리운 이름들이다.

月灘 朴鍾和先生, 八峰 金基鎭先

生、橫步 廉尙慶先生、獨鵬 崔象德先生、玄民 俞鎮午先生、鷺山 李殷相先生、無涯 梁柱東先生、白鐵學長、李軒求學長、金洗愛 教授 等等的 글과 詩가 亦是 나의 氣와 魄에 徹지 않은 糧食을 넣어 준 것을 感謝하게 생각 된다.

말에 接하기는 大學時節로 생각되며 親交를 맺게 된 것은 解放後이나 나의 讀書生活中에서 자주 刺戟이 되고 나의 生活의 즐거움 벗이 되어 준 分들이 詩人 徐廷柱兄、李相魯兄、柳致環校長、張萬榮教授、金容浩教授、朴榮奎教授、鄭飛石兄、趙芝薰兄、朴木月兄、朴斗鎮兄、金東里兄、趙演鉉兄、具常兄、馬海松先生、崔貞熙女史、張德祚女史、朴花成女史、韓成淑女史、田淑諳女史、千鏡子女史、金曙岸女史이다. 이분들이 心血을 기울여 쓰신 詩와 글들이 아름다운 冊으로 되어 出版될 때마다 정성드려 보내 주시는 德分에 厚히 게을러지게 마련인 나의 書齋生活를 일깨워 주는 것이다. 참으로 고마운 分들이다.

그 時節에 나의 일에 자주 외워져 지금도 한숨에 읊어지는 저 不遇의 天才詩人 金素月の 詩 한 首를 여기에 적어 본다.

산산히 부서진 이름이여!  
虛空中에 헤어진 이름이여!  
블러도 主人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心中에 남아 있는 말 한 마디는  
끝끝내 마자 하지 못하였구나

사랑하던 그 사랑이여!  
사랑하던 그 사랑이여!

봄은 해는 西山마루에 걸리었다.  
사슴의 무리도 슬피 운다.  
떨어져 나가 앉은 山위에서  
나는 그대의 이름을 부르노라.

실움에 점도 두 부르노라.  
실움에 점도 두 부르노라.  
부르는 소리는 비가 가지만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구나

선채로이 자리에 물이 되어도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사랑하던 그 사랑이여!  
사랑하던 그 사랑이여!

(素月·招魂歌)  
나는 또한 廷柱의 다음 詩를 때때  
로 의뢰한다. 잔잔한 그리고 그윽한  
「鶴」의 노래를.

千年 變된 시름을  
출렁이는 물살도 없이  
고은 강물이 흐르듯  
鶴이 나른다.

千年을 보던 눈이  
千年을 파다거리면 날개가  
또한번 天涯에 맞부딪노라  
山頂에서 갈아야 할 忿怒가  
草木도 울려야 할 서늘이  
저리도 조용히 흐르는구나

보라, 옥빛, 푸두신이  
보라, 옥빛, 푸두신이  
보라, 옥빛, 푸두신이

누이의 수를 보듯  
세상은 보자,

누이의 어깨 넘어  
누이의 蕭蕭의 꽃발을 보듯  
세상은 보자.

울음은 海盜  
아니면 크나 큰 祭祀와 같이  
출이야 어느때들 골라 못추랴  
명명히 갖은 무을 제죽지에 물올바  
에야  
춤이야 어느 술참멘들 골라 못추랴

진머리 자전머리 일렁이는 구름속을  
저 울음으로도 춤으로도 참음으로  
도다하지 못한 것이  
어부만저듯 어부만저듯  
저승길을 나른다.

(徐廷柱·鶴)

敎壇生活를 하는 只今은 나날이 進  
步되어 가는 專門分野의 새로운 事實  
들을 後進들에게 뒤지지 않으려고 애  
쓰다보니 참으로 人生的 살이 되고 피  
가 되는 敎養圖書를 읽을 잠이 드물다.  
더구나 兩次的 大革命에 휩쓸려 國  
事의 한 모퉁이를 돌다보니 더욱 晝  
과 眠이 지는 것이 一大恨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忙中閑을 읽는 것은 人  
生의 年輪과 더불어 世事의 經驗과  
겨누어 또한 格別한 몸과 趣가 없지  
않으니 때때로 名作古典과 마주앉아  
그윽한 人生的 意義를 깨고 물어 보  
는 것이다. 이 가을도 깊어가는 요지

을 안면센의 童話集을 읽었더니 느낀  
바 새로운이 있었다.  
「어느 나라에 한 임금이 있었는데  
데 이 임금은 새 옷을 무척 좋아했  
다. 그래서 새 옷을 위해서라면 돈을  
얼마든지 들여서라도 늘 화려하게 차  
려입고 있었다.  
「어떤 날 두 사람의 사기꾼이 사람  
들 틈에 끼어서 서늘에 골려 들어  
와서 자기들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훌륭한 베를 짜며, 빛깔과  
무늬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아름답고  
화려할 뿐 아니라, 아주 특별한 성질  
을 가지고 있는데, 그 특별한 성질이  
란 다음과 같은 것이라고 자랑을 하  
고 광고를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즉 자기 능력에 맞지 않는 저위에  
앉은 사람이나, 자기가 바보라는 것  
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이 귀  
한 천으로 지은 옷은 전혀 보이지 않  
는다는 것이었다.  
「정말 그럴다면 아주 훌륭한 옷일  
게다」하고 임금님도 생각했다.  
「만일 내가 그 옷만 입으면 이 왕  
국 안에서 부당한 저위를 차지한 자  
들을 누구든 곧 발견할 수 있을 게고  
또 슬기롭고 지혜있는 사람과 못난이  
바보를 가려 낼 수 있다면 말이야, 얼른  
베를 짜게 해라!」  
처음 그들은 질이 좋은 비단과 순  
금의 실을 산다고 돈을 달라고 했다.  
두 사기꾼은 돈을 아주머니에 다 집  
어넣고 아무 것도 안 주빈(空) 베를  
앞에 얹아, 집짓 밤 늦게까지 열거며  
거리면서 열심히 짜는 체해보이고 있  
었다.

발생 서울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의 신비로운 위력을 듣고 있어서 어느 누가 일어나 어리석고 바보인지, 또 어느 누가 불에 넘치는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어하고 있었다.

임금님은 하도 기다려져서 높고 고지식한 정승(總理)을 보내 보았더니 자기군에게 속아 자기 눈물의 심하고 자기가 바보일까 자기 배를에 비단이 감겨있다는 허위 보고를 했었다. 사기꾼은 더욱 많은 돈을 타내서 호주머니에 넣고 빈 배를에서 덜거덕거리기만 했다. 다음에 잔 벼슬 아치들도 자기가 바보나 적함하지 않은 지위에 앉았다는 것이 아닌가 두려워 허위 보고를 했다. 너무나 궁극한 임금님은 자기 스스로 보았다. 임금님이 오신다는 바람에 사기꾼들은 그야말로 열심히 일을 해 보았다. 그러나 배를에는 여전히 실오라기 하나 걸려 있지 않았다.

「폐하, 잘 보시옵소서, 열마나 훌륭한 솜씨옵니까, 이 무늬, 이 빛깔, 정말 황홀하합니다.」 그는 정승과 높은 벼슬아치는 입을 통하여 이렇게 말하고 서로 서로 다투어 배를을 가리켰다. 임금님은 자기 눈물의 심하면서 속으로 혼자

「이건 어떻게 된 일일까? 나한테는 아무 것도 보이지 않잖나. 이거 큰 일났구나, 아니, 그래, 내가 바보란 말인가? 아니면 내가 임금 자제가 없단 말인가. 이거 참 무서운 일이로다!」 중얼거렸다. 이렇게 속은 임금님은 이 보이지 않는 배를 좋아라 웃어 짓게 하여 입고 열병식(閱兵式)에

가드림을 피우며 나아갔으며 신하들은 입을 모아 칭찬을 했다. 그 많은 임금님의 옷 가운데서 여태까지 이처럼 호평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 때, 어릴아이 하나가 「저 사람이 아무 것도 안 입었네 귀여워!」 하고 소리를 쳤다. 그리하여 그 귀여운 어린아이의 말을 소곤소곤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전나가고 번져갔다. 마침내 모든 사람이 임금님은 발가벗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임금님은 난처했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행할 중저지시킬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한 임금님은 여전히 점잖게 견음을 읊겨 나가고, 시종들은 아직 보이지 않는 옷자락을 공손히 받는데, 엄숙한 표정으로 따라갔다.

이야기는 동화이나 우리 나라의 어제 일이나 오늘날과 겨우 새삼 감개가 없을 수 없으며 경중이 아니 될 수 없다.

### 讀書 遍 歷

#### 韓 太 壽

★ 漢 陽 大 政 經 大 學 長

나는 어려서부터 몹시 思索의 인성을 가진 자였고 있었다. 그러므로 책을 많이 읽는다는 것보다 많이 생각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普通學校(現在는 國民學校) 및 高等普通學校(現在

는 中學 高等學校) 당시는 學校에서 배우는 教科書外에는 別로 읽는 冊이 없고 數種의 雜誌와 簡單한 詩集 및 小說 몇 권에 不過하다. 당시에 읽던 雜誌로서는 「三千里」, 「開僻」 등이 記憶에 남는다. 이러한 雜誌를 通해서 海外에서 活動하던 先人들의 消息을 短篇의 形式로 보든고 興奮하기도 하였으며 單本行으로서는 金玉均傳記를 熱心히 읽었다. 詩集으로서는 驚山詩集을 읽은 記憶이 나는데 그 中에도 「薔薇」라는 題目으로

薔薇가 곱다고  
읽어보니  
그 속에는 가시가  
있어요.

사랑이 좋다고  
따라가 보니  
그 속에는 눈물이  
있어요.

라는 詩가 있어서 어떤 마음에 몹시 感傷의 이었고 亦是 驚山 短篇集(冊名은 잊었음) 中에 「柳月」이란(小說名은 잊었음) 中에 나오는 人物인지 不明) 小說는 實로 浪漫的인 것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確實히 驚山은 우리 나라에 浪漫主義文學을 輸入한 先驅者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高普三, 四學年 當時에 日本語로 읽은 「유고」作 「噫! 無情」과 「홀스토프」作 「復活」도 젊은 青春의 가슴에 깊은 印象을 준 것이 틀림없다. 冊은 아니지만 羅雲奎, 申一仙 演出의 「아리랑」이란 映

畫는 너무도 深刻하여 羅雲奎가 미처 서 명과 리를 치며 山고개를 헤매면 場面은 지금도 눈에 선하다. 當時 우리 어린이들은 이것을 제멋대로 우리 민족의 運命과 結付시켜 생각하고 興奮하였던 것이다. 당시 나는 學校에서 「나폴레옹」이 하루에 세 시간밖에 자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나도 이것을 實踐해 보고자 무척 애쓰던 때이다. 새벽 세 시면 일어나 아들을 깨 찬물에 洗手를 하고 鐵床을 깎아 만든 竹槍을 들고 公園에 가서 投槍演習을 하던 일이 情格깊이 되새겨진다. 나의 故鄉은 晉州다. 礮石樓에서 南江을 끼고 絕壁에 面한 구릿전을 걷어 한 집으로 돌아올 때 西空에 빛져 있는 반달은 希望에 불타는 어린이의 가슴에 神秘的인 魅力를 흠뻑 불어 넣어 주었다. 이러한 時節에 學校에서 배우는 教科書中에 나오는 日人 高山樗牛의 「無常」에 關한 作品은 限없이 意味深長하게 느껴졌고, 「芭蕉」의 「俳句」 「夏目漱石」의 短篇小說等은 特別히 襟을 울리는 것들이었다. 當時는 또 日本서 左翼思想이 매우 澎脹하던 때라 共產主義를 宣傳하는 「관우펠트」가 많이 쏟아져 나왔다. 그 中에도 記憶되는 것은 「山川均」, 「佐野學」 등의 著作인데, 小說로서는 「德永直」의 「무엇이 그 女子로 하여금」 그 樣하게 했느냐? 하는 것이 아직도 내 머리에서 살아 지지 않는다.

高普를 마치고 서울에 와서 專門學校를 다닐 때는 漸漸 哲學의 思想

考究하게 되었다. 苦惱의 中心課題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하는 것이었다. 崔南善 「百人煩惱」를 熱心히 읽었고, 日人 「金子馬治」의 哲學概論과 「波多野精一」의 西洋哲學史를 몇번이고 읽었다. 아마 나의 哲學的知識의 土臺는 이 두 卷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한다. 그 다음에는當時의 時代風潮에 따라 주로 左翼書籍을 읽었는데 그 中에도 特別히 힘들이 읽은 것은 「부하린」의 唯物史觀과 「라스의 共產黨宣言」, 「레닌」의 帝國主義論, 日人 「河上肇」의 唯物辯證法 등이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共產主義 理論의 基礎는 이러한 著書들에서 얻어진 것이다. 내가 同專門學校 四學年 때 卅州高普에서 讀書會 事件으로 많은 學生들이 日警에檢舉當했는 데 그 事件에 나의 아우들이 關聯되어서 서울에 있는 나머지 골짜기 四十日間 留置場身勢를 진일이 있다. 그때 押收當한 冊子 上記한 바와 같은 것들이었는데 그 中에도 내가 가장 熱心히 읽었던 「부하린」의 唯物史觀에 내가 細密히 記入한 評해문은 日警으로 取反반면 생각이 난다. 改造社版 「라스」 「에겐스」全集도 가지고 있었으나 全體에 比較하여 읽은 部分은 매우 적었다. 이와같이 左翼 書籍을 읽으면서 同級生들과 理論鬭爭을 할 때는 恒常 唯物的인 見地에서 論理를 展開하고 勝利를 얻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下宿에 돌아와 혼자 생각할 때에는 스스로 唯物思想에 納得이 가지 않는 점이 많았다. 그리하여 苦惱는 繼

續하였고 問題의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에 解答은 나오지 않았다. 그리하여 教授의 案内로 日人 「武小路實篤」著 「人生觀」이란 冊房을 읽었으나 神通치 않았다. 다시 冊房을 뒤져 「阿部能成著 「人生觀」이란 冊을 사서 熱心히 읽었으나 亦是 나에게 明白한 解答이 되지 않았다. 그 다음부터는 혼자 默想하는 時間이 많았다. 孔子의 말씀 가운데 「昔賢終日不食과 終夜不寢하고 以思慮之 無益이라 하고 學에도 「라」라는 말이 있는데 確實이 그러하였다. 아무리 생각하여도 名答이 나오지 않았다. 壁을 向하여 생각하고 또 생각할 끝에 壁을 쓰아보는 내 視線이 도로 내 눈으로 들어오며 머리가 무거워지는 느낌을 가져본 일이 한 두번이 아니다. 그러나 「베르그손」의 哲學要綱에서 얻은 生命哲學이 第一 마음에 들었고 「푸루게네프」의 「自然」이란 散文詩가 매우 感動적이었다. 그러한 意味에서 「라스」의 倫理學도 나에게 크게 感銘을 준 冊子였다. 專門學校時節에 내 日人 生問題를 가지고 이렇게 苦悶한 것은 植民地의 한 靑年으로 民族의 運命을 悲觀하고 하나의 民族의 英雄이 되고자 하는 自負心이었다고 생각된다. 當時의 생각으로서 는 民族主義路線에서 祖國을 救한 志는 없고 共產主義路線에서 日帝와 鬭爭하는 志 卞에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이것을 實踐할만한 勇氣는 있었고 따라서 惡慾과 卑法이 빛이낸 苦惱이었던 것이다. 如何든 골짜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하는 問題는 解答을 보지 못

하고 專門學校를 卒業하고 말았다.

三.

大學은 日本에서 하게 되었는데 이때는 專門學校를 卒業하고 二年間 社會生活를 맞은 後이므로 생각이 많이 現實的으로 기울어졌다. 專門學校에서 文學을 工夫한 者가 大學에서는 法學을 專攻하게 되었으니 그 自體가 벌써 이것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나 大學에 가서도 問題의 苦惱는 如前히 繼續하였고 따라서 法律外에 政治, 哲學 등에 많은 關心을 가졌으며 思索하는 時間도 많았다.

法學으로서 는 주로 六法을 工夫하였는데 憲法은 佐藤次郎, 民法은 我妻榮, 石川次郎, 末廣殿太郎, 商法은 田中耕太郎, 野津務, 刑法은 牧野英一, 刑訴는 小野清一郎, 民訴는 兼子一 등의 著書를 읽었다. 法學을 工夫하면서 얻은 點은 事物을 一方의 度로만 考察하지 않고 丑角度로 보는 態度와 緻密하게 條理를 따지는 根氣였다고 하겠다. 그러나 法學은 나의 性味에 그다지 맞지 않고 工夫하다가도 어느새 默想에 잠기는 問題는 언제나 苦惱하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하는 것이었다. 春園著 「홍」은 이때에 읽었는데 點이 많았다. 그러나 사람으로서 이러한 人生問題를爲하여 많은 書籍을 뒤질 餘暇는 없고 혼자서 이리저리 생각해 보는 것이 일수였다. 생각만 끝에 찾게 되는 것이 聖經인데 專門學校時節에 反對의 變化도 나에게 는 重大한 契期가 아

닐 수 없다. 第一 熱心히 읽은 것이 「마태」福音이고 그 中에도 山上福音이다. 이러한 「나는 娠娠中에 있는 안해에게 「갯세마네」 東山에서 마르타 祈禱를 드리는 「예수」의 寫眞을 사보 내기도 하였다. 大學生活도 一年이 지난 그 이듬해 여름에는 오래 오래 생각한 나머지 結論이 結局 基督敎思想과 生命哲學思想을 結付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四.

大學을 卒業한 後 戰場을 滿洲에서 갔었는데 日人과 同職場이었으므로 每日 日對人關係에서 民族의 悲哀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때문에 興奮하는 일이 적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는 大學에 만들어진 上記 人生觀에 入脚한 修養條文을 每日 아침 저녁으로 復誦하면서 다시 聖經을 읽기 시작하였다. 修養條文이란 다음과 같은 것이다.

1. 恒常 마음의 平穩을 지켜서 些少한 感情에 支配되지 말 것.

2、事物을 理想에 비추어 正當하게 批判하고 中正한 態度를 지킬 것.  
 3、사상으로써 사람을 對하여 邪念이 없을 것.  
 4、萬事に 礙되지 正當하지 말고 信念에서 살 것.  
 5、그날 最善生活에서 기쁨을 찾을 것.

그러나 修養이란 참으로 어려운 것을 切實히 느끼고 凡人과 偉人は 先天的으로 다른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 佛敎에서 數없이 念珠를 헤아리는 것이 一種의 修養方法이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나도 念珠를 사서 隨時로 이것을 헤아리며 修養文을 의우기로 하였다. 그러나 滿足할만한 實行은 보지 못한 채 歲月만 흘러 뜻하지 못하던 祖國解放의 榮光을 얻고 歸國하였다.

五、

歸國後는 祖國解放의 德澤으로 敎授生活을 하게 되었는데 亦是 修養의 必要性은 옛과 다를없이 느끼게 다시 念珠를 생각하면서 佛敎의 關心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처음에 읽은 것은 「禪家總鑑」이고 그 다음에는 金剛經을 주로 愛讀하였다. 佛敎의 眞理는 生命의 歸一性을 생각하는데 있는 것 같아 내가 오래전부터 關心을 가져오는 生命哲學과 相通하는 點이 있는 것을 크게 생각하였다. 그러나 佛敎思想이 基督敎思想과는 많이 다른 것을 發見하게 되고 佛敎에서 모든 生命을 同一視하는데 滿足하기 어려웠

다. 殺生을 嚴禁하는 思想이 動物과 植物에까지 미칠 때 慈悲心은 無限大하지만 人間의 生活上을 期하는 것이 어렵다는 點에서 基督敎의 人間愛가 다시 나의 思考의 焦點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生命의 同一한 根源에서 植物이 生成하고, 動物과 人間이 發育하지만 植物과 動物과 人間이 各各 그 存在 價値를 發揮하자면 漠然한 生命의 同一視로서는 不可能하게 생각된 것이다. 이렇게 하여 人間의 存在 價値를 찾아 할 때 造物主의 意圖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여기서 나는 宇宙의 調和를 다시금 強調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宇宙의 圓滿한 調和를 達成키爲한 人類平和」라는 나의 理想을 再確認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立場에서 나는 基督敎의 眞理를 좀더 分明히 하기 위하여 「케도리」에 留心을 가지고 「眞理本源」이란 冊을 읽은 다음에 三個月間 尹亨重神父의 講義를 받은 同時에 註解天主敎要理를 읽었다. 그 다음에는 또 金凡父先生의 周易講義도 數個月間 받으면서 正本周易集註를 읽었다. 모두가 나의 人生觀을 培養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 것이 事實이다.

解放後 내가 敎壇에 서게 되면서 政治學의 方向은 政治學으로 定하였다. 大學에서 主專攻은 法學이었지만 副專攻이 政治學이었고 專門學校에서는 文學을 專攻하면서 哲學에 많은 關心을 가지고 있었다는 事實이 나로 하여금 이러한 方向을 決定을 하게 한 것이다. 政治學을 講義하면서 專門學

民間航空機의 國籍表識記號

AN	니카라과
AP	피키스탄
B	中華民國
CG	칠리
CR	카나다
CN	모로코
CP	폴리리아
CS/CR	포르투갈
CU	쿠바
CX	우루과이
DADI	西獨
EC	스페인
EY/EJ	에르
EL	리베리아
EP	이란
F	불란서
G	영국
HIB	스위스
HC	에콰도르
HH	하티
HI	도미니카
HK	콜롬비아
HL	대한민국
HP	파나마
HZ	사우디아라비아
I	이탈리
JA	일본
LN	노르웨이
LY	아르헨틴
LX	루셈부르크
N	美國
OB	베루
OD	에바는
OE	오스트리아
OH	핀란드
OK	체코슬로바키아

校時節에 읽었던 冊을 다시 熟讀하고 나의 思想培養에 重要한 實(肉)이 된 것이 있다. 그것은 「다윈」의 「種의 起源」과 「크로포토킨」의 「相互扶助論」이다. 政治學의 根本問題는 人性에 關한 考察에 있으므로 이 두 冊을 다 읽게 된 것이다. 두 冊의 論旨는 相反된 것이지만 모두가 人間의 一面을 透徹히 觀察한 데는 틀림없고 나는 이것을 人間의 兩面으로 보는 立場에서 있다. 그러므로 政治는 相互 矛盾對立되는 勢力의 調和를 成就시키는 데 妙理가 있다고 본다. 내가 平素에 늘 愛讀하는 冊은 「中庸」이다. 그 가운데 「喜怒哀樂의 未發을 謂之中이요 發而皆中節은 謂之和니 中은 天

下之大本이요, 和는 天下之達道이라 致中和하면 天地 位焉하고 萬物 育焉이니라」는 말이 있다. 이것은 亦是 調和를 말하는 것으로서 나의 思想의 根底를 築成하는 礎石이 되어 있는 것이다. 나의 思考方式의 根幹이 되고 또 그것을 培養하는 거름이 된 것은 上記한 바와 같은 諸冊들이다. 그밖에 나의 專攻分野에 들어가서의 여러가지 冊들은 나의 學問의 素地가 된 것으로서 여기에 一히 羅列한 性質의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省略하거나 上記한 바와 같은 思想의 立脚地에서 나의 學問의 立脚地를 推進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附言한다. (完)

空軍大領·第十戰團飛行團長

尹應烈

目次

I、緒言

II、攻擊은 最良의 防禦手段이다

III、F-105 D의 武裝系統分析과 現今作戰概念의 考察

IV、미라지(Mirage) III의 解剖와 歐羅巴의 作戰概念

V、結言

I、緒言

二十世紀後半期가 마야호로 宙開發의 時代로 突入하였지만, 有人操縱航空機가 將來戰에 있어서 아직도 實用性을 가지리라는 것은 거의 明確한 事實인 것이다.

現代 空軍의 戰略概念은 이른바 「攻擊은 最良의 防禦이다」라는 命題下에서 從來까지는 戰術의 單一任務 範疇內에서만 論議되어 왔던 單座戰機의 活用性問題는 及其也 多用途目的을 爲하여 그 機能範圍를 넓히는 即 offense의

있어서의 重要한 役割은 勿論이고 defense에도 適應하는 問題로 發展되었던 것이다. 特히 歐羅巴의 自由陣營 國家도 우리 韓國과 같이 敵의 空中 奇襲을 恒常 假想하고 있느니 만큼 安價의 多用途戰機는 空軍戰略家들 사이에서 眞摯하게 討議되어 왔었던 것이었다.

現下 韓國空軍도 新銳機 導入을 앞두고 이러한 多用途目的에 적용하는 機種의 運用問題는 軍援 依存이라는 面에서 重要한 課題가 아닐 수 없다. 本人이 海外武官時節을 通하여 얻은 見聞과 資料를 가지고 拙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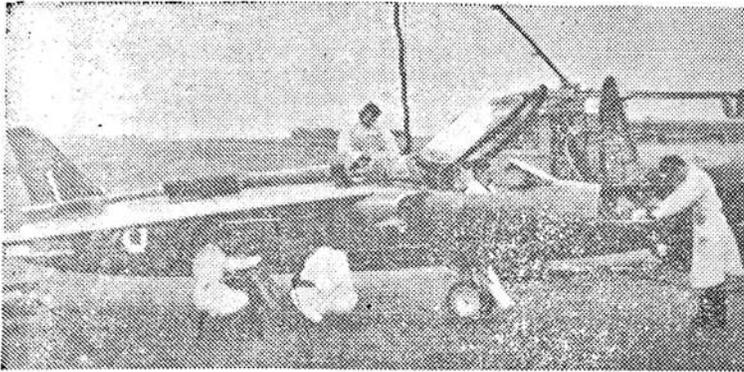
를 엮고자 함은 航空知識의 普及 과 더불어 이 方面에 뜻을 둔 人士들에게 多少나마 資料 疏通의 機會가 될가 해서이다. 資料는 主로 INTRAVIA (International Aviation and Astronautics) 研究部에서 힘입었음을 附記하여 두는 바이다.

II、攻擊은 最良의 防禦라는 概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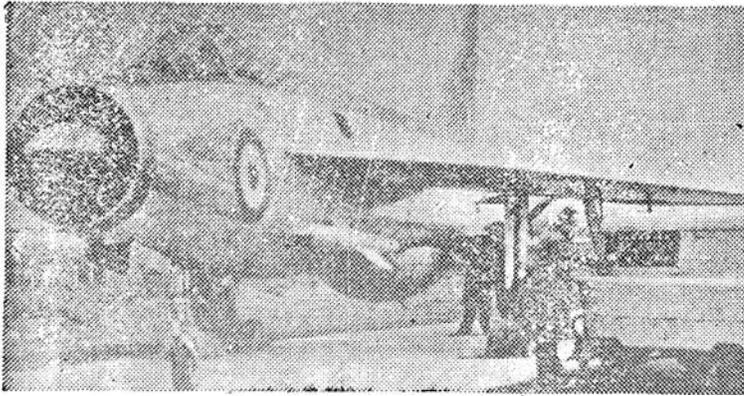
歐羅巴에 있어서 NATO 산하의 各國 空軍專門家와 航空關係 技術者들에게는 긴급 하고도 새

로운 問題가 擡頭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면 地上目標攻擊 보다 空中防禦를 爲하여 設計된 航空機를 攻擊役割(Offensive mission)로 適應시킬 수 있느냐 하는 問題였다. 이러한 問題의 發端은 核武器와 彈道誘導彈의 發達로 인하여 招來된 戰略上의 劃期的 轉換에 基因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一聯의 問題들은 十年도 못되는 期間內에 三段階에 걸친 發展을 보았던 것이다. 第一段階 NATO 산하의 歐羅巴 自由陣營各國의 空軍이 MDAP(相互防衛條約)에 依하여 美空軍의 戰團



第1段階: 最小의 裝備를 갖추고 輕武裝을 한 輕遊擊機. 寫眞에 보인것이 Folland Gnat Mk. I 航空機이다.



第2段階: 英國의 Electric P.1B Lightning F. MK. I 重遊擊機—自動電子裝置가 裝備되고 全天候 作戰을 遂行할 수 있는 이 航空機에는 30mm 機關砲와 對空 「미사일」이 武裝되어 있다.

機를 提供받기 始作했을 때, 各國의 軍事 專門家들은 航空機 性能은 優秀하나 그 上昇力이 充分치 못함을 發見하게 되었고 훌륭한 裝備를 機體에 保有하고 있기는 하나 무겁고 또한 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歐羅巴 諸國은 航空機의 自國生産에 있어서 이러한 方法을 擇할 수가 없게 되었다. 即, 地理的인 位置, 工業狀態, 原料供給條件 등으로 보아서 別途의 方案이 講究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이 무렵 INTRAVIA 研究部에서는 輕遊擊機(Light Intercept-OI)의 적합성을 提案하였는데 이는 裝備가 比較的 單純하고 製作費가 비싸지 않으며, 地理的으로 보아서 가까운 거리에서의 敵의 攻撃을 能히 防禦할 수 있는 充分한 上昇力을 가지고 있던 것들이었다.

그러나 技術上의 גיע이만 있을 수 없듯이 이 輕遊擊機는 敵機를 探知하고, 遊擊할 수 있는 電子裝置를 機體에 가질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 電子裝置는 「敵의 攻撃에 對한 防禦와 遊擊」이라는 觀點에서 볼 때, 不可缺하게 機體에 裝備되어야 한다는 것이 要請되었다.

그리하여 最初 輕遊擊機가 構想되었을 때에는 探知와 誘導를 爲한 手段을 地上에 設置하고서 機體는 하나의 發射체처럼 地上

에서 調整하도록 되었던 것이다. (이는 이미 第二次大戰에서 經驗한 것으로서 GCI를 好例로 들 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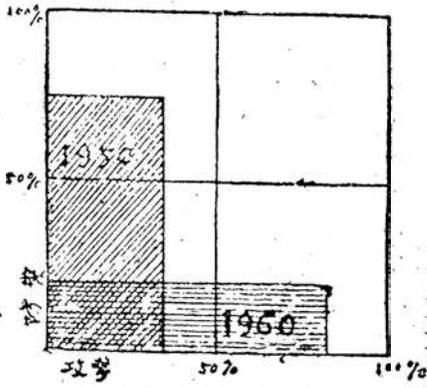
이러한 概念下에서 設計된 輕遊擊機는 프랑스의 Trident, Mirage I, Durandal, 意의 Gnat와 미국의 Sagittario 등이며, 空中防禦에 있어서 活動이 期待되었던 것이다.

### 第二段階

以上에서 말한 輕遊擊機가 나온 지 얼마 안되어 새로운 戰略概念이 擡頭되고 이로 인해서 歐羅巴에서는 이 輕遊擊機의 使用이 不可能하게 되었다.

一九五三年까지만 해도 NATO의 歐洲統合軍 司令部에서는 주로 在來式武器로 裝備한 軍隊에 의하여 防禦政策의 手段을 集中할 意向이 있었는데, 「리스본」에서 열렸던 NATO會議의 終了後, NATO 산하의 會員諸國이 充分한 會費(防衛維持費)를 支出치 않을 뿐더러 當時 美國은 그 以上의 對歐羅巴 軍事 援助를 增加할 수 없다고 示唆함으로써 「릿지웨이」將軍과 그 後任인 「그룬서」將軍은 NATO가 達成하려고 希望했던 在來式軍隊 百個師團兵力에 代置할 方案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되었는데 이 方案이 바로 原子核兵器였던 것이다.

더우기 이러한 戰略概念을 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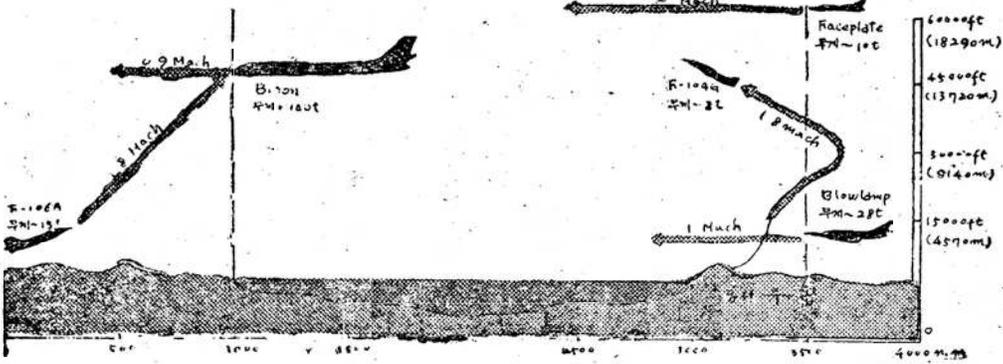
圖表 II : 過去の 戰國體는 그 任務의 75%가 防禦(防衛) 任務를 遂行하고, 나머지 25%만이 戰國體 任務(攻擊)를 遂行하였을에 反하여, 오늘날에는 攻擊 任務가 必히 80%를 차지하여야만 한다.

이러한 核戰爭이라는 戰略概念에서 核武器를 使用하게 되는 航空戰略上에는 두가지의 結論을 얻게 되었는바

첫째, 防衛態勢의 概念은 적어도 歐羅巴에서는 이미 그 價値를 상실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若干의 發射物로서도 大量과 과를 惹起시킬 수 있는 現下에서 果然 敵機의 侵入을 한순도 빠짐없이

沮止할 수 있을가 하는 것과 둘째, 萬若 防空組織이 敵의 侵入을 完璧하게 沮止하지는 못할 지라도 敵의 공격을 複雜化하는 역할의 價値라도 있다면, 적어도 요격기가 現在와 같이 限量없이 不完全한 地上誘導에 依支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므로 아직도 對 空防衛의 解決策이 있다면 그것은 全的으로 機動性에 달려있고, 이와 結付하여 航空機에 電子裝置를 장비함으로써 比較的 完全을 期할 수 있어 地上依存度를 감소할 수 있는 機能이 있어야만 되지 않겠는가? 하는 問題인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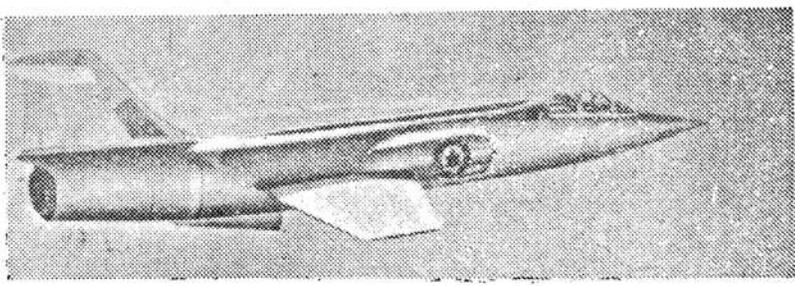
이러기 爲해서 航空機의 크기, 重量, 推進力이나 또는 製作費를 增加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으니, 구라과 各國의 專門家들은 概念을 修正했어야만 되었으며, Trident, Gnat等 輕邀擊 機를 포기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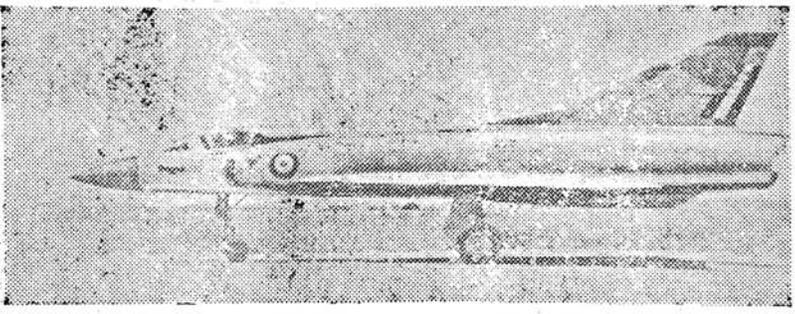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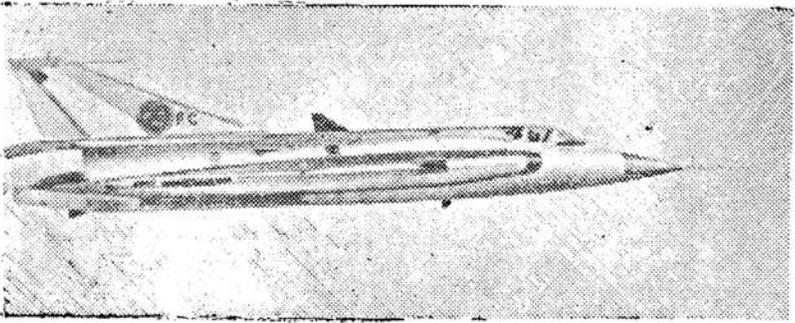
圖表 I : 西歐와 北美에 있어서의 邀擊 위의 그림은 大南洋과 北極海를 사이에 둔 大陸間 約2,000哩程度 떨어진 狀態를 表示한 것이며, 最高速度, 飛行高度等을 같은 行動範圍에 表示하여 攻擊與 防禦가 가능한 武装裝置를 보여준 것이다. 離陸時 다만 20,000 파운드 重量만을 積載하는 中型 超音速 전투폭격기(行動 半徑: 500+ nautical miles)는 이 보다 16倍程度 以上の 重量을 積載하며 거대한 제트 爆擊機(莫大한 行動 半徑을 가진)

와 酷 같은 破壞力을 가진 原子彈이나 水素爆彈을 실을 수 있기 때문에 攻擊機의 크기, 高度, 速度 등은 目標物의 거리에 따라 決定되기 때문에 彼我가 近接되어 있는 歐羅巴에서 有人 航空機로 對空防衛를 遂行하는 것은 極히 不完全하다. 이에 反해서 敵基地로 부터 適距離에 떨어져 있는 美國의 경우에는 中型超音速 爆擊機의 侵入이 있을 수 없고, 大型 제트 爆擊機는 앞서 말한바와 같은 條件 때문에 아직도 有人 항공기에 의한 요격으로 성공적인 防空이 기대된다. 이 圖表는 反對方向의 利點을 나타낸 것이다.

第三段階: 攻撃과 全天候作戰任務를 同時に 遂行할 수 있는 單座戰機의 研究.  
 (유리비전) [가] Canadian Lockheed CF-104 戰機  
 機—이 戰機機型 研究의 目的의 F-104 G 機, 비추하의  
 General Electric J 79-GE7 엔진의 J-1 스아프린간  
 NASARR 火力制禦裝置를 장비하고 있다.



[중] Saab J 35 Draken 戰機機型—Svenska Flymotor  
 Avon 엔진과 RMB와 Ferranti 火力制禦裝置를 備하고  
 있다.  
 [나] Dassault Mirage III A—SNECMA Atar 9  
 SEPR 841 엔진과 Ferranti 火力制禦裝置를 備  
 하고 있다.



의 장시간의 侵攻을 爲하여 電波  
 探知網領域以下를 飛行하는 方法  
 이 나왔다는 것이었다. 다시 말  
 하면 低空飛行에서 惹起되는 過  
 多한 燃料消費는 航續거리를 制  
 約하게 되므로, 基地를 一線近方  
 一即 域의 攻擊圈內에 위치하게  
 되므로 必要한 보급물자들을 제  
 에게 파괴할 위험한 地帶에 저  
 장하지 않으면 안되고, 이러한 위  
 험을 감소하려면 基地를 자주 移  
 動할 수 있어야 하는데, Fiat G  
 91은 이러한 目的을 實現可能케  
 하기 위해서 製作되었고, 이 Fiat  
 G 91은 當時 거의 恒久的인 機動  
 性을 가졌으며, 歐洲에서 「大量  
 파괴」라는 戰略概念下에서 「방어」  
 로부터 「공격」으로 轉換된 最初  
 의 標本으로서 登場하게 되었다.

第三段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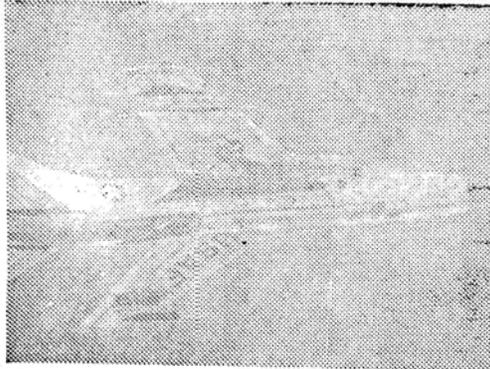
歐羅巴 航空工業界에서 輕激擊  
 機의 製造를 포기하고 中激擊機  
 를 채택하여 低空飛行攻擊의 「테  
 크닉」(technics)을 研究하고 있  
 을 때, 세번제의 戰略的變轉이 惹  
 起되어서, 研究方向을 變化시켰  
 는데, 이 變轉이란 다름이 아니  
 라 一九五二—一九五二年度에 한  
 가지 科學的 實驗의 成功에 起因  
 한 것인데, 이는 곧 原子爆彈의  
 減少인 것이다.

① 가벼운 무게와 少量의 發射  
 物로서 可恐할만한 大量과 力력을  
 저장할 수 있을 때, 爆擊機도 激

擊機에 비하여 그 燃料積載量과 自重만이 短點으로 남게 될뿐 폭격기의 脆弱性이라는 것은 거의 그 喪속거리 (Range) 長短에 따라 左右되게 되었던 것이다. 鐵의 帳幕으로부터 소련의 最新機가 超音速으로 「라인」江을 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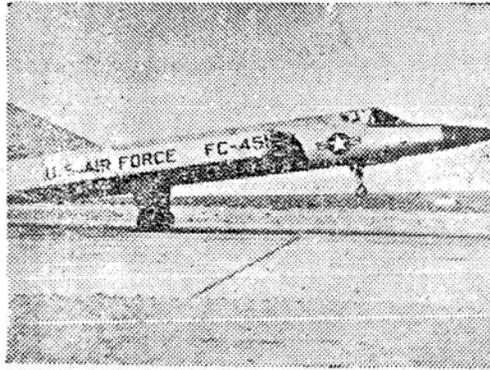
【寫眞說明】: 全天候作戰狀態下에서의 戰鬥總擊과 攻擊 任務를 위하여 美空軍의 Republic F-105 Thunderchief-O 航空機와 Pratt & Whitney J75 엔진의 엔진을 가지며, 「이더」, 胴體속에 原子彈과 水素彈을 積載할 수 있다.

또한 附加해서 20mm General Electric M-61 砲를 武裝한다면 對空 「미사일」 武裝을 하고, 一線 展開基地 後方遮斷任務나, 本基地에서의 遊擊任務를 遂行하는데 使用할 수 있다.



무겁지 않은 核武器를 運반할 수 있고, 소련기의 무장은 分明히 그를 공격하는 相對요격기보다 장비가 가벼운 事實에 비추어 볼 때 그렇게 가까운 거리로 부터의 侵攻에 對해서는 비록 우수한 電子 裝備을 保有한 遊擊機라도 機能을 充分히 發揮할 수가 없게 되었던 것이다.

【寫眞說明】: 敵陣地에서 相當의 距離 後方地域에 있어서, 全天候裝備을 갖춘 超音速遊擊機가 成功的으로 作戰을 遂行할 수 있다고 期待는 아직 크리點을 가지고 있다. 美空軍의 Convair F-106 A Delta Dart 航空機로서, 美空軍의 防空司令部 (ADC)가 將來의 北美防空司令部 (NORAD)의 支柱의 하나로 되어 있다.



勿論, 前面機首發射 (Head-on Collision course)라는 하나의 解決方法이 提供되었는데 理論上의 方法은, 적어도 요격기 自体보다 빠른 空中目標物을 공격할 수 있는 「technic」인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機上의 레이 다性能이 超高速의 항공기에 對한 前面機首發射에는 적합치 못하다는 것이 判明되었고, 特別히 襲을 當한 경우에는 더욱 困難하며, 이것은 恒常 요격기가 「미사일」을 發射할 수 있는 位置에만 있어야 되기 때문인 것이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는 또 다른 問題를 提起하였는데, 實驗結果로 對空 미사일을 使用하는 것이 요격기에서 「空對空」 미사일을 쓰는 것보다 效果的이라는 結論에 到達되어 버렸다. 그러나 美國에서의 이러한 條件은 반드시 同一하지는 않았다는 點이다. 왜냐하면 萬一 소련 폭격기가 美國沿岸에 까지 到達하려면 莫大한 연료가 必要할 것인데 그 爆擊機의 燃料積載量으로 미루어 보아 音速 以下の 速力으로 밖에는 侵攻할 수가 없게 되는데, 이처럼 느린 速力の 폭격기에 비하여 요격기는 尙今도 우월성을 많이 전지하고 있어서 歐羅巴에서 必要치 않은 防空組織이 美國에서는 當分間 要求되게 되었다.

圖表 (I)은 目標物 거리의 增

減에 따라서 생기는 美國 遊擊機와 소련 爆擊機와의 關係를 表示한 것인데, 萬一 소련 爆擊機가 戰爆機인 경우인, 歐羅巴에서는 항속거리가 짧은 關係로 요격기의 優越性이 없어지게 되기 마련이다.

이러한 理由로 인해서 「Bona-fa」 같은 「미사일」의 改善이 必要하기는 하지만 미국에서는 아직 도 F-106 요격기의 存在理由가 充分히 있는 것이다. 即, 亞音速 爆擊機에 依한 攻擊의 위협이 存在하고 있는 美國上空을 向해오는 正體不明의 航空機의 哨戒나 識別等을 爲하여 비록 歐羅巴에서는 이러한 哨戒目的에도 不適合하지만, 北美大陸에서는 必要한 것이었다.

② 앞서 말한 變化(即後에 또 다시 技術變化가 일어나서 戰略概念의 修正이 또 不可避하게 되었는데, 이번엔 戰爭原則 그 自体가 變化的한 것으로써, 이 大變化는 微少化한 核武器와 運搬用 「미사일」을 結付시킨데에 基因하는 것이었다. 即, 政治的, 經濟的, 社會的, 工業的 構造를 파괴시켜서 地圖上의 一國을 아주 말살시켜 버릴 수 있는 상태下에서는 그 前처럼 超音速爆擊機나 戰爆機같은 것이 不必要하게 된 것이다. 即數百 또는 십지어 數十個의 核「미사일」로서 相對敵國의 大量 파괴가

## 단좌 전투기의 새로운 特徵

**1950 :** 좁은 行動範圍와, 最小裝備를 갖춘 輕遊擊機는 地上메이데이의 誘導에 全的으로 依存하게 된다.

**1953 :** 보다 넓은 行動範圍를 가지고, 또 改良된 裝備를 갖추었을 뿐 아니라, 機體에다 메이데이를 裝置한 重遊擊機는 地上메이데이의 依存度가 減少되었다.

**1958 :** 侵透範圍가 더 넓은 攻擊機는 敵의 메이데이網의 領域을 飛하여, 低空飛行을 할 수 있고, LABS 方法으로 地上目標物을 攻擊할 수 있도록 裝置되어 있다.

本質的인 問題는 防禦에서 攻擊役割까지 할 수 있는 航空機로 改造하는 것이 必要한 일이다. 아래에 든 表는 攻擊 및 防禦를 爲한 作戰要求와 條件을 比較한 것이다.

### 防 禦

1. 空中 目標物은 高速으로 움직이는 機體가 되지만, 그것은 普通 하늘이 Background가 되므로, 明確히 識別할 수가 없다.

2. 遊擊機가 敵機를 成功的으로 擊破하려면, 地上메이데이나 機體메이데이, 그리고 對空「미사일」의 結合이 必要한 것이다. 또 地上裝備는 現存하는 것을 모두 動員해야 한다.

3. 遊擊機는 高空, 高速飛行이 可能하여야 한다. 技術을 改良해 나가는 現段階에 있어서, 問題가 되는것은 摩擦로 因하여 생기는 熱을 處理하는 것인데, 이것은 오늘날에 와서 音速의 2배까지 速度를 낼수있는 길이 열렸다.

4. 어느 程度의 耐久性이 遊擊任務를 單純化하고, 地上메이데이를 完全히 開發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그것이 特別히 거리가 가까운 구타파에 있어서는 遊擊機의 必須條件이 되지 못한다.

5. 遊擊機의 武裝은 比較的, 簡單하게 되었는데 赤外線, 또는 反自動乃至는 自動「메이데이」, Homing head로 된 空對空 미사일이 있을 뿐이다.

좁은 滑走路나 簡易 離着陸飛行場에서 쓸수있는 航空機의 두 가지 形態는 作戰上的 利點을 增加시켰다.

遊擊機에 比해, 特殊地點에서 制限을 적게받는 戰術總擊機는 最小限도의 地上 비행設備로서 離着陸이 可能하지 않으면 안되며, 低壓다이아 着陸브레이크 裝置, 낙하산이나 arresteer hook 같은 裝置가 되어 있어야 한다.

### 攻 擊

1. 地上 目標에 對한 攻擊이기 때문에 目標物은 대단히 完만한 機動이 可能할 뿐이다. 그러나 識別하기가 어렵다.

2. 필히 攻擊用 航空機는 특히 低空活動에 있어서 可能하던 항법 惡濶野下에서도 地上 目標物의 위치판정과 공격을 위해서 可能 하다면 알아내어 攻擊할 수 있는 電子裝置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地上 裝備에 의해서 유도되는 것은 受動的이기 때문이다. 航空機에 裝置된 各種機上 裝備는 全天候 運營을 가능케 해야 한다. (TACAN AILAS, AGCA를 除하고는)이것은 必히 地上設備와 分離되어 獨自의이어야 한다.

3. 低空으로 飛行하면서, 戰術總擊機가 超音速飛行을 할 수는 決코 없다.

그러나 空氣密度가 조밀한 大氣圈에서 運營한 以來, 設計者들은 「冷却」이라는 問題에 直面하게 되었다. 構造나 表面이 低空飛行을 하면서도 壓力에 견딜 수 있도록 特別히 考案되어야 한다.

4. 低空飛行의 必要性은 航空機의 攻擊範圍가 擴大됨에 따라서, 漸次 增大하는 한편, 600 노트 이상의 速度에서 低高度를 機動함으로써 적의 地對空「미사일」로부터의 發覺과 파괴를 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戰術總擊機의 脆弱性(invulnerability)을 감소시키지 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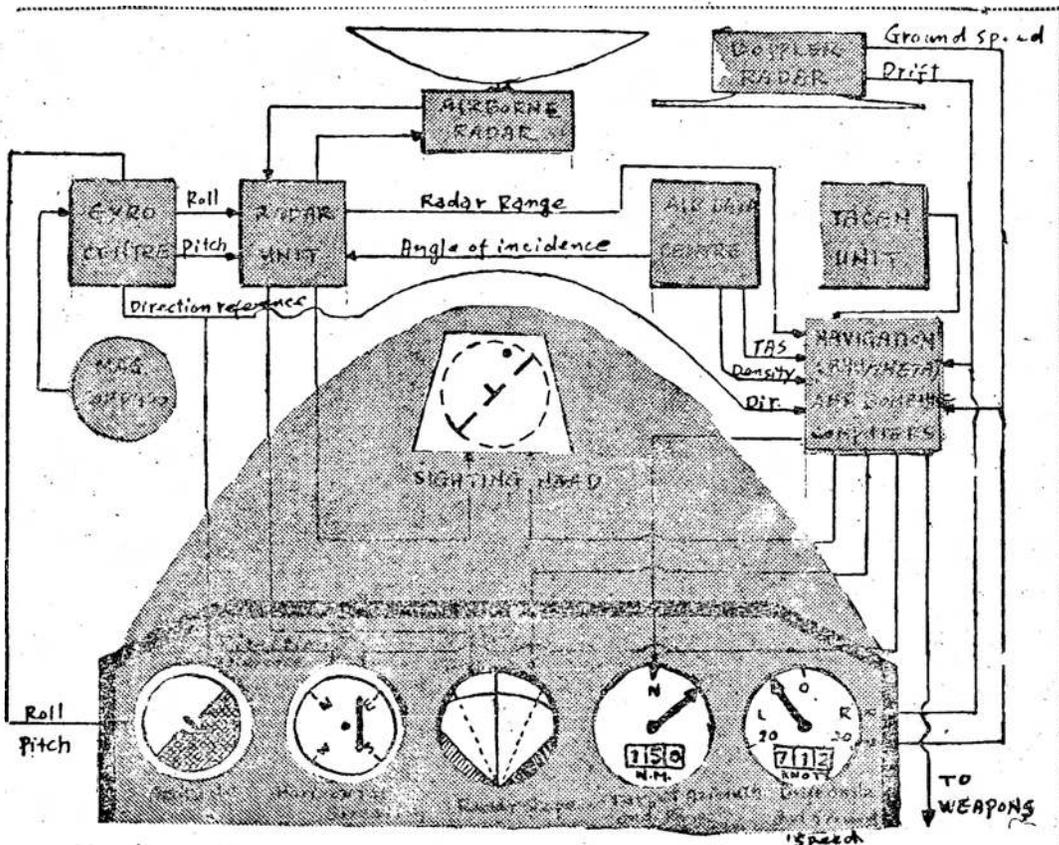
5. 攻擊機의 武裝은 보다 廣範한 여러 가지 目標物을 마칠수 있는 것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 剛體나 날개 밑에 空對地「미사일」과 TNT나 原子彈과 로케트를 積載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速射砲로 裝置되어야 한다.

가능하게 되었다는 事實이며, 이러한 核「미사일」의 投下를 阻止하는 手段이라한 것은 아무리우 수한 遊擊機라 할찌라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戰略上的 革命은 一九五七年

八月에 「후루시초프」가 大陸間彈 道誘導彈(ICBM)實驗의 成功을 豪言하였을 때에 시작되었던 것인데, 이번에는 「미사일」 遊擊用 「미사일」(Anti-missile missile) 이 軍事的으로 使用할 수 있게 될

때까지는 防空制度의 價値는 어느 때 보다도 重要하게 論議되어야 할 問題가 되었다. 이러한 種類의 「미사일」을 피하는 方法을 알기 전까지는 이와 똑같은 공격과 흡사한 「報復威

脅策」밖에는 별다른 解決策이 없게 되었다. 즉 報復을 위한 攻擊 위협에 依한 「방어」만이 唯一한 防衛戰略으로 남게 되었다. 이렇게 된 나머지 空軍參謀部를



### Ⅲ. 邀 撃

※ 空中探索: 레이더는 自動的으로 調整되어 如何한 高度와 方位에서도 目標物의 탐색을 계속한다. 目標物에 對한 反應은 Sighting head 兩側에 나타난다.

※ Lockon (捕捉): 레이더가 目標物이 움직이는 速度를 算出했을때 레이더는 곧 目標物을 捕捉하게 된다. 航空機와 目標物間의 거리를 알아내는 것은 항법계산기로 하고, 또 이 항법계산기는 廻轉하면서 空對空 「미사일」을 發射할 수 있겠끔 항공기를 誘導시켜 준다.

Sighting Head 上에 나타나는 進路指示 (steering orders)를 따르며 接近과 攻擊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指示는 爆擊地點까지 가는 時間, 目標物에 接近하는 速度, 爆擊地點과 離脫信號 등을 包含하고 있다.

盲目攻擊 (Blind attack)을 할때에도 航空機姿勢가 亦是 Sighting Head 위에 表示된다.

들의 助言을 참작하여 原子核兵器가 登場되었던 初期에서 부터의 新戰略概念을 徹底히 수립하고, 攻擊用武器에 優先權을 부여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그러므로 問題는 「미사일」과 또는 高速과 低空飛行에 依한 敵陣侵入을 企圖하므로써, 邀撃을 위한 수 있는 攻擊用 航空機製作에 努力을 集中해야만 된다는 것이다. 研究發展途上에 있었던 航空機는 攻擊을 目的으로 한 것이어야 하며, 既存機中에서도 戰爆機 (Fighter bomber)가 아닌 것은 攻擊作戰을 充足시킬 수 있는 것으로 轉換되어야만 되었다.

이리해서 邀撃用 Mirage III 代身으로 戰爆機의 Mirage III C 가 나오고, 또한 特別히 局地防空을 위해서 設計되었던 Lockheed F-104 는 西獨의 要請에 依하여 特別히 攻擊用으로 設計된 Lockheed 104 G 로 代置하게 되었다. 反面 大西洋 건너 美國에서 는 이 때 이미 MacDonnell F-101 A (장거리 유격기)의 代身해서, F-101 C 型이 附加되었고 Republic F-105 와 같은機種의 主力化 되었으며, 새로 海軍의 F-4H 가 空軍에서 F-110 으로 採擇되기 始作해서 關心을 끌었다. 英國에서 도 이와 비슷한 海軍의 Blackburn NA 39 가 나오게 되었으며, 空軍에서도 低空飛行에 依한 敵

圖 表Ⅲ：全天候航法の一般計劃과 單座戰國機의 戰關係統圖.

## I. 航 法

※ **Ground Mapping** : 機體레이더는 地上을 내려다 볼 수 있도록 旁쪽을 向하여 姿勢를 낮춘다.

操縱士는 機體레이더에 나타나는 地形과, scope 에 나타나는 미리 選定한 地點을 確認하고 航法計算을 精確하게 한다.

※ **障礙物迴避** : 레이더는 飛行方向으로 航空機의 進路를 계속적으로 포착하여 주고 있다. 레이더 Scope 는 航路上的 障礙物을 알려주므로서 Sighting Head 는 비행 進路를 계속 지시하여 준다.

※ **航法表示** : 航空機의 高度와 水平狀態는 레이더 Scope 左側에 있는 두 計器에 나타난다. (例컨데 TA-CAN等) 內側 오른쪽에 있는 計器는 目標物의 方位와 距離를 Nautical Mile로 表示해 준다.

外側 오른쪽에 있는 計器는 Doppler radar로 測定된 偏流角度와 對地速度를 表示해 준다.

## II. 地上 攻擊

※ **Target Ranging** : 左右傾斜에 있어서 固定된 레이더로 爆擊이나 「미사일」發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산을 하는 폭격계산기 Bombing Computer를 통해서 目標物의 距離를 算定한다.

※ **LABS 法** : 폭격 계산기는 True Air Speed (實際速度), 空氣密度, 高度 또는 偏流角度를 利用하여 攻擊하는 方法에 依해서 폭탄 投下地點을 算出한다.

단거리 目標物인 경우에 IP (Identification point)까지는 低空飛行으로 IP에서 radar의 自動的인 誘導 攻擊作動을 操作함으로써 「half loop」와 「roll」로서 「toss bombing」에 의하여 目標物을 폭격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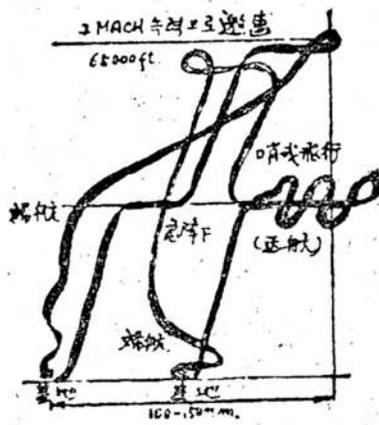
폭격 계산기는 폭탄의 發射上的 特徵에 따라서, 爆擊地點과 航空機에 要求되는 安全距離를 計算해 낸다.

目標侵入을 위하여 製作된 機種을 研究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地上目標物의 破壞를 目的으로 하는 攻擊用航空機를 生産하려고 하면서도 空軍戰略家들은 邀擊任務의 使命을 全的으로 抛棄한 것이 아니라 다만 第二次的인 重要性으로 간주 하였으며, 부수적이 되어버릴 따름이었다. 圖表(II)는 이러한 概念의 變化를 表示하고 있는데 이는 理論上의 비율로 본 十年前의 航空機와 今日的 航空機가 邀擊用일 경우와, 攻擊用일때의 各各 그 重要性을 表示하고 있다. 현재나 航空機는 두 가지 役割을 遂行할 수 있기를 願하고 있으며, 어찌까지는 防禦任務 (defensive mission) 75% 攻擊任務 (offensive mission) 20%였던 것이 오늘날에 와서는 攻擊任務 80%, 防禦任務 20%로 변천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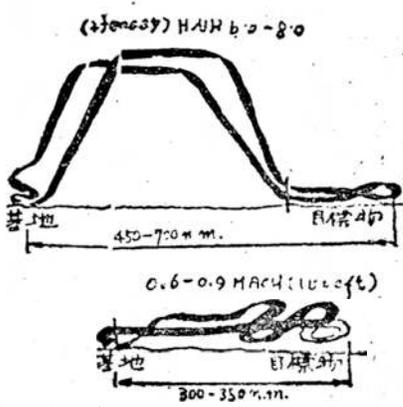
이리하여 過去 十年間에 걸쳐 歐羅巴에 있어서의 戰國機는 前述한 바와 같이 三段階를 거쳐서 發達되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서 航空機製作者들에게 攻擊과 防禦任務를 위하여 두 가지 問題點이 提起되었는데, 이는 低空飛行을 하면서도 高速을 가져야 한다는 것과, 이로 말미암아 惹起되는 機體의 老朽化는 가장 큰 難點이었다. 애초에 六萬 피트 또는 그 以上の 高度에서 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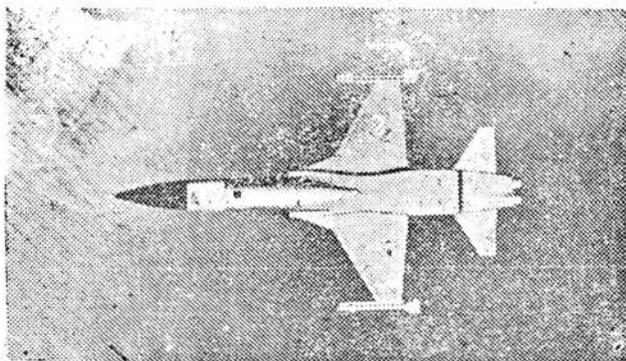
圖表 V.. 全的巴激擊耳哨戒是  
防空作戰會 用 多用途戰機의  
프로파일·외손 (灰色線形) 落下型의  
물진(波線圖)



圖表 IV.. 高空(上)과 低空(下)  
에서, 攻擊作戰을 위한 多用途戰機의  
프로파일 및 손 (Profile Mission)  
— 低空에 있어서의 行動面을 表示  
시킴.



【寫眞說明】: 攻擊과 防禦任務를 同時  
에 遂行할 수 있는 者案인 North-  
rop N-156 F Freedom 戰機의 寫  
眞인 手개의 「비이브·유인드」를 寫  
진한 N-156 F 戰機의 프로파일.  
(General Electric J53 엔진 Hughes  
TARAN 火力制御 航法 장치)



動할 수 있겠음 考案된 戰機는  
低空에서의 차거리비행의 壓力  
과 無理를 効率的으로 調節할 수  
있는 性能이 沒되었던 것이다.  
例컨대 Lockheed 104를 低空  
飛行에 依한 攻擊用인 104G로  
改造하는데에는 相當한 變革을 일  
으켜야만 되었다.

이러한 低空侵攻의 利點을 長時  
日에 걸쳐서 研究한後, 英國에서  
는 그들의 技術面에 細心한 研究  
를 해왔었고, 프랑스의 Mirage  
III도 이런 用途를 爲하여 適應시  
켰던 것이다. 그래서 Blackburn  
NA 39는 처음부터 이러한 새로  
운 攻擊目的을 위하여 設計製作  
되었다. 破壞를 爲한 裝備의 設  
置라던가, 高空 또는 低空航法의  
正確性을 期하는 것이나 또는 地  
上目標에 對한 盲目攻擊이나 視  
覺攻擊이나를 莫論하고 地上目  
標物을 攻擊한다는 것은 容易한  
일이 아니다. 이 點은 곧 現代空  
軍이 要求하고 있는 攻擊 및 邀  
擊이라는 多用途目的을 爲해서  
순한 邀擊機 (Pure Interceptor)  
의 發達이 招來한 또 하나의 難  
點이었던 것이다.

航法에 關해서가 PHI (Posi-  
on Homing Indicator) 裝置가  
가장 흔히 採擇되고 있다. 이 장  
비는 이미 計算器에 裝置된 調整  
機能을 通하여 航空機는 計器盤  
위에 애초에 선정된 地點에 對해  
서 航路에 關한 거리, 方向等을

表示한다. 한 check point에서 다  
음 地點까지 유도되며, 또 容易  
하게 航空機를 基地까지 귀환시  
킬 수가 있다. 萬若 과거와 같이  
조종사 自身이 風向風速을 測定  
해 내다면 正確性이란 매우 不完  
全한 것이다.

PHI는 어느때나 다른  
裝備에 結付시켜 使用할 수가 있  
다. 即 TACAN이나 Doppler  
Radar 또는 간단한 機上의 裝備  
된 Radar 등에 結付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Doppler나 TACAN  
代身으로 特別히 精確한 惰性裝  
置를 생각해 봤는데, 이 裝置의  
機能 德分으로 操縱士들은 한 時  
間을 飛行한 후 에라도 500 nauti-  
cal mile 以上 飛行한 뒤에 航空  
機內部 또는 外部의 어떤 方法을  
通하지 않고도 不過 2 「마일」  
程度의 差異를 두고 自己 位置를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이 惰性裝置의 欠點은 實際飛  
行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作動시  
켜 놓아야 된다는 點이다. 이 처  
럼 여러가지 方法의 結合으로써  
單座戰機에 있어서 몇 가지  
의 機能을 可能하게 했다.

① Ground mapping: 이것은  
조종사가 기상 Radar 상의 自己飛  
行地點을 간단하게 表示하므로써  
位置를 正確하게 把握할 수 있다.  
② 障礙物 回避 (Terrain Av-  
oidance): Radar Screen 상의  
地形의 屈曲의 一部分이 投影되

므로서 航路를 선택할 수가 있고, 進路上의 地形을 그 狀態에 따라 迴避하여, 安全하게 비행할 수가 있다. 이 Radar의 投影은 존준기에 나타내기도 할 수 있는 것이다.

③ 「프로파일」飛行 (profile flying)은 機上 Radar에 依하여 可能하다. 機上 Radar는 前方, 後方, 側方 등으로 조종되어 텔레메터 (telemeter)처럼 作動해서 自動操縱機나 조종사에게 指示를 한다.

④ 低空水平飛行 또는 急垂直降下에 依한 地上目標에 對한 攻擊이 可能하다. Radar와 計算器 (computer)는 攻擊開始하여, 한地點을 分間할 뿐만 아니라 航空機와 目標사이의 거리도 가르켜 준다.

萬若 LABS 목적장치가 機上에 장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Toss bombing」이나 「Long throw」와 같은 多角度의 목적을 可能케 한다. Ground mapping 방식의 Radar는 조종사에게 그가 必히 開始해야 할 목적을 위한 接近地點을 가르켜 준다. (이것이 조종사의 介在없이 自動적으로 表示된다.)

⑤ 勿論 邀擊目的을 爲해서도 地上基地에서 UHF Radio나 Data Link 型의 方法을 통해서 조종사에게 必要한 指示를 直接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Radar

를 遠隔調整 (remote control) 할 수 있고, 擊破해야 할 敵空中心目標의 거리와 高度를 指示할 수도 있다.

圖表(Ⅲ)은 最新 戰鬥爆擊機에 關한 各種電子裝備에 關하여 圖解하고 있다.

勿論 이러한 裝備는 그 作動을 爲하여 必要한 事項을 「Air data center」나 「Gyro center」에서 指示받는다.

「Air Data Center」는 計器板에 data를 指示할 뿐만 아니라, 航空機의 실제 속도 및 空氣密度와 더불어 PHI 계산을 指示하여 준다. 「Gyro Center」는 航空機의 左右傾斜, 方向 또는 進路 등에 關하여 指示한다.

이러한 基本作動은 人工水準器와 航法計器 그리고 Radar를 同時에 指示한다. 이것은 이미 美國, 英國, 佛蘭西에서 探知-航法-爆擊의 여러가지 方法의 飛行試驗을 거듭 하였다.

그중 어떤 것도 決定的인 것은 못되나, 여러가지 分別될 수 있는 확실한 傾向이 나타났다. 或者는 Gyro sight (Gyro 조준기)를 制限하고, 航法이나 戰鬥에 必要한 大部分의 狀況을 레이다에 集中시키는 것이 可能하다고 보고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들은 反對로 레이다가 提供하는 여러가지 指示를 照準器에 投影하

므로서만이 조종과 發射가 더욱 용이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또 어떤 사람들의 意見은 여러가지 機能을 分離해야 되며, 飛行狀態에 따라 操縱士가 이 方法에서 저 方法으로 轉換하는 것이 過히 어려운 일 이 아니라는 것이다. 如何間, 이 點만은 分明하다. 即 新型戰鬥爆擊機의 作戰潛在力이 廣範圍하고, 飛行持續은 比較的 짧기 때문에, 모든 것은 조종사의 操作를 簡單하게 한다는 點에서 考察해야 된다는 것이다. 換言하면 지금까지는 세사람의 搭乘員에게 맡긴 일을 모두 조종사 한사람에게 맡기고 있는 것이다.

以上 略述한 것이 新型單座戰鬥機의 一般的인 特徵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러한 결과 Lockheed F-104G, Mirage III, Saab Draken 등의 登場을 보았다. 어떤 點에 있어서 는 104G나 Mirage III 보다도, 輕邀擊機인 Fiat G 91 이나 Northrop N-156 F 일차라든, PHI나 TACAN 또는 Doppler Radar (G 91)와 같은 航法裝置를 가지고 있다. 他方에서 는 Republic 105 單座重戰鬥機를 美國의 TAC (戰術空軍司令部)가 大量으로 保有하였고, 또한 最近에는 巨大한 火力과 性能을 자랑하는 (速度, 行動反徑 超高空 및 超低空機動能力) MacDonnell F-110 을 장비하게 되

어 識別-航法-戰鬥等 攻擊이나 防禦의 모든 任務를 遂行할 수 있는 含蓄성이 대단히 많은 戰鬥力을 確保하게 되었다.

이처럼 電子裝備의 發達은 드디어 多用途의 單座戰鬥機의 招來를 可能케 했으며, 單한 사람 이 邀擊이나 後方遮斷, 또는 爆擊等 多用途任務를 수행가능케 하였다.

空對地 核 「미사일」이나 또는 數十킬로 「톤」에 該當되는 폭탄의 武裝은 단지 한 臺의 戰鬥機의 出擊으로서 舊式爆擊機 數百臺의 破壞力에 相當하는 威力을 發揮하게 되었다. (次號에 계속)

에 법 헌 새 나라 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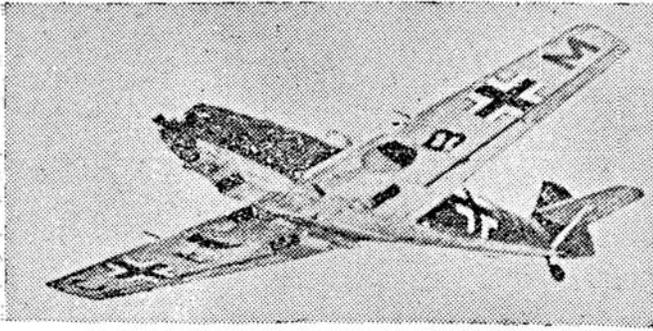
표 투 민 국 도 나 도 너

표어 투민국

# 第二次大戰과 航空機(續)

## K·나이트

←ME-109型  
獨逸戰鬥機



전쟁이 끝났을 때 처칠 수상은 충심으로 공군의 공적을 찬양하였는데 그때 다음과 같은 유명한 연설을 하였다.

「이제까지의 인류 투쟁의 역사가운데서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적은 사람들로 인해서 지켜져 왔다는 것은 그 예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입니다.....」

공군은 완전의 독자적인 힘으로 나라를 구할 수 있다. 전세계 사람들이 배워야 될 실로 의의깊은 일적이 있다.

영국본토의 방위가 위기(危機)에 처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태리군의 추축군(樞軸軍)쪽의 공세전술(攻勢戰術)의 일환(一環)으로서 아프리카와 발칸반도에서 앞으로 앞으로 전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처칠과 그의 군사고문(軍事顧問)들은 항공기와 지의 전부의 전차(戰車)를 예외(例外)로, 그리스 및 씨리아전선으로 보내야 한다는 비상 결심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영국해군의 지중해함대는 처음에는 이태리함대에 비해서 수적(數的)으로 열세(劣勢)였는데 一九四〇년 十一月 항공모함 이라스트리아스호로부터 퍼오른 21대의 함재기(艦載機)의 눈부신 활동(活動)부분의 우위(優位)를 획득(獲得)하였다. 이태리해군의 전함(戰艦)들

은 타란트만(灣)에서 급습을 받아 공격과 퇴격(雷擊)으로 반수(半數)가 행동불능상태에 빠졌다.

발칸전선은 중요할 결전(決戰)의 양상을 나타내기 시작하고 있었다. 드디어 이태리군의 사기(士氣)가 떨어지는 것을 염려한 독일군은 지중해방면(方面)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여 독일연합작전(獨伊聯合作戰)을 강화하고자 히틀러와 포츠기니는 부른베인 언덕에서 회담하고 전투기와 폭격기부대를 지중해 지역으로 파견하기로 하였다. 영국군대와 군수물자를 운반하는 수송선단(輸送船團)은 격렬(激烈)의 도가 심해지는 하블로 부리의 공세를 무릅쓰고 예질트와 중동지역으로 향(向)發(發)하지 않으면 안되었는데 추축군(樞軸國)측의 시에즈 공략(攻略)을 어떠한 희생물 지불해서라도 막아야 되겠다는 결의를 가지고 나아갔던 것이다.

지중해의 좁은 입구 근처에는 엄중하게 방위되고 있는 영국방위해군이 지만 타섬이 있어 그곳은 피해물입은 많은 수송선단(輸送船團)이 일시 정박(碇泊)하는 상당한 중요한 근거지(根據地)가 있었다. 이 섬에서 배만으로도 안되는 시시리섬에 기지를 가진 독일군 항공모함 그 때까지 동맹국이었던 소련을 발안간 공격하기 위해서 전진(轉進)해 버렸기 때문에 말타기지의 영국군은 어느정도 한숨을 돌리게 되었다. 그러나 독일군이 모스크바와 스탈린그라드를 연결하는 전선에서 비이상 전진할 수 없게 되고 또한 북아프리카의 사막전(沙漠戰)이 지극히 중대한 단계에 이르게 되었을 때 불구하고 독일공군은 불안한 시시리섬의 복귀(復歸)하여 그때부터 계속 말타섬은 연

일연야(連日連夜)가공할만한 연속공격을 받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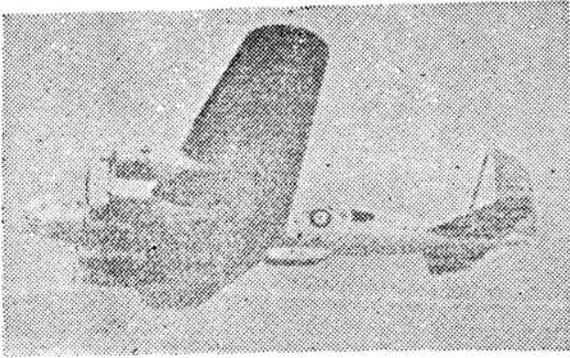
그동안 영국본토도 한일없이 폭격을 받았는데 방대(龐大)한 군수물자 수송을 맡고 있던 대선단(大船團)은 밤중에 떠올라 와서는 공격을 하는 독일 잠수함들을 피해가면서 안개가 자욱하게 끼고 물결 높은 대서양(大西洋)을 항행하였다. 영국해군과 캐나다해군의 함정(艦艇)은 그 당시 입수할 수 있는 발달된 장비도 헤아려 다면가 잠수함탐지기 저기다 독일군이 부설(敷設)하고 있는 자기기뢰(磁氣機雷)에 대한 방어장치(防禦裝置)등을 합계(艦載)하고 있었는데 독일전함 비스탈크호와 킬트호호가 불원한 수송선단을 공격하기 위해서 모수를 나타낼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을 얻게 나 지내고 있었다.

一九四一年五月二十日 드디어 영국이 두려워 하면 사실이 일어났다. 영국해군사령부는 당시 가장 강력한 무장과 기동성을 지닌 비스탈크호가 고속전함(高速戰艦) 푸린스·오이겐호와 더불어 북해(北海)에 출현하여 아이스랜드 부근의 수송선단 항로(航路)를 목표로 해서 항행중이던 초계기(哨戒機)로부터의 정보를 입수하였다.

즉시 사상 최대(史上最大)의 해상수색(海上搜索)이 개시되었다. 해군군령부 소속 관제부(管制部)로부터 대서양 전해역(全海域)에 있는 군용기전부와 지부(地部) 기지에 긴급지령이 발해졌다. 二十四일 아침 영국해군의 전함(戰艦) 포트·스워드·오브렌즈의 두척의 군함은 비스탈크·푸린스·오이겐을 아이스랜드 서북방에서 포

추하여 교전하였으나 격렬한 서전(緒戰)에서 벌써 비스말크호와 같은十五인치 포를 장비하고 있었던 호드는 폭파되고 푸린스·오브·웰스호도 손해를 입었다 그러나 이 전투에서 푸린스·오브·웰스가 발사한 포탄은 비스말크의 갑체(鐵體)를 파고 뚫고 나갔기 때문에 그 속력은 저하되고 도망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다른 영국함대들은 어두어진 무렵까지 비스말크를 추격(追擊)하고 있었는데 푸린스·오브·웰스는 이 틈을 타서 가까스로 탈출하였던 것이다.

← 第二次 大戰前期의 美國主力 爆擊機 B 17



구해(擣海)에 아직도 얽은 빛이 감도는 밤일시쯤 해서 영국공군기가 저우현장에 체도(殺到)해 왔다. 항공모함 비르티아스를 출몰한뢰격기(雷擊機) 스워드·윌슈 九대는 맞바람을 불고 一二五마일이나 날라 독일 전함의 치열한 대공포와 對空砲(砲)를 무릅쓰고 어뢰공격(魚雷攻擊)을 하였다. 비스말크호는 함교(艦橋) 하부의 명중한 인적이 치명상이기는 하였지만 그대로 비바람 불어 치는 이들을 으르자 취를 감추어 버렸다. 다음날 정오가 되어서 영국연안경비사령부 소속의 미국제 카타리나 비행정(飛行艇)이 무전으로 발견위치를 보고하였고 그후에도 이 초계기(哨戒機)는 분산해 있던 공격기가 도착할 때까지 비스말크호의 상공을 계속 초계비행을 하고 있었다. 지부발탈에서 급행한 항공모함 아크·위해서는 속도를 빨리진(發進)시키기 위해서 속도를 빨리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한참 혼전(混戰)중에 우군의 세발드를 적으로 오인(誤認)하고 조종사에게 경고를 발한 사이도 없이 어뢰를 투하하였던 것이다. 이 뜻하지 않은 공격에 세발드는 혼란을 재차있게 이 난을 피했는데 열기왕성한 공격기 기장(機長)으로 부더 무전으로 "미안합니다"라는 통신을 받고서야 한숨을 내쉬우지 못한 장면도 있었다.

얼마후에 비스말크호의 위치가 전해져자 열기 넘치는 스워드·윌슈 퇴격기 조종사들은 이것을 데파시키고 말았다. 비스말크가 장비한 대포는 아직도 견제하였으나 반신불수가 된 군함은 정척없이 해상을 선회(旋回)하고 있었다. 불탄서 부페스트의五百

마일 해상에서 로도비와 킹·쥬오저 五世의 두 전함 거가다 순양함 도셋트사를 합친 세척의 영국군함은 비스말크를 포위하여 도셋트사가 발사한 치명적인 포격으로 드디어 二十七일 오후 십시四十分 비스말크호는 뒤집힌 채 바다속으로 가라앉고 말았다.

이 격침에 영국해군의 주력함(主力艦)의 거포(巨砲)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는 하지만 이 중장비를 한거함에 결정적인 타격을 준것은 퇴격기대의 융잡한 공격과 초계기들의 눈부신 활약에 있었다고 아니할 수 없다. 후일 자매함(姊妹艦)으로서 거의 같은 비중의 장치가 있었던 탠릿스호도 이 항구에서 저항기로 쫓겨나 다니던 끝에 초저공(超低空)에서의 대형고성능폭탄의 공격으로 불행히 해협에서 격침되었다.

버지니아 해상에서의 공중폭격실현이래 二十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아놀드대장의 예언은 예상 이상으로 저중(中)한 것이다. 이 무렵 미국은 중립국으로서 독일군이 이긴다면 필경히 중대한 위협이 생겨날 것이라는 불안함을 느끼기 시작하여 군비확충을 서두를 뿐 아니라 연합군에 제공할 항공기 생산을 서둘렀다.

개전과 동시에 영국과 불란서의 미국주세 대포들은 방대한 수량의 달하는 항공기와 엔진을 미국에 반출(發注)하였는데 불란서가 합락된 다음에는 영국이 불란서 육군지령에서 一九四〇年 초에는 미국 육해군용으로 제 작된 항공기 六百대의 대(貨興)를 받았다. 미국의 항공공업은 오래동안 민간항공공업에만 의존하는 비

교적 소규모적인 생산과 얼마안되는 군계약(軍契約)을 소화해 왔으나 연산(年産)五,〇〇〇대를 목표로 한 루즈벨트대통령의 요청으로 삼시간에 규모가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육군은 오랜 세월이 걸쳐 조종사나 정비사를 충분히 양성할만한 기관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기 때문에 민간학교에 원조를 의뢰해서 一九四〇년의 수는 一七,〇〇〇명의 청년들이 이와같은 비행훈련학교에 입학하였고 또한 정부와의 계약으로 운영되고 있는 민간 정비학교에서도 三三,〇〇〇명의 정비사가 양성되었다.

또한 너무나 젊거나 늙은 사람, 필요한 대학 二년과정은 밟지 못한 사람, 기혼자 등으로서 미국 육해군 항공부대에 들어가지 못하는 기성(既成)비행사 수천명은 구라파의 의용병으로서 응모하고 있었다. 불란서가 합락되고 영국공군도 영국본토 방위에 있는 힘을 다 기울리고 있을 무렵 그들은 어떻게 해서인지 이 대전의 참가할 방법을 없을까 하고 공작하던 끝에 그들은 드디어 국경을 넘어 캐나다로 건너가 어떤 사람은 제 一차대전 때처럼 그들의 아버지나 형님들의 뒤를 이었다. 캐나다의 영국연방 항공훈련학교의 교관이 된 사람도 있고 때때로 상사나 대령으로 부직기를 남용하여 간사라도 있었다. 이와같이 해서 약九만명의 미국을 떠나왔다. 가장 잘 알피졌던 것은 一九四〇년의 통계에 따르면 영국공군을 원조하기 위해서 이들비행부대의 三중대를 편성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미국이 참전한 후의 영국군에서 미군 지휘하로 움직여져 미국 무

군항공부대의 체력증강에 헌신하였는데 평화시에는 공군부대 입대자적이 없었던 사람이라고도 경원자로서 환영을 받게 된다.

一九四一年의 전이들면서 미국과 일본간의 긴장의 도가 심해져서 경시(輕視)할 수 없는 사태가 되었는데 정부 내에서는 항공부대의 이의는 방위력 강화의 압력으로까지 못하였다. 대동령부구무성고관들은 동성(洞省)과 배필사의 압력으로 해독(解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압력은 一九四〇년 말부터 모조리 해부되고 있었다. 일본의 공격준비를 하고 있을음 인식하고 있었다.

十二月六일 일부 일본함대와 三十七의 수송선단이 삼만(灣)을 횡단하여 쿠라지현(地峽)의 화란(火)에 걸린다고 있어 세계의 주목을 끌었는데 그 동안에 폭격기와 전투기를 질서정연하게 실은 항공모함과 이것을 엄호하는 전함과 순양함으로 형성된 일본해군의 주력함대는 비밀해의 실은 안개속을 은밀히 남하(南下)하여 미국 함대의 대부분이 잠결하고 있었던 화의 진주만(眞珠灣)을 향해서 항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十二月八일 미국은 十二月七일(일요일)인 동시에 불무림(일본군의 항공기는 일제히 모함(母艦)에서 발진하여 공격으로 돌입하였다. 이와같이 해서 미국은 참전하게 되고 전세계는 전쟁으로 돌입하게 되었다.

일본영공의 진주만을 공격하였다는 보도에 커다란 충격을 받아 아연실색한 미국은 급속히 군사태세를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미국이 선전포고(宣戰布告)한 지 며칠후 취침수상

은 가장 중요한 타협을 짓기 위한 합동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영국공군 참모총장 찰스 폴탈(총장과 폭격기부대사령관 하리스(중장을 포함하는 군사고문단과 더불어) 신예전함(新銳戰艦) 듀크 오브 요크를 타고 미국으로 항일하였다.

미국으로서 진주만에서 받은 것 같은 경험의 이제까지 전혀 없었던 것인데 영국은 이미 당켈크에서 자기나라 군대가 완전히 괴멸(滅)의 파멸(滅)을 면치 못한 것을 겪어왔다. 진주만에서는 미국 해군함대의 주력이 큰 손해를 입어 일본해군은 전함 十척이 전제(建在)함과 비해서 미국은 태평양의 불과 두 척의 전함밖에 남은 것이 없었다. 그 때문에 일본함대와 충분히 맞싸울만한 함대를 만드는 데 반년이나 기다리지 않으면 안되었다.

十二月八일 화와이에 대한 제 1척과 그로부터 2개월 후인 비올빈공군기지에서의 급습과 같은 연달은 일본의 공격으로 그렇지 않아도 소수였던 미국공군기의 대부분은 전멸상태였다. 그 가운데는 마나라에 갔으면 폭격기의 거의 전부가 포획되어 있었다.

이같은 커다란 타격을 받기 전에 미국은 총계 九,〇〇〇대의 비행기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중에서 一,一〇〇대는 해외기지의 분산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 중의 많은 수가 많았고 실전용(實戰用) 항공기는 一,〇〇〇대 정도였다.

저속평면인 일요일, 「화하의 요새(要塞) B-17」 13대가 본대를 지어 화와이를 향해서 비행중이었기 때문에 진주만을 함으로 보내버려다 볼 수

있는 헛갈비행장의 비행관제탑에 있던 공군의 대령 한 사람은 상안경을 한 손에 든 채 그를 비행기의 도착을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얼마 후 수평선 저쪽에 비행기의 대편대가 나타나기 때문에 안심하였고 있노라니 그 편대가 저의 만상(萬上)을 통과한 무렵에 비로소 그는 그를 비행기가 모두 일본 비행기를 깨달았다. 어쨌든 사이도 없이 일본기들은 만내에 집결되어 있던 八十六척의 함선을 목표로 연달아 급강하(急降下)를 해서 폭탄을 투하하였는데 이 불의의 기습으로 미군은 그저 별거나 파라다 볼 수 밖에 없었다. 일본 비행기가 해상에서 파상전(波狀的)으로 침입해 오는 동안에 앞에서 말한 B-17편대가 겨우 도착하였으나 한 시간 만에 전진 일본공군이 끝날 무렵에는 큰 손해를 입고 있었다.

그런데 일본군의 기습공격 이전부터 화와이에의 지휘체계가 단일화 되어 있지 못하여 작전상 혼란이 일어나기 일수였다. 화와이 기지의 군량(軍糧)은 육군과 해군으로 나누어져서 서로 권력다름을 계속하고 있어서 이 지간(地間)간 대항의식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 사실은 일본측으로서도 요간(要間)의 점(利點)이 아닐 수 없었다. 공동방위계획이 확립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화와이는 기습공격을 받았다고도 말할 수 있다. 일본군의 상륙작전을 할 때

있는 헛갈비행장의 비행관제탑에 있던 공군의 대령 한 사람은 상안경을 한 손에 든 채 그를 비행기의 도착을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얼마 후 수평선 저쪽에 비행기의 대편대가 나타나기 때문에 안심하였고 있노라니 그 편대가 저의 만상(萬上)을 통과한 무렵에 비로소 그는 그를 비행기가 모두 일본 비행기를 깨달았다. 어쨌든 사이도 없이 일본기들은 만내에 집결되어 있던 八十六척의 함선을 목표로 연달아 급강하(急降下)를 해서 폭탄을 투하하였는데 이 불의의 기습으로 미군은 그저 별거나 파라다 볼 수 밖에 없었다. 일본 비행기가 해상에서 파상전(波狀的)으로 침입해 오는 동안에 앞에서 말한 B-17편대가 겨우 도착하였으나 한 시간 만에 전진 일본공군이 끝날 무렵에는 큰 손해를 입고 있었다.

그런데 일본군의 기습공격 이전부터 화와이에의 지휘체계가 단일화 되어 있지 못하여 작전상 혼란이 일어나기 일수였다. 화와이 기지의 군량(軍糧)은 육군과 해군으로 나누어져서 서로 권력다름을 계속하고 있어서 이 지간(地間)간 대항의식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 사실은 일본측으로서도 요간(要間)의 점(利點)이 아닐 수 없었다. 공동방위계획이 확립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화와이는 기습공격을 받았다고도 말할 수 있다. 일본군의 상륙작전을 할 때

있는 헛갈비행장의 비행관제탑에 있던 공군의 대령 한 사람은 상안경을 한 손에 든 채 그를 비행기의 도착을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얼마 후 수평선 저쪽에 비행기의 대편대가 나타나기 때문에 안심하였고 있노라니 그 편대가 저의 만상(萬上)을 통과한 무렵에 비로소 그는 그를 비행기가 모두 일본 비행기를 깨달았다. 어쨌든 사이도 없이 일본기들은 만내에 집결되어 있던 八十六척의 함선을 목표로 연달아 급강하(急降下)를 해서 폭탄을 투하하였는데 이 불의의 기습으로 미군은 그저 별거나 파라다 볼 수 밖에 없었다. 일본 비행기가 해상에서 파상전(波狀的)으로 침입해 오는 동안에 앞에서 말한 B-17편대가 겨우 도착하였으나 한 시간 만에 전진 일본공군이 끝날 무렵에는 큰 손해를 입고 있었다.

고 하였으면 아마도 가능하였을지 모른다. 이 시기는 연합군의 게 있어서 는 함으로 압당한 시기였다. 취침수상이 미국으로 항일하기 전에, 영국전함 푸린스(Prince of Wales)와 레파투스(Repulse) 두 척이 마레이 해상에서 격침되어 연합국의 해군력은 다시금 약화되었다.

일본공군의 총체력은 그때까지 거의 알려져 있지 않고 막연한 예상으로는 형성없는 약세(弱勢)라고 믿고 있었을 뿐이다. 영공공군총장은 영국이 입수한 정보로서는 일본의 실전용 전투기의 총수는 三,六〇〇대 정도의 불과하며 월산능력(月産能力)은 三,〇〇대라고 아놀드대장에게 말하고 일본은 해군만으로서 공격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진주만에서 기습을 당한 미국의 항공모함으로서 영국 항공함대의 타란트 기습이나 일본의 진주만 기습에 유사한 전범을 쓴다면 일본은 기습공격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불타는 장은 주장하였다.

이러한 중대한 시기에 이와같은 다관적(多管)적 통용(通用)된 것은 연합군의 항공기수가 추후(추후)보다 유체(月産) 二,五〇〇대 미국은 처음에는 三,〇〇〇대 거기다 소련의 一,五〇〇대를 합치면 연합군의 항공기 월산 총수는 七,〇〇〇대에 달하는데 여기에 비해서 처음 월산 三,五〇〇대 이하였기 때문이다.

미국은 대량 항공기, 탱크, 총포, 함선 등을 생산함으로써 을져 전선수행에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연합국의 여러 나라가 미국의 비행모요미류(米製)를

공기를 얼마나 입수할 수가 있는나는  
문의물 하여 왔는데 이러한 문의를 받  
은 아놀드대장은 연합참모본부(聯合  
參謀本部)에 대해서 거의 믿기 어렵  
을 정도의 숫자를 제시하였다. 그는  
이미 미국의 항공기공장의 능력을 상  
세히 조사하고 있었으며 새로히 방위  
생산 책임자로서 윌리엄·누젠과 시  
드니·윌만 두사람을 임명하였다.

미국의 전산업은 전력을 기우려 생  
산을 개시하였다. 그가 약속한 숫자의 항  
공기를 만들도록 노력하였다. 항공기  
공장은 확장에 확장될 거듭하였다. 보  
잉항공회사에서는 B-17 폭격기를 개  
전당시 월산 三十七대로 생산하고 있  
었는데 얼마안가서 월산 七十五대로  
증가시켰다. 대항공기회사는 하청제  
도(下請制度)를 설치하여 부분품을 생  
산시켰으며 이것들을 조립시켜서 완  
성기를 만들어냈다. 각 지방에서 비행  
기 부분품이 파로파로 보내져와서 이  
것이 한데 어울리는 가운데 생산 라  
인을 형성해 갔다. 롬베아 항공회사는  
신형폭격기 B-24 리베이터를 생  
산하였다. 외관(外觀)은 투박해서 모  
양이 없는 것이었지만 체계적 규모의  
전쟁에는 반드시 필요한 장비로서 성  
과 탑재능력(搭載能力)에 있어서 우  
수하며 특정한 구조를 지니고 있었다.

미국은 대서양과 태평양의 양진선  
으로부터의 요구에 따라 군수품을 생  
산하기 때문에 흡사히 전쟁터와 같은  
양상을 보여 주었다.

영국은 사기(士氣)를 앙양시킬 목  
적을 결해서 계획하고 있던 특격작전  
수행을 위해서 원조를 필요로 하고 있  
었다. 一九四二년 초더를에 미국공군  
조종사가 조종한 B-17이 처음으로 발

란서의 피점령지대에 있는 저 목표에  
대해서 시험적으로 주간폭격을 하였  
다. 영국공군은 야간폭격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하늘의 요새」가 단독으로  
업호전투기(掩護戰鬥機)도 없이 또한  
강감한 밤을 이용하지 않고 열렬해협  
을 날아가는 것을 불안스러운 눈초리  
로 지켜보고 있었다. 탑승원들은 누  
루민 계통의 정밀한 폭격조준기를 완  
전히 신뢰하고 있었다. 「고도 三,五〇〇  
피트」에서 드랍통이 평온시킨 수  
가 있다」고 어느 장교가 불평을 정도  
였는데 실제로 맹렬한 대공포화 속에  
서 이러한 정확한 폭격을 하였던 것이  
다. 이 폭격기는 전투중 총탄에 맞아  
도 두들안해서 탑승원들의 용기에  
모두를 감탄하였던 것이다.

미국의 못내기 조종사들은 얼마안  
가 역전(逆戰)의 용사들과 대등한 기  
술과 용맹성을 발휘하였다. 불란서 안  
에 있는 목표에 대한 다섯번째 공습  
때 B-17 한대가 기체에 불이 붙은  
채 돌아와 탑승원 가운데 부상자가 있  
음을 정비사들이 알게 되었다. 이 비  
행기는 무사히 착륙하였으나 적탄(敵  
彈)을 수없이 맞았기 또한 적탄(敵  
彈)이란 구멍이 뚫리고 포탑(砲塔)도 별  
집처럼 파괴되어 있었다.

지체없이 군의관이 구급차(救急車)  
를 타고 달려와 보니 부조종사는 차  
리에서 신음하고 있었으며 왼손 가운데  
대 손가락 끝메디가 잘라져 나갔음을  
금방 알아낼 수가 있었다. 그는 재수  
없다는 표정으로 「피탄(被彈)하였을  
때 양손은 조종장을 잡고 있었을니다.  
만약 그때 귀라드 휘비고 있었으면 좋  
았을걸……」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  
다. 또한 기관포의 사수(射手)는 입

저발가락 한개가 날라가 버렸다. 그  
런 정도의 피해(被害)였음에도 불구  
하고 이 폭격기는 기지에 돌아올만큼  
튼튼한 것이었다.

미국은 거대한 생산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초기에는 여러가지로 구색  
이 맞지 않아 골치아팠다. 어드워  
드·그레이가 인젠가 처친수상에게 설  
명한 말을 빌린다면 미국은 거대한 보  
일러와 같아서 한번 점화(點火)되면  
거기서 발생한다. 일본은 무지무지  
하게 큰 것이었다. 일본은 그 점화역  
(點火役)이 되었던 것이며 거기서 발  
생한 증기압(蒸氣壓)은 항공기 공장  
이 급속히 확장됨에 따라 급격히 커  
졌던 것이다. 전구(戰局)이 급전전하  
자 피아(彼我)의 항공기 수요(需要)는  
더욱 증대되어 갔다. 루즈벨트 대통령  
은 코메히를 섬에서 포위당하고 있던  
백야미 원수에게 비올빈에서 탈출하라  
고 명령하였다. 바탄반도는 일본군의  
공격으로 곧복할 수 밖에 없었다. 미  
국 해군의 존·바크레이 중위가 지휘하  
는 어뢰정(魚雷艇)으로 배야미장군과  
가족 그리고 소수의 육해군 고참장교  
들 일행은 민다나오 섬을 물레 탈출하  
여 거기서 남아바진 B-17 폭격기에  
말에 타고 라라피·로이스 중장의 지휘  
밑에 오스트라피로 비행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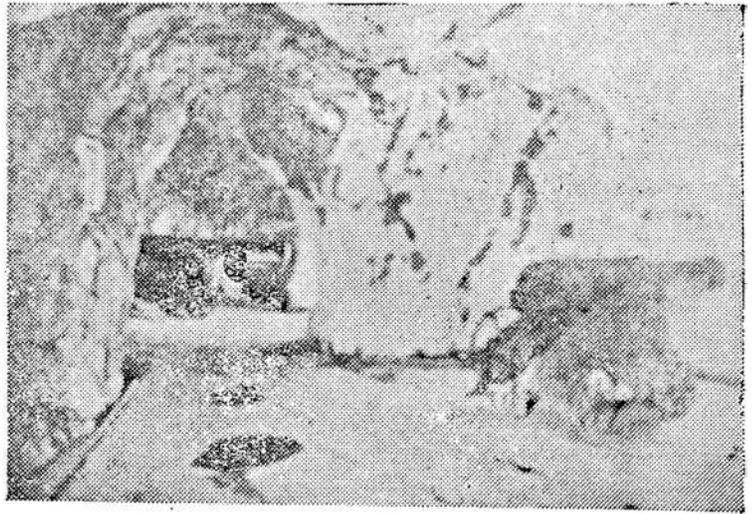
여기서 맥아더 장군은 병력을 재편  
성해서 비올빈의 탈취(奪取)와 최종  
적으로 일본 본토를 공격할 준비를 갖  
추게 되었다.

한편 구라파 전선에서는 미군이 아  
이스랜드와 북아일랜드에 상륙하였으  
며 계속해서 비행부대가 영국에 파견  
되었다.  
군대가 이렇게 넓은 지역의 분산하  
였기 때문에 중요물자나 인력의 보급  
그리고 요원(要員)들을 수송하기 위

해서 많은 수송기가 필요하게 되었  
다. 그런데 육군은 이 해군이 보  
한 형(形)의 비행기는 그다지 많이 보  
유하고 있지 못하였기 때문에 민간항  
공회사 비행기를 전용(徵用)하게 되  
었다. 민간항공회사는 三〇〇대에 가  
까운 수송기를 군용(軍用)으로 제공  
하였는데 그 대부분이 사발기(四發  
機)였다. 그 때문에 국내 항공로는 불  
과 一六〇대를 가지고 돌리다가 운항  
(運航)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항공사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새로 제  
작하는 수송기는 완성되자마자 정부  
의 항공수송사령부(ATC)나 해군의  
이러한 기관들에 의해서 앞을 다투어  
정용되어 갔다. 호와스터운 객석(客  
席)이나 방울장치(防首裝置) 그밖에  
불필요한 장비는 그 자리에서 제거(除  
去)되어 지구의 끝까지는 지역으로  
군이 긴급히 필요로 하는 많은 화물  
이나 병력(兵員)을 수송하거나 부상  
자를 후송(後送)하는데 동원되었다.

열대(熱帶)의 산호초나 수목 하나 없  
는 황량한 아류산열도(列島) 기지에  
서 그들 비행기는 활약하였던 것이다.  
一九四二년 초의 수개월 동안 미국  
을 위로한만큼 뉴이스는 거의 없었  
다. 독일군은 그 당시 소련에의 무모  
(無謀)한 진격이 저지(沮止)당하고 있  
었으나 스페스를 위협(威脅)하고 있  
었으며 완만(緩慢)하지만 착실하게 대  
서양 해전(海戰)에 승리를 건우어 가  
고 있어 연합군은 인명(人命)이나 물  
자고 있어 다란 손해를 받고 있었다. 일  
본군은 카다난(南進)하려 하였다. 일  
자바, 뉴기니아를 탈취하는데 성공해  
서 오스트라피아나 뉴지랜드까지도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世界 驚異 巡禮>

## 지 부 략 탈 탈 의 壯 觀

리차드·하리마톤

지부랄탈의 바위산! 얼마나 스릴 넘치는 것인가. 여기 또 하나 세계의 경이(驚異)가 마려워 있는 것이다. 이것은 지상 최대의 요새지(要塞地)이며, 전능(全能)의 「바위의 사자(獅子)」 그리고 지중해의 왕자다. 또한 고대 희랍사람이나 로마사람들에게는 지중해와 대서양의 합쳐놓은 해협의 四二〇미터나 할 줄 아는 솜아 있는 헤릭레스의 기둥——「지부랄탈 해협의 양쪽의 마주쳐 있는 바위

산인페 옛날에는 지부랄탈을 가지고 세계 육지의 끝이라고 생각들을 하여 희랍신화(希臘神話)의 제우스신의 아들로서 힘이 세기로 유명한 헤릭레스가 두 쪽으로 쪼갠 것이라고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고 있다.」의 하나로 생각하여 옛사람들은 여기에서 나아가면 대양(大洋)의 끝이 되어서 살아 돌아오지는 못한다고 믿고 감히 그곳에는 갈려고 하지 않았다. 지부랄탈은 二,〇〇〇년이라는 오

랜 세월동안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목표가 되어온 땅이며 힘과 싸움을 상징하는 장소이기도 하였다. 그런 까닭에 그 이름은 세계 모든 문명국의 어린이들한테까지 알려져 있다. 우리들은 세계경이(巡禮) 여행에서 이것을 빠뜨려서는 안된다.

나는 어렸을 때 수 없이 이 암산(岩山)의 그림을 보아 왔다. 지금으로서는 一,二〇〇년전 사라센 민족이 아프리카의 북쪽 기슭을 따라 서쪽으로 이동해 왔을 때 지부랄탈 해협의 북위어나온 바위산을 보고서 이렇게 하는 것이 손을 데 날을려고 생각하였다.

그 당시 사라센 사람들은 재는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용장(勇將) 타리크가 인솔하는 사라센 군대는 서기 七一一年의 반격을 물리치면서 해협을 건너 암산을 점령하고 여기에서 전고한 성채(城寨)를 구축(構築)하였다. 그 후 타리크는 이상안에 총사령부를 두고 회교군(回教軍)을 인솔, 내륙(內陸)으로 진격하여 스페인의 태반을 정복하였던 것이다. 지부랄탈이란 타리크의 바위라는 뜻이다. 그 후부터 사라센 민족은 스페인과 지부랄탈을 七〇〇년 동안이나 통치하였는데 그동안 그들의 교역(交易)과 끊임없는 사람들의 교류(交流) 그리고 고대의 주문지, 함대의 정박지, 요새지(要塞地)로서 이 바위산이 이용되어 왔다. 一四六二년에 이르러 스페인 사람들은 가카스로 회교도(回教徒)를 아프리카로 쫓아 버릴 수가 있었는데 이때 마지막 사라센 사람들은 七〇〇년전 옛날 선조들의 처음으로 발을 디딘 이 지부랄탈 바위산에서 물러간 것이다.

적을 쫓아 버린 스페인 사람들은 七〇〇년만에 이 바위산을 손에 넣은 셈인데 다른 여러나라에서도 이 바위산을 노리고 있었다. 왜냐하면 지부랄탈을 손에 넣는다면 지중해 안에 있는 것은 모두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으로 지부랄탈은 수 없이 공격을 받아 왔다. 스페인은 그것을 잃었다가 다시 찾았고, 또 다시 잃는 역사를 되풀이 하였다. 一七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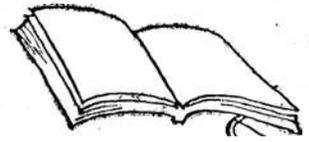
년 지부랄탈은 영국 손에 넘어갔다. 一七七九년에는 불란서와 스페인의 한 패가 되어 주력(主將)으로 그곳을 탈취(奪取)하려 하였으나 四만명의 포위를 한 끝에 그대로 실패하였다. 이 포위에는 五十척 이상의 군함이 바다에서 공격을 가하였는데 四만명의 군대가 육지에서 공격을 하였는데 한꺼번에 四〇〇발이나 되는 포탄이 비부어진 때도 있었다.

지부랄탈을 지키던 영국군은 七〇〇명의 지나지 않았으나 그들의 지는 견고한 암산과 지평선 발을 밟는 많은 대포가 있었다. 영국 수비병(守備兵)들로부터 「뜨거운 감자」라고 불리우던 포탄은 스페인의 선박들을 불태웠으며 탄약고(彈藥庫)를 폭발시켰다. 포위된 지 四년째 되던 해의 평화조약(平和條約)이 체결(締結)되어 지부랄탈은 끝내 영국 땅으로 남게 되었다. 그 때로부터 지세적(地勢)으로서는 확실하게 스페인의 일부라는 사실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이겨서 얻은 이 바위산을 완강하게 유지하고 왔다. 이와같은 사실들은 모두 어렸을 때 학교에서 배웠던 것이며 그 때부터 지부랄탈은 나의 여행 목적지의 하나로 된 것이다. 나는 여기를 찾아본 것을



# 部隊圖書館 運營과 利用에 關하여

손 홍 준



## 目次

- 一, 머릿말
- 二, 部隊圖書館의 機能
- 三, 部隊圖書館의 資料 및 奉仕
- 2, 資料
- 1, 資料運用 및 奉仕
- 四, 圖書館 利用法
- 五, 結語
- 一, 머릿말

공군에서 요구되는 圖書館은 그 설치 목적과 성격으로 보아 三個型 (Type)으로 區分해서 말할 수 있다. 즉 中央圖書館(Central Library), 部隊圖書館(Unit Library) 및 基地圖書館(Base Library)이라서 첫째 中央圖書館은 軍군의 Information Center로서 軍의 運營, 作戰에 必要한 참고 資料를 파악, 선정, 수집하여 보존 運用하며 國內外 각종 資料의 情報蒐集 對外機關과의 자료 교환 및 奉仕, 基地圖書館에 對한 運營 支援을 그 主要인 任무로 하며, 둘째, 部隊圖書館은 부대인부수행을 爲해 必要한 참고 資料를 수집 支援하는 圖書館으로, 부대성

격에 따라 자료 내용이 각각 相異한 特殊性을 갖게 된다. 셋째 基地圖書館은 장병들이 많이 駐屯하게 되는 基地에 설치해서 主要로 장병의 일반교양과 오락을 爲한 資料 支援 및 奉仕를 任무로 한다. 또한 이와 같은 各型(Type)의 圖書館들은 병력수 부대 성격 또는 規模, 地域의 인 배경등으로 圖書館의 規模, 運營 방식 등이 各各 다르게 되며, 二個 또는 三個型이 상호 결합된 圖書館으로도 설치, 運營되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實際에 運營되는 圖書館들은 그 성격상으로도 보아 一個型의 圖書館으로만 말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현재 公군의 圖書館 現황을 概觀하자면 中央圖書館은 一九五七, 十一, 十三 公군대학에 설치되어 當국의 장려한 정책으로 建坪 三四七坪의 현대식 건물과 約三萬卷의 藏서를 갖고 晝夜間 및 全曜日에 걸쳐 公군대학, 公군사관학교를 비롯하여 在京部隊의 所屬 장병들에게 圖書館 奉仕를 실시하고 있으며, 아주 完전치는 못하지만 現대 圖書館의 면모를 갖추고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부대 및 基地圖書館은 數個 설치되어 있지만 시설의 不備, 資料 不足 및 관리자의 경험부족 등으로 사실상 有名無實한 실태라 할 수 있다. 圖書館은 Information Center로서 부대 運營, 작전상의 요구되는 資料 支援 役을 爲한 資料室으로서 교육성과를 높여 주며, 장병의 知的 향상을 爲한 資料 支援 및 奉仕 등은 군의 効率的인 運營과 발전에 必要 不可缺한 사실로서 하루속히 부대 基地圖書館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여야 하겠으며, 아울러 中央圖書館을 보다 충실한 圖

書館으로 만들어 부대 基地圖書館의 支柱로서 効率的인 運營 支援을 기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여기에 부대 基地圖書館을 종합한 型의 圖書館을 부대 圖書館이라 부르기 로 하고 그 기능, 資料 구성, 자료 운영 및 奉仕를 簡略하게 설명하고 圖書館利用을 爲한 참고사항을 말하고자 한다.

## 二, 부대圖書館의 기능

장병들이 圖書館을 利用하는 목적은 圖書館側 입장에서 분석해 보다면 첫째, 당면한 문제 해결을 爲한 조사 및 연구, 둘째, 일반적 교양향상을 爲한 경우, 셋째, 오락(Recreation)을 爲한 경우 등으로 圖書館을 찾게 된다. 이에 대하여 圖書館은 적당한 시설과 適當한 限 限은 요구되는 資料의 準備 및 유능한 專門 職員으로 편성해서 조직적이며 계획적으로 持續적이며 또한 적극적인 運營으로 장병들로 하여 금 圖書館利用의 기회와 편의를 제공 하는 奉仕를 하게 된다. 부대 圖書館의 窮極의 인 목적은 말한 것도 없이 부대의 任무완수로서 單사 目的을 達 成하기 爲한 사업인 것이며, 따라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게 된다.

**첫째, 부대 運營, 작전을 爲한 Information Center** 시간과 正確性이 절실히 요구되는 부대 運營, 작전 當面하게 되는 諸문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하기 爲하여 요구되는 많은 資料를 수집하고 정리 運用하는 활동 을 하게 된다. 장병들이 日常生活 中에서 나 또는 事務上 당면한 문제가 그 解決에 어떤 參考的 資料가 必要할 때 각종 참고 資料를 제공하며 편의와 협조를 하여 주는 奉仕를 한다.

圖冊, 寫眞의 質的向上 爲 爲한 支授 및 補正. 公館의 운영, 作進은 고도의 과학이론과 實在的인 높은 기술면의 교양을 요구하게 된다. 따라서 각종 勸學과 敎育을 실시하여 尤 구되는 勸學과 資質을 향상시키기로 는 것이다. 군사학뿐만 아니라 기술 敎育, 일반敎育을 실시하여, 이에 對 한 科學성과를 높여주며, 兵營生活 中 의 여가를 善用하여 학습 할 수 있는 기회와 편의를 제공하는 補正을 한다.

셋째, 寫眞의 정신무장, 사상善導를 爲한 資料로. 현대전을 가리켜 과학 전이라고 사상. 또는 총력전이라 말 하고 있다. 오늘날 자유, 공산전영이 각각 이념과 사상을 核心으로 분리되 어 집단안전을 爲한 激烈한 투쟁을 전 개하고 있으며, 사상전에 의하여 최후 의 승리를 企圖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군인의 사상 및 精神은 현대 전에서 중요한 목표가 되고 있으며, 군 조지적이고 강력한 정신사업으로 장병의 사상善導와 정신무장을 강화 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신사업의 성공적인 성과 는 圖書館이 갖고 있는 진실적이고 최 근의 時事性을 가진 많은 참고자료로 通해서 세계의 움직임을 알게 하되, 민 주주의 이념, 국가의 시책과 군사부 적들을 올바르게 이해시키고 知覺을 갖게 하여 정확한 판단과 確固不動한 信念을 길러주는 것이다.

넷째, 寫眞의 일반적 교양을 높여 주는 봉사. 本館圖書館은 本館 長의 敎養향상을 爲한 主要한 補正의 機關이다. 圖書館資料를 通해서 人간, 社會 世界의 참다운 眞實을 발견케 하 며, 眞正한 眞實생활과 內面生活를 풍

부케하기 爲해서 많은 資料를 제공해 주며, 能動的이고 積極적인 활동으로서 기회와 편의를 제공하여 준다. 다섯째, 오락을 爲한 資料支授 및 補正. 本館圖書館은 장병들에게 眞正한 취미와 오락을 주기 爲하여 明朗한 소 심을 비릇하여 연극, 영화의 「씨나리 오」, 각종 「스포츠」와 「게임」 등에 關 한 참고자료를 제공하여 독자의 습관 을 길러주며 高尚하고 아름다운 취미 를 갖게 하는 情緒의 인 面에 對한 補 正을 하게 된다.

三、部隊圖書館의 자료 및 봉사

가 부대에 설치되는 部隊圖書館은 本館의 성격, 規模, 規模 및 기타 특수성에 따라 圖書館의 規模와 資料 구성 및 운영방식 등이 각각 多少相 異한 樣相을 갖게 된다. 그러나 窮極 的인 心 算치 목적과 資料의 범위 및 補正의 동일한 것이다. 部隊圖書館의 資料의 종류와 그 운용 및 補正을 簡 略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資料

- (1) 구비해야 할 資料의 종류
  - 가, 일반적 독서자료
    - ㄱ) 소설
    - ㄴ) 비소설
  - 나, 일반적 참고도서
    - ㄱ) 百科事典
    - ㄴ) 辭典
    - ㄷ) 地圖
    - ㄹ) 특수참고도서 (年鑑, 統計 便覽, 案內書, 法令集, 其他)
  - 다, 定期刊行物
    - ㄱ) 新聞
    - ㄴ) 잡지
    - ㄷ) 기타 정부기관 的 刊行物等

라, 군사刊行物
 

- ㄱ) 敎本, 敎範, 論文, 참모전 의서等
- ㄴ) 規程, 便覽, 文書等
- ㄷ) 기타 軍援 및 軍刊行物

마, 특수자료
 

- ㄱ) 視聽覺資料
- ㄷ) 非書籍類의 각종자료등
- ㄷ) 기타

(2) 자료내용
 

- 가, 군의 운영, 작전에 尤구되는 참고자료

나, 장병들의 지적향상을 爲한 군 사기술 및 일반학술자료
 

- 가, 장병들에게 宜한 교양과 樂을 爲한 各種자료

라, 장병들에게 독서, 취미, 오락을 爲한 各種자료
 

- 가, 국내외의 정부기관 的 刊行物
- 나, 각 지방의 郷土資料
- 가, 기타

2. 資料運用 및 補正

- (1) 일반적 운용
  - 가, 館內閱覽
  - 나, 館外貸出
  - 가, 特別勤務者支授
- (2) 특수적 운용
  - 나, 特殊문고
- (3) 참고업무
  - 가, 圖書館利用法, 독서지도
  - 나, 참고자료의 수집, 운용
  - 다, 참고업무
- (4) 대외활동
  - 가, 分館 설치운영
  - 나, 각종전시회 개최
  - 다, 각종전시회 활동
  - ㄱ) 독서회
  - ㄴ) 연극, 토론회, 강연회

5. 선전활동
 

- ㄷ) 음악, 영화, 미술鑑賞會等
- 가, 館報
- 나, 장서목록, 양서소개
- 다, 방송, 신문 또는 各種油印物 的 發刊

四、圖書館利用法

장병들이 圖書館을 효과적으로 利用할 수 있는 방법이란 固 圖書館의 眞正성을 올바르게 知는 事이라 言할 수 있다. 즉 圖書館의 資料 조직 藏書配列, 分類, 目錄카드의 조직 및 이용법, 도서이용법, 圖書館의 諸구 正을 알아야 한다. 이러한 圖書館의 利用법은 圖書館側에서 독자 장병들에게 敎育시켜야 할 明確한 책임이 有하고 보겠으나 더욱 緊要한 事은 長 官 자신들의 독서의 目的과 圖書館 利用에 對한 眞正한 要求가 必要한 事이다. 다음은 장병들이 本館圖書館을 利用하는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참고 事項을 들어 보기로 한다. 가, 圖書館 이용에 留意하여야 할 事項
 

- (1) 도서의 운영방식과 諸구 正을 熟知토록 한다.
  - ㄱ) 靜肅한 태도, 조용한 行爲, 放談 騒音을 내지 말 것.
  - ㄷ) 圖書館 자료에 對한 愛호심을 加질 것. 汚染, 切破, 粉失을 防할 事.
  - (2) 圖書館의 諸현황을 알아야 한다. 資料의 범위, 위치 및 索出等을 알아 둘 것.
  - (3) 문제해결, 必要한 資料의 存 在 否에 對한 確信을 得을 事 有하다.

(日) 館員의 지시에 順應하고 諸干  
정을 잘 履行하여야 한다.

나, 藏書配列

圖書館이 갖고 있는 主제가 자자 相  
異한 많은 도서들은 이용 및 운영의  
편의상 일정한 체계에 따라 記號를 배  
당하여 배열치를 결정짓고 따라서  
같은 主제의 도서를 한곳에 모아 도록  
정리를 하고 있다. 記號는 分類番號  
著者, 書名 및 卷號等의 문자 또는 數  
字 記號가 결합되어 이루어지며 이를  
청구번호(Call Number)라고 한다.  
도서의 배열순은 청구번호에 의해 결  
정되어지는바 그 順位는 첫째, 分類番  
號順으로 저번 수의 분류번호가 앞의  
오게 된다. (例, 三〇一, 四一三  
〇一—三一一)

둘째 동일한 분류번호에서는 著者  
(또는 書名일 경우도 있음: 基本記入  
標目) 記號의 가나다 앞과 尾순 또는 末  
자순으로 결정된다. 셋째, 分類番號  
著者 記號가 모두 같은 경우에는 서명  
의 頭文字 또는 卷號順, 復本일 때는  
受入到着順等으로 배열된다. 다음은  
D.D.C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심신 분류표의 一〇類를 簡略하  
게 紹介하고자 한다. 五〇—五九 圖書館  
이 이 분류표를 사용하며 부대圖書館  
도 이를 채택하고 있다. D.D.C 주요  
날은 세계적으로 널리 보급되어 많은  
圖書館이 채택하고 있어, 他 圖書館을  
이용하는 데도 참고가 될 것이다. 이 분  
류표는 모든 학문을 一〇類로 나누고  
各類는 一〇綱으로 各綱은 一〇  
目으로, 이와 같이 一〇進의 一〇분류  
하고 있다. 그 類와 一〇〇番號의 내  
용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〇〇〇—〇九九 總類

- 一〇〇—一九九 哲學
  - 二〇〇—二九九 宗教
  - 三〇〇—三九九 社會科學
  - 四〇〇—四九九 言語
  - 五〇〇—五九九 自然科學
  - 六〇〇—六九九 應用科學
  - 七〇〇—七九九 藝術 및 娛樂
  - 八〇〇—八九九 文學
  - 九〇〇—九九九 歷史
- 위 표에서 三〇〇—三九九 사회과  
학은 三一一 통계학, 三三〇 정치학,  
三三〇 경제학 등으로 또한 三三二(국  
가정부의 형태) 三三三(국가와 정부의  
본분 및 기능) 三三三(국가의 개연) 등  
는 집단과의 관계)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다, 목록카아드

목록카아드는 圖書館이 갖고 있는  
자료의 索引이라 말한 수 있다. 마치  
도서에 있는 Index와 같이 어떤 도서  
가 있으며 또 그 도서의 위치는 어디  
인지를 알려주는 役割을 한다.  
독자 장별들은 목록카아드를 通해  
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된다.  
첫째, 어떤 著者의 著書가 있는지?  
둘째, 같은 書名 또는 같은 내용의 도  
서가 있는지? 셋째, 어떤 主題의 도서  
들이 얼마만큼 圖書館이 갖고 있는지  
등을 알아 낼 수 있다. 목록카아드函  
에는 三×五 크기의 白色카아드에 청  
구번호, 著者, 書名, 出版事項 등으로 기  
입되어 標目인 著者(編者), 譯者도 包  
含(書名, 原書名, 叢書名, 件名, 主  
題名)이 「가나다」 또는 「알파벳」 順으  
로 順序되어 排列되어 있다. 이 목록카아  
드型을 辭典型型 목록이라 부르는데  
마치 辭典의 單語들이 「가나다」 또는  
「알파벳」 順으로 排列되어 있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이 以外 분류 목록카  
아드가 있다. 이 목록카아드는 분류  
번호순으로 排列되어, 같은 主題의 도  
서들이 한곳에 모여져 一目了然하게  
같은 분야의 도서를 참고할 수 있다.  
장별들은 著者, 譯者 書名을 알고 있  
거나 또는 著者 書名을 모를지라도 件  
名 目錄카아드를 이용해서 쉽게 찾아  
낼 수 있는 것이다. 카아드 左 上端에  
있는 청구번호는 그 도서의 배열 위  
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청구번호만  
을 알면 직접 또는 係員에게 신청해  
서 희망하는 책을 入手할 수 있는 것  
이다.

보기, 목록카아드의 기입내용

청구  
번호

저자성명, 년대

서명, 판수.....

..... 발행지

발행소, 발행년

.....

면수 그림 크기(중서명.....)

五, 結 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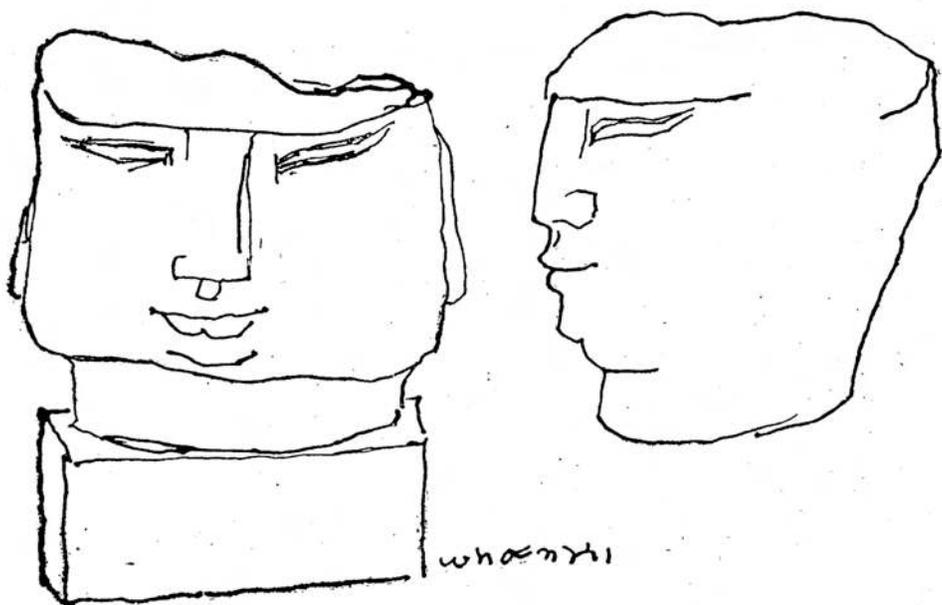
부대圖書館은 부대 또는 基地에 설  
치해서 相當한 시설과 必要한 참고자  
료 및 管理職員으로 健全되어 計劃  
의이며 持續的인 운영으로서 부대의  
운영, 작전과 장병의 生活향상, 일반  
교양 및 오락을 爲한 Information  
Center이며 교육적인 봉사기관인 것  
이다. 가능한 限 많은 장병들에게 圖  
書館을 이용시키기 爲하여 能動的인  
적극적인 활동으로 봉사하고 있다.

귀중한 내 한표가

민주재건 더전 된다

국민투표 계몽표어

더 부대圖書館의 寫極의 人 목적을 요  
약한다면 장병들에게 가능한 限 많은  
진실한 Information을 제공하여 그  
들로 하여금 事物에 대한 정확한 이  
해와 판단을 期하게 하며 生活향상으  
로 말은 바 인무를 效率의 一〇 완수하  
여 최후의 승리를 期하는데 있다 하  
것이다. 이와 같은 사명을 갖게 되는  
부대圖書館은 하루빨리 부대마다 또  
한 基地마다 설치되어 활발한 사업으  
로서 활동 봉사하게 될때 우리 공군  
은 진전한 발전을 期할 수 있는 것이  
다. — 끝 —



書·文  
佛像의 破片

金 燠 基

내 文 匣 위에는 아끼 주먹 만듬이나 한 佛像 얼굴이 놓여져 있다.  
아깝게도 목이 떨어져고 양 귀가 떨어져졌고, 그것은 할 수 없다 치  
더라도 눈 위에 눈섭에서 이마가 완전히 떨어져 나간 두리몽실한 돌  
덩어리와도 같은 그러한 佛像의 얼굴이다.

이 처참하게 된 佛像이 어찌하면 이렇게도 아름다울가. 三年을 한  
자리에 두고 늘 바라보고 있으나 처참한 이 반조각의 얼굴에는 불가  
사의한 미소가 떠들고 있는 것이다.

지금도 新羅千年の 웃음을 바라보며 이 글을 쓰고 있다.

언젠가는 이 얼굴에 對해서 「平和와 美」를 써야 할 책임감을 느끼  
고 있지 만은 이 藝術의 조고만 破片이 이토록 사람에게 감동을 주  
는 것이 무엇인가.

# 낙엽 지는 길

이 동 수  
(205 교제 세대)

1962년 11월 3일  
이렇게 날짜를 쓰는데  
아주 멀리 더 먼 어느 산협  
잃은 양을 찾는 목동의 피리소리 같이  
누군가  
은은히 「누크」하며 부르는 소리  
사뭇 설레이는 가슴에  
창(窓)을 열면  
빈 연병장으로 꽃달이 부서져 내리는 소리……  
당신의 고운 살결같은 낙엽이  
소곳이 소곳이 축복인양 내려  
가난한 내 마음에도 내려서 쌓여  
아 낙엽속에서도 내 가슴 속에서도  
당신의 다정한 속삭임이 들어오는 것 같다.  
천사의 의상들이  
저 많은 누리를 다스리는

이 밤사  
가로등 밑에서 푸른 제복차림으로  
당신을 포옹하고  
우리는 언어를 잊어버린 사슴이라도 좋으리  
마냥 저항없이 바자나고 싶다.  
지금 우리는 간이역에서  
이렇게 가난한 연인들이나  
「시그널」이 없는  
우리 사랑은  
행복이 「레일」처럼 놓여 있는 길……  
지난해 「크리스마스」  
당신이 부처준 이 일기장  
오늘도 나는 당신을 그리며 산언을 적고  
지금쯤 당신은 마리아 상이 있다는 조그만  
「테이블」 앞에 앉아  
또 무슨 이야기를 적고 있을까.

이제 卒業이란 語源은 COMME  
ENOENT의 참뜻을 내 몸소 겪게 되고  
보니 그저 갈게 무량할뿐이다. 이제 부  
터나의生涯는 始作인가 보다. 참고  
도 限없이 1년 歲月—滿四個月星霜을  
헤아리는 生徒生活에 終止符를 적고  
榮譽로운 空軍將校로서 未來의  
軍의 干城으로서 복무할 完全한 人格  
人으로서의 Turning point에 오르게  
된 내 自身을 생각할 때 現在 存在  
를 이룩한 過去가 얼마나 重大한가  
를 다시 생각하지 아니 할수 없다.  
人生七十中 人生의 黃金時代란 青春  
時節인가 한다. 이 青春時節을 不過  
十年이라고 생각할 때 그중의 四年이  
란 歲月이 얼마나 값이 있는 期間일  
까? 가장 Baby할수 있는 思春期나  
青春期의 태반을 딱딱하고 規律이 嚴  
하고 生活이 고된 士官學校란 Catech-  
ory에서 오직 오늘날의 내 自身을 이  
룩했다는 事實을 생각하면 할수록 苦  
盡甘來의 意義를 알았기에 暗示하는  
것 같다. 入學當時의 雄大한 抱负는 無  
限한 蒼空을 마음껏 활개치며 오직 祖  
國의 하늘을 守護하는 하늘의 勇士로



— 卒業을 하면서 —

大尉 許 斗 基  
十戰飛  
一〇二大隊

## 操縱士의 手記

서 내生涯를 바치려는 初志를 貫徹  
하려는 이 참라에 오르게 된 이때 내  
自身의 雙肩에 매여진 責任感과 義務  
感은 보다 크다. 先烈的 피로써 이루어  
어진 空軍의 傳統을 바호로 이어나  
가고 물려줄 수 있는 분기점이란 것  
을 생각할때마다 내 가슴속 깊이 부  
풀어 오르는 젊음이 더욱 昇華한다.

### — 첫 觀音비행을 하면서 —

예로부터 저 푸른 하늘을 날아 보  
려는 것이 하나의 憧憬으로서 未  
은이들의 마음을 이끌었지만 「라  
이트」형제가 이 수수꺼끼를 以後  
부터는 더욱 하늘을 征服하려는 野望  
이 모든 젊은이의 마음속 깊이 일어  
나기 始作한 것은 航空發達史를 通하  
여 알수 있다. 내가 空軍士官學校에 들  
어온 理由도 그들의 하나라고 볼수 있  
다. 지금까지 平面을 相對로 한 二次  
元世界에서 空間을 날이는 三次元世  
界로 突入한 以後부터 人間の 創造力  
에 경이감을 아니 가질수 없다. 과연  
하늘은 젊은이가 살아야만 할 곳이며  
젊은이만이 지니는 靑雲의 理想과 氣  
氣를 爲하여서도 그렇다고 생각한다.  
漸漸 요원해지는 地上과 끝없는 空間  
사이의 自我라는 存在를 認識 할때면  
어쩔지 남모를 喜悅感을 아느낄수  
없다. 내 눈앞에서는 비행기만이 各已  
指示할 뿐 엔진의 고동소리만이 高요  
한 音響을 진동시키고 있다. 이럴 때  
면 혼돈의 音樂家의 境地에 빠지곤 한  
다. 엔진소리를 마치 리듬과 같이 음  
미할 때 마음 한구석에 躍動하는 젊  
음의 맥박이 공명하게 된다. 地上에  
서의 모든 초조감과 공포심은 어디로

안저 깨끗이 사라지고 어찌저 하를 나라에 漸漸 支配할 뿐이다. 眼下에 내리다 보이는 오강도와 같은 地形地物——特別히 산계곡을 구비쳐 흐르는 사형의 강물과 리아스식 海岸線의 多島海는 나의 腦를 수 없는 감명을 뿌리깊이 내 腦裡에 피우어준다. 나의 祖國의 하늘을 마음껏 縱橫 自由로 날게쳐 다니면서 蒼空의 보라매가 된다는 「프라이드」에 내 自身도 모르게 우월감을 갖게 된다. 이것이 곧 젊음이 깃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젊음이 眞正한 眞實한 것을 다 잃어버린 것인가? 젊은이만이 아무런 것으로써도 消化할 수 없는 飢餓을 그들 心中 그 깊은 곳에 고히 간직하고 있지않는가! 마치 八方 끝없이 황폐한 사막의 오와시스의 存在가 아닐 수 없다. 理論과 實際를 結付시키는 이 交叉路上에 오를 나의 心中에는 限없이 넓은 微笑의 波紋까지 일고 있는 듯 한 느낌이 난다. 바야흐로 地上生活로부터 空中生活로 옮기는 분기점에 乘換한 轉기점 歷史의 瞬間이다. 아! 나는 이제부터 하나의 Air Power로써 나의 生涯가 始作되는 일인가! 비상한 자오와 生活의 「모토인」 「뇌함」이 내 腦裡를 스쳐 간다.

——일기 Wing 曹 煥이민조——

操縱士의 상인인 일기 Wing 曹煥은 받은 순간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느끼게 된다. 잘다면 잘고 진다면 진지난 飛行訓練期間이 모든 喜怒哀樂을 가져다 준다. 나의 生涯에 있어

어서 가장 변혁을 준 기간이라고 본다. 바야흐로 병마리가 앞으로부터 부화해서 겨우 걸어 다닐 수 있는 處地에 놓인 나의 立場을 생각할 때 戰鬥操縱士로서의 充分한 소양을 갖추어 있는가를 自問自答해 본다. 양재하는 사람이 數百마리의 닭을 양치는데는 양파의 數百數를 차지 하지 않는 수확도 必要한 것이다. 그 중에서도 그 양계장을 代表하고 이름譽를 걸고 싸우는 양파도 꼭 必要한 것과 같이 空軍을 운영하는데는 數多한 人的 兵力中에서도 小數의 Combat pilot가 空軍의 名譽를 걸고 싸우는 것이다. Combat pilot의 기질을 論해 볼 때 단적으로 오만 장하고 있다. 「Day tiger, Night gentle」이라고 말과 같이 할 때와 할 때의 區分이 必要하나 動中靜靜 靜中動의 矛盾한 自己 스스로의 임무를 遂行하는 것이 상이다. 전투조종사의 氣質이라고 생각한다. 나의 앞으로의 進도를 생각할 때 아울러 무난히 난관을 돌파한 過去를 회고하면 저 앞날의 處世術과 나의 進路에 對해서 確固한 「모토」를 내 세우고 全世界를 살아가는 決心이다. 나폴레옹의 말과 같이 불가능이란 이 세상에는 있을 수 없다. 무엇이든 하면 안될 일이 없음을 認識한다.

——信仰生活를 하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每週마다 教會에 가서 參禮하곤 한다. 教會는 나의 安息處로써 고된 飛行訓練을 끝마치고 위안받는 곳이다. 飛行訓練을 통하여 얻은 信仰生活의 열매나 나에게 참된을 Plus 한지 이루어

말할 수 없다. 大多數 人間의 幸福의 根源은 어떤 主義를 信奉하는데 있다고 「버트란트」 뒷페이지에 말한 바와 같이 믿음 없는 것은 太陽 없는 黑暗의 世界와도 같고, 오아시스 없는 사막과도 같다고 생각한다. 二十世紀에 들어와서 實存思想이 불멸적이 불어닥치고 하우가 어떻게 사르르 뜨거워져 나가고 하여 現代는 不安과 恐怖 絶望 고독 위기의 世界라고 하나 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제심해 항상 편안함을 느끼는 것이다. 마치 잔잔하게 흘러가는 물결이 障礙物에 부딪칠 때 거품이 일어나지만은 그 中心의 물결기가 방해당하지 않을 때 表面에 물결이 일어난다. 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모든 일에 진실되고 의무감에서 일어나오는 자기 희생의 觀念을 가지고자. 애슬레머가서 幸福을 느끼게 되며. 참된 삶의 희열을 느낀다. 참으로 人間은 믿음이 없이는 人生의 가치를 말할 수가 없고 사랑을 가지지 않는 限 自己가 裂분이다. 그러므로 每日 비행이륙한 기도로써 마음의 안일과 안도감을 갖는다. —끝—

<필수> 명상의 百里길



大尉 崔光日 第三〇警報戰隊

K-55에서 수원사까지는 육십리길이며 우리 통근버스가 줄곧 시원스럽게 달려도 오십분이나 걸린다. 이때

스의 단골 손님들은 손에 도시락 혹은 汗巾의 책이라도 들고 애연가의 경우 는 아예 연기로 담배 끝을 놓칠세라 꼭 물고 희색연기를 두는 까들로 부채질 하며 치에 오른다. 좌석은 계급순위로 앞으로부터 저용히 매꾸어지고 차가 K31기 지났을 때나 계속되는 다대여 달리기 시작하면 손님들은 갑자기 승차비(癖)를 나타내는데 매일같이 신문을 보거나 두루한 책을 보는데, 그리고 外交型? 이랄까. 하루 밤새의 특유스름 앞빛차리로 옮겨져 앉아가며 경쾌하고 노는 부지런한 사람도 있다. 혹은 눈물 시중잡고 있는 분과 창밖을 제속 내다보는 등 참으로 천태만상의 性품을 가지고 있으나 생각키우다. 나는 삼개월 전의 K55기 지로 계속되었을 때 왕복 배리의 백분코스를 어떻게 유용하게 보낼 수 없을까 생각했다. 처음에는 신문을 들고 다녔으나 곧 눈이 피로하여져서 고만하고 다음에는 소형트랜지스터를 휴대하고 해서 바를 귀에 끼고 다녔으나 그것도 亦是 堪도가 고르지 않아 신경쇠약에라도 걸릴 것 같아 접어치우고 말았다. 그 후 환자가 좋은 책을 선택하여 읽기도 했더니 과연 왕복에 이십페이지를 지른히 읽을 수 있게 됐다. 한도, 五킬로가량 달려오면 오른쪽으로 세차세차도 세차와 洗馬寮가 있다. 사도세차에 관해서는 모르는데가 없었지만 洗馬寮의 由來는 별로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다. 壬辰倭亂 때의 적에 포위된 우리 군대가 식량과 시수가 떨어져 곤경에 빠져 있었는데, 그때 장수의 명령에 따라 군졸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뜻이 서로 일괄만을 쳐다보면서 산봉우리에 명성을 걸고 그 위에서 몇십 남지

얇은 때리로 하루종일 말잔등을 꼭  
 꺾어서 내렸다고 한다. 벌리수원성  
 (遼八山)에서 바라보면 외척들은 식  
 수조차 얻을수 없는 저산봉에서 하루  
 종일 말을 씻을수 있는 물을 조달할  
 수 있다는 것은 무슨 수가 생겼음이  
 분명하다고 생각하고 그들의 포위  
 가 무모함으로 단정 군사를 퇴시켰  
 다는 전설이 있다. 지금부터 약 칠십  
 년전에 그곳에 기념각이 세워졌으  
 며 우리 10전비 에서도 차량의 지원  
 을한 새로운 名所이다.

차가 불결치는 황금의 비사을  
 헤치며, 병점을 지나면 경부선 철  
 도가 가로질러 지낸다. 때는 일  
 단정지! 이바람에 遠心力으로 상  
 체가 뒤로 재쳐져 있다. 일제히 앞  
 으로 끼떡 전을 한다. 이곳은 약 구년  
 전에 배의명의 사상자를 번 끔직한  
 사고장소로서 유군의 추력이 열차  
 와 속력을 겨누며 달리다가 갑자기  
 서로 맞닿는 진들목에서 열차의 한  
 가운뎃을 드러받았다. 그 아비규환  
 의 수라장! 오십여개의 관(棺)이  
 임시 시제안치소인 천막에 쌓여있던  
 그때의 광경이 이곳을 지날때마다  
 눈에 선하다.

백리길 벌판은 時時로 우리의 감  
 정을 바꾸어 준다. 아침이슬조차도  
 아쉽다는 듯이 창개구리가 갈라진  
 는 바닥에서 할때마다 가늘어지  
 는 달리던 진여름이 이제 갈진만 지금  
 은 그곳에 비사아 불결친다. 밤  
 새도 뭇 빛방울이 들는 것 같드니만  
 자라듯 같이 타진 는바다는 여전하  
 다. 매일과 같이 물푸기에 나선 등  
 부들은 벌판을 밟었지만 하루의 때

양빛이 모두 말려 버리고 만다. 그  
 리면 어느날 저난음이 공개 공개  
 되어올라 이 백리길 하늘을 뒤덮었  
 고 곧 줄기차게 사와가 벌판과 그  
 리고 달리는 차량을 후려갈렸다.  
 비가들이 쳐도 창문을 닫지않고 열  
 마잔 그대로 옷을 적시고 또 얼굴에  
 서 호르지는 물방울을 쏟아 내렸다.  
 마르다 못해 타서 비를 여겨가면 빗때  
 와 길가의 풀그리고 나무잎들 아니  
 그보다도 가늘게 시달리고 별에 그  
 울린 등부들의 얼굴이 더욱 푸르고  
 생기가 풍기는 것 같았다. 史劇調  
 로 표현하여 여조만생이 말끔히 무  
 욕하고 大自然의 위력앞에 묵묵히  
 무는 啓示라도 받는 양 溫順히 洗禮  
 를 받았다. 신문울 보든 이 혹은  
 두들긴 채울보는 사람 모두 움직이  
 든 동작을 멈추고 뚫어지게 창년의  
 의 장관을 지켜본다 무한한 대지에  
 쏟아지는 빗속을 우리는 달렸다.

오늘도 이 적은 人間은! 아니  
 더 작은 계급장을 몇개 붙인 군인으  
 로서의 한 人間은 제각기 작은 사  
 무실에서 혹은 큰 건물에서 또는  
 끝없는 하늘에서 하루의 일과를 마  
 쳤다.

있다. 그 사이에 피부색이 검은 느릿  
 느릿한 GI들이 흰이를 내놓고 손가  
 락 장단을 쳐며 불씩 췌색 지낸다.  
 교양이 세수 하듯 콧잔등만 단장한  
 길가의 양장점에는 마네경이 투히 눈  
 에 떠온다. 이 곳을 쏘고개라고 부르  
 는 데 옛날에 촛을 구이개로 통알려다  
 서 숯고개가 차라 쏘고개로 통하었다  
 는데 지금은 나무는 커녕 쏘고개하도  
 볼수 없다. 배스가 수원행 本道에 나  
 섰다. 날씨가 흐린 날은 별로 박을  
 내다 보지 않는다. 오늘날같이 맑고  
 췌은 듯한 산들의 능선은 하루에  
 두번씩 보는 것이지만 역시 도 바라  
 본다. 저 언덕에 더욱 빛나는 황금  
 의 이삭들은 먹지 않아도 우리의 배를  
 불러 줄 것만 같다. 겸손하게 고개수  
 인 조, 수수 이삭들은 바람에 따라  
 살랑 몸을 흔들고 路旁草는 꽃이 아  
 니냐는듯이 코스모스도 한복 자색  
 분홍색 흰색으로 절절히 수를 놓는다  
 오산읍에 들어서면 쏘고개와는 대조  
 적인 정경을 보게 된다. 국도변의 자  
 리를 잡았지만 벌로 발달을 못한 곳  
 으로 오산읍사무소와 서탄면사무소가  
 곧 눈에 떠온다. 「공군자전사령부 자  
 매부락」이라고 쓴 간판앞에서 고독을  
 즐기는, 몇분 손님이 내린다. 흰두  
 루마기 파나마 모를 쓴 이곳 유지들이  
 두팔을 저으며 활보하면 몇군데 술집  
 技生(接待婦)들이 소매에 배터달리다  
 가 푸른색 우리배스가 가까히 몇오리  
 몇 째는듯 의면을 해버린다. 수원기  
 자가 넓적히 내려다 보이는 곳까지 오  
 면 가끔 Z기의 폭음으로 망상이 깨  
 어진다. 단정한 모습으로 우리비행기  
 들은 내려앉는다. 이 명상의 백리길  
 도 그 終着點이다.

서울市內를 빠져다니는 공문배스  
 단골 손님들은 가히 생각도 못한 정  
 도의 신선한 드라이브 코스를 매일  
 즐기는 것이 꽤 多幸으로 생각된다.  
 이 황금빛의 백리길도 며칠이 지나  
 면 얼얼 비어질것이 아닌가. 그러나  
 적정량은 원한다. 그때쯤엔 또 그녀의  
 옷차림같은 흰눈이 날릴것이고 그리  
 면 이 명상의 백리길을 따라 또 하나  
 의 신선한 세계가 우리에게 펼쳐질  
 것이 아니라.

<필수> 中古品  
 下士 李 丙 世  
 (一〇七基地團)



商街에 득실거리는 商人들의 商  
 語에 中古品이라던 값은 半切은 勿論  
 三分之一以下로 잡아 버리기가 보통이  
 요 더우기 놀랄만한 사실은 거의 신  
 품에 가까운 것을 방금 샀다가도 물  
 아서서 팔려면 半額을 주지 않았을듯  
 받게 마련이란 것이다. 또 사는 사람  
 도 역시 中古品이란 사실을 알면 뵈  
 이 높고 값을 깎아 사자고 덤비가 일  
 수요 또 의당 절반 값에 사는 것으로  
 상식화 되고 있다. 이렇게 中古品이  
 存在在가치가 완전히 시세복락이다.  
 몇% 中古品이냐고 묻는다. 七, 八  
 ○% 라면 배불에 가깝고 一, 三〇%  
 라면 그래도 쓸모가 있는 것을 말한  
 다. 이렇게 指數에 따라 숫자가 낮으

想 念

일병 김 동 읍

꿈을 만지던  
감미로운 임의 감각이 온다

호반에 한떨기 수선  
평생을 곁게 삼기  
파문 이어  
고요 해라

타오르는 정열을 점으면서  
조용히 감추어  
수줍은 사연

이슬이 양광에 빛나면  
운하(雲霞)는 세월을 감고  
어여쁜 하늘을 피운다

편 낫을 수록 가치가 없다는 것이 고  
높으면 높을수록 효용가치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中古品이란 신품  
과 폐품의 中間的 위치에서 효용가  
치를 추정하는 매개라고나 할가?  
高等學校 二學年때인가 보다. 어  
느노점에서 우연히 손볼잡이를 산  
것이 지금까지 소유하고 있다는 사  
실이 어쩌면 꼭 남의 일같이 그리  
타락스럽지 않은 사실이다. 실은  
그때 그렇게도 아쉬워서 산 것도  
아닌데 지금 와서 언제쯤 버리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한 것도 아닌지만  
八年이 지난 지금까지 잊는다는 남  
을 데로 남고 폐기가 벗겨져서 시커멓  
게 녹이 쓸도록 下衣포켓트에서 한  
시도 떠나지 않고 줄곧 보관하고  
있는 사실에 자신이 꽤 미련하다  
고 다루지게 될지도 해 보지만

한번쯤 내면적이고 관능으로 잘아치  
워보자는 의욕도 없었으니 그럴수  
밖에 없다. 또 뚜렷한 애착이나 부  
로 부터 유산울 죽는 날까지 지  
내야 할 무슨 특별한 목적도 있는  
것도 아니며 그렇다고 내 성격이  
셋님모양 물건에 대한 애착심이 남  
보다 강한 것도 더욱 아니지만 한  
번도 있어 버리지 않고 지니고 있  
고 또 언제쯤 버려야 할런지 예후  
울 불허한다. 이것은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중에 거의  
全部分해도 과잉이 아닐만큼 남  
아한 中古品들이 내 주위에 산  
재해 있다. 일생에 단 한번 맛  
취하는 양복을 비롯해서 구두가  
방시계등등이 모두가 古物에 가  
까운 中古品이다. 얼마전 S 군으로  
부터 中古品 라디오 한대를 가져온

일이 있다. 이것도 주지 않으려는  
것을 싸움 싸움해서 불과 몇백원  
에 낙찰이되어 내 소유가 된 것인데  
불과 한달도 못되어 고장이다. 얼  
마후 안일이지만 무슨 부속인가 조  
그마한 것이 과열로 타버리고 또 정  
공관이 연쇄반응으로 모조리 못쓰게  
되었다는 것이다. 전기공학도에 제  
자라도 될수 없는 완전 폐품이 되  
어 버렸다. 이와 같이 中古品은 사  
고도 많은 벌이다.  
그렇다면 물건 中古品은 고사하  
고라도 身體 中古品은 이에 못지않  
게 큰 타격이다. 軍醫官의 진단에  
의하면 高級病이라 한다. 남 모르는  
身體的 결합으로 苦心하는 身體的  
中古品 말이다. 약이 입에서 떨어질  
날이 없고 파도나 지나친 神經소모  
로 自己모르는 사이에 健康體를 상  
실해 놓고 그속에서 투하고 있다.  
여기서 가장 重要한 것이 마음의  
中古品이 되어선 큰일이다. 비단自  
身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소  
유하고 있는 물질적, 身體的 中  
古品이 우리 주위에 산재해 있다.  
그러나 정신만은 中古品이 되어 녹  
쓸고 부패되지 않게 주의해서 살아가  
십시오. 있는 것을 자랑으로 삼아 야  
되지 않을까? 健全한 精神을 所  
有한다는 깊은 信念이 영 남의 일  
같이 되어버린 不治의 惡性질환의  
슬픈 경교가 他人으로부터 받지 말  
아야 할 것이 아닐가? 우리가 입고  
있는 軍服이 낡아빠지고 기름 투성  
이라도 좋다. 군화의 뒷굽이 다 닳  
아도 좋고 모자가 퇴색되어 원형의  
남선한 모습의 없어도 좋으니:

古 今 笑 談

눈물이라 하겠습니까

平安監司가 吏房의 의견을 떠보느라고 어느날  
대동장으로 끌고 나가서 물에 떠있는 오리를 보고  
「저 오리는 십리물 가든지 백리를 가든지 언제나  
오리라고만 하니 무슨이치인가?」하고 물으니  
「할미새는 어제 나도 할미새 오늘 나도 할미새라  
하니 그 이치는 무엇입니까?」  
하고 이방은 반문한다.  
감사는 이거 맹랑한 놈이라고 생각하고서

「그럼 새 장구는 다 헤어져도 새장구라하니 그진  
무슨 이치겠는가?」  
「그러면 사또께서는 북(鼓)은 동에 있으나 서에있  
으나 항상 북이라고만 하는 이치를 아시겠습니까?」  
「창(槍)으로 창(窓)을 찌르면 그 구멍을 창(槍)구  
멍이라 하겠습니까? 창(窓)구멍이라 하겠습니까?」  
이방은 지저않고 또 감사를 쳐다보면서  
「그러면 눈 오는 날에 눈(雪)이 눈(眼)속에 들어  
가 눈(眼)물을 흘리니 그것을 눈(雪)물이라 하겠습  
니까? 눈(眼)물이라 하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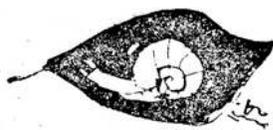
# 近思錄三題

趙演鉉

★文藝評論家

## 1. 바둑과人格

近者에 와서 莊院이 많이 생겼다. 바둑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證據인 것이다. 孔子께서도 바둑을 두는 것을 無爲徒食하는 것보다는 좋게 말한 것을 보면 바둑이 雜技에 屬하는 娛樂의 一種이기는 하지만 그다지 나쁜 것은 아닌 것 같다. 바둑을 神仙의 노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으나 健康을 害치고 時間을 浪費케 하는 점에



있어서는 分明히 有害한 雜技의 하나이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健康을 傷하지 않고 時間을 浪費하지 않는 程度의 바둑놀이는 좋은 社交的 娛樂이 된다 해도 無妨할 것이다.

○ 옛날 말에 바둑의 재능을 痴才라고 한 것이 있었다. 이것은 바둑의 재능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것은 人生的 社會의 力量과는 아무 相關이 없다는 뜻에서였을 것이다. 사실 人生에 對한 知能은 거의 白痴에 가까우면서도 바둑만은 잘 두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바둑의 재능이 아무리 天才일런지는 모르나 바둑을 두어 보면 그 사람의 人間의 性格의 特性이 露見되기도 한다. 恒常 攻擊的 戰法을 使用한다든지 守勢의 姿勢를 固守한다든지 또는 相對方의 失手를 期待하는 幸을 바라다든지 패를 잘 利用해서 得을 본다지 하는 方法이나 戰法이 모두 그 사람의 平素의 人間的 性格의 特性과 全히 無關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그것이다.

○ 우리가 社會生活을 하는 때 있어 그 目的이 成功에 있는 것과 같이 바둑의 目的도 勝利에 있는 것이라면 成功이나 勝利를 爲해서 必要한 方法을 다 강구해 보는 것은 반드시 그릇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人間生活의 目的은 成功에 있다기 보다는 幸福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바둑의 目的도 勝利보다 是. 成功이나, 勝利는 幸福이나, 즐거움을 얻기 爲한 方法이지 그 自體가 目的은 아닌 것은 아닐까. 恒常 守勢의 이면서도 잘 두

는 바둑이 있다. 相對方의 失手를 조금도 期待하지 않는 바둑이 있다. 이를테면 詰將도 깨끗한 바둑의 戰法이라는 것이 있다. 그런 사람과 바둑을 두면 이편이 아무리 敗戰해도 不快하지 않다. 세상 사는 方法에도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닐까.

## 2. 新聞倫理學

얼마전의 新聞에 七十년 노인이 車속에서 소매치기를 하려다가 경찰에 連行되었다는 기사가 있었다. 그 며칠전인가, 후인가는 확실하지 않지만 六十년 노파가 남의 차마인이 저고리인가를 훔쳤다는 기사가 보도된 일이 있었다.

역이은 이 두개의 기사를 읽고 나는 뭔가 불쾌했다. 불쾌한 이유는 간단했다. 이것을 무엇 때문에 보도했을까? 이는 新聞에 대한 불만에서였다. 며칠뒤에 七十노인의 소매치기 사건은 소매치기가 아니라 중풍으로 남의 호주머니 근처에 그 노인의 손이 닿았을 뿐이라는 정정 기사가 났었다. 나는 더 우물췈했다. 이 정정 기사를 읽지 못한 사람은 (신문기사란 반드시 읽혀지는 것은 아니다) 그 전날의 기사만이 머리에 남아 있을 것이다.

신문이 전기한 두 사건을 기사로 보도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 두 사건은 신문에 보도 되어야 할 만치 중대한 사건이었을까. 이 두 사건은 일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진만한 전기한 사건이었을까. 이 두 기사는 그것 이외에 보도됨으로써 특별한 사회적 교육적 의미를 갖는 것이었을까. 내가 보기에는 이 두 사건은 이상의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지극히 적은 사건이다. 이보

다 훨씬 더 중대하고 신기하고 의의 있는 사건은 허다했을 것이다. 하필이면 상습적인 절도도 아닌 年老한 황혼기에 처해 있는 不幸한 老人의 사건을 그렇게 냉혹하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

허위기사가 아니면, 신문윤리요강에는 저촉되지 않을는지 모른다. 그러나 사실 보도라 해서 그것이 신문의 책임은 다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 아닐까. 신문의 윤리가 문제되는 것은 허위 사실 따위보다는 좀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닐까. 허위 사실은 윤리적 문제이기 보다는 법적 문제요 구되는 것은 사실보다는 사실의 의미이며 사실의 의미보다는 그 影響이 어떻게, 자신이 끼치는 影響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신문은 公的인 意味을 버리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닐까.

## 3. 交通社會學

아침 저녁의 출퇴근시간에 시민들이 이용하는 교통방식은 여러가지다. 첫째는 步行派, 거리의 遠近을 불고 하고 걸어다니는 사람들. 둘째는 電車派, 여기에는 배스를 이용하는 사람까지 포함한다. 셋째는 合乘派, 넷째는 自用派. 이밖에 또 하나의 類型이 있다. 적당한 명칭이 생각나지 않음으로 우선 流動派라고나 해 둘까. 때로는 걷기도 하고 배로도, 電車나 배스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대체로는 合乘派에 가담하나 배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이 流動派이다. 步行派나 電車派는 대개 한결같다. 그들이 合乘派나 自用派로 發展하

는 일은 드물다. 自家用派는 곧 合乘派로 轉落하기도 한다. 이보다 더變化가 많은 것은 合乘派이다. 그들은 步行派나 電車派로 轉換되기도 하고 自家用派로 飛躍하기도 한다. 그러나 가장變化가 많은 것은 流動派이다. 이들이 自家用派로 飛躍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合乘을 이용하는 정도로는 택시도 곧잘 이용한다. 그렇다고 그들이 늘 合乘이나 택시를 利用하느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니다. 어떤 때는 電車나 버스의 신세를 지며 때로는 五圓이 없어 步行派가 되기도 한다. 步行派나 電車派는 合乘派나 自家用派보다는 勿論 경제적 수단이 나 능력이 낮은 階層의 자라 그들의 固定된 교통수단은 그들의 생활의 안정을 보여주는 것 같고 그들보다 경제적 능력이나 수준이 높은 合乘派나 自家用派의變化는 오히려 그들의 생활의 불안이나 타내 보여주는 것 같다. 특히 변화무쌍한 流動派에 속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때 그때의 하루 살이나 사일이나 없는데 그때의 하루 살이나 사일은 안한 생활속에 있는 것은 아닐까. 생활이 가장 안정되어 있지 않기에 때문에 그것이 變化무쌍한 교통수단으로 나타나는 것일까. 그들의 교통수단이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그들의 생활도 안정되어 있지 않은 것일까. 交通社會學이라는學問이 있다면 꼭 재미있는學問이 될 것 같다.

X X X  
X X X  
X X X

### 步 道

池 明 觀  
△서울大文理大講師△  
아침 저녁이제는



왔거나하고 合乘에 기대어 다행한 눈초리로 거리를 내다본다. 步道에는 사람들이 물걸치고 車道에는 차가 도한 홍수사태다. 나는 틀림없이 도시에 사느냐 하는 느낌으로 그래도 인간 그 리운 다음으로 거리를 바라다 본다.

하바드大學에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하나 전해지고 있다고 한다. 六·二五전 그러니까 十一年 전에 산파야나 (Santrayan) 教授에 관한 잊지 못할 에피소드를 하나 읽었다. 하바드大學 졸업반을 위한 마지막 강의의 시간이었다. 학생들은 다시 듣지 못할 말을 장식하고 있었다. 그때 문득 교수는 창 넘어 화장한 봄을 바라보고 아 참 내가 五月의 여왕과 오늘 오후 달날 약속을 잊었었군 하고는 당황한 듯이 종종 걸음으로 교실을 나가 버렸다 고 한다. 그 강의를 미완성으로 남았어. 그러나 그것은 그 지없는 아를 다운 이야기로 하바드에 오늘날 들려오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그 후 자연과 역사가 그리워 유령으로 돌아가 생애를 끝마쳤다.

보도물 때우고 지나가는 人波들을 보면서 다시금 삭막한 도시라는 느낌을

## 連 載 元 先生 見 聞 記 (1)

桂 文 樹

### ◇ 自己 紹介

나는 이제 겨우 백살을 지난 어린이다. 그러나 나를 사람들의 어린아이처럼 칭부지 하다고 생각해서는 잘못이다. 사람들의 理性은 後天의 으로 成長한다지만 우리는 先天的으로 날 때부터 소견이 다 갖추어져 있다. 나는 손도 없고 발도 없다. 그러면서도 나의 걸음은 평창히 빠르다. 경우에 따라서는 하루에 서울 부산 간을 왕복할 때도 있다.

손은 없지만 사람이 움직일 수 없는 물건을 마음대로 움직일 힘을 가지고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사람의 마음도 다루움직이게 한다. 나는 힘이 없다. 그러면서도 나는 말의 상의 말을 하고 있다. 사람은 누구나 내 말을 들어야 하고 듣지 않는 자도 간혹은 있지만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二十世紀의 英雄이라 하기도 한다. 우리의 가장 특징은 性別이 없다는 것이다. 男女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은 人間들의 생활처럼 복잡하지는 않다. 사람들은 이性別 때문에 여러가지 추태를 연출하지만 우리 사회엔 그런 것이 없다. 물론 赤線地帶니 하는 그러한 과장한地域을 설정할 필요는 아예 없다.

우리는 성별이 없으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무서운 繁殖을 가지고 있다. 그 繁殖은 도저히 사람의 그것과 類가 아니다.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절저한 家族計劃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의 家族計劃은 사람들의 그것보다 몇십배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한다. 이것이 실패하면 우리는 멸종한 비운을 벗어나기 어렵다. 우리의 先代가 멸종한 것도 그 원인의 가장 중요한 하나가 가족 계획의 실패였다. 우리는 생기 발달 모든 구약을 일소하고 새나라 새 세대를 구가 제전을 위하여 이번 세대로 세상에 태어났다. 때문에 우리의 意氣는 神天하며 우리의 힘은 우리의 先代 할아버지에 비해 十배로 늘어났다. 우리의 힘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이며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힘이 세다고 알려져 있는 그 어느 것과 맞설 힘을 배양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알아 두어야 할 것은 우리의 힘은 우리의 繁殖率과 反比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우리의 人口가 늘어나면 그만큼 힘이 줄어든다는 하나의 法則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三개 항목의 行動綱領을 가지고 있다. 이 강령은 우리의 鐵則이며 生命이다.

을 되짚는다. 모두 五月의 여왕과 만  
남 꿈 많은 약속들을 잊어버리고 절어  
가고만 있다. 주위에 아름다운 田園  
이 없다는 것은 마음속에서도 소박한  
그 자연의 사라져 버렸다는 것을 의  
미한다. 현대인은 분명히 自然을 상  
실하였다. 모두 물아갈 고향을 잃어  
버린 듯 각박하기만 하다. 처음 도시로  
찾아들어 올 때는 고향으로 돌아갈 양  
달의 꿈이 영롱하였을런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금은 꿈꾸던 장자를 뒤어잡  
고도 모두의 도시를 떠나려고 하지  
않는다. 누구나 아늑한 가정을 버린  
고나온 몸을 버린 소년처럼 절망하  
는 초리로 이 거리의에서 오늘의 삼만을  
추구한다.

봄이면 소녀들은 진달래된 산으로  
나를 데려가 도란도란 피어 오르는 이  
야기의 날이 저주는 것도 있어 버린다.  
소년들은 비틀비틀의 물고 도란의  
서고기를 쫓는다. 학교에서 돌아오  
면 이 린이들도 시간을 잊어버리고 산  
마루에서 짓구진 노리의 정신을 잃는  
다. 모래사장 포푸라 나무 위에 걸린  
여름에는 긴기만하여 시냇물 가에서  
즐거는 하루는 나무나 지루하다. 가  
을이면 밤나무 밑을 되돌고 있는 나리  
는 新作路 眞은 이름 모를 나무로 가  
는 듯 아득하였다. 온물 아랫물에서  
화롯가에 둘러앉아 온 고구마를 먹으  
며 할머니 옛 이야기의 귀를 기울이  
면 꿀달걀 모르든 밤이 이제 한창이  
다. 이러한 낭만도 이제는 우리에게  
서 지나갔다. 오늘날의 田園은 내일  
의 도시를 의미할런지 모른다. 그 구  
워한 속의 도시가 심한 공격을 가하  
고 있다. 도시는 전원을 추방한 곳이  
라던 전원은 도시를 영접하면는 땅이

라고 할런지도 모른다.

현대문명은 도시문명이다. 현대문  
명이 명물었다는 것은 그것이 각박한  
도시의 소산이기 때문이다. 도시문명  
의 지친 물결속에 자연과 천지의 자  
릿을 잃어가고 있다. 지난 세기의 자  
연과 전원을 노래하면 시절도 이제는  
배말라가고 있다. 自然에 대한 즐거움  
노래를 잃어버린 자 인간에 대한 환희  
의 노래도 사라지게 되었다. 오늘날의  
노래는 도시 인간들이 몸부림치는 노  
래다. 영웅은 호느껴우는 노래다. 田  
園의 고요와 아늑함이 없고 都市의 소  
란과 잡담만이 있다. 저급 자기 지행  
계 사람들과 물결을 헤치고 앞을 다  
루며 걸어가는 사람들이 현대 문명의  
바탕이다. 서로 미소지을 줄 모르고  
서로 다정하게 이야기할 줄 모르는  
群衆들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참이런  
고독한 것이라고 말한다. 저렇게 많  
은 사람들이 자기와 이야기를 나  
눌 사람이 없다는 말이다. 그들은 불  
안하다고 말한다. 나를 반겨주거나  
물어겨주거나 나를 붙잡아 줄 수 있는  
인간도 사물도 없다는 말이다. 참에  
는 아무런 의도도 없다고 말한다. 이  
렇게 이익을 찾아 헤매다 죽으면 그  
만이란는 것이다. 이리하고 현대문명  
은 방황하는 영혼처럼 방황하고 있다.  
슈바이처(Schweitzer)가 자기가지  
어린 시절의 아름다운 추억을 지니고  
있다. 아홉살 때 물스터의 實業中學  
校에 입학하자 그는 아침 저녁 산을  
따라 트리로 가랑의 길을 왕복하여야  
만 되었다. 그는 혼자 생각에 잠기면  
서 그 길을 걸어 다닐 때 호젓한 기쁨  
이 사르르 잡힌 듯 하였다. 가을, 겨울,  
봄, 여름 모두 참으로 말할 수 없는

### I, 不變不動

### II, 不遇不黨

### III, 無差無別

나는 아예 사람들의 교활성을 이리  
니 저리니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우  
리의 행동과 행위를 소개하자니 자연 사  
람들의 흉담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한때 한국 사회에는 面從腹背라는 말  
이 있었다. 權勢앞에서는 표면하고 金  
力앞에서는 응적며 志操와 義理를 물  
리지 않는 그러한 人間들은 革命을  
치를 오늘날에도 많다. 우리는 그러  
한 것을 전연 모른다. 우리는 어느 때  
이 동일함을 잃지 않는다.

우리는 또 우리의 본분을 지키고 우  
리의 使命을 완수함에 충실한 분이더  
어느黨이나 어느 개인을 위하여는 절  
대로 응적이지 않는다. 人間들은 그  
러한 사람들이 많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을 멸시하는 것이지만 그러한 사  
람은 최후에 가서는 망한다는 것을 우  
리는 또 잘 알고 있다.  
우리는 또한 사람의 차별이나 구별  
을 두지 않는다. 우리가 지키는 本分  
과 우리가 수행하는 使命은 어느 때  
어느 곳에서 그 누구에게도 추호의 다  
름이 없다. 아카도 말했지만 사람들은  
은상대방의 인적, 지식, 지위, 재력  
등 신분의 차이에 따라서 스스로의 작  
도를 골라선 변동하지만 우리는 그저 평  
안삼하되 스스로의 가치를 깎아 내리  
는 부인적자는 아니다.  
우리가 잔혹 때와 장소에 따라 變  
動하는 것 같고 變派의 인 것 같고 差  
別을 두는 것 같아 보이는 것은 사람  
들이 우리를 대할 때 도에서 일어나는  
現象이지 결코 우리의 本質의 變動하

는 것이 아님을 사람들은 깊이 깨달  
아야 할 것이다. 사람들은 일찍하면 돈  
이 원수다. 돈이 사람을 죽이고 살리  
고 한다. 『그놈의 돈 때문에...』 하고  
우리를 모욕하는 언사를 할 부러 지  
리지만 이것은 사람들이 자기 잘  
못은 모르고 그 책임을 우리에게 전  
가하는 사람이 가지는 가장 나쁜 버  
릇이다. 국가제전에 매진하고 있는 국  
민이라면 이것은 책임전가하는 버릇  
은 한시 사 때 청산해야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 추앙을 받는다.  
그리스트는 일찍이 이런 말을 했다.  
『나를 따르든 자는 후할 것이요 나  
를 따르지 않는 자는 망할 것이다』라  
고. 이것이 어느 정도 사실인지를 나  
는 모른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하  
고 싶다. 『나를 아끼는 자는 잘 살 것  
이요. 나를 무대접하는 자는 못 살 것  
이다』라고 이것은 크리스트의 말보  
다 훨씬 確率이 높다는 사실을 다짐  
해 본다.

나는 身分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은 세상천지를 환복한다.  
나에게는 禁止區域이라는 것이 없다.  
特級禁止區域도 나에게는 自由의 地  
역이다. 그러나 나는 秘密를 지킨다.  
이러한 權力者도 나에게서 이 비밀을  
말하게끔 하는 힘은 없다.  
『사람은 문질 『이것은 비밀이다』』  
하는 말까지 해가며 비밀을 말한다.  
그래서 방대한 비유와 방대한 인연의  
방설에 동원된다. 하지만 우리에게  
아래 그러한 방설은 동이 나 방설기관  
파워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름하든 내가 호적등본이니 기류  
조본이니 신분증이니 그밖에 그 번잡  
스러운 수속 절차를 밟지 않아도 讀者

아름다운 것이었다고 그는 기록하고 있다. 그는 시도 쓰려고 하였도 그렇도 그럭저럭 하고 하였다. 그러나 그것이 실패로 돌아가자 다만 아름다운 눈으로만 즐기고 때때로 즉흥적인 음악으로 감정을 나타내곤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一八八五年 상·알사스 물라우겐에 있는 중학교로 전학하기로 결심되었을 때 그는 그곳을 떠나 아는 자기 운명을 생각하고 몇시간이고 남모르게 울었다. 그는 후에 「그것은 마치 누가 나를 자신의 품에서 빼앗아 가는 것처럼 생각되었다」라고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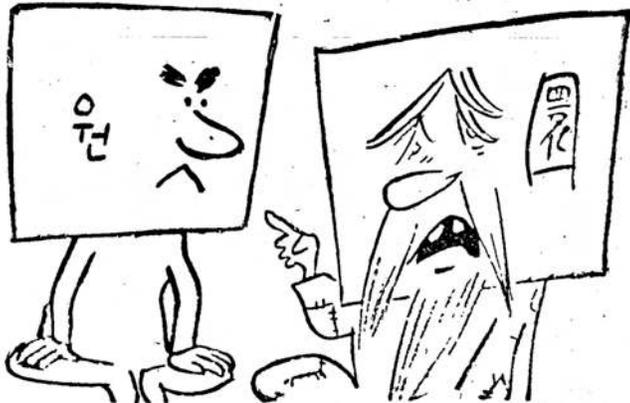
슈바이처의 사상에서는 피테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연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이 물결치고 있다. 그것이 그의 풍부한 인간을 형성하고 있다. 거기에서 그의 인간에 대한 사랑도 시발점을 가진다. 생명 있는 것을 무엇이나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보존하고 무한한 발전으로 이끌어가는 그의 윤리가 여기에서 비롯한다. 이러한 그의 아 프리카의 自然, 그 原始林으로 갔다. 그 자연으로 갔다는 것은 그곳 인간으로 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흑인들의 고뇌에 대한 共感은 그 심비스카 原始林에 대한 심비적인 共感과 배어 놓을 수 없다. 자연 속에서 시작하고 자라난 그의 인간과 사상 그리고 예술은 오늘날도 무한한 자연 속에서 장엄한 것으로 심화되고 있다. 여기 그의 삶과 사상은 오늘날의 퇴폐한 都市文明의 挑戰하고 있다. 그것은 문명의 현대인의 잃어버린 본향에 자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현대를 넘는 방향을 지시하고 있다. 이러한 마담의 저 그는 都市에서

연세 위대한 理念, 위대한 思想이 산출된 적이 있으나도 절규한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뜨거운 날씨에 부풀어 오르는 아스팔트 위를 피할 수 없는 宿命처럼 걸이고 있다. 저고 충진물 그리고 저 사람과 자동차의 물질을 떠날 수 없다. 그것만이 우리를 삶의 타전이라고 떠나는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는다. 현대 문명은 더욱 기계적으로 다름박친다. 조 직만이 농민의 진이라고 전원의 산만을 배척한다. 경제조직 정치조직, 이 모든 것을 떠난다는 것은 사멸을 의미하게끔 되었다. 이것은 카인이 아벨을 죽이고 인류를 자연속에서 인간 문명속으로 인도하기 시작한 다음부터 인류가 지닌 불가피한 운명이다. 인간의 행복을 위한 불행한 진리다. 그 진리를 가지 않을 수 없으면서도 그 진로가서는 안되는 것이다. 오늘날의 문제는 이러한 현대화의 과정에서 잃어버린 自然 그것에 대한 사랑 그 위에 자리하였던 아름다운 인간정신과 휴머니티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데 있다. 거기에 피어났던 理想의 꽃 소망에 가득찬 꿈 그리고 古典主義時代가 수놓았던 모든 아름다운 영상이 그대로 사라지게 내버려두어도 될까 하는 것이다.

자연은 인간의 바탕이다. 오늘날의 처절한 상태가 바로 그것 없이는 인간이 존립할 마당이 없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아벨은 죽었지만 인간의 끝없는 동경으로 되살아나곤 하여야 한다. 역사는 카인의 죄를 걸어왔지만 카인은 언제나 저주할 것으로 있었다. 아벨은 죽고 있었지만 어느 때고 인간과 더불어 있었고 카인의 역

는 내가 무엇이든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잘 안 것이므로 自己紹介는 이름 해서 끝맺기로 한다.  
다음 몇가지 見聞記를 소개하기로 한다.



상풍과는 이루 말할 수 없다. 바이어 란 드. 뢰벤이 아흔네살이지만 인생의 구석구석을 나만치 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내가 이 세상에 해별을 처음 보던 날 즉, 지난 六月十二일은 행창구에서 밖에서 물이 오는 先代 할아버지를 처음 만났다. 할아버지는 늙어서 전신의 피부가 주름살로 파 차있었고 世波에 시달리워서 氣力이 많이 못되었

다.  
「할아버지 오래동안 수고가 많았읍니다」  
하고 인사를 했더니  
「유네가 이번의 우리의 代를 이어 줄 자손이구나. 그때 우리는 이제 늙고 병들어 쓸 모가 없어졌으니 너희들에게 代를 물리게 됐다. 부디 양심과 의리와 본분을 지켜 맡은 바 사명을 수행해 주기 바란다」  
하며 이별의 눈물을 지었다.

「할아버지, 세상에 나가는 저의 들에게 꼭히 하고 싶은 유언이라도 있으시면 저의 들을 위해서 한마디 말씀해 주세요」  
「물세, 하고픈 말이 어디 한 두 가지 라야지. 허지만 내가 모처럼 가록한 말을 하니 한가지만 유언을 하겠다. 내가 이 은행 창구를 나서면 죽자 알개 될지라도 너는 이 세상에 나가면 무서운 힘을 가지고 인간들을 지배할 것이다. 이러한 너의 권력은 거의 절대적이니 절대로 그 권력을 남용하지 말라는 말을 남기고 싶다. 지금 세상은 세 나라를 건설하느라고 모두들 긴장되어 있다. 우리가 이렇게 쫓겨들이 오는

第一話 할아버지의 유언

원래 타고난 四柱가 세상을 물고도는八字인 지라 이제 겨우 百날을 지낸 어린 몸이지만 간간 내가 겪은 세

# 구경꾼이온

宋相 庸

★韓國유미니스트協會幹事

사를 심판하고 있었다. 오늘날 自然을 떠난 인간의 역사는 제권을 가지 않을 수 없다. 저 자연의 구성구석까지 제물런지도 모른다. 그때도 그속에 自然과 人間의 아름다움 그것위에 선 인간의 고귀한 정신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점은 연기속에서나마 인간성을 지키고 理想과 人道를 지행하는 아벨이어야 한다. 그 조직, 그 경제 그 정치속에서도 자연을 즐기고 인정을 보살피는 아름다운 마음씨의 교류가 맑은 한물기 물로 흘러야 한다.

다시금 도시의 거리를 내려본다. 나와는 관계 없는 저들이지만 그때도 이 순간이 공간에서 동일한 인간의 운명속에서 각자 스스로의 운명을 지닌 채 허덕이고 있다는 공감 그러한 사실에서 오는 운명적인 유대해 감적한 것 같다. 너무나 좁은 도시다. 車道는 넓혀면서도 저 人道, 저 步道를 넓힐 줄은 모르는 것인가. 가로수 우거진 차도보다도 넓은 보도에서 自然속의 명상과 꿈을 즐긴 수 있는 구상은 불가능할 것인가. 나무 그늘에 쉼을 부르는 관상쟁이가 있어도 좋겠고 차를 마실 수 있는 의자, 쉼드워치를 들 수 있는 식탁이 있어도 좋겠다. 아저 좁은 보도에서 쫓겨다니는 行商들 車道에서만 교통사고가 있는 것이 아니라 人道에서도 교통사고가 있다. 이 도시에 좀더 自然이 물결쳐야 하겠다. 도시의 병들은 정신을 고쳐기 위하여서도.

X X X X X

화학에 구경꾼이온이란 말이 있다. 염산(HCl)과 가성소다(NaOH)를 중화(中和)시키면 소금물이 되는데 이때 하이드로클로릭산(HCl)과 수산화이온(OH-)은 반응하여 물이 되나 나트륨이온(Na+)과 염소이온(Cl-)은 반응에 관여하지 않고 그대로 있기 때문에 불변된 채미있는 이물이다. 적절한 비유(比喩)가 될는지 모르나 인간사회에서도 구경꾼이온은 도처에 널려 있는 것 같다. 무슨 일이 있을 때 실컷 그 속으로 뛰어 들어가려 하지도 않고 가만히 구경만하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부류(部類)에 넣을 수 있을 것이다. 일갓보아서 이들 구경꾼은 무해부인(無害無益)한 존재 같지만 사실은 해로운 존재일 경우가 더 많다. 하기가 아무 일이나 전후와우가 되지도 않고 뛰어드는 것도 곤란한 일이라는 하. 오히려 국으로 구경이나 하고 있는 것이 부조(扶助)가 될 때도 있다. 다시 말하면 경우에 따라서 구경꾼이온이 될 필요가 있을 일도 있고 패서는 안될 일도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내버려두어서는 안될 일도 병하니 바라보고만 있는 구경꾼이온이 수두룩하니 딱하고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단체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좋은 이야기이다. 하다못해 조그만 그룹활동이라도 해본 사람이

것은 우리들 가운데 우리의 行動三綱綱을 망각하고 權力을 남용한 자 가 있어서 그들이 이 나라를 망쳐 놓았기 때문에 信望을 잃은 탓이다. 우리들은 배일학을 힘으로 떠들었다. 행동강령을 지키라고. 그러나 어려운 것은 실천이 었다. 권력이란 묘한 것이어서 조그마한 권력만 가져도 그것을 남용하기 쉽고 남용하는 자는 「이까짓쯤」야 생각하자만 그가 생각하는 것보다 의외로 크다. 하물며 비가 자기도 있는 권력은 막대한 것이니 비가 만일 그 권력을 남용하는 날에는 모든 질서는 깨뜨려지고 따라서 너의 信望도 추락되어 마칠 내는 저급의 우리처럼 이렇게 쫓겨들어오게 되고 만다. 이점 깊이 깊이 명심하여 너의 들은 우리들의 前轍을 밟지 말기를 저들겨들다 짐한다.

이렇게 말하는 할아버지의 구개어 진 언술에는 후회의 빛이 완연하였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꼭 명심하여 그리한 불미한 행동이 없겠습니하겠읍니다.』

『고맙다. 물론 나는 너의 들을 믿고 있는 터이지만 권력이란 누구나 교만하게 만들고 이 교만이 昂進하면 결국 廢家(身)하며 公職에 있는 자는 막대한 民衆을 끼치고 國政을 보는 자는 나라를 망치지 마련이다. 그러니까 너의 들은 권력을 가졌다 고 해서 절대로 까를지 말라는 것이다. 「까부는 자 오페라지 않는다」라는 속담도 있거니와 내가 인간세상을 돌아다니며 見聞한 바에 의하면 인간이란 조그마한 地位만 가져

도 금방 까를고 그 職權을 남용하는 버릇이 많거든. 이제 네 말을 들으니 깊이 명심하겠노라니 더욱 안심하고 우리는 넋속에 들어갈 수 있겠다.」하시며 안심하는 표정이 었다.

『한마디로 「사람」이라 하지만 사람 가운데에 신(神)이 있고 악마도 있는 것 같더라. 많은 사람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한 사람의 영달을 위해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강요하는 사람도 있더라. 애인(愛人)을 속이는 것은 큰 죄악이나 범한 것같이 생각하면서 나라의 재물을 훔쳐먹는 것은 자랑으로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의 재물을 털어서 불쌍한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람도 있더라.」하시고 할아버지는 빙그레 웃어 보였다. 의미심장한 웃음이 었다.

할아버지의 말씀은 좀더 계속될 것 같았다. 그런데 마침 이때 사람의 손이 들어와서 나를 창구로 끌어내가는 바람에 더는 못한 것은 유감이 었다.

## 第二話 통해한 對談

은행 창구에서 나를 끌어낸 사람은 나이가 삼십五六세 되어 보이는 작업복을 입은 남자였다. 그는 百圓짜리 十五枚 五十圓짜리 十枚 十圓짜리 五十枚 도합 二천五百圓을 퐁퐁 뽐내며 포켓 깊숙히 감추고는 전차를 탔다.

라면 다 수공(首肯)이 관 것이다. 무슨 회를 만든다고 하면 반드시 어중이떠중이가 많이 모여든다. 성대한 창립총회를 열고 규약을 통과시킨다. 예산안을 심의한다. 사업계획을 토의한다. 야단법석을 편다. 출발은 좋은데 그다음에 가관(可觀)이다. 첫날 가장 발연도 많이 하고 큰 일이나 한들이나 대면 사람들은 쑥 빠져버리는 것이다. 모임에는 빈번히 만나오고 회비도 안내고 회원으로서의 기본 의무는 도시아랑 못 없다는 태도다. 그렇다고 해서 회원들 자퇴(自退)한다든가 일어난 잡무를 밟는에만 좀처럼 찾아 보기 힘들다. 그것도 일부가 그렇기라면 간단하겠는 데 절대다수가 그러니 문제는 심각하다 몇몇 열성분자가 회를 살리려고 안간힘을 써보나 일이 될 터이 없다. 결국 몇사람이 죽도록 고생한 보람없이 이저록한 구성원이든든은 모임은 망쳐놓고야 마는 것이다.

사람들 가려낼 줄 모르는 무지몽매(無知蒙昧)한 사람들이 구성원 노릇하는 것을 나무랄 수는 없다. 문제는 공동규약을 받고 자선심으로 자처하는 사람들이 임은 있으나 비영리로 남아 있는 데 있다. 부정을 보고도 한마디 항변(抗辯)조차 못하고 좌시(坐視)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소극적인 의미에서 부정파 야합(野合)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승만 독재가 단말마(斷末魔)의 발악을 하면 자유당 말기의 몇가지 일이 떠오른다. 정부가 야당지 K신문을 억지 폐간시켰을 때 자가 S씨는 용감하게도 이 처사에 항의하는 논설을 H지에 발표하였다. 해를 거의 끝이 하여 수십명의 문인들이 공동성명서를 썼는데 여기에 당연히 들었어야 할 저명분자들의 이름이 빠져 있다. 그건 그렇다고 걸핏하면 양가주말이니 저항문학이니 저들면서 나불거리던 전후(戰後) (?) 즉속들이 즉속은 뜻이 안드러 있었던 현상은 어떻게 해석해야 좋을지? 학가 리혁명이 소련 탱크에 의하여 무참하게도 좌절(挫折)되었을 때 미국의 신학자 다인홀드니버는 홀로 소련의 만행(蠻行)을 규탄하기를 거부하는 카를 파르트에게 어찌서 침묵을 지키느냐고 육박(肉迫)한 일이 있다. 파르트에게는 침묵을 지키는 한류의 가련한 이유가 있었다. 허나 이들 한류의 가련한 이유가 없었다. 다만 그들은 일신(一身)의 위험보다는 차라리 민주주의의 소멸을 방관하는 것을 선택할 줄 아는 현명(賢明)을 가졌을 뿐이다.

사람들이 百원짜리 十五枚 속에 까이 든 것은 물론이다.

전차 안은 태운장이 있었다. 콩나물처럼 사람들이 때죽이서 있었다. 이 작업복 입은 남자가 간신히 자리를 잡아섰을 때 저어쪽에 섰던 어떤 남자가 소리쳤다.

『윤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러자 인사하는 사람을 발견한 윤씨는 팔을 쳐들며 대꾸했다.

『아이구 잘 만났습니다. 그렇잖아도 두용무가 있어 찾아갈 생각이었는데』 하고는 『실례합니다.』 하는 말을 연발하면서 사람을 헤치고 저쪽으로 나갔다. 전차이나 빠져나갔을 무렵이다.

『왜 사람을 밀치구 야단야. 갈려면 밖으로 나가서 가시오!』

하고 화를 벌쳐내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웃도 잘 입고 일일에 기쁨이 주루루 흐르는 풍성한 신사였다. 윤씨는 갑작 놀라 그 사람을 한번 바라보더니 무슨 말을 할까 말까 하다가 그만 참는 듯 잠잠하고 다시 빠져 나갔다. 그러나 윤씨는 그 다음 발을 멈추었다. 그 풍성한 신사가 가운데 그대로 선 채 압착당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윤씨가 『음신편하겠어요?』 해도 동보신사는 모른체 한다. 그러자 윤씨는 『여보시오 당신 어디 사람이요?』 하고 좀 큰 소리로 말했다. 그제서야 신사는 얼굴을 돌리더니 『편라구? 보구루 몰라.』

하고 윤씨를 쏘아보았다.

『응, 말을 알아듣는 것을 보니 한국사람인데는 틀림 없는데…… 우선 하나 물어 보겠소. 나는 재간이 없어서 달리는 전차에서는 밖으로

돌아서 저쪽으로는 갈 수가 없는 데 선생님께서 그러한 재주를 한번 보여 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하고 자못 침착하고도 절절하게 말했다. 승객들의 전시선이 이 두 사람에게로 집중되었다.

『나에게 시비를 거는 건가?』

신사는 윤씨를 아래위로 훑어 보았다.

『천만이 을시다.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 말씀대로 그렇게 하죠.』

『말대루 해!』

그러자 윤씨의 태도는 일변했다. 『말대루 하라구? 말대루 하면 당신 같은 즉속은 이 전차를 탈 자격이 없으니 달리는 전차에서 밖으로 내 쫓을 뿐이요. 도대체 당신 뉘하네 사람이요. 나는 공군에 있는 사람인데 보아하니 당신은 돈두 있구 사회적인 지위도 있어 보이는 사람이 그 따위 행위가 뭐냐. 말이오.』

오늘부터는 『현』시대입니다. 『관』時代의 그러한 구약적인 사고방식은 통하지 않읍니다. 당신이 뉘하네 하고도 어떠한 지위에 있는지 내가 알 바는 아니지만 아니 당신 같은 즉속을 상대로 이터니 저터니만 하구 싶지조차 않읍니다. 그 엉덩이를 치우겠소 못치우겠소!』

윤씨의 응성은 낮으막 하면서도 박력파 자신에 차 있었다.

신사는 잠잠고 엉덩이를 안으로 돌리었다.

『생각을 고치시오. 전 국민은 지금 써이진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 너나 할 것 없이 분투하고 있으니까 윤씨는 절절하게 한마디 던지고 그

四과동 때에도 이 땅의 배운사람들은 요지부동이였다. 아니 이들의 말이나 행동은 기대하는 것이 더 이상 없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三·一五의 이따리 부정선거의 병(病)의 학원(學)까지도 달렸는지도 모른다. 차고 나온 기쁨은 교사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은 이 나라 교육의 앞날을 위해서 개탄(慨嘆)할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내포집에서 몇 잔 술에 불평이나 할 줄 알았지 불의에 정면으로 항거할 용기는 없었던 구경꾼이든 들때문에 자유당은 그처럼 망망무인(茫茫無人)한 침포를 자행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면 오히려 구경꾼이 오히려 공부에만 전심했어야 되었을 학생들이다. 四·一九에 구경꾼의 앞장을 섰던 것은 기이한 일이 아니라 할 것이다.

四·一九에서 五·一六까지 一년 동안 우리는 그야말로 단군(檀君)이래의 자유를 누렸다. 그 결과 역사적으로 구경꾼이온이 아슬할 정도로 방종(放縱)과 무질서와 혼란이 이 땅을 휩쓸었던 것도 사실이다. 五·一六의 평이후 국민들은 필요이상으로 위축(萎縮)된 감이 없지 않은 것 같다. 농촌 곳곳에서 고무적인 소식이 들려오지만 국민 전체가 좀더 국민운동이나 경제 건설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한 당초의 기대대로 큰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지 않을까 한다. 머우기 저 식인의 동태(動態)를 볼 때 한심스럽게 지적이였다. 『국민들이 하는 데 내가 알게 뭐냐, 못이나 보고 뻔이나 먹자』 이런 위험천만한 사고방식이 아직까지 인텔리층의 머릿속에 남아 있는 것이라면 이것이야말로 통탄해 마지않을 일이다. 대다수의 인텔리들이 차

를 일이다. 대다수의 인텔리들이 차기를 만일 가장 우국지사(憂國志士)라고 하면서도 공공연한 태도표명은 못하고 뒷구멍으로 불평을 할 만이나. 농하는 일은 없는가? 두 번이나 철명(철명)을 하여야만 했던 민족적 비극의 도의적 책임(痛感)해야 할 한국의 지식인들이 이런 태도를 견지한다면 나라의 앞날은 암담(暗澹)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알제리아 문제의 해결과 구라파공동시장 구성에 선구적 역할을 한 것은 프랑스의 행동적 휴머니스트였거나 한국의 인텔리에게도 대단한 비판, 건설적인 협조 그리고 민중의 지도층으로서의 사명감(使命感)이 절실히 요청된다. 나아가서 구경꾼이온이란 수치를 면명사를 달은 국민이 수가 줄어든다면 그만큼이라는 전진(前進)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 두 개의 逸話

康 贊 宣 (KBS 放送員)



五·一六을契期로 우리나라 軍人의 存在는 國民앞에 아나 全世界에 크게 浮刻되었다. 그것은 國家를 防衛한다는 本然의 使命을 바르잡기 위하여 革命을 일으키고 國家를 다스려나가는 統治者의 一員이다.

곳을 지나갔다. 응, 됐어. 이 나라 는 되고 말 것이다. 나는 이 세상에 나오면 첫날 참으로 통쾌하고도 즐거운 인상을 얻었다.

### 第三話 金장 六個月 계획

나는 그 공군소령이 그날 퇴근후서 내에서 담배 한 갑을 사는 바람에 담배집 배탈 속에서 하룻밤을 유숙하고 이를 날 그곳에서 가까운 어느 순경의 젊은 부인 손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나는 이때에서 「김장 六개월 계획」이라는 이른바 계획생활의 하나를 볼 수 있었다.

아침 열시나 되었을 때 같은 나의 도리의 젊은 부인이 순경부인을 찾아와서 말했다. 『순이엄마, 나 그것 좀 보러 왔어요. 김장 六개월 계획』 나는 이때 순경부인의 정대 배탈 속에서 이상하게 생각했다. 「김장은 초저울에 담은 것인데 유월달에 무슨 김장이냐?」고. 『그거 뭐 간단한 거예요. 절약해서 六개월 동안에 김장값 二千五百원을 저축하는 거예요. 목돈이라서 그때가선 아무래두 당황하게 되거든요.』 하고 순경부인은 배탈에서 가계부(家計簿)를 꺼내 손에 들었다. 『정말 김장철이 되면 속상해 죽겠어요. 뻔한 월급에서 목돈을 들이 내기란 어려워요. 그렇게 미리 저축할 수만 있다면 참 좋겠는데, 그럴려면 매달 五, 六백원씩 절약할 해야 하겠어요. 五, 六백원을 모으려면 월도 삼가까한데 순이엄마는 어떻게 계획을 세웠는지 그것이 알려주세요.』

어떻게 계획을 세웠는지 그것이 알려주세요.』

### 『그런 비밀요. 한터 내서야 공개 해줄게.』

나는 한국정부가 경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강력히 추진 중이라는 사실은 先代의 할아버지에게 들은 바 있었다. 하지만 일반 가정에서 그와 비슷한 생활 및 계획이라는 말은 처음 듣는 일이었다. 『한터 내겠어요. 그 한터도 말하자면 「한터 六개월 계획」을 세워서 내겠어요.』

두 부인은 또한한 소리쳐 웃었다. 『실은 정부가 하는 경제 5개년 계획에 한트를 얻었어요. 해마다 김장때면 돈 때문에 난리를 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김장때 돈 걱정을 안해두 될까하고 생각했어요. 가장 빠른 길이 매달 김장값을 저축하는 길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애기 임마가 말하듯 빠듯한 생활비와 고정된 생활비에서 어떻게 五, 六백원씩이나 뜯어낼 수가 있는가 이것이 문제였어요.』 『그런데 안구실다는 거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생활의 비밀을 공개하는 거지 뭐요.』 『그러니까 한터 내라는 거군요.』 『실은 대단한 비밀도 아비요. 순이 아빠는 점심을 저적성당에서 사 먹었어요. 하루 二十원 꼴이 치는데 한 달이면 六백원 아비요. 그것이 달

로登場하였기 때문이다.

實로 그責任은 文字 그대로 重大하다 고 아니할 수 없다.

이와같은 重大한 存在로 國民들앞에 浮現되고 있는 軍人들에게 나는 國民의 한사람으로 다음의 두가지 逸話를 參考로 紹介하는 바이다.

美國獨立戰爭시의 일이다.

軍用幕舍를 짓는 現場에서 한 下士가 여러 士兵을 指揮하여 큰 材木 하나를 옮겨서 버리고 갔다. 힘이 不足해서 옮겨지지 않았다.

『병신 같은 놈들이! 무얼 그리 쥔 절대고 있는 거야! 힘을 내서 옮겨!』

下士는 고함을 치며 督勵했다. 使役兵들은 팔을 뻗을 뿐 아니라 애를 썼으나 材木은 움직이지 않았다.

이때 平服을 입은 한 將校가 말았다. 고 그곳을 지나가다가 下士에 물었다.

『오! 당신은 왜 거들지 않고 서있어!』

下士는 어깨를 움츠린 다음 몸내며 대답했다.

『나는 이 使役兵들을 指揮하는 사람이요 내階級章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將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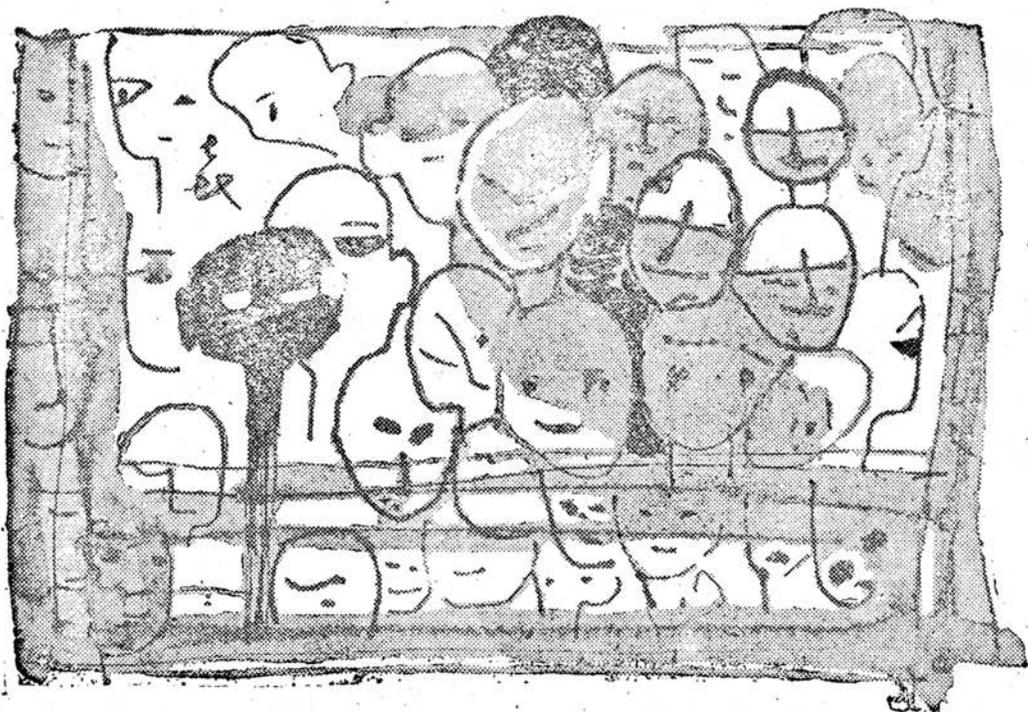
하고 將校는 곧 말에서 내려 士兵들을 도와 힘을 써서 材木을 옮겼다. 그리고는 빙그레 웃으면서 下士에게 말하고 말위에 올랐다.

人間愛에 그 根底를 둔다는 것은 생각하게 된다. 命令은 勿論 軍紀를 세우는 鋼鐵같은 힘이다. 그러나 鋼鐵은 부러지기 쉬운 性質이 있지 않은가. 命令의 存在理由가 目的의 果敢迅速한 遂行에 있는 것이라면 어떤 權威에 依한 強要보다는 垂範에 依한 實踐이 더욱 効率的이라는 것은 社會心理學을 빌리지 않더라도 自明한 事實이다. 人間의 어쩔수 없는 側面일 것이다. 太陽과 바람의 옷 벗기기 競爭에서 勝利를 거둔 것은 따뜻한 햇볕이었던 것이다. 人間에게 힘이 賦與되어 있는 것은 弱者를 處待하기 爲해서가 아니라 弱者를 돕고 支持하기 爲한 것이라고 더스킨은 喝破했다. 軍隊라는 組織이 여러 個人의 共同의 目的을 達成하기 爲한 協同의 集團에서 도 힘은 사랑으로의 服從으로 行使되어야 할 것이 아닐까? 바람이 거센 숨결을 피부우면 부을수록 나그네는 몸을 움추리고 옷깃을 세웠다. 太陽이 微笑하며 어루만져주자 나그네는 몸을 쉴며 의복을 벗어 버렸던 것이다. 그러나 受命者의 姿勢가 얼마나 剛健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逸話가 생각난다. 佛壇戰爭이 한창이었을 때 變裝한 나폴레옹이 陣地를 巡視했다. 陣營의 入口에 다다르자 한 步哨가 通過를 絕對로 許可하지 않았다. 『나는 巡察하는 將軍이요!』 나폴레옹이 無理로 그곳에 들어가

려하자 步哨는 나폴레옹의 가슴에 銃을 겨누고 威脅했다. 『將軍이 아니라 司令官이라 하더라도 나의 上官의 命令 없이는 이곳을 通過할 수 없소. 더 움직이면 쏠겠소.』 나폴레옹은 할 수 없이 돌아갔으나 步哨兵의 行動에 깊은 感銘을 받고 그를 司令部로 불러 一個兵卒을 一躍少尉로 昇進시켰다. 이 두개의 逸話는 命令者가 가져야 할바 그리고 受命者가 지켜야 할바의 姿勢를 敎訓하고 있다. 上命下服의 아름다운 紀綱은 軍隊의 生命과도 같은 것이다. 祖國의 再建과 統一의 聖業을 어깨에 걸머진 우리 國軍이 恒常 銘記해들 만 하다고 생각되어 여기에 紹介하는 바이다.

부더 도시락을 갖추다니기루 했어요. 이걸 제산해보니 한달에 三百원쯤 싸게 먹혀요. 하고 손이엄마는 가게부를 그것을 제산한 명세서를 내보였다. 찾아온 부인은 그것을 한참 들여다 보고는 수궁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구 우린 한달에 두번씩 일요일을 택해서 의식을 했어요. 이 의식은 우리 부부의 유일한 그날의 레크리에이션입니다. 그런데 한번 의식에 약 三百七십원의 비용이 나요. 이 내역을 말하면 교통비 四십원, 의식비 卅元, 영화관람료 百三十원입니다. 그래서 이달부터는 이 예산을 더욱 감축시키기루 했어요. 실(二회)을 하루 줄이는 동시에 식사는 집에서 하구 영화구경만 하기 루주인파합의를 보았어요. 이렇게 하니 매달 四百七십원을 절약할 수가 있겠어요. 아까 도시락에서 쓰는 三백원을 합치면 놀랍게도 근 八백원을 벌 수가 있는 셈이지요. 六개월이면 六, 八이 四十八해서 四千八百원이 저축되거든요. 김장값은 물론 너무 많지요. 그러나 예산은 언제나 넉넉하게 잡는 것이 원칙이니 이 계획대로 실현되면 남는 건저 금을 한다는가 저를 준비부 연탄을 살 수도 있지요.』

계 말하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다음과 같이 덧붙혔다. 『애기엄마도 생각만 있다면 저이들 보다 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대외 봉급은 순경 봉급보다 훨씬 많으니 까요!』



(조절)

## 잊지 못할 일요일

서 명 석

일요일을 보내는 것이 요즘에 와서는 예전과 달라 유난이도 지겹고 시간이 안가는 것만 같았다.

물론 이것은 나 혼자만이 느끼는 요사이 심정일것 같지는 않으며, 자못하여 볼것도 없이 체대할 날짜가 하루하루더더 오기 때문일 것이 틀림 없으리라 고 생각하는 것이 편하였다.

지난 일주일간도 그나마 이렇다 할 일거리도 손에 뻗지도 없이 흐르는 시간과 같이 지내 보냈다.

토요일이 되고 보니 박병장은 같은 근무처에서 일하고 있는 군대생활에 익숙치 못한 듯 내기 김일병에게 오전중 근무를 끝내고 난후 짜장과 청소를 맡기에는 너무나 애처로운 줄 알면서도 「비짜루들 든 김일병만을 남기고 박병장은 근무가 끝나자마자 자기 내무반으로 돌아와 외출을 서두르는 것이었다.

지난 밤 생활대로 말려 두었던 「카키부」를 꺼내 놓고 담요를 깔고 일에 물을 담뿍 물고 뿜어가며 제법 익숙한 솜씨로 다리미질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근무처에서 일을 마치고 나중의 돌아온 김일병은 역시 내무반에 돌아 가서도 일거리가 얼마든지 있었다.

내무반 안팎 소제요 번두리 화단가꾸기 까지 하고 나서 박병장 내무반으로 놀러 가 보니 열심히 다리미질을 하고 있는 박병장의 모습을 보고 자기의 앞으로의 병영생활을 그려보며 웃음을 지어 보았다.

『박병장님, 무얼 그렇게 단숨에 다리미질을 하려고 하고 계십니까? 요즘 가뭇이워도 한참인데요』 하고, 성가시게 말을 건넸다.

이렇게 물음 김일병은 신병교육대에서부터 오늘까지 벌써 여러차례 겪고 왔으며 잘 알고 있는 일이지만 무의식중의 말문을 열어 버렸다.

『그래 자네는 잘 알고 있네. 지난주 정기의 출몰을 하였으니 구미물 땅기저 말고 가만히 있네! 오늘은 내차레야. 자네는 공물도 없네. 품작 말고 집지거나 잘 하고 있어야 해. 오늘은 서울에 있는 동창집에 놀러나 가볼까 하네』 하고 박병장은 김일병에게 도리히 약을 올리는 셈이었다.

이렇게 두리서 말을 주고 받고 하는 동안 한사람 두사람 차례가 된 외출자들은 벌써 내무반 물품을 나르고 있었다.

대우 외출할 마음이 설레이는 박병장은 반장인 이하사가 자기뒤에 와 서서 쳐다보고 있는 것도 모르고 「다리미질」하는 데 정신을 팔고 있었다.

「이디 오를 박병장 좋은데 외출이라든가 나가는 모양이지. 애인하고 약속이라도 했는가?」 그럼 남하고 약속이라도 하였다면 반드시 시간은 잘 지켜야 하는 법이야. 이디 「Korean Time」에서야 안되지!」 하고 말을 진했다.

인제나 착하고 성실하며 부하를 잘 돌보아 주기에 도 이렇나 이하사는 또 상관의 충애를 한몸에 지니고 있는 자라 딱딱한 병영생활에서도 항상 호호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곤 하였다.

「실은 애인하고도, 친구들 하고도, 아무 약속도 없읍니다. 그저 오늘이 저의 정기를 출 차례가 되고보니 정한 곳도 없읍니다…… 서울에 있는 중학동창 친구 집이라도 찾아가 볼까 해서입니다. 그냥 바람 쐬고 나가면 거지요」 하고 이렇게 할 정처도 없이 외출을 해보려는 것이 틀림 없었다.

실상 박병장이 받는 본능으로는 애인하고 만날 수 있는 자금이 필만한 형편이 못된 편입니다.

그렇다고 「五, 一六」 혁명전의 비한다면 혁명후 봉급인상으로 전에는 면두도 못내던 이들에게 정기의 출시 용청대끼 쓰지는 못할 망정 그때도 주말의 출을 즐기고 근무의 피로를 덜 수 있는 정도로 마질리타령도 할 수 있는 편이고 보면

혁명전 퍼스차장에게 발세를 받는 것이 꿈만 같기도 하였고 차비를 못내고 차장들과 우선 자신 하느니 아니 꿈기만 하여, 그나마 없는 나라살림에서도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니 고마움을 알면서도 불만을 느낀 적기도 하느 것이었다.

「다리미질」을 끝마치고 외출준비를 하고 보니 외출을 나가도 별로 신통한 것이 없으니 「다리미질」은 박병장에게 반장인 이하사는 다시금 오늘의 외출을 다짐 하였다.

「박병장, 이디 약속한 곳이라도 없으면 오늘은 나와도 조흔히 내무반에서 야기라도 하고 민권 팔래라도 다 해버리고 내일은 파장내에나 찾아 가보지!」 나도 이 못 전속은 저가 벌써 반년 가까이와도 한번도 찾아 본 적이 없네 그리고 박병장 자네는 인제 얼마 안 있어 제대도 하게 될 텐데, 파장내를 조

정히 찾아 보고 좋은 말쯤이라도 들어 보는 것이 어때. 그것이 좋지 않을까? 정음 때 포적자가라도 나면 저녁에 돌아와 산책이나 하고, 도라오느 길에야

저 보답적자가 뭇물 남았으니 「막걸리」라도 한잔씩 하고 벨레비 구경이나 하는 게 어떨까?」

이 말들을 들은 박병장은 한껏 도라는 정기의 출이 되어 말뚝타기 「다리미질」

까지 해서 단정히 가꾼 「카키부」차림의 자기를 거울에 비쳐보며 어딘가 어음을 금지 못하는 표정을 짓는 하였지만 막상 외출을 한들 중학동창인 서울친구가 지금쯤 집에 도사리고 있을런지도 궁금하고 보니 반장 이하사의 말도 수감이 가는 모양이었다.

박병장은 주를 주를 추려 입은 옷을 하나들 벗어 버리는 것이었다. 이리면서도 마음의 갈피를 정하지 못한 양 보이는 박병장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이하사는

「박병장 참 안됐네, 자네가 내 말을 고분 고분 듣고 이해해 주고보니 고통기는 하나 어쩐지 미안하기만 하고 내가 멧치는 것만 같군. 그래! 그러나 나는 자네가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아 제대하고 헤어질 것을 생각하니 어쩐지 한시라도 불잡고 이야기라도 하고 싶은 것이 많은 것만 같아! 내마음은 잘 알겠나? 나는 하사관교육을 받았으니 아직도 군대생활을 더할 것이 없고 나 한편 부럽기도 한 것 같네. 이곳에 와서 자네하고 같은 근무처에서 그리고 한지붕, 한술에 밥을 먹고보니 어딘가 모르게 형제만 같은 정을 갖게 되었군. 그래!」

이렇게 이하사가 말하고 있노라니 박병장 얼굴에는 그 무엇인가 새삼스런 빛이 감돌았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반장님을 여러분 섬겨 왔지만 이하사님을 만난 것일 따되지는 않았지만, 저도 모르게 정들은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반원으로서 부하된 도리는 다 못하고 있어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항상 사랑만 받고 이렇게 아껴주시는 것은 마음껏 받아드릴 줄 모르고, 아무것도 도와드리지 못한 것을 생각하니 도리히 미안할 뿐입니다!」

평소 모든 부하들로 부터 존경과 신망을 받고 있는 반장 이하사는 박병장의 이런 말을 듣고 나서는 어딘가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박병장 어깨에 손을 얹는 것이었다.

석양노을이 가물하늘에 더욱 빛을 스치며 황혼이 짙어져 가는 무렵, 앞과 옆의 내무반에서는 「三, 三, 五」 정답게 웃음 지으며 식당으로 달려가는 전우들의 모습이 벌써 저녁시간을 알리는 것이었다.

바로 옆 내무반에 있는 귀영들이 김일병이 찾아 왔다.

「반장님 식사하로 가지지요. 저녁시간이 다 된걸요. 아니! 박병장님 아직 어기 있었나요. 어떻게 외출은 안하시요?…… 아까 그렇게 정성껏 다려놓은 「카키부」이 술이 없어요. 어저 같이 식사들이나 합시다!」

제법 민중대는 소리 같기도 하였지만 근무처에서는 볼 수 없는 김일병의 말씨는 박병장의 간을 흔들리게! 커녕 도리히 제똥으로 여겨졌다.

「그래! 어저 식당으로 가세! 김일병도 아주 제똥이야. 형님들을 모신 술을 다 알고…… 됐어 됐어! 그러야지!」 그럼 박병장이 서가서 식사나 하세!」 하고 이하사는 김일병의 말의 맛장구를 쳤다.

「그때요!」 이 때에 그 말을 알고는 있지!」 식당의 들이치고 보니 여기 저기

이 말들을 들은 박병장은 한껏 도라는 정기의 출이 되어 말뚝타기 「다리미질」

이 말들을 들은 박병장은 한껏 도라는 정기의 출이 되어 말뚝타기 「다리미질」

이 말들을 들은 박병장은 한껏 도라는 정기의 출이 되어 말뚝타기 「다리미질」

이 말들을 들은 박병장은 한껏 도라는 정기의 출이 되어 말뚝타기 「다리미질」

이 말들을 들은 박병장은 한껏 도라는 정기의 출이 되어 말뚝타기 「다리미질」

빈 식탁이 눈에 띄었다.

한 식구같이 남은 사람들끼리 모여 앉아 맛있게 입맛을 다시고는 있었지만  
의욕한 친구들이 있고 보니 어쩐지 식당안에는 의로운 기가 감물기도 하였다.  
사람이란 남남끼리 모여 살아도 서로가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고 보면 정이 들기  
마련인 모양이다.

머리나 생각을 같이 할 운명을 지닌 친구들이고 보니 몇몇 사람만 빠져도 더  
유 허전하기만 하고, 듣는 한 마음이 부러지는 것만 같다.

식사를 끝마치고 오른 도슨 말을 주고 받고 하는 동안 내무반으로 돌아왔다.  
저녁같이 제시관에 불이 있는 석간신문을 살펴 보았다.

의 긴급대책 그리고 이곳 저곳에서 전국적으로 농민의 손을 들고 한해를 막  
으려고 농토로 나서는 전우와 겨레의 모듬으로 기사가 파 차 있었다.

『박병장이 농촌출신이라고 잘 알고 있는 이 하사』  
『박병장 자네 집도 농사를 짓고 있을 테 아니냐 부치는 논밭이 많은가?』  
『무척 부모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신꺼야! 김일병 자네 집에서.....?』  
『이렇게 일까지도 걱정해 주는 것이었다!』

『아니요, 저의 집은 장사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가물이 계속 돼서 흉  
년이라도 지면 어디 장산들 소용 있겠어요. 우리 나라 인구의 七, 八할이 농  
민이고 부면 농사가 잘 돼야 다 잘 살 수 있지 않겠어요.』

『박병장님, 너무 심하게 생각 마세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선현의 글인도 있다 싶이  
이 기사를 우리 혁명정부에서는 그 어느 때 보다 더욱 농촌진흥에 힘쓰고 있  
거니와 군민 모두가 농민의 손을 밀고 한해를 막으려고 여러모로 애를 쓰고  
있지 않아요.』

『부처 구심이 되겠지만.....』  
『반드시 며칠 안으로는』 단비가 내릴 것만 같습니다. 하고 김일병은 제법 쓸  
모 있는 이야기를 한 것이었다.

한편 얼마 남지 않아 제대하게 될 박병장에게는 초조한 빛이 엮보였다.  
중화시절에는 부모님들을 도와 농사짓는 때는 그리 달갑지 않게 생각한 박병장  
도 지금의 와서는 당장이라도 시골로 뛰쳐 내려갈 것 같은 심정일지도 몰랐  
었다.

『꼭 이번의 제대를 하면 빈둥빈둥 하지 않고 시골에 내려가 부모님 모시고 농  
사를 도와야겠다는 마음이 문득 치미미 오르는 것이었다.』  
『뒤이 이 하사는  
약속대로 박병장을 데리고 병사 뒷산 마루터를 산책하고 텅텅한 「막걸리」 한  
두잔씩 드리고 보니 더욱 배가 가물 정도였다.』

내무반으로 돌아와 침구에 몸을 걸치고 두사람은 정답게 얼굴을 맞대었다.

『박병장! 제대날짜가 얼마나 남았지? 제대하면 곧 시골로 내려 가겠나?』  
『고향에 가면 서울에는 자주 올라 올 일이 별로 없을 줄 아는 내』 하고 묻는 반  
장의 눈매에는 어딘가 파사로운 감촉을 풍겨 주었다.

『네, 일제 얼마 안 남은 걸요 아마 앞으로 三~四주일간 밖에 남지 않았을  
니다. 시골로 내려 가면 뭐 그렇게 자주 서울로 오게 될까요. 五, 一六천  
과 달라 인제부터라도 새나라 일꾼이 되어야지요. 전번 제대에 앞서 내가  
과장남에게 주서 그때 집에 가보니 부모님에게도 그런 말씀 있었어요. 그  
때 약속을 하고 온 걸요. 혁명전 같으면 제대를 하게 되면 모두들 도시로 밀  
려나와 어디 시골이나 농촌에 처박혀 있는 사람이란 그리 있었나요. 도리  
의 수치는 온 존재 같았지만, 인제는 그와 반대로 일요..... 아주 요번 휴가  
는 저에게 많은 자극이 되었을 거예요. 시골에도 마을사람들이 서로 협동해  
서 일하고 있는 것을 보니 무척 생기가 물고 있었어요. 말하자면 도시와의  
차이 때문이라고 하는가, 젊은 남녀들의 문명퇴치 사업을 하고 있었으며, 동  
리사람들은 서로가 협동하여 온실개량, 공동우물파기, 개량번소짓기 등 아  
주 생활 주변의 개선을 비롯해 보다 낫고, 보다 보람있게 살아 볼려고 의식  
주 생활의 새로운 선제를 꾸미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을 보았지요.』

(계속)

\*\*\*  
나에게 묻는 의사  
투표로 대답하자  
\*\*\*

새나라 새헌법  
내한표로 확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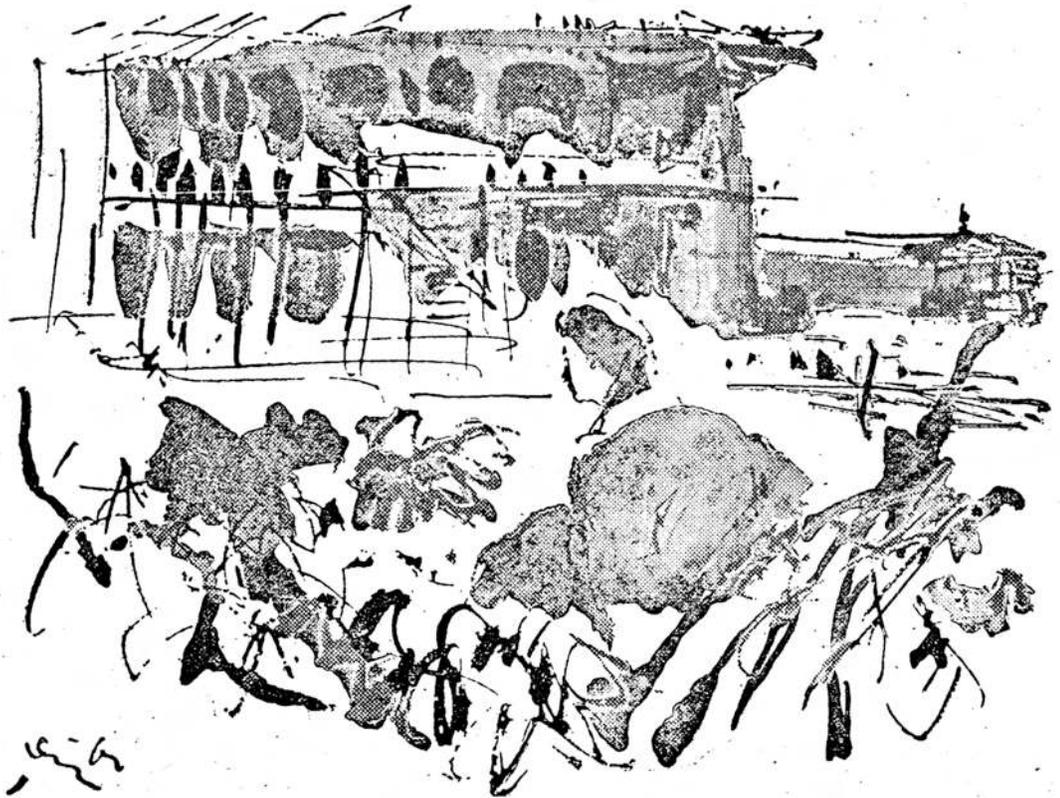
<국민투표표어>

〈단편소설〉

# 落葉에 落書한다

林 玉 仁

삼화·禹慶熙



그날도 내 처갓에는 약간의 풍돈이 들어 있었을 뿐, 저녁 일곱시에 추마교 친구 이선주여사와 약속한 금액을 준비못한채, 야간수업까지 다치고 지정한 다방으로 갔었다.

친구는 벌써 와서 거의 식어진 생장미를 마시고 있다가,

『아이, 어서와요. 밤에까지 일하느라 수고하는 구면. 그 돈을 다 어디 써요. 그래, 오늘은 주머니가 불룩 할꺼아나?』

하고 말하며 생장생장 웃는 것이었다.

나는 잠시 어리둥절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니, 약속한 돈이 안됐는데…… 월급날루 미루지 않았어.』

하고, 나는 메지가 날라다 놓는 인삼차를 홀몰 마시면서 증언거렸더니, 친구는 들었던 착잔을 떼이 불위에 덜컥 놓으며 기성(奇聲)을 올린다.

『왜 월급날인데! 편청을 부려? 내가 남의 돈을 뺏을 것 같아서 그래.』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다방벽에 걸린 달력을 보니, 과연 이날은 이십오일인 화요일이 아니던가? 일주일애 두차례 있는 야간수업의 첫날—— 그것은 분명히 화요일이고 또 봉

급날인 이십오일인 것이었다.

『잠깐 잊은걸……』

나는 힘없이 증언거렸다. 사실 내뒤통수는 방백이로 일어났는것 같았고 눈

앞이 어쩔어쩔 해왔던 것이다.

『그제두 말이라구해 이 친구……』

친구는 어이없다는 듯이 입가에서 웃음을 겨두며 나를 쳐다 보는 것이다.

친구의 그런 얼굴이 커졌다 작아지고, 정지했다잔 물속에서처럼 흔들거리

는 듯 싶었다.

『얼마나 팔자가 좋으면 월급날을 다 잊어 버릴가. 난 금새 죽어가다가도 돈

받을 자리만은 잊지 않는데……. 하두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지……』

하면서 자못 원망조다.

『오늘 아니면 안 돼.』

미술 공예품장수를 하고 있는 친구에게서, 월급만 주기 못하고, 피육 차떼이를 할개를 가져 왔던 것이다. 의상까지 지면서 꾸사야 할 급한 물건도 아니었지만, 어쩌다 들린집에 그렇게 된 것인데, 그때 서로 만날 날자와 장소를 정했던 것이다.

돈을 주고 받는다든가 사부적인 일보다도, 서로 바쁜 몸이지만 틀을 내어 잡지 않는 것도 즐겁지 않겠느냐의 함의에서였던 것이다.

『왜 그렇게 말이 없어요 갑자기?…… 없는 돈을 어디서 내라는 것두 아닌데…… 사실 그게 무슨 보탬이 될 금에두 아니잖아?』

친구는, 여원 불에 불우물을 지으면서 눈물 치드터 생각을 웃었다.

언제부터인지, 친구의 이마에는 주름살이 늘고 눈선거리와 두뺨에는 기미가 생겨 있었다. 살짝 다스린 얼은 화장으로서는 그 주름살과 기미는 감추지 못할 만큼 그늘진 얼굴이었다.

계와 빛으로 장사들이 이가느라고, 돈고생물하는 친구의 얼굴에는 억지로 밝은 흔적을 감출 길이 없었다. 게다가 이야기들을 들어보니, 전기상(電氣商)을 하는 남편이 밤마다 마작에 미쳐서 막대한 빚을 지느라고 있다는 것이었다.

『정여사 말자두 좋다! 돈받을 일 있을 만큼, 조달리지 않으니 말야……』  
이선주여사는 나머지 자꾸 말수가 좋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내대로 정신이 아득하다.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나는 우수에 사로잡히고 말았다. 근래에 와서 나는 나의 전망을 때문의 여러가지 사고를 일으키고 있었다. 남과 약속한 일이면, 시간이건 돈이건 별로 아저은 기억이 없었다. 상대방이 어떤 누구든간에 이쪽 형편이야 어떻게 할 약속을 어기지 않는 신용(信用)이나 유익한 밑천으로 삼아 왔던 것이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 시간 약속이나 후 돈거래 같은 일도 생수가 잦다. 예컨대 엔(특별한 경우를 빼놓고)은 신용한다든진 별로 생각해 본 일조차 없었다. 하기와 같은 것이 두어세어쩌다 받거리를 해내는 일도 있었지만, 돈이나 시간 약속을 어긴다는 일은, 곧 내가 나안만 다른 것으로 변해버린 것일까? 나는 이렇게까지 정신을 잃고 사는 나 자신이, 점점 불안해 자기만한 다. (월급 달 것도 있다나……)

배우는 장난도 아닐텐데, 왜 잊어 버렸을까? 이전 쉽게 넘긴 문제 같지 않다. 앞에 앉아 자기네 가정의 답답한 살림의 실정을 얘기하는 이선주여사의 목소리가 먼곳 사람의 것처럼 아스랑게 들리는 것만 같았다.

『그럼 또 만나요. 난 갈테야!』  
내가 멍청하니 입을 다문채 앉아 있는게 유쾌하지 않은지 종종희 일어서는 이선주여사의 뒤를 따라 나도 일어서었다. 카운터앞에 가서 손가방을 열었으나 그속에 무엇이 한 지갑은 보이지 않았다. 어디서 얻어 드린 모양이다. 허둥대

는 내앞에 나선 이선주여사가 차갑을 치르고 사자사자 치마스치는 소리를 내며 문밖으로 사라졌다.

그 이를날 아침이었다. 아직 자리에서 눈도 뜨기전에 전화벨이 울렸다. 여고 동창 회장이 처음이었다.

『기억하시요? 일한시반엔 시작 해알테니까, 일한시까진 꼭 오셔야 해요.』  
『그래 그때, 일한시!』

나는 부의식적으로 대답하고,  
『아무것도 안가지고 오셔두 돼요. 빈손으로 빨리 오셔야 돼요 산생님!』

동창회장은 응석조로 출했다. 나는 좀체로 머지않는 눈을 비비며 책상에 마주 앉았다. 배구에 있는 사촌동생의 증환때문에, 웬만하 시간엔 낼수 있는 돈 가보졌다면 계획이 틀어져서, 못간다고 편지를 써서 속달로 부쳐야 하기 때문이다. 편지를 다 써서 피봉을 쓰고 있는데 편지를 써서 속달로 부쳐야 하기 때문이다. 편지를 다 써서 피봉을 쓰고 있는데 편지를 써서 속달로 부쳐야 하기 때문이다.

『친정 올케한테서 온 것이다. 온 집안식구 다 아침을 먹지 말고, 곧 오라는 것이야. 나는 그제서야 올라버니 생일인 것을 생각해냈다. (어제 할가? 일한시엔 동창회에 가알테네……)』  
『그렇지만 할수 없는 노릇이 아닌가? 가족이래야 모녀만의 가족이다. 교회로 나가려는 말이 이를 불러 세웠다.』

『큰 의삼촌 생일이다. 아침밥을 먹지 말고 가봐야 저 않니?』 내가 말하자 말이 이는 의아한 눈으로,  
『아침밥은 벌써 먹었잖아요. 어머니두……』

나는 왜 이렇가? 아침밥은 조금전에 먹지 않았는가?  
『밤이야 먹었진 말전, 가봐야 저 않아요!』

『일마 돌았어, 돌아!』  
『이년아 그런 말버릇아 어디 있지? 물건 누가 돌아?』

하면서 도 나는 아늑해이나 머리가 베영 할뿐이었다. 영등포 한골에 있는 친정에 갔다가, 그길로 동창회장(同窓會場)이라면 영등포. 정회루를 향해 차를 달렸다. 명동인구에 내려서 도시락을 사가지고 다시 차를 잡고 말아이는 집으로 돌려보냈다.

정회루입구에 내렸을 때 나는 거기 이미 회원들이 몇사람서 있으리라고 믿고 있었다. 그런데 아직 아무도 없었다. 웬일일까?

의아스리게 여기면서 안으로 들어섰다. 정복을 입은 수위가,  
『이리로 가십니까? 국전회장이라면, 여기 보란, 청와대 앞이 나올테데요.』  
그야 이리루 들어 가서 두됩니다만 많이 걸으셔야죠.』

그는 이렇게 말하면서 내 차림새를 살핀다.  
『안이야요. 저어는 정회루 앞까지 가면 됩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만나기루 했으니 까요.』 나는 사방을 두리번치기면서 그에게 물었다.

『그런데 부인네들 몇명이 안 왔어요?』  
『아아노, 아직은 안오셨는데요.』

나는 저고리 소매를 들치고, 시계를 들여다 보았다. 일한시반이 넘었다.

(이런데는 없을테니……) 동창회장의 순덕스럽고 부지런한 얼굴이 떠올랐다. 무슨 일이나, 믿음성스럽고 부지런한 그가 어떻게 안을리가 없다. 나는 수위실에 들어가 전화로 동창회장에게 연락해 보았다. 조금전에 나갔다는 것이다. 나는 더 묻지도 않고 수화기를 놓았다. 어디로 갔느냐고 물을 필요도 없었기에 말이다. 이곳을 향해 달려오리라 생각하면서 수위가 밖에서 내다주던 의자를 들고 잔디위 해변 있는 쪽에서 걸터앉았다. 나의 시선은 자꾸만 일주쪽으로 향하게 마련이다. 몇몇 사람들이 국전으로 들어가는 통로를 물어서 수위가 그 앞에 없는데, 내가 일러주곤 했다. 그러면서도 나는 초조한 마음을 떨 수가 없었다. (이제 아무가 와도 올테니…… 아니, 비밀써 왔어 아 할테니……) 해빛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눈앞이 아물아물 한다.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온다. 나는 다시 저이전 경희부안 잔디밭에 눈을 주었다.

(좌편 가을에 두 바루 저기 모였었는데…… 이렇게 한사람 두 안오니 난 어쩌란 말야……) 나는 속으로 몹시 두렵거렸다. 모두들 구물거리고 있는게 분명하다. 내가 일어섰다. 앉았다 하며 안절부절못하는 것을 보고 수위는 『아주머니! 제가 일러드린게 경희부안을 한바퀴 돌아오세요. 모르죠, 혹시 아까 부인네 몇분이 들어갔는지 모르니까요』라고 하키에 나는 입구에서 기다리는 것을 포기하고 경희부를 향해서 발을 빼었다. 카메라를 켜고 의인 몇사람과 함께 은남나가 청와대쪽으로 걸어갈뿐, 이날의 구대는 한산하기 그지 없었다. 연못엔 나뭇잎이 쌓여있고 쌓여서 수면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나는 웬일인지 그 위를 걸어보고 싶었다. 참람긴기도 할것처럼 그 앞에 우뚝 멈춰서서 하연없이 들었다 보다가 눈앞이 어지러워 몇걸음 물러서서 잔디위에 쓰러질듯 주저앉아버렸다. 그렇게 앉아서 한나루 저쪽에 풀한길물무이 따지도루 바라보았으나, 한가죽인듯한 몇사람이 걸어들면, 동창생들이라곤 그럴자도 볼 수 없었다.

이마 아래서 간에 급한 편지를 쓰고, 친정에 다녀왔고, 오후엔 서문집에 손님올 초대할 일을 생각하니 오늘날이야말로 나의 신통(진장)으로선 갈망하기 어려운 일들이다. 그 전날의 피로와 그 다음날에 있을 여러가지 일들이, 한때 걸저 나의 기다리는 심정에 더욱 부채질을 했다. 그렇게 자꾸 시간이 흘렀다. 청명한 가을날씨가 주위를 더 한산하고 공허하게 느끼게 한다. 그렇게 된다는 사이에 시계는 열두시 반을 가리킨다. 나는 잔디밭에서 일어섰다. 그 순간, 내시야는 가을가을이 두어오는저 싶었다. 그 장소가 아름다운 곳이고, 이아나라 황량한 벌판에 혼자 서 있는 듯한 의로움이라기 보다 무서움이 엄습해오는 것이었다. (분명히 여기였었다……)

나는 원없이 걸으니 나오면서 속이 보루 충만해졌다. 『이상한데요! 아무두 안오시는걸 보니 장소를 이기신 모양이네요!』 자전거를 타고 오면 수위의 말을 들자 나의 불안과 초조는 공포로 변하는 것이었다. (내가 몰았나봐,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분명히 장소가 틀린 모양이다. 다시 전화로 어디 연락할 생각도 떠오르지 않는다. 여기 경희부가 아니면, 더 수궁일가——하고 잠깐 그런 생각이 스쳤으나 그렇다고 지기까지 찾아가 볼 기력도 없다.

동창회고 뒤고 다만 짐으로 돌아가고만 싶었다. 옛스승 몇분을 모시기로 하고, 내가 꼭 나가기로 했던 그런 약속마저 지금은 생각할 수가 없었다. 눈앞이 그렇게 물들어 온다. 검은 휘장같은 것이 앞을 막는다. 나는 수위실 앞 그들의 자취에 걸터앉아서 (어떻게 짐으로 돌아갈까? 어떻게……) 수위에게 전화를 부탁하려고 일어서는데 몸이 휘저거린다. 도루 앉아 원기증이 잘았기를 기다려 수화기를 들었으나 교환수가 없었다. 행진에 나와서 차로 달려가면서도 나는 성한 몸으로 집을 찾아 갈것 같지 않은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다.

아무도 나를 불려서 줄 사람이 없는 것 같았다. 길을 걷는 사람마다 저렇게들 멀정한데, 난 왜 이럴까? 나란 어떤 의로운 심에 홀로 떨어진 듯한 공허감 때문에 전신에 오한을 느꼈다. 『어디로 가십니까?』

나는 아직 운전수에게 방향조차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참을 달리다가 차에서 내린 곳은 집과는 엉뚱한 방향이었는데, 마침 서문집 방면으로 가는 합승이 눈앞에 와 닿았다. 무조건 타고 종점에 내려서 어떻게 찾아갔는지 술까비로 불변 방에서 정신없이 자고나니, 그때에야 겨우 앞이 보였다. 손님들도 다 나가시고, 내 머릿말에는 찬 불명이 놓여 있었다. 그이를 낚 새별일적 동창회장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나는 힘없이 수화기를 들었다.

『종보(宗廟)에 모기가 두 있었는데 경희부에 가시다니……』 나는 그때에야 겨우 몸속의 일처럼 경희부는 작년에 모였던 장소요, 올해는 종보에서 모인다고 했던것을 어쩔뻔이 상(想)했다. 나는 지리한 변명도 하기 싫었다.

『단순한 사람에게 하루에 몇가지 일이 겹쳤으니 몰았었나봐』 하고 웃어버렸지만 앞으로도 이런 종류의 일을 수없이 거듭하거나 앓을까 하는 불안감은 어쩔 수 없는 노릇이다.

나열이 한일무일 발부리에 걸리면 나는 무심히 웃어보고 빌가 그 공백을 메꾸고 싶어진다. 무슨 이야기냐.

아무것도 생각해 볼 수가 없다. 차라리 침묵의 낙서를 하고 묵묵히 걸자. 건담장은 이제면, 내 인생의 나열인지도 모를 일이다.

附錄

國民投票에 관한 解説

법령정부에서 마련한 새 헌법의 최종 결정권을 국민 투표에 의하여 확정토록 하기 위하여 국가재  
정 비상조치법 제九조 제 一항 단서 제 二항 제 三항에 의하여 국민 투표를 제정 공포하였다.  
따라서 새로이 마련되는 헌법은 국가재정고회의의 결정에 거처후 국민투표에 붙여지며 유권자  
過半數의 투표와 투표자 過半數의 찬성으로 대통령이 이를 즉시 공포함으로써 헌법은 확정되는 것  
이다.

十一章 九十二조와 附則으로 구성된 등법은 제 一장 總則에서 본법의 목적 등의 뜻을 규정하고 제  
二장 투표권과 제 三장 국민투표에 관한 區域 제 四장 투표인명부 제 五장 각급 국민투표 관리위원회  
의 구성 제 六장 투표일과 투표방법 등 제 七장 개표에서는 개표소 개표방법 투표투표 등을 규정하고  
제 八장 확정에서는 투표수 집계 및可否의 宣布와 통고를 제 九장 訴訟에서는 국민투표 투표의 訴訟  
및 재투표 등을 제 十장 罰則 제 十一장 補則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금번 실시되는 국민투표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실시된다는 점에 있어서 그 의의는 자못 큰  
바 있다.

一、國民投票法

1. 投票權

만 二十세 이상의 국민은 누구나 투표권이 있으나  
만 드시 투표인 명부에 登載된 者만이 투표인이 될 수  
있으며 투표권자의 연령은 본법 공표일 현재로 算定  
된다.

그리고 前記의 투표권이 있는 자라 할지라도 禁治  
產者 또는 限定治產者 宣告를 받은 者 禁錮 以上의 刑  
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자 또는 집  
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者나 法院의 판  
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者는 투표권이 없다.

二、國民投票의 單位 與 投票區와 開票區

國民投票은 전국을 단위로 하여 行하여지며 투표  
구는 區·市·邑·面에 두되 區·市의 洞과 邑面의  
區域으로 하고 洞은 邑의 洞을 합하여 二以上の  
투표구를 두거나 二個 이상의 洞을 합하여 一투표구  
를 설치할 수 있으며 투표일로부터 十五일 이내의

설치공고한다. 이와같은 결정은 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가 행한다. 개표구는 區·市·郡으로 하고 인구  
三十만 이상의 市에서는 二개 이상의 개표구를 둘 수  
있으며 도지사는 본법 공표일로부터 十日 이내에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三、投票人名簿

區·市·邑·面의 長은 투표구역내에 주소를 가진  
투표권자를 본법 공표일로부터 三十일 이내에 투표  
인 명부를 작성하고 명부 열람은 작성된 翌日부터  
十日간 區市邑面 사무소나 지정 장소에서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다. 그리고 열람 시간은 공휴일을 불구  
하고 매일 상오 九시부터 하오 五시까지이다.  
투표인 명부에 脫漏 또는 誤記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열람기간내에 구시 읍면의 長에게 서면으로  
異議를 신청할 수 있으며 異議를 받으면 五日이  
내에 심사 결정하여야 되고 신청이 正當하면 즉시  
투표인 명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신청된 異議에 대한 결정에 불복할 경우는 통지를  
받은 후 五日 이내에 해당 국민투표 개표구 관리위원  
회에 제심을 청구하여 그 결정에 따른다.

四、國民投票 管理委員會의 構成

국민투표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중앙국민투표  
관리위원회 서울특별시와 도 국민투표 관리위원회 개  
표구 국민투표 관리위원회 투표구 국민투표 관리위원회를  
두고 각급 국민투표 관리위원회는 본법 공표일로  
부터 三十일 이내에 구성하여야 한다.

1. 中央國民投票管理委員會는 大法院判事 三인 判  
호자 二인 敎育자 一인 언론인 一인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회인 二인 제 九條으로 구성되며

2. 서울특별시와 도 국민투표 관리위원회는 법관  
三인 判호자 一인 敎育자 一인 언론인 一인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 一인 제 七條으로 구성되며

3. 개표구 국민투표 관리위원회와 투표구 국민투  
표 관리위원회는 학식과 덕망이 있고 자각 그 구역  
내에 거주하는 투표권자 중에서 개표구 국민투표 관  
리위원회는 七인 투표구 국민투표 관리위원회는 五  
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단 법관과 敎育공무원인 이외의 공무원은 각급 국  
민투표 관리위원회의 위원에 될수 없다. 관리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특이한 것은 과거의 선전위원회의의  
위원은 대부분이 정당인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黨  
利黨略으로 인한 정당간의 의견의 대립으로 공정한  
운영을 기할수 없었으나 금번 구성되는 관리위원회  
는 법관을 위시한 判호자 敎育자 언론인 일반사회인  
으로 구성되므로 정부로부터의 중립성과 운영의 공  
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五、投票 方法

일인 일표로 표기 방법에 의한 투표로 하고 투표  
인의 성명을 표시하지 못한다. 투표인은 본인인 투  
표소에 가서 투표인 명부와 대조하여 투표인 본인인  
을 확인 받은후 투표구 국민투표 관리위원회 앞의 서  
투표인 명부에 捺印 또는 捺印하고 투표용지 일부를  
받는다. 투표인은 투표용지에 표시되어 있는 찬성과  
반대의 兩欄中 자기가 선택하고자 하는 곳에 〇의  
표를 한후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그리고 투표인의  
투표용지를 汚損한 때에는 용지를 재교부하지 아니

하루 명인 기타 신체의 불구로 인하여 자신이 표를 할 수 없는 투표인은 자기가 선택한 자 일인을 동반하여 투표권을 원조하게 할 수 있다.

### 六、投票 時間

투표소는 아침 7시에 열고 오후 5시에 닫는다. 다만 잠깐 때에 투표소에서 대기하고 있는 투표인은 투표하게 된다.

### 七、投票所의 出入制限

투표인 투표구 국민투표 관리위원회 및 그 상급 국민투표 관리위원회 위원 및 직원 기타 법에서 허용된 자 이외에는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 八、投票의 秘密保障

투표인은 투표에 관하여 누구에게도 진술할 의무가 없으며 기밀이라도 이를 진문하거나 그 진술을 요구할 수 없다.

### 九、開票 方法

개표사무는 투표구 국민투표 관리위원회가 행하며 개표는 투표구 국민투표 관리위원회로부터 투표한 이 전부터 착된 후진 투표를 혼합하여 행한다. 단 교동기만不得已한 사정으로 일부 투표함 도착이 늦어지면 전 투표함의 3분의 2 이상 도착했을 때 개표를 개시할 수 있다. 늦게 도착한 투표함은 그를 포함하여 5개 이상의 투표함을 혼합하여 개표한다.

### 十、開票 觀覽

일반인은 지정된 장소에서 개표를 관람할 수 있다. 단 질서유지상 필요할 때는 관람을 방해할 수 있다.

### 十一、開票所의 出入制限

개표구 국민투표 관리위원회 및 그 상급 국민투표

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 개표 관람인 기타 본법에서 허용된 자 이외에는 개표소에 들어가지 못한다.

### 十二、無効 投票

다음의 경우는 무효투표가 된다.  
1. 정규의 투표 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찬성 반대 어느 쪽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찬성 반대 모두 표를 한 것.  
4. 찬성 반대 어느 쪽에 표를 한 것인 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 표 이외의 사항을 기재한 것.

### 十三、開票結果 公表 與 確定

개표구 투표관리 위원회는 개표 결과물 즉시 공표하는 동시에 서울특별시 또는 도관리 위원회에 개표 결과를 첨부하여 보고하고 서울특별시 도 관리위원회는 집계 결과물 즉시 공표하는 동시에 중앙 국민투표 관리위원회는 투표 총수를 집계하여 즉시 그 결과물 공표하고 이를 국가재정회고회의에서 보고하며 의장은 국가재정회고회의에서 가결 또는 부결의 심포를 하고 즉시 이를 대통령에게 통고한다.

### 十四、國民投票無効訴訟 與 再投票

국민투표 효력에 의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일 5일 전 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 국민투표 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투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提訴할 수 있다. 대법원은 국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국민투표의 전부 또는 일부 무효를 판결한다. 무효 판결이 있을 경우에서는 재투표를 하여야 한다. 재투표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행하도록 투표일 1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무효인 경우에도 다시 투표를 하지 아니하고 국민투표의 결과를 결정할 수 있을 때에는 중앙투표 관리위원회가 이를 결정한다.

정한다.

### 十五、罰 則

법칙 규정은 의법주의를 태화여 공명투표를 보장토록 하였으며 엄의 종류도 광범한바 즉 1. 투표인 명부 詐偽登載 詐偽捺印 및 詐偽署名의 죄 등 2. 매수(買收) 및 利害誘導罪 3. 투표의 자유 방해죄 4. 職權濫用에 의한 투표의 자유 방해죄 5. 투표의 비밀누설죄 6. 투표 개표의 간섭죄 7. 투표함에 관한 죄 8. 국민투표 사무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 9. 竊入罪 10. 詐僞 투표죄 11. 투표위조 또는 增減罪等이며 죄의 시효는 국민투표후 6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단 법인이 도의하였을 때는 그 기간을 일년으로 한다.

### 十六、國民投票管理委員會의 解散

국민투표에 관한 업무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내각수반은 각급 국민투표 관리위원회를 해산하며 그 보존하는 서류와 재산은 중앙 국민투표 관리위원회는 내무부장관에게 서울특별시와 도 국민투표 관리위원회의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각각 인계한다.

## 二、國民投票의 意義

국민투표란 代議制국가에 있어서 국민들의 의적으로 중요한 국가의 사결정에 직접 참가시키는 방법으로서 투표권이 계약 또는 영토의 변경을 가져올 국가안정에 관한 중대 사항과 헌법개정의 提議승인권을 국민에게 부여하여 그 행사를 투표로써 하는 제도이다.

선거제도가 간접 민주정치제인 때 反하여 국민투표제도는 직접 민주정치제이다. 국민투표는 이른바 보편이러한 제도가 더욱 이상적이라 할 수 있으나 이것은 지역적, 成員數的, 시간적, 경비적 또는 생업적 관계로 자방의 最末端

位에서 어느정도 시행될 수 있으나 중앙정부로서는 도저히 실시할 수 없으므로 不得已 代議制度를 택하게 되었다. 그러나 의회제도 따라서 여론정치 내지 정당정치가 독선적인 독재정치보다 타협적,合法的, 공개적, 자유비판적인 장점을 많이 가진 민의의 구현방식이면서 도 최근 의회의 부패 및 공무원의 질적 불향상은 의회정치 그 자체의 위기를 초래함에 이르러 이를 구제기 위하여 국민이 국가를 조직하여 통치권을 부여한 정부 특유의 의회의 결함을 시정하고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케 되었다.

이와같이 오늘날의 의회 제도에는 직접 민주정치제도 곧 국민투표 제도가 가미되어야 할 근거가 항상 내재하고 있으므로 우리 국민투표 제도는今日の 간접민주정치 곧 의회정치를 보충하여 국민주권주의를 가급적 철저하게 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점에 그의 의가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종래 헌법에도 국민투표에 관한 규정이 없기는 하였으나 헌법도 실시한 바 없었고 그 절차법 조차 마련된 바 없었다.

이나라 사회의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기 위하여 참신한 혁명파임을 과감히 추진하고 있는 혁명정부에서는 만신전장이 된 구 헌법을 개정하고 새로운 헌법을 마련하여 이를 국민의 총의에 불어 확정키로 하였다. 국가비상 조치법에 의하여 국회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최고회의가 스스로 이를결의 확정할 수도 있는 것이나 군정이 헌법의 절차에 따른 국민의 선지권의 행사로서 수립된 것이 아닌만큼 국가의 기본법을 확립함에 있어서 국민투표를 통하여 국민의 주권 행사의 절차를 밟는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천명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으며, 동시에 우리 국민이 이 제도를 실시하는 최초의 국민투표임을 생각할 때 그의 의는 자못 중대할 바 있으며 국민의 적극적 참여가 기대된다.

### 三、國民投票의 種類

국민투표는 일반적으로 국민표결, 국민발안, 국민소환, 국민거부, 국민선임의 五개 형태로 나눌 수 있

다.

즉 국민표결이라 함은 의회의 의결을 거쳤으나 아직 국가의 사로서 효력을 발생치 않는 국가의사를 국민의 투표에 의해 국가의 사로서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국민투표의 한 형식으로서 투표사항을 표준으로 누르면 헌법에 대한 국민표결, 법의 개정(改定)에 대한 국민표결 및 의회 해산 등 기타 사항에 관한 국민표결로 세분된다.

우리나라에서 실시되는 국민투표는 이에 해당하는 것이다.

국민 발안이라 함은 국가의사의 성립에 있어 국민에게 발안권을 인정하고 그 발안은 국민투표에 부치는 형식이다.

이를 입법에 달한 국민발안이라 하는데 美國 각주의 예를 들면 발안이 있을 때 이를 일단 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에 국민투표에 부치거나 그렇지 않고 직접 국민투표에 부쳐 결정하는 간접발안과 직접발안의 두 경우가 있다.

국민소환이라 함은 국민선임과는 반대로 일단 선임한 공무원의 무효이나 공약위배등이유로 그 임기만료전의 국민투표에 의하여 이를 해임하는 제도로서 이로써 비로소 선임자에 대한 유권자의 조종권이 법적으로 확립된다 할 것이다.

국민거부라 함은 국가의사가 중요하게 성립 공포된 후 일정기간 동안에 일수의 국민의 그 국가의사로 성립된 것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시하였을 때 그 국민은 다시 국민의 투표에 불어져 存廢與否를 결정케 하는 국민투표의 한 형식이다.

국민선임이라 함은 국가의 공무원을 국민의 선거에 의하여 직접 선임을 말하는데 국회의원 선거도 이에 해당하기는 하나 그것만은 제외하고 보통 대동령 선거를 말한다.

### 四、國民投票制의 民主主義的 利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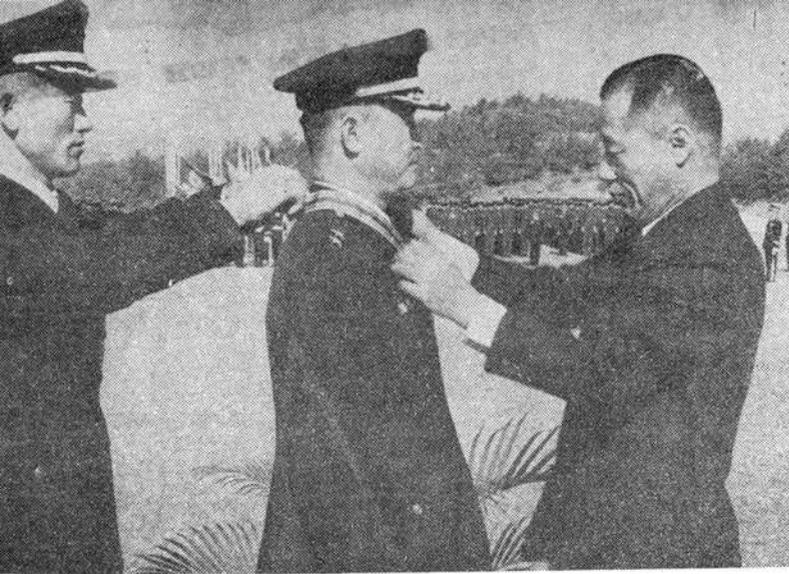
이것은 국민의 자치라는 점으로 보아 당연히 요구

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현대 민주제국에서 는 거의 다 이에 가까운 제도를 채용하고 있다. 민주정치의 본질과 대의정치의 필요성을 따져 그때의 정치의 결함을 보충하고 민주정치의 본질을 발휘하기 위하여 구해 필요한 제도라 할 것이다. 民度가 알다든가 국민의 정치적 훈련이 부족함으로 시가상조라는 論도 있지만은 자치에는 교양과 훈련이 필요하다. 개별적으로 따져 본다면 국민표결은 국회의 정술한 행정으로 감시 수정하는데 필요하며 국민발안은 국회판공주의를 견제하는데 필요하다. 이것은 黨略私利에 악용될 염려가 있고 입법에 경험 적은 일반민의 법안이란 좋은 법이 되기 어렵다 하나 민간에서 만든지 무는 자만 없이 지식과 경험있는 유능한 인사가 없다는 결점은 타당치 않으며 국민소환은 선임 공무원의 직무태만을 방지하고 민의와 정치를 법적으로 연락시키는 등의 민주주의의 利點이 있다.

일부에서 시기상조라 하지 않는 국가의 중요 조칙의 변경(例하면 개헌과 같은 것에 한해서라도 국민총의의 심판의 견을 얻어 놓을 필요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대의정치 옹호론자는 국민의 직접투표보다 대의 제도가 간편하다는 점의 국인의 직접투표보다 불가능하다는 점의 국민총의 책임감을 弛緩시킨다는 점, 국민의 교양 수준이 높아야 한다는 것 등을 이 제도의 단점으로 하고 있는데 국민투표 제도에 이러한 不美한 면도 없지는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민주정치란 전방적 근본적 정치기구의 약점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소극면만을 강조한다면 결국 민주정치는 愚民정치라고 규정되고 지도자 원리에 입각한 나치스적 정치로 실시하거나 군주주의 체제를 사인할 것이다. 동시에 민주정치의 단점들이야 할 것이다. 그러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이념 내지 국민주권주의의 본질은 아닐 것이다. 민주정치의 이념은 국민투표가 그 본질에則하여 올바르게 행하여지고 민의가 요구하는 율바를 법률로 만들어 내는 데 있다. 모든 권력을 민의에 연결시키는 데 있고 遊離됨을 忌避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제도는 몇가지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 이유가 뚜렷하다. 더구나 이러한 단점은 정당의 부정, 계몽의 강박 등의 근본적 재운 비롯하여 입법 기술로서 선명히 구별될 수 있는 것이므로 민주제국은 자국에 상응하여 상응하도록 연구조절 하여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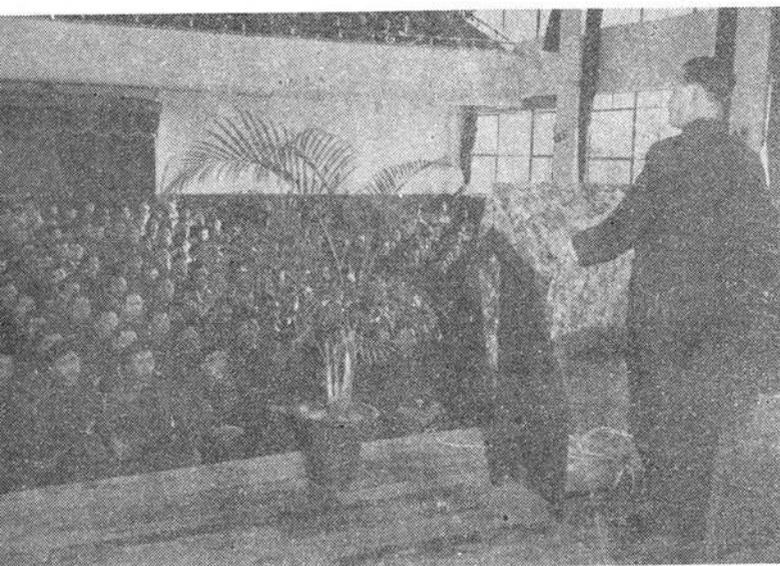


### 申尙澈少將 轉役

제임중 많은 공적을 남긴 진 국방부 정훈국장 申尙澈少將의 전역식이 지난 10월 18일 추국방부차관을 비롯하여 장성한 함모총장과 여러 내의 귀빈, 그리고 본부전장병이 참석한 가운데 본부광장에서 거행되었다. 申장군은 駐월남大使로 任命發令되었다.

#### 사진설명

추국방부차관으로부터 군무 3등급 포훈장을 수여받는 신장군.



### 柳達永선생 강연회 성황

재건국민운동본부장 유달영선생의 강연회가 지난 10월 25일 본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연제는 「국가재건과 인간혁명」



### 空軍軍樂隊

#### 巡廻演奏會 성황

국민위안 및 항공사상 양양을 위한 전국 순회 공군군악연주회가 지난 10월 15일부터 15일만에 걸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인천, 수원, 춘천, 청주, 군산 등지에서 시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진행되었다.



**미사일**

제 19 호

공군본부 정훈감실 발행